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고 재 판 소

미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문헌

국 립 출 판 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 고 재 판 소

미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문헌

국 립 출 판 사

목 차

피소자 박헌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미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 행위 사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결 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특별 재판 성원을 구성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피소자 박 헌영의 조국 반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특별 재판 성원을 다음 동지들로써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재판장 최 용 건
김 익 선
림 해

방 학 세
조 성 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 원 장 김 두 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서 기 장 강 량 욱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四일

평 양 시

一、기 소 장

피심자 박 헌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 행위 사건

조선 인민은 다년간 제국주의 일본에 강점되여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였다。 이 비참한 노예의 쇠사슬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피의 댓가로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에 완전히 제거되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들에게는 자기의 창조적 로력으로써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상륙시킨 미 제국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시킬 데 대한 국제 공약을 란포하게 유린하고 조선의 영원한 분렬을 꾀하여 왔으며 남조선에 팟쇼적 리 승만 반동 통치 기구를 조작하고 남조선 민주 력량을 탄압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하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내부로부터 파괴 전복하려는 정탐 활동을 계속 감행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들의 정탐 기관과 련계를 맺고 있는 박 헌영을 간첩들의 두목으로 내세웠다。

자기를 『근로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이며 『애국자』로 가장한 박 헌영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잠입하여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및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의 직위를 차지하였다。

당과 인민을 기만하고 높은 직위를 차지한 박 헌영은 당 및 국가의 중요 기밀을 적 정탐 기관에 직접 수집 제공하며 미제의 정탐 기관에서 파송된 간첩 파괴 분자들을 당과 정권 기관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의 정탐 활동을 지도하여 왔다。

간첩 두목 박 헌영은 八·一五 해방 후 남조선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 진출을 억제 분산시키는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에 대한 파괴 약화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에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복종하는 지주、자본가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화국 정권 전복을 기도하여 왔다。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미제의 침략자들을 위하여 박 헌영이 감행한 반국가적 간첩 행위、남조선 민주 력량에 대한 파괴 약화 행위、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행위들은 본건 예심에 의하여 판명되였다。

一、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감행한 간첩 행위

예심에서 판명된 바에 의하면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리 승엽、조 일명、리 강국、림 화、박 승원、조 용복、설 정식、맹 종호、안 영달、서 득은 등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들은 벌써 八·一五 해방 전과 혹은 직후부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미 제국주의의 정탐부의 추악한 간첩으로

종사하였다。

이들 반국가적 간첩 도당의 두목 박 헌영은 조선 근로 인민의 자유와 권익을 반대하여 반혁명적 범죄 활동의 길에 나선지는 이미 오래 전 일이였다。

一九二五년 지하에 있던 조선 공산당과 공청의 일부 조직이 탄로됨에 따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 헌영은 비겁하게도 공청 비서로서 자기가 알고 있던 공산당과 공청에 망라된 지도적 간부들을 일본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일본 경찰로 하여금 아직 지하에 남아 있던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투옥할 수 있게 하였다。

배신자로서 경찰에 투항한 박 헌영은 자기의 정치적 동지들을 일본 경찰에 밀고한 『공로』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법정이 그보다 책임이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각각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량한 건강 상태와 정신적 착란』이라는 구실로써 일제가 조작한 병보석에 의하여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기록 五권 一六七—一七三페지)。

이때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량심을 잃어버린 비렬한 기회주의자로 타락한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 九월 재차 일본 관헌들에게 자기의 사상 전향을 표명하고 로골적으로 인민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섰다(기록 五권 一八一—一八二페지)。

이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씻을 수 없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 박 헌영은 그로부터 열마 후인 一九三九년 一〇월에는 당시 서울 연희 전문학교 교장이였으며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 정탐 기관의 로련한 탐정인 언더우드와 련계를 맺고 미국의 고용 간첩으로 전락되였다。

박 헌영은 자기가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三九년 一〇월 서울 종로 三정목에 있었던 료리점 백합원에서 미국 탐정 기관의 성원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로부터 미국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을 응락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가 미국의 로련한 정탐꾼 언더우드와 친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一九一九년 서울에서 친미 분자 차미리사가 주간하던 녀성 잡지 「녀자 시론」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당시 서울 연희 전문학교 교수(그후 교장)였으며 미국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친교하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五권 五九—六〇페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한 간첩 두목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 一二월 애국자로 가장하고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로동 운동 내부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조선 인민들의 사상 동태를 알아 달라는 언더우드의 지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간첩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미국 탐정 기관의 정탐 분자로 활동할 것을 승인한 나는 一九三九년 一二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로동 운동 내부에서 자기의 반동적 진지를 공고히 하고 지도적 직위를 탈취하라는 명령과 함께 간첩 재료를 수집 련락할 데 대한 지령을 받았습니다……』(기록 一권 二九〇—二九一페지)。

이 지령 실천을 위하여 간첩 박 헌영은 상기 언더우드와 긴밀한 련계를 취하면서 애국자로 가장하고 파벌적 조직인 『서울 콤크룹』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장차 자기 활동의 지반으로 만들려고 기도하였으나 一九四一년 一二월 일미간에 침략 전쟁이 발발되고 일제 경찰의 탄압이 혹심하여짐에 따라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은신 생활을 하였다。

간첩 박 헌영은 八·一五 해방전 자기를 가장 열렬한 혁명가로 교묘히 가장함으로써 어데까지나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충실하기 위한 앞날의 자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제의 패망 전야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국내에서 빨찌산 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날조하는 등으로 자기의 변절적 행위를 가장 음폐하기 위한 교활한 활동까지 감행하였다(기록 一권 二九二—二九四페지)。

인민을 기만하고 『진정한 애국자』로 가장할 수 있었던 간첩 박 헌영은 八·一五 해방 직후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의 직위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되였다。

자기의 범죄적 정체를 일시적으로 음폐할 수 있게 된 박 헌영은 일제 대신 남반부에 자기의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게 됨에 따라 즉시 간첩 파괴 암해 활동에 나섰다。

그는 一九四五년 九월 말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가 남반부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협력을 요구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 간첩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로출하였다。

간첩 박 헌영은 이때 하지에게 미국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앞으로 공산당을 미 군정의 정책에 적극 순응시키며 미 군정의 포고 및 제반 법규의 준수 집행에 충실하도록 인도할 것을 밀약하였다(기록 一권 二二〇—二二一페지)。

그후 一九四五년 一一월 초순에는 서울 반도호텔에서 재차 하지와의 비밀 회견을 통하여 이미 자기와 간첩 련결을 맺았던 언더우도로부터 하지에게 정식 인계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五년 一一월 초순에 나는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를 서울 반도호텔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하지와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나하고 간첩 련계를 맺고 있던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지와 언더우드는 나를 반가이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자기의 사령관인 하지에게 향하여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一九三九년 一〇월부터 알게 되였는데 그때에 이미 친미적으로 나아가겠다고 언약한 바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때 하지도 나에게 대하여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활동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석상에서 정식으로 하지의 간첩으로 될 것을 약속하고난 다음 하지에게서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하지는 나에게 앞으로 「당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남조선 공산당 내에서 지위를 튼튼히 하기에 노력할 것이며 북조선 지역 공산당 조직 내부에 당신의 세력을 적극 부식시킬 것、공산당 내에서의 일체 활동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전에 알려줄 것이며 공산당 내에서 호상 분렬 사상을 조성시킬 것、우리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공산당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협적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며 친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조선 사람은 일본 시대에 비합법적 투쟁과 폭동 파업 등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분쟁을 많이 일으켰는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는 나에게 앞으로 자기는 나와 더 만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하기에 나도 좋다고 대답하고 나의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비밀에 붙여 주기 바란다고 제의하니 그는 그에 대하여서는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 회견은 한 시간 이상 계속되였으며 통역은 언더우드가 직접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三〇三—三〇五 페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간첩으로 전락된 박 헌영은 남조선 공산당 내에서 차지한 높은 직위를 리용하여 공산당의 전투적 력량을 약화시켜 남반부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민주 운동을 말살시키려는 미 군정의 정책에 호응하여 조직적이며 계통적인 간첩 및 파괴 활동을 감행하였다。

즉 一九四六년 二월 초순 박 헌영은 서울 반도호텔에서 하지와 비밀리에 만나 남조선 공산당 중앙 및 지방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체계와 그의 활동 정형、당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 단체 조직과 간부 명단 및 민전 정책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계속하여 一九四六년 三월과 동년 五월 二차에 걸쳐 하지에게 남조선 공산당 장성 정형 및 쏘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남조선 공산당의 태도와 협의 대상 문제에 대한 중요 자료들을 제공하였다(기록 一권 一七〇—一七二 및 五권 六二페지)。

이와 같이 미국 정탐 기관에 당의 비밀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방 一九四六년 三월에는 반도호텔에서 하지로부터 이미 一九五三년 八월 미제 간첩으로 재판받은 당 중앙위원회 전 비서이며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이였던 리 승엽과 문화 선전성 전 부상이였던 조 일명에 대하여 당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 활동을 지도할 데 대한 지령을 받았다。

미군 사령관 하지로부터 리 승엽과 조 일명의 간첩 활동을 보장할 데 대한 지시를 받은 박 헌영은 리 승엽을 남조선 공산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남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당의 중요 사업 『우익 정당 푸락치야』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조 일명은 당 기관지인 해방 일보사 주필로 등용하였다(기록 一권 二二六—二二八페지)。

이에 대하여 이미 리 승엽과 같이 一九五三년 八월에 재판받은 미제의 간첩 조 일명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四六년 二월 초순 미 군정 경찰에 피검되여 미군 헌병 대위 죤손에게 미국 간첩으로 서약하고 석방된 후 그의 지시에 의하여 동월 하순경부터는 나와 같이 체포됨으로써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의 정치 고문인 미 륙군 장교 빼취에게 미국 간첩으로 서약하고 석방된 리 승엽과 련계를 가지고 미국 탐정 기관이 지시하는 간첩 행위를 수행함에 직접 나와 리 승엽은 박 헌영의 추천으로 당내 중요한 직위에 배치되여 있으면서 그의 지도하에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一九四七년 九월까지 기간에만 하여도 六차에 걸쳐 당 내부 기밀에 대한 중요한 재료들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록 四권 二九九—三〇〇페지).

간첩 두목 박 헌영의 간첩 암해 활동은 남조선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였다.

그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간첩 파괴 암해 행위를 계속할 데 대한 하지의 지령을 받고 미국 탐정 기관에 의하여 교묘히 조작된 소위 체포령으로써 자체를 애국자로 가장하고 一九四六년 一〇월에 월북 잠입하였다.

박 헌영은 자기가 받은 하지의 월북 지령과 그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六년 九월 五일 나는 하지로부터 자기에게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즉시 서울 반도호텔에 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는 자기의 통역 리 묘묵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남조선에서 남조선 공산당은 미 군정의 실시에 크게 방해되므로 탄압하고 그 지도 간부들을 검거하여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 기회에 북조선에 월북하여 공작을 계속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지는 나에게 월북하여서는 북조선 로동당과 북조선의 정권 기관을 틀어쥐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나는 그 지시를 전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하지 사령관은 또 한가지 과업으로서 나의 월북과 전후하여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사무국장인 리 강국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어 파견할 터인데 북조선에 가면 이 사람을 북조선 로동당이나 북조선 정권 기관의 중요한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비밀 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면서 하지는 계속하여 리 강국은 미군 사령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뒤를 잘 받들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리 강국에 대한 하지의 지시를 접수하면서 하지에게 나에 대한 비밀을 리 강국이가 안다면 사업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절대 리 강국에게 나의 정체를 알리지 말도록 하여달라고 제의하였더니 하지는 미소를 띄우면서 당신에 대한 비밀은 누구에게도 절대 알릴 수 없는 것만큼 이 점에 대하여서는 안심하고 자기 자신과 미국을 위하여 열렬히 활동하라고 하면서 나의 성과에 대하여 축복한다고 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二二八—二三〇페지).

이와 같이 간첩 박 헌영은 하지의 지시를 명심하고 미국 정탐 기관의 앞잡이로서 그에 충성을 다 하기 위하여 一九四六년 一〇월 초순경에 그를 월북시키기 위하여 미 군정이 허위 조작한 소위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애국자로 가장하고 당시 서울 시당 조직부장으로 있던 서 득은을 길안내자로서 강원도 홍천을 경유하여 월북 잠입하였던 것이다(기록 一권 二三〇페지).

하지가 조작한 체포령의 진상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와 하지간에 진행된 一九四六년 九월 五일 밀담에서 하지는 나에게 월북할 데 대한 지령을 준 후 나의 입북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와 리 강국을 비롯한 一〇여명의 민전 지도자들과 당 간부들에게 체포령을 내리겠으니 이를 피신하여 월북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면서 하지는 나에게 미 군정이 당신의 체포령 날조를 자연스럽게 하

기 위하여 체포령 날조의 구실이 되게끔 미 군정의 정책을 반대 항의하는 성명서를 작성 발표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지의 이 교묘한 방책을 찬동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하여 그후 나는 리 강국을 시켜 그로 하여금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의 명의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五〇〇만 딸라 강제 차관을 반대 항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케 하여 그에 대한 미 군정의 「보복 수단」으로 나와 리 강국을 비롯한 당 지도 간부들에게 체포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기록 五권 六三—六四페지)。

이에 대하여서는 미 군정으로 하여금 박 헌영 등에 대한 체포령 날조의 구실로 되게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제 차관을 반대 성명함에 박 헌영과 같이 참가 작성한 미제의 고용 간첩 리 강국과 조 일명의 진술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증되였는바 즉 이들은 각각 신문에서 진술하기를 『……이러한 모략적 체포령 날조를 자연스럽게 가장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성명서 초안을 작성 완료한 후 처음에는 당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허 헌 의장에게 성명서에 수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전 산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합의도 없이 수표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게 됨으로써 할 수 없이 박 헌영과 토의밑에 당시 남조선 민전 사무국장인 리 강국이가 성명서에 수표하여 민전 명의로 발표하게 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기록 二권 三一七—三二二페지)。

하지가 조작한 체포령에 대하여 당시 미 군정청 경무부 차장으로서 이미 체포된 최 경진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미 군정의 박 헌영 등에 대한 체포령은 이들을 진실로 체포하자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는 형식으로 경찰 조치를 취하여 三八 이북에 보내자는 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지의 체포령이 내린 후 우리 경무부에서는 아무러한 수사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 경찰청에서 당시 서울 시내 각 구역 경찰서를 동원시켜 시내 요소에 무장 경관을 배치하여 통행자들의 불시 신문과 개인 주택 또는 기관들을 습격하는 형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누구를 잡으려 다닌다는 감촉을 주기 위한 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一九四六년 九월 초순 서울 종로 명월관이란 료리집에서 나는 나의 지도하에 있던 수도 경찰청장인 장 택상 등과 같이 술을 마시였는데 이때 장 택상은 나에게 영어로 쓴 박 헌영 등에 대한 체포장을 보이면서 가만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하지 사령부에 갔다 왔는데 하지 사령관께서 공산당 간부들과 기타 좌익 거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나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을 정말 체포할 것이 아니라 체포하려 다니는 형식으로 三八 이북에 쫓도록 하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체포령이 하지의 정치적 모략이니 이 체포 연극을 잘 꾸며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三권 一九二—一九八페지)。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된 소위 체포령을 구실로 월북에 성공한 박 헌영은 즉시 자기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 실천에 나섰다。

박 헌영은 우선 하지와의 비밀 련락을 위하여 월북 후 곧 자기의 심복자이며 월북 안내자였던 서 득은을 자기의 간첩 활동에 인입하고 그를 一九四六년 一一월 초순 서울에 파견하여 자기가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보고하였다(기록 一권 二三〇—二三一페지)。

박 헌영은 당의 대남 련락선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이를 서울에 남겨 둔 리 승엽과의 간첩 활동 및 기타 범죄적인 련락에 합법적으로 리용하였다。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은 서 득은을 통하여 하지와의 련락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장악한

당의 대남 련락선을 통하여 간첩 리 승엽과의 련계 밑에 미제 정탐 기관에 제공할 간첩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게 계속 보내였다。

즉 一九四七년 二월에는 당시 남로당 대남 련락 책임자이던 김 소목을 통하여 리 승엽에게 간첩 련계를 취할 데 대한 밀서와 함께 북조선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당시 리 승엽에게 보낸 밀서 요지는 나도 역시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을 걸어 월북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당신의 활동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특히 비밀 고수에 주의하면서 그곳에서 수집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내가 보내는 정보 자료들도 전달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나의 밀서를 받은 리 승엽은 다시 월북하는 김 소목의 편에 내가 보내준 경제 자료는 틀림없이 받았다는 것과 이 자료들은 우리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회답 밀서를 보내왔습니다……』(기록 一권 二三二 및 二권 一六一―一六三페지)

박 헌영은 자기의 범죄 공모자인 간첩 리 승엽을 통하여 하지와의 련락선을 완전히 개척하고 一九四七년 四월에는 앞으로 재개될 제二차 쏘 미 공동 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내탐하여 이를 대남 련락선을 통하여 리 승엽에게 전달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八년 六월에는 서 득은을 서울에 직접 파견하여 북조선 로동당의 중요 결정 및 당 내부 기밀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하지에게 전달하였다(기록 一권 二三三페지)。

한편 박 헌영은 하지의 지령대로 一九四七년 二월에는 자기의 월북과 때를 같이하여 미 군정이 조작한 체포령에 의하여 『애국자』로 가장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한 미군 二四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 대좌 빼트의 간첩인 리 강국의 간첩 암해 활동을 용이하게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를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케 하였으며 또한 一九四七년 말까지는 그를 자기의 신변인으로서와 해주 제一 인쇄소 지도 책임을 위임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기들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경제、군사에 관한 기밀 자료들을 탐지 제공케 하였으며 一九四七년 二월과 동년 一二월에는 직접 리 강국에게 자기가 모쓰크바에 갔다 온 중요 국가 기밀 자료들을 제공하여 주는 등 방법으로 간첩 활동을 감행하였다(기록 一권 二三四―二三七페지)。

이에 대하여서는 一九五三년 八월 미제의 간첩으로 재판받은 박 헌영의 공모자 리 강국의 진술에 의하여 더욱 명확히 확증되였다。

그는 신문에서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一九四八년 八월까지의 기간 외무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연 五차에 걸쳐 수집한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경제、군사에 관한 비밀 즉 평양학원에 대한 자료와 강계、개천 등지에 주둔한 인민 군대 및 경비대의 병력 관계와 그의 배치 정형에 대한 자료를 위시하여 평양 주둔 쏘련군 사령부의 내부 실정과 북조선 주둔 쏘련 군대에 대한 중요 기밀 자료와 북조선 인민 위원회 기구 체계、외교 정책 및 그에 관련된 일체 중요 정보 자료、화폐 개혁 실시 정형에 대한 자료、一九四七년도 북조선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一九四八년도 국가 예산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들과 박 헌영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나의 비서로 있던 신 태희를 서울에 파견하여 미군 二四사단 헌병 사령관인 빼트의 애첩 김 수임을 통하여 빼트에게 제공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四九―一五〇페지)。

박 헌영의 간첩 활동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을 전후하여 더 악랄화하여졌으며

보다 교묘하게 음폐된 형태로써 진행되였다。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六월 하지에게 밀서로써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간첩 활동을 더욱 활발히 수행하며 북조선에서의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리 승엽을 월북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하였다。

남조선에 주둔한 미국 정탐 기관에서는 간첩 두목 박 헌영의 제의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八월에 자기들이 장기간 양성 훈련한 간첩 리 승엽을 공화국 북반부에 파송하였다 (기록 一권 二三三페지)。

박 헌영은 리 승엽의 월북과 관련하여 一九四八년 九월부터는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간첩 활동을 감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종전까지 직접 하여 오던 간첩 활동은 리 승엽에게 인계하고 자기의 공모자들에 대한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총지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八년 九월 중순경 평양시 남산리 나의 사택에서 리 승엽과 앞으로의 간첩 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리 승엽으로부터 그가 서울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블을 통하여 하지의 지령을 전달받게 되였는데 그 요지는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나의 존재가 더욱 자기들에게 귀중하게 되였으니 앞으로는 간첩 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 승엽에게 맡기라는 것이였습니다。 미국 정탐 기관이 이러한 지시를 주게 된 리유는 내가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높은 직위에 등용될 것이 예견되였기에 나의 정체에 대한 비밀 보장과 신변에 대하여 더욱 귀중히 하여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시를 받고 나는 종전까지의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신변과 활동의 조건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록 一권 二三五페지)。

그후 박 헌영은 하지가 남조선을 떠나게 됨에 따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인 노블과 련계를 맺고 활동하라는 하지의 지시를 리 승엽을 통하여 전달받고 그와 련계 밑에 자기의 범죄 활동을 계속하였다 (기록 五권 六五—六六페지)。

이에 대하여서는 리 승엽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되였다 (기록 二권 一六五—一六七페지)。

박 헌영은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대로 공화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미국 정탐 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양성 훈련하여 북조선 지역에 파송한 미국 간첩들을 당과 정부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의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면서 그의 범행을 총지휘하였다。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파송된 리 승엽、 조 일명、 서 득은、 리 강국、 안 영달、 림화、 박 승원、 현 애리스、 리 사민 등 미국의 충실한 앞잡이들은 박 헌영의 추천 보증으로 당과 국가의 중요 직위에 잠입하게 되였으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이 보장되였다。

박 헌영의 추천과 보장하에 리 승엽은 공화국 내각 사법상으로 그후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및 비서로 등용되였으며、 조 일명은 남로당 지도부 선전 책임자 및 당 중앙 서기로 그후 문화 선전성 부상으로、 서 득은은 자기의 비서 겸 남로당 지도부 조직 책임자로、 안 영달은 남반부 당 사업 련락 책임으로 공작시켰고 그후 인민 군대에 의한 서울 해방 시기에는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치하였으며、 림 화는 해주 제一 인쇄소 편집 위원을 걸쳐 남조선 문화단체 총련맹 부위원장으로 그 후는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 승원은 해주 제一 인쇄소 책임자와 당 중앙 련락 과장을 걸쳐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후는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부부장으로 등용 배치하였다 (기록 一권 一七八—一七九 동권 二四〇、 五권 六六—六七페지)。

특히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六월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정치적 망명객으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에 와 있던 미국 간첩 현 애리스와 리 사민의 정체를 기만하여 그들을 미국에서 추방당한 진보적 인사로 음페하고 입국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그후 현 애리스를 중앙 통신사 또는 외무성에, 리 사민은 조국 전선의 중요 직위에 배치시켜 주면서 그들의 간첩 활동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八년 六월 서울에 갔다 오는 서 득은의 편을 통하여 하지가 주는 지시를 전달받았는바 그 내용은 현 애리스를 비롯한 몇 사람의 미국 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조선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을 보장하여 주며 입국 후 당 및 정권 기관의 중요 기밀을 수집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후 나는 현 애리스와 그에 따르는 미국 정보원들을 하지의 지령대로 입국시켰습니다 ……』(기록 一권 二三四—二三五페지).

박 헌영의 보장하에 입국한 현 애리스에 대하여 증인 현 효섭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제二차 대전시부터 미국 군대에 종사하였고 八·一五 후는 역시 미군에 배속되여 서울에 와서 미군 씨·씨·아이·지·케라는 시민 우전 검열 기관에서 조선 사람들의 편지와 통신 련락을 검열하는 비밀 사업에 종사하였다 (기록 二九三—二九七페지).

간첩 두목인 박 헌영의 지휘하에 미국 정탐 기관 앞잡이들인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안 영달 등과 박 헌영에 의하여 입국할 수 있었던 간첩 현 애리스 및 리 사민 등 모든 미국 간첩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광범한 간첩망을 설치하고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친 기밀 자료들을 계통적으로 미국 탐정 기관에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박 헌영의 공모자였던 간첩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박 승원, 림 화 등의 증언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증되였다.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 헌영의 지도 보장 밑에 이들이 一九四八년 一一월부터 一九四九년 七월까지에 이르는 기간에만 하여도 연 五차에 걸쳐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한 간첩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즉 一九四八년 一一월에 수집 작성한 공화국 내각 각료들의 리력 문건과 북조선 산업 발전 정형과 농촌 경리 발전 정형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二월에는 북조선 지역에서 쏘련 군대의 철퇴 정형에 대한 군사 정보 자료들과 남북 조선 로동당 련합 중앙 위원회 구성 성원에 대한 자료 및 북조선 인민 경제 부흥 발전에 대한 통계들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四월에는 조선 인민군 병종별 병력수 및 그 주둔 위치 등 중요 군사 기밀 자료들과 사법 기관에서 작성한 一九四八년도 범죄 통계를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五월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의 중요 결정서 三통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七월에는 당 중앙 정치 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 간부들의 리력 문건을 제공하였다 (기록 五권 九七—九九 동권 一二五—一二八페지).

박 헌영의 간첩 활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은밀한 방법에 의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였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공모자들인 리 승엽, 안 영달 등의 반역적 파괴 활동에 의하여 一九五〇년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에서 로동당 조직과 민주 력량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소위 『북벌』 계획에 따라 그들이 발광적으로 획책 준비한 대북 첩보 공작을 열렬히 지원하여 나섰다.

박 헌영의 공모자인 리 승엽은 자기가 박 헌영의 지휘 하에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노불의 지도

를 받으면서 북조선에 대한 군사 첩보 공작을 조직 진행하던 미군 대좌 니콜스와 일제 통치 시기에는 일본 경찰의 요직에 있었으며 八·一五 해방 후는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였던 미국 간첩인 백 형복 및 간첩 분자 안 영달, 조 용복 등과의 련계를 맺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도발을 위한 새로운 간첩 임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동년 四월까지의 기간에 노불의 직접 지도밑에 있던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인 미군 대좌 니콜스와 련계를 가지고 간첩 자료 수집차로 파견되여 온 조 용복을 三차에 걸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나의 사무실에서와 평양 남산리 나의 사택에서 만나 그에게 인민군 항공 부대에 관한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조선 로동당 내부 실정에 관한 비밀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그후 나는 一九五〇년 五월 초순경 노불의 간첩 지령에 의하여 자기들의 정체를 음폐하고 월북 잠입한 백 형복, 안 영달, 조 용복 등을 만나 노불의 계획대로 앞으로의 간첩 활동을 수행할 데 대한 토의를 하였는바 나는 종전과 같이 평양에서 당과 정부의 기밀을 수집하며 안 영달은 새로 조직되는 당 서울 지도부에 침투하여 그 내부 정형을 정상적으로 노불에게 제공하며, 조 용복에게는 내가 안 영달을 경유하여 노불에게 전달하는 간첩 자료의 련락 임무를 위임하였으며, 백 형복은 공화국 내무 기관에 잠입하여 나와의 련계밑에 간첩 자료를 수집시킬 것을 내정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九九—一〇〇페지).

리 승엽의 보호를 받으면서 직접 그와의 간첩 련계를 맺은 경위에 대하여 이미 一九五三년 八월 리 승엽과 같이 재판을 받은 백 형복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미국 탐정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의거 입북한 것으로 가장하고 안 영달, 조 용복 등과 같이 북조선에 들어온 후 안 영달이가 지정하여 준 평양시 서구역 인흥동 아지트에 있을 때인 一九五〇년 五월 하순경에 리 승엽이가 검은 빛 승용 자동차를 타고 나의 숙소에 찾아 왔습니다. 나는 옛 친우를 만나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였는데 리 승엽은 매우 정답게 나의 생활 형편을 물은 후 은근한 목소리로 김 삼룡이가 체포된 경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리 승엽에게 노불 박사가 리 선생을 높이 찬양합디다 라고 전달한즉 그는 얼굴에 약간 웃음을 띄우면서 「아 그래요 앞으로 백 선생도 같이 일 잘 합시다」라고 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一五—一一七페지).

박 헌영은 어데까지나 자기의 가증스러운 정체를 음폐하고 간첩 활동을 계속하려는 목적으로 노불의 간첩 지령에 의하여 의거 입북한 것으로 가장하고 월북한 흉악한 파괴 분자이며 살인귀인 백 형복과 그의 공모자들인 안 영달, 조 용복 등의 신변 보호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四월에 평양 남산리 나의 집에서 안 영달을 통하여 백 형복을 처음 만나게 되였습니다. 백 형복은 안 영달과 같이 미국 탐정 기관의 간첩으로 활동한 자이며 그가 리 승만 경찰에 있으면서 남조선 지하당을 파괴하는 일련의 중요한 활동을 감행하였음을 알고 나는 리 승엽에게 그의 신변상 보호를 맡기여 주었습니다……』(기록 五권 九二—九三페지)

박 헌영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이 개시되자 자기의 반역적인 정체를 더욱 교묘하게 음폐하고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위한 간첩 암해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심리의 결과 박 헌영은 조선 인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서 자기의 총지도하에 있던 미제 간첩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一二월 재 진공 이후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전쟁에서 공화국이 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들인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림 화、 서 득은 등의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높은 직위에 등용하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기록 一권 二四三페지)。

특히 이 중에서도 리 강국에 대하여서는 마지막 시기까지도 성의 부상급 이상에 배치하려고 기도하였다。(기록 一권 二〇一페지)

이와 같이 박 헌영은 공화국 북반부에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망을 설치하고 一九五三년 二월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등 반국가적 간첩 도당들이 적발되는 마지막 시기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 활동을 계속 충실히 감행하였다。

二、 남반부 민주 력량 파괴 약화 행위

본건 예심에서 판명된 바에 의하면 박 헌영은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는 일방 남조선 로동당과 애국적 민주 력량에 대한 파괴 및 테로 학살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 헌영의 이 흉악한 범죄 행위의 목적은 자기의 음모 활동에 방해되는 남반부 당 지도 간부들 및 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살해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성을 표시하며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죄상을 음폐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첫 시기에 그는 직접 또는 자기의 공모자들인 리 승엽 등을 통하여 위선적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탄압을 반대하는 남조선 근로 대중의 애국적 투쟁 기세를 집요하게 억압하였으며 당 조직과 그의 전투력을 파괴 와해시키기 위하여 정직하고 충실한 당 지도 일꾼들을 박해 제거하였으며 적들과의 모험적 및 도발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수많은 애국 인민들과 그의 영웅적 전위들을 도살케 하였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직접적 테로 살해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

박 헌영은 예심에서 자기가 미국 정탐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직접 또는 자기의 공모자들 그리고 리 승만 괴뢰 경찰 및 미국 정탐 기관과의 결탁 밑에 이러한 범죄 활동을 감행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기록 一권 三二〇—三二一、 五권 三四—三五페지)。

남반부에서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하는 박 헌영 등의 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그것은 즉 一九四八년 九월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박 헌영은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한 후 자기와 자기의 공모자들의 범죄 활동 조건과 비밀 보장을 위한 암약을 집요하게 계속하였다。

이러한 결과 一九四九년부터 리 승엽과 안 영달、 서 득은 등은 박 헌영의 조종하에 남반부에서 적들과 투쟁하다가 피난처를 찾아 정당하게 월북하는 지하당 간부들 중 자기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하여 『변절』 『간첩 혐의』 『당 공작의 비밀 루설』 등 날조적 구실을 붙여

三八선에서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학살 만행에 대하여 이미 一九五三년 八월 리 승엽 등과 같이 재판을 받은 맹 종호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九년 여름 내가 남조선 로동당 양양 련락소장으로 였을 당시 서 득은으로부터 남반부에서 당 공작을 하다가 입북한 현 인초 의 二명을 간첩 혐의가 있으니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는 직접 그들을 심사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혐의 사실도 없었으므로 총살을 주저하고 있던 차에 리 승엽으로부터 자기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여 엄격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후 리 승엽은 양양 련락소 지도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비밀리에 살해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三〇페지)

이와 같은 테로 활동에 망라되였던 증인 전 구하도 역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나는 황해도 장풍군 영남 련락소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안 영달의 지시로 一九四八년 八월까지 一三차에 걸쳐 四二명의 남로당원과 민주 인사들을 변절자 또는 간첩 혐의자라는 등 리유로써 살해하였으며 역시 안 영달의 지시로 一九四八년 八월 초순경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 재찬과 동년 一〇월경에는 장단군 당 위원장이던 서 구돈을 변절자라는 구실을 붙여 암살하기 위하여 그들을 체포하여다가 감금하고 있던 중 공화국 경비대에게 발각되여 살해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기록 五권 一三四―一三五페지)

한편 이러한 시기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후방 숙청의 구호에 보조를 맞추어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블의 직접적 지도밑에 박 헌영의 가장 신임있는 공모자의 일원인 안 영달 및 조 용복 등 간첩 분자들에 의하여 애국자들과 근로 인민들에 대한 탄압 구실의 날조、회유、

기만、 악선동 등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으로써 남조선 로동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길에 들어섰다。

一九四九년 六월 一八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호소문이 발표되였을 때 노불의 직접적 지도밑에 안 영달은 이 시기를 계기로 폭동을 준비해야 하겠다는 것을 남로당 조직에 여론화시키고 이에 호응 궐기하도록 사촉함으로써 적들에게 탄압 구실을 만들어주고 로동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검거 투옥 및 대중적 학살을 감행케 하였다。

박 헌영의 범죄 공모자 안 영달의 파괴 활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남반부 로동당원들과 민주인사들이 검거 학살된 정형에 대하여 오래 동안 미 군정 경찰 또는 리 승만 경찰의 책임적 직위에 있으면서 남조선 로동당 전라북도 및 강원도당 조직을 직접 파괴하고 약 四〇〇여명의 당 간부들을 투옥 학살한 백 형복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〇년 一월 초순경 안 영달은 내가 종사하고 있던 서울 리 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자기의 남로당 파괴 활동 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一九四九년 여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호소문이 발표되였을 때 그는 노불의 지시에 의하여 당원들에게 「오래지 않아 인민 군대가 남진하여 오겠으니 이에 호응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서울에서만 하여도 수류탄 六〇〇개 사건을 야기시켰다고 하였으며 이 사실을 제때에 노불에게 보고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당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체포 학살되였다는 것이 기술되여 있습니다……』(기록 五권 一一八―一一九페지)

이와 같이 三八선에서와 남반부 지역에서의 테로 학살 행위들은 전적으로 박 헌영의 지도밑

에 감행되였음이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기록 五권 三五、동권 五一—五六페지)。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부터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남로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소위 보도련맹을 조직하고 류혈적 잔인성으로 감행한 당 파괴 활동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八년 말경에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남조선에서 리 승만 경찰이 보도련맹을 조직하고 남로당원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자수 운동에 대하여 해당한 조직적 대책을 취하자고 나에게 제의하였을 때 나는 남반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만일 있다 하여도 남로당은 강한 전투적 부대로 보존되여 있기 때문에 아무러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리유는 나 자신이 미국 탐정 기관에 종사하는 것만치 적들이 남반부 당 조직을 파괴하고 그 력량을 보도련맹에 흡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세력으로 될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입니다……』(기록 一권 二四二—二四三페지)。

박 헌영은 자기의 남반부 민주 력량 파괴 활동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령에 의하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 와해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범죄적 공모자들인 리 승엽、리 강국、서 득은、안 영달、조 용복、백 형복、조 일명、림 화、박 승원 등 간첩 분자들을 당 및 국가의 중요 직위에 계통적으로 등용 배치하고 그들의 파괴 암해 활동을 지도 조종하였다。

이 결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불 및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의 직접적 지휘밑에 안 영달、조 용복 등에 의하여 一九五〇년 三월에는 당 서울 지도부 책임자로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김 삼룡을 체포 학살케 함으로써 남반부 지하당 조직과 민주 력량을 최종적으로 파괴시켰다 (기록 一권 一九八、동권 三三四—三三六페지)。

남반부 당 지도부를 마지막으로 파괴한 데 대하여 백 형복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一월 초순부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불과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이며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고문인 니콜스의 지도밑에 안 영달을 리용하여 로동당 서울 지도부를 파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진행하게 되였습니다。당시 리 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던 나는 안 영달이가 제출한「남로당 총비판서」에 의하여 남조선에 있는 로동당 조직 체계 및 그의 활동 정형을 자세히 알게 되였고 특히 로동당 서울 지도부 책임자인 김 삼룡을 비롯한 간부 명단을 장악하였습니다。안 영달은 자신있는 말로 당시 김 삼룡의 련락 책임자이던 조 용복을 찾는다면 김 삼룡의 거처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므로 나는 니콜스와 토의하고 내무차관 장 경근의 비밀 명령으로써 종로 경찰서에 구금되여 있던 조 용복을 석방시켜 우리 활동에 인입하였습니다。이때 노불과 니콜스는 로동당 서울 지도부를 당장에 적발할 것이 아니라 안 영달을 김 삼룡에게 련결시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로동당의 전반적 활동과 기타 당 내부 기밀을 제때에 장악하고 남조선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상 사건을 앞아서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작을 진행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한 수사 공작을 진행한 결과 며칠 후에 안 영달과 조 용복의 활동으로 김 삼룡의 비밀 거처를 알게 되였고 안 영달을 통하여 당 지방 조직에서 서울 지도부에 올라오는 일체 보고 서류 내용과 서울 지도부와 북조선 당 중앙간에 래왕하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서류 내용을 제때에 알수 있었으며 안 영달과 김 삼룡이가 비밀 아지트에서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옆방에 숨어서 그들의 담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으므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로동당의 일체 활동 정형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작은 극 비밀리에 진행되였는데 一九五〇년 三월 하순경에 김삼룡이가 돌연히 서울시 경찰국의 습격을 받고 도주를 기도하고 있다는 안 영달의 보고에 의하여 앞으로 더 공작을 진행하기 곤난하게 되였으므로 동년 三월 二七일 드디여 김 삼룡을 체포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二一―一二三페지)

특히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그의 공모자들은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된 후 해방된 서울 지구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남로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대중적 학살을 감행하였다。

적들의 괴멸과 함께 그들은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죄악을 끝까지 음폐하고 계속 반국가적 범죄 활동을 감행하려고 기도하였다。

박 헌영의 직접적 지도밑에 있던 리 승엽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 청사 지하실에 비밀 류치장을 설치하고 그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인 리 중업을 시켜 비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무고한 인민 七〇여명에 대하여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가한 나머지 그중 자기들의 범죄적 비밀을 알 수 있는 로동당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기록 五권 一〇八페지)

이 테로 활동에 직접 참가하였던 맹 종호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六월 二八일 서울 해방 직후 리 중업으로부터 당시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지하실에 감금되였던 자들 중에서 七명의 로동당원들이 남로당 비밀을 루설시킬 위험성이 있으니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들을 화물 자동차로 한강 강변에 싣고 가서 총살한 사실이 있습니다……』(기록 五권 一三一 페지)。

그 후 리 승엽은 테로 학살 행위를 보다 조직적으로 은밀히 진행하기 위하여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안 영달과 같이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라는 비밀 살인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이 살인 단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면상으로는 국가 사업을 보장한다는 구실을 붙였으나 사실상 이 단체는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체포 학살하며 변절자들을 규합하는 도구로 리용하였다。

리 승엽은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한 목적에 대하여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서울에서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안 영달을 그의 책임자로 배치하였습니다。 내가 이 단체를 조직한 목적은 나와 간첩 련계를 맺고 있던 노불의 지시대로 불원한 장래에 미군의 진공을 예견하고 토지 조사 위원회를 통하여 중간층과 우익 분자들을 규합하여 그들을 장차 우리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리용하며 우리들의 범죄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과 우리 활동에 방해되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 처단하자는 데 있었습니다……』(기록 五권 一〇六―一〇七페지)

그 후 동년 七월 중순 상부로부터 이 비법적 단체의 해산 지시를 받은 리 승엽은 자기들의 범죄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지도하고 있던 소위 의용군 본부내에 『토지조사 위원회』를 그대로 옮겨다 놓고 이를 외면상 『특수부』라고 부르면서 애국자들에 대한 테로 학살 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악당들이 지휘한 두개의 살인 단체 즉 『토지 조사 위원회』와 『의용군 본부 특

수부』에 의하여 로동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고문당하였으며 학살되였다(기록 二권 六六—六七、五권 一〇七—一〇八페지).

어데까지나 교활하고 음흉한 박 헌영은 자기들의 범죄 활동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리 승엽 등의 테로 학살 행위를 은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 보장하면서 자기의 처남 윤 대현까지도 소위 의용군 본부 특수부에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로 활동에 종사케 하였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공모자들까지도 비밀이 폭로될 위험성이 있을 때는 꺼리낌없이 그들을 살해하였다(기록 二권 六七—六八페지).

一九五〇년 七월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리 승만 경찰에 밀고하여 체포케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박 헌영은 자기들의 추악한 범죄적 정체를 음폐하기 위하여 안 영달을 남하하는 빨찌산 부대에 배속시켜 비밀리에 살해할 것을 리 승엽에게 지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六·二八 서울 해방 이후 나는 안 영달을 경기도 인민 위원장으로 배치하였는데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 내가 서울에 나갔을 때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리 승만 경찰에 밀고 체포케 한 사실이 서대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통하여 사회에 폭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우리들의 범죄 활동을 감추기 위하여 안 영달을 비밀리에 살해하라고 리 승엽에게 지시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二三五—二三六페지).

리 승엽은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안 영달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를 남하하는 빨찌산 부대의 정치 위원으로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여 비밀리에 처단하고 그 결과를 박 헌영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一권 一九八—一九九、二권 二九—三〇페지).

三、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행위

간첩 두목 박 헌영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감행한 간첩 행위와 남조선 민주 력량 파괴 약화 등 반국가적 범죄 행위와 병행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지도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을 기도하여 왔다는 사실이 본 사건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박 헌영은 벌써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조선에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한 지주、자본가 정권인 소위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몽상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범죄 활동을 감행하였다.

박 헌영의 이러한 활동은 공산당이 아직 자기의 기본 정치 및 조직 로선이 없었고 또한 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회를 리용하여 당의 지도권을 장악하려는 기도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었는바 즉 남조선 공산당의 명맥을 자기가 틀어 쥐고 당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봉사하는 합법적 『좌익 정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다시금 우리 나라에 낡은 자본주의 제도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록 五권 二八—二九페지).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벌써 조선에 리 승만을 두목으로 한 친미 정권 즉 지주、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써 미국에서 리 승만이가 입국하기 전부터 그를 대통령으로 하는 인민 공화국 조작을 음모하면서 나의 지도하에 있던 공산당원들에게 이 정권을 지지하도록 선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민 공화국을 조작하기 위하여 활동한 리유는 미국 사람을 내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뵈여주는 데 있었습니다……』(기록 一권 一五三—一五七페지)

박 헌영의 이와 같은 음모 활동은 당시 『인민 공화국』 사무국장으로 추천받았던 리 강국의 진술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증되였다。

그는 신문에서 진술하기를—

『……박 헌영은 八·一五 해방 직후 조선에 미국의 지지를 받는 지주、자본가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친일파、민족 반역자、혁명의 변절자 및 부르죠아 계층들을 공산당 및 사회단체 간부로 등용 배치하고 이들을 자기의 활동에 인입시키고 공산당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二권 七九페지)。

그 후 一九四六년 九월 피심자 박 헌영은 서울 반도호텔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에 월북하여 간첩 활동을 하는 일방 북조선 로동당과 북조선 인민 정권 기관내에 자기의 활동 토대를 구축하고 북조선 로동당을 내부로부터 파괴시키기 위한 암해 활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애국자로 가장하고 월북 잠입하였다。

하지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 북반부에 월북 잠입한 박 헌영은 반혁명 분자들을 자기의 주위에 규합하여 그들의 과거 반역 정체를 음폐하여 주고 당과 정권 기관에 잠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기반을 구축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박 헌영은 리 강국을 비롯하여 조 일명、리 원조、박 승원、림 화、한병옥 등 간첩 파괴 분자들을 북조선 인민 위원회와 해주 제一 인쇄소 그리고 그 후 강동 정치학원에 잠입시켰다(기록 一권 一七九—一八一、동권 二三六—二三八페지)。

미군 사령관 하지의 지령대로 월북 후 정권 전복 음모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박 헌영은 해주 제一 인쇄소와 강동 정치 학원을 장악하고 그를 자기의 범죄 목적에 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해주 제一 인쇄소와 강동 정치 학원을 나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一九四六년 九월 월북시 하지로부터 받은 정권 쟁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록 五권 七三—七四페지)。 그후 공화국 정부 수립과 남북 조선 로동당의 합당을 계기로 一九四八년 九월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로부터 리 승엽에게 간첩 활동을 인계하고 당과 정부내에서 지도적 지위를 장악하고 력량을 집결할 데 대한 지령을 받은 박 헌영은 자기의 심복자들을 당과 공화국 정부 내의 중요 직위에 배치 등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암해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박 헌영은 간첩분자、민족 반역자、변절자들을 과거 그들의 죄상과 정체를 음폐하는 방법으로서 높은 직위에 등용하였다。

우선 박 헌영은 자기의 범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협과 공갈 경제적 매수 등 가장 흉악한 방법까지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는 직접 또는 리 승엽、조일명、서 득은을 시켜 자기의 직무에 열성을 발휘하려고 한 간부들을 「변절자」「배신자」라고 위협 공갈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전도를 비관케 하며 자기 직무에서 리탈시키려고 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사상을 조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도를 고려하여 부득이 나의 영향 밑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다른 편으로 나는 서 득은, 리 강국 등을 시켜 당 자금을 조달한다는 구실밑에 동방상사, 영민공사 등을 경영하면서 나에게 아첨하는 충복들과 나의 영향하에 있는 심복자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원조를 주어 그들을 매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록 一권 一八九—一九三페지).

이와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박 헌영은 직접 또는 리 승엽 등과 공모하여 남북 조선 로동당 합당 및 공화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하여서와 또한 그 후에도 계속하여 당과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내에 간첩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즉 그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전 비서이며 정치 위원이며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이였던 리 승엽을 위시로 하여 조 일명을 문화 선전성 부상에, 김 점권을 경공업성 부상에, 김 광수를 상업성 부상에, 한 병옥을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후방 총국장에, 리 강국을 무역성 일반 제품 수입 상사 사장에, 장 시우를 무역상의 직위에 각각 잠입시켰으며 당 기관내에는 배 철을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장으로, 동 련락부 부부장에 박 승원, 윤 순달, 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부부장에 리 원조, 금강 학원 원장에 김 응빈, 당 중앙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에 서 득은, 남조선 당 지도부 련락책임자에 안 영달 등을 각각 잠입시켰으며 사회단체 내에는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에 림 화, 문학 예술 총동맹 서기장에 김 남천, 직업 총동맹 조직부장에 리 재우 등을 잠입시켜 암해 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박 헌영은 조선 로동당과 정권 기관 및 사회단체 내에 잠입시킨 파괴 분자들을 통하여 온갖 허구적 방법과 불신임을 류포 장성시키는 방법으로 당 및 정권 기관 주위에 집결된 인민 대중을 리탈시키며 그의 정상적 활동을 약화시킴으로써 공화국 정권 전복 기도를 쉽사리 달성하려고 획책하였다 (기록 一권 一八七—一八八, 동권 二三八—二三九, 五권 七三페지)。

박 헌영의 정권 전복 음모 활동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는 남반부 민주 력량을 파괴 말살한 나의 죄악을 음폐하며 남반부 전 지역의 로동당 및 정권 기관의 지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하여 공화국 정권 전복 기도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지배층들이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 침공을 개시하자 나는 곧 二〇〇여명의 나의 영향밑에 있던 자들을 안주에 집결시켰다가 인민군대의 반격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 지역의 도 시 군당 및 정권 기관 책임자로 임명 파견하였습니다……』 (기록 一권 二四三페지) 박 헌영의 지도하에 리 승엽은 남반부 신 해방 지구에서 로골적으로 암해 활동을 감행하였다。 리 승엽은 六·二八 해방후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파견됨을 계기로 경기도 관내에 자기들의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로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김 점권, 경기도 인민 위원장에 안 영달 그후 박 승원, 경기도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에 안기성 및 김 요한 등 자기의 가장 충실한 심복자들을 등용하였다。(기록 五권 一一二페지) 박 헌영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기의 지도하에 있는 공모자들로 하여금 당 내부의 분렬을 조성하며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신임과 위신을 저하시키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로골적으로 반대 비방하여 나서도록 더욱 조종하였는데 그중 문학 예술 단체내에서 감행된 암해 활동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는 一九五一년 四월 나의 사무실에서 림 화로부터 문화 단체 내에서의 활동 정형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그에게 문화 예술계에서 지도권을 장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림 화 등에 의하여 공화국 문화 예술계에서 사상 통일을 약화시켜 호상 불신임과 알륵을 조성시키는 방법으로 암해 활동을 감행케 하였습니다……』 (기록 一권 二〇二—二〇三

폐지)。 그 후 박 헌영과 그의 공모자들은 一九五一년 八월 로동당 중앙 위원회내 련락부가 발족하게 되자 대남 사업을 강화한다는 구실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박 헌영의 직접 지도 밑에 여기에 자기의 범죄적 공모자들과 심복자들을 집결하고 련락부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활동의 참모부로 전환시킬 것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一년 八월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를 새로 창설함과 관련하여 배 철을 그 부장으로 배치케 하였으며 그 지도 사업을 당 비서이던 리 승엽이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련락부를 나의 범죄 활동의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련락부를 통하여 남반부에서 월북한 나의 심복자들을 분산된 조건으로부터 한데 집결할 수 있으며 또 이들을 통하여 각종의 암해 활동을 수행함에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리 승엽에게 지시하여 박 승원과 윤 순달을 련락부 부부장으로、 김 응빈을 련락부 산하 금강 학원 원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련락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산하에 망라된 나의 공모자들에게 민족분렬 사상을 격화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나서도록 추동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二〇四—二〇六폐지)。 또한 박 헌영은 자기의 정권 전복 활동 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一九五一년 一一월부터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을 음모하였다。 박 헌영은 자기들이 음모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목적에 대하여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한 목적은 개성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해방 지구를 떼여 내여 경기도를 조직하고 그 지구에 나의 범죄적 공모자들을 당 사업을 구실로 집결할 수 있고 그 곳에 신 해방 지구라는 특수성을 주장하여 「신 질서」를 확립하며 그 지역을 나의 범죄적 활동 기반으로서 장악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경기도를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一九五一년 一二월 리 승엽은 나의 내각사무실에 찾아와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들이 이곳을 장악한다면 여기에는 一〇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세력 배양의 기지로 삼을 수 있고 또 간부들을 배양할 수 있는 지점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백의 곡창 지대와 개성의 유명한 인삼 및 산업 시설만 잘 활용한다면 녀녀히 경제적으로도 자급 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박 승원을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낸다면 문제없이 우리 요구대로 될 수 있다고 제기하므로 나는 즉시 이를 승인하고 그대로 실시할 것을 리 승엽에게 지시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二〇七폐지)。

이 범죄 활동에 직접 참가하였던 박 승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一년 一一월 하순경 리 승엽은 중앙 당 자기 사무실에 배 철과 림 화와 나를 불러 놓고 우리들에게 당과 정부에서는 이번에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한 다음 이 기회에 경기도를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의 세력 집결과 력량 배양의 기지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력설하면서 자기는 박 헌영과 토의하여 나를 당 련락부 부부장을 겸임한채로 새로 조직되는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곳에 배치할 행정 간부들을 선발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간부 문제에 대한 자기의 복안으로 리 승엽은 경기도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기의 장인 안 기성을 추천하였고 림 화는 선전부장으로 자기의 처남 리 상조를 써 달라고 요망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리 승엽의 지시대로 경기도 행정 구역도를 작성하였으며 전 용구를 개성에 보내여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던 김 점권과 련계 밑에 청사 전물의 물색、 지방 인민들의 사상 동태 조사、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 조사를 하는 등으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준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三八—一四一페지)。 이와 같이 박 헌영은 미국 탐정 기관의 지령에 근거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를 리용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후방이 약화될 것을 몽상하고 그 틈을 타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고 미제의 비호하에 지주 자본가 정권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내가 범죄를 감행한 최종 목적은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근거하여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는데 있었으며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나와 나의 공모자들의 반역 활동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약화시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조성케 함으로써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고 자기가 수립할 정권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의 기대가 실현되면 나는 반쏘 반민주주의적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활동의 종국적 귀결인 미국을 배경으로 한 즉 공화국 정권과는 정반대로 다른 형태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내가 음모하였던 정권은 그 구성에 있어서 나의 반국가적 범죄 활동에 직접 참가한 자들을 중심으로 친미 사상을 가진 민족 반역자와 지주 자본가를 이에 련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초기에는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는 로동자를 위하는체 하면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의 리익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은 지주 자본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 정책 부면에서도 쏘련을 위시한 전 세계 민주 진영을 반대하고 미국 지배층들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기록 一권 二一〇—二一一페지)。 박 헌영의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행위는 그의 반혁명 도당의 가장 핵심 분자들인 리 승엽의 지도하에 배 철、박 승원、림 화、조 일명 등으로 하여금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구테다 음모를 추진시키는데 직접 도움을 주었다。 즉 그것은 一九五二년 九월에는 리 승엽의 지도하에 박 헌영의 집에서 공화국 정권을 전복한 다음 박 헌영을 중심으로 한 반동 정부의 구성 성원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리 승엽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는 一九五二년 九월 첫 휴식 일요일에 우리들의 반혁명 활동의 비밀 장소로 리용하던 박 헌영의 집 응접실에서 배 철、조 일명、박 승원、윤 순달、림 화 등을 모아놓고 박 헌영이가 지도하는 우리 음모 활동을 더욱 추진시키기 위하여 현존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한 후 우리가 수립하려는「새 정부」와「새 당」에 추대할「지도자」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내가 박 헌영의 집을 비밀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하지의 지령대로 우리들의 음모에 대한 비밀이 로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공모자들 앞에서 박 헌영의 위신을 더욱 높이기 위한데 있었습니다。 이 회합에서 나는「새 정부」의 수상으로 박 헌영、부수상으로 박 헌영의 충실한 심복자 장 시우、주 녕하、내무상에 박 승원、외무상에 리 강국、무력상에 김 응빈、선전상에 조 일명、교육상에 림 화、상업상에 윤 순달、로동상에 배 철 그리고「새 당」의 총비서로 내가 추대받았습니다……』 (기록 五권 一〇九—一一〇페지) 뿐만 아니라 이들은 리 승엽의 지도 밑에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의 시기를 전선에서 미군의 공세가 시작되여 적들이 아군의 후방으로 계속 진공하여 오는 때이미 자기들이 준비하였던 무장 도당들로써 폭동을 단행할 것을 토의 결정하고 무장 폭동 지휘부까지 조직 형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미 一九五三년 八월 리 승엽과 같이 재판을 받은 배 철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된다。『……나는 一九五一년 九월 초순 리 승엽의 부름에 의하여 박 승원과 같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그의 사무실로 간즉 거기에는 이미 림 화와 조 일명이가 와 있었

습니다。 리 승엽은 나와 박 승원이가 자기 사무실에 가자마자 이어 전쟁 형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이날 리 승엽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무장 폭동 지휘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복안을 발표하고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폭동 지휘부는 총사령관에 리 승엽, 참모장에 박 승원, 군사 조직 책임에 나, 폭동 지휘 책임에 김 응빈, 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에 림 화와 조 일명이였습니다。 이날 그의 방에 모인 우리들은 이를 전적으로 찬동 지지함으로써 폭동 지휘부는 리 승엽의 복안대로 토의 결정되였습니다……』(기록 五권 一四三—一四五페지)。 이와 같이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의 시기 선정과 폭동 지휘부를 형성한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은 그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를 중심으로 그 산하 기관들을 통하여 유격대원을 양성 훈련한다는 구실 밑에 무장 도당 편성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맹 종호가 지도하던 련락부 산하 유격 一〇 지대에서만 하여도 一九五二년 一一월까지 근 四〇〇여명에 달하는 무장 부대를 편성하고 무장 폭동에 유리하게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속 공화국에 적대되는 사상을 부식시켜 오면서 무장 훈련을 강화하였다(기록 五권 一三一—一三三페지)。

리 승엽, 배 철, 박 승원, 조 일명, 림 화를 위시한 그의 공모자들은 이와 같이 박 헌영의 도움을 받아오면서 무장 부대 편성에 광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조직한 무장 부대들을 어떻게 폭동에 조직 동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장 폭동 참모장인 박 승원은 폭동 지휘부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폭동 지휘부에서는 전선에서 미군의 공세가 시작되여 평양 방면으로 진공하여 오면 사전에 이미 폭동 지휘부가 조직 편성한 무장 부대들을 평양 주변에 집결시켰다가 책임자인 리 승엽의 총지휘하에 폭동 작전 계획에 따라 일시에 무장 부대들을 원동시킬 것이였습니다……』(기록 五권 一四一—一四二페지)。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려던 리 승엽 도당의 이와 같은 가소로운 무장 폭동 음모 활동은 그들에 대한 적발 폭로로써 파탄되였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반국가적 간첩 도당들은 자기들이 몽상한 무장 폭동 계획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소위 『새 정부』 수립에 성공만 한다면 이들은 장차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리 승만 괴뢰 정부와 련합하여 리 승만과 박 헌영 두 민족 반역자를 두목으로 하는 미제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 일명은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들은 미국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리 승만을 적극 지지하고 리 승만 정부와 련합하는 「새 정부」를 수립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 때에 가서는 우리들이 주도권을 잡은 당은 합법적 「좌익 정당」으로서 지주와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미국 정부와의 전선을 굳게 유지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로선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들 자신이 미국 정탐 기관의 앞에서 복무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로선을 취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기록 五권 一二五—一二九페지)。 박 헌영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기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 무역상이며 오래전부터 자기의 심복자인 장 시우를 자기 음모 활동에 인입시키고 리면에서 그를 교묘하게 사촉하여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상적 활동을 파괴 약화시키기 위한 범죄 행위를 감행케 하면서 일상적으로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 선전에 그를 동원시켜 왔다(기록 二권 二一七—二二五페지)。

장 시우를 자기의 범죄 활동에 인입시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박 헌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장 시우를 나의 범죄 활동에 끌어들였습니다。 장 시우가 당과 정부에 적대적 암해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조국 전쟁 개시후에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와

가깝게 접촉하려고 한 것이 무슨 까닭인가에 대하여 알았읍니다。 장 시우는 六·二八 서울 해방 후 당에서 남반부 당 사업에 대한 검열 책임을 지고 파견되여 검열하는 과정에서 허다한 범죄적 사실이 발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음폐하고 남로당 사업이 잘 되였다고 당에 보고하였읍니다。……그후 장 시우는 자기 활동으로 알아낸 당 및 정부내 간부들에 대한 자료를 수차 나에게 수집 보고하였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당과 정부 내에서 사상 통일을 파괴하는 암해 활동을 감행하도록 더욱 고무 격려하였읍니다……』(기록 一권 二〇八―二一〇페지)。

다른 방면으로 박 헌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외 정책 분야에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위시한 형제적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선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범죄 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쉽사리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외무성에 자기의 심복자들을 다수 집결시켰으며 특히 자기와 련결된 공모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로골적으로 반쏘 반국제주의적 암해 활동에 인입하였다。

자기의 범죄 활동의 마지막 시기까지 박 헌영은 파렴치하게도 자신을 『선량한 국제주의자』로 가장하고 겉으로는 쏘련을 열렬히 지지하는체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쏘련을 반대하여 자기의 심복자들인 전 주쏘 특명 전권대사 주 녕하에게 당 및 정부의 시책과 쏘련에 대한 비방적 악선동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전 주중 특명 전권대사 권 오직과 동 대사관 전 참사 송 성철을 자기의 범죄 활동에 인입시키고 그들에게 로골적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간부들을 비방하면서 중국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느니, 중국 사람들과 속을 주고 외교하면 실패한다는 등 모략적 선전으로써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친선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기도하였다(기록 五권 一―一〇페지)。

이상 박 헌영의 범죄 행위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감행한 간첩 행위와 남반부 민주력량 파괴 약화 행위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고 조선에 미제의 지배를 받는 괴뢰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그 종국적 목적이 있었으며 이 범죄 행위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의 한 부분이였다는 사실이 본건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또한 박 헌영은 남조선 지하당 사업에 사용하라는 당 재정을 횡령하여 부화한 생활에 랑비 탕진하였을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기에 八七만원의 공화국 지폐와 一키로 六〇〇그람에 달하는 순금을 횡취 은닉하고 있었다(기록 一권 八三페지)。

상술한 바에 의하여

성명 박 헌영
년령 一九〇〇년 五월 二八일 생(당 五六세)
본적 충청남도 례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출신 소시민
성분 사무원
지식 대학 졸업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및 내각 전 부수상 겸 외무상
전과 없음

박 헌영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용 간첩의 두목으로 공화국 북반부에 간첩망을 설치하고 당과 정부의 중요한 기밀에 속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 정보들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면서 미 정탐 기관에서 파송된 반국가적 간첩 그루빠들의 활동을 총지도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지령에 의하여 공화국 남반부에서 로동당을 파괴하고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적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반역적 활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조선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는 지주 자본가 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반혁명적 도당을 조직하고 그를 지휘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전복을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 대중을 리탈시키기 위한 암해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이 죄행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동 제六八조、동 제六五조 一항、동 제七六조 二항에 해당한다。 본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二一五조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심리에 속한다。

一九五五년 一二월 三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총장 리 송 운

二、공판 심리

개정 선언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五일 一〇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최 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김 익선、림 해、방 학세、조 성모를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특별 재판은 공개한 공판에서 서기 박 경호를 렵회시키고 최고 검찰소 검사총장 리 송운의 관여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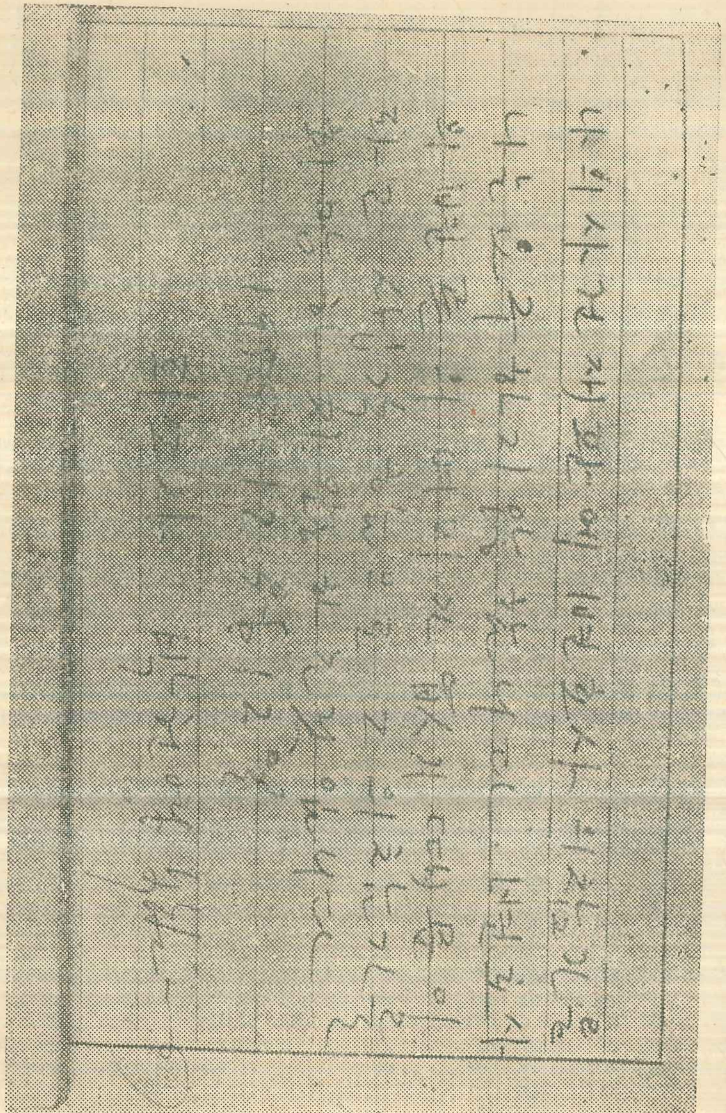
재판장은 소송 관계자들의 렬석을 확인한 후 렵회 서기에게 피소자를 입정시키라고 한 바 립회 서기는 피소자 박 헌영을 입정시켰다。

재판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동 제六八조、동 제七六조 二항、동 제六五조 一항으로 기소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피소자의 상위 여부를 확인한바 피소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성명 박 헌영

생년월일 一九〇〇년 五월 二八일

본적 충청남도 례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전 부수상 겸 외무상,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장 등본을 받았는가고 물은바 피소자는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二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판상 권리를 알려 준 다음 검사 총장과 피소자에게 재판소 성원과 렵회 서기를 통고하고 배제 신청의 유무를 물은바 각각 배제 신청을 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다시 피소자에 대하여 검사총장이 공판에 참가하는 데 반대 의견이 없는가고 물은바 피소자는 반대가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二일 피소자 박 헌영으로부터 자기 죄행은 변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공판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하여 왔는바 이 신청에 대하여 검사총장에게 의견을 물은바 검사총장은 재판장이 제시한 피소자 자필의 신청 문건을 확인한 후 피소자의 희망을 접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재판소는 즉석에서 변호인의 참가없이 공판을 진행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재판장은 재판소에서 소환한 증인의 출정 여부를 물은바 렵회 서기는 증인 한 철, 하 필원, 김 해균, 김 소목, 현 효섭, 권 오직, 리 순금, 리 강국, 조 일명이 다 출정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증인들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바 증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증인 한 철 一九一〇년 二월 二九일 생 사무원
증인 하필원 一九一〇년 九월 八일 생 사무원
증인 김해균 一九一〇년 九월 二〇일 생 군인
증인 김소목 一九二〇년 一〇월 八일 생 사무원
증인 현효섭 一九一七년 八월 六일 생 사무원
증인 권오직 一九〇六년 三월 七일 생 로동자
증인 리순금 一九一二년 六월 三일 생 사무원
증인 리강국 一九〇六년 二월 七일 생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증인 조일명 一九〇三년 一二월 一일 생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재판장은 증인들에게 재판상 의무를 설명한 후 거짓 진술을 할 때는 형법 제二四一조、제二四二조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별지 서약서를 제출시키고 증인들을 공판정에서 물러가게 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총장과 피소자에게 이미 공판정에 소환한 자 이외에 새 증인 또는 다른 증거의 수집에 대하여 신청이 없는가를 물은바 검사총장과 피소자는 각각 신청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립회 서기가 기소장을 랑독하였다.

재판장으로부터 피소자에게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승인 여부를 물은바 피소자는 「「새 정부」와 「새 당」의 조직에 관한 것과 무장 폭동 음모에 직접 참가하거나 그러한 범행을 조직 지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곤난합니다.

기타 기소 사실은 전부 승인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재판장은 동일 一一시 三五분 휴정을 선언하였다.

* * *

동일 一一시 五〇분 공판이 계속되였다.

재판장으로부터 검사총장에게 심리 순서에 대한 의견의 유무를 물은바 검사총장은 피소자를 신문한 다음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피소자는 검사총장의 제의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즉석에서 먼저 피소자를 신문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과 신문 순서를 정하겠다는 판정을 하였다.

박 헌영에 대한 신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경력과 범죄 사실을 말하라고 한바 피소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一九〇〇년 충청남도 례산군 내의 봉전 량반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一五세에 소학을 졸업하고 二〇세 때 서울 제一 고등 보통 학교를 졸업한 후 一九二〇년에 중국 상해에 가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하게 되였는데 一九二二년 三월 공청 조직차로 상해로부터 입국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二년간 징역살이를 하였고 一九二五년 一一월 공청 사건으로 체포당하였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된 일이 있고 一九三二년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一九三九년 九월까지 징역을 살았고 一九四二년부터 八·一五 해방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피신하여 있었습니다。

해방후에는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고 떠들었고 남조선에서 공산당 책임자로 가장하고 기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련의 범죄 행위를 하고 북조선에 와서는 내각 부수상까지 하면서 범죄를 계속하였습니다。

다음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나는 맑스 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한 바도 없으면서 공산주의자로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미국을 숭배하여 온 소 부르죠아 사상에 지배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一九二五년 공청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였을 때 쉽게 동지들을 일제 앞에 고발하여 체포당하게 하였으며 一九三二년 다시 체포되여 징역살이를 한 후 一九三九년 만기 출옥할 때 일제 관헌앞에서 다시는 일제를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사상 전향』을 했던 것입니다。

一九三九년 一〇월경부터 미국 정탐 언더우드와 련계를 맺고 그의 앞에서 미국을 위하여 간첩으로 복무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후 一九四五년 九월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한 후에 하지 사령관 앞에서 다시 미국 간첩으로 종사하게 되였고 언더우드로부터 하지에게 정식으로 넘겨졌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범죄 행동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당의 중요 비밀을 일일이 제공하였고 하지가 지시하는 대로 미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 一九四六년 三월 리 승엽과 조 일명이 리 승만 경찰에 체포된 것을 하지에게 말하여 석방시킬 때 하지로부터 리 승엽과 조 일명이 미국 간첩으로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고 하지로부터 그들을 중요 직위에 등용하고 간첩 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곧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一九四六년 九월 하지로부터 북조선에 잠입하여 범죄 활동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와 토의한 후 조 일명、리 강국이와 같이 五〇〇만딸라의 미국 강제 차관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하지와 약속한 대로 미 군정청 『체포령』을 피하여 도망한 것같이 꾸미고 一〇월 초순 서 득은이를 길 안내자로 하여 북조선에 잠입하였습니다。 리 강국이도 미 군정청 『체포령』에 의하여 나보다 며칠 앞서서 평양에 잠입하였는데 나는 하지로부터 리 강국이도 미국 간첩이니 북조선에 들어가면 그를 중요 직위에 등용하도록 하여 리 강국의 간첩 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평양에 도착한 후에 우선 강동 학원과 해주 제一 인쇄소를 리용하여 하지로부터 과업받은 남북 대렵과 불신임、분렬 사상을 조성하는 것과 북조선 당내에 나의 세력을 부식하고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범죄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나는 미국 사람들의 지시 대로 나의 심복자들을 북조선에 끌여 들여 당과 정권 기

관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치한 후에는 그들에게 반당 반국가적 선전을 주입하였습니다.

나는 평양에 들어온 후 약 한달 지나 一一월 초순에 서 득은이를 서울에 보내여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보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一九四七년 二월에 평양에서 수집한 간첩 자료와 함께 앞으로 련계를 맺고 간첩 활동을 하자는 밀서를 서울 리 승엽에게 보내였던바 리 승엽으로부터 찬동하는 답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두번 서울에 있는 리 승엽에게 간첩 자료를 보낸 일이 있고, 一九四七년 봄에는 리 강국에게 당내의 중요 기밀을 말하여 주어 그가 미국 정탐 기관에 전달하게끔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一九四九년에 미국 간첩·현 애리스와 리 사민의 입국을 보장하여 준 사실이 있고, 리 승엽과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한 신 해방 지구에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곳을 범죄 활동의 기지로 삼으려고 획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六·二八 서울 해방 후, 안 영달의 밀고로 김 삼룡이 리 승만 경찰에 체포되여 학살당하였다는 여론이 돌게 되자 안 영달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들의 정체가 발로될것같애서 리 승엽에게 지시하여 그를 암살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나는 남조선의 당과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하기 위하여 갖은 정치적 모략과 암해 공작, 허설 류포,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해방 직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그런 행동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인민들의 봉기와 파업 운동을 폭동으로 내여밀라고 강요하여 미군과 리 승만의 총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또 남로당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는 구실로써 상사를 경영시키고 거기로부터 얻은 자금을 떼여내여 저의 심복자들에게 지출하여 그들을 나의 주위에 접근시켜서 범죄 활동에 리용하였습니다.

또한 一九四八년 공화국 창건 직전 리 승엽을 입북케 하고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직접적인 간첩 활동은 리 승엽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 시우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당과 정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을 리용하여 간부 호상간의 리간과 알륵을 조성하게끔 기도한 일이 있었고 장 시우를 저의 세력에 인입하였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은근히 패배를 선전하여 저의 영향하에 있은 심복자들의 반당적 반국가적 범행을 격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 제가 의무상으로 있은 기회를 리용하여 반쏘 반중 사상을 선전하였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나의 영향하에 들게 된 주쏘 대사 주 녕하에게 루차 반쏘 선전을 하였고 권 오직이가 중국 대사로 부임할 때 중국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것과 중국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선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의 공범자들인 리 승엽 등의 『신 정부』 조직 음모라든가 무장 폭동 음모에는 제가 직접 참석치도 않았고 그 사실도 알지 못하나 나의 밑에서 범죄 활동을 하여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피소자의 자의 진술이 끝난 다음 검사 총장에게 신문권을 부여하였다. 검사 총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一九二五년 조선 공산당과 공산 청년 동맹의 지도 일꾼들이 일제 경찰에 검거케 된 사실에 대하여 말하시오。

답 당시 저는 서울에서 평북도 경찰부의 일본 경찰에 체포되였던 것인데 조선 공산당과 공청에 대한 내막을 추궁당하자 비겁하게도 당시 공청 비서로서 알고 있던 당과 공청의 조직과 간부를 일본 경찰앞에 자백하여 각처에서 一四명의 책임적 간부들이 체포되였습니다。

문 피소자는 어떻게 하여 미국을 숭배하게 되였는가。

답 저는 一九一九년 三월 서울에서 중학을 졸업한 다음 예수교인이고 친미 분자인 차 미리사가 주간하던 녀성 계몽 잡지 『녀자 시론』의 편집원으로 있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차 미리사에게로 래왕하는 친미 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와、 당시 연희 전문 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를 친히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조선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을 품게 되였습니다。

문 피소자가 하여온 지난 날의 『운동』을 진실한 공산주의 혁명 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답 一九一九년 이후 내가 접촉한 것이 친미 분자가 아니면 공명주의와 영웅심에 지배된 종파쟁이들이였다는 점과、 나 자신이 숭미 사상에서부터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출세욕에서 행동하여 온 것만큼 나의 과거를 공산주의 혁명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 그러면 피소자에게는 공산주의보다 친미 영향이 더 컸단 말인가。

답 그렇습니다。 저는 숭미 사상에 지배되여 왔습니다。

문 피소자는 一九三九년부터 미국 간첩으로 되여 체포될 때까지 범죄 활동을 계속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계속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평양에 잠입하여서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문 피소자는 어느대 어떤 정보를 간첩 자료로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는가。

답 一九四六년 二월과 三월과 五월 세차례에 걸쳐 조선 공산당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조직과 간부들의 명단과 당 활동 정형 또는 당의 장성에 관한 자료들을 주었구요 또 민전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는 전부 하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一九四六년 一〇월 초순 평양에 들어온 뒤에는 그해 一一월과 一九四七년 四월과 六월 세차례 북조선 경제 자료와 쏘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쏘련측의 방침、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 준비 정형과 북조선 로동당에서 채택한 결정들과 당 내부 기밀들을 수집하여 하지에게 보내 주었고 一九四七년 二월과 一二월에는 리 강국에게 당과 국가의 중요 기밀을 이야기하여 주어 미국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북조선으로 잠입할 때 어떤 수단을 썼는가。

답 『애국자로 가장하고 자연스럽게 입북하는 것이 좋겠다』—이것이 하지의 의견이였습니다。

입북하는 수단 방법에 대하여 하지와 협의한 결과、 미 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작성하여 발표하면 하지는 당과 민전과 사회단체 지도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기로 하고 나와 리 강국은 그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북조선으로 들어간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의되였습니다。

나는 하지와 토의한 대로 조 일명더러 미국의 五〇〇만딸라 강제 차관을 반대하는 성명을 작성케 하고 리 강국에게 주어 민전 명의로 성명을 발표케 하였으며 하지는 약속한 대로

곱『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나는『체포령』을 빙자하고 서 득은이를 길 안내로 하여 강원도를 경유하여 북조선에 잠입하였고 리 강국은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에 무사히 잠입하였던 것입니다。

문 피소자는 리 승엽과 조 일명이 체포된 것을 석방 운동할 때 그들이 미국 간첩이라는 것을 알았댔는가。

답 그들도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 노릇을 하기로 되였으니 신분을 보장하여 주라고 하지가 말할 때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문 서울『콤그룹』은 피소자가 조직하였는가。

답 아니올시다。 이미 리 재유가 조직한 그룹입니다。

문『콤그룹』과 어떻게 하여 접촉되였는가。

답『콤그룹』과 접촉하게 된 것은 김 삼룡、 리 관술、 리 현상들을 만나서 접근하게 되였습니다。

문 피소자는 해방 후 미국 군대를 응접한 사실이 있는가。

답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군대내에 있는 공산당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자료를 주면 자기 나라 좌익 출판물에 보도하겠다고 하므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 그 당시 그런 자들이 진정한 공산당원인줄로 생각했는가、 간첩인줄로 생각했는가。

답 량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문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제의는 누가 했으며、 그것을 조직하는 목적은 어데 있는가。

답 一九四八년 七월말 리 승엽이 입북한 뒤에 나는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간첩 활동과 남조선 당 사업을 리승엽에게 맡겼습니다。

때문에 남조선 당 사업에 대한『창발적 의견』도 주로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였었습니다。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에 관한 것도 리 승엽이 제기하는 것을 같이 토의하고 저는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한 목적은 우리들이 감행하는 범죄 활동의 거지를 창설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문 리 승엽이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청사 지하실에 비밀 류치장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였다가 비법적으로 학살까지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답 학살당한 사람들은 저희들의 범죄 행동을 눈치채고 그것을 루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람들입니다。

문 학살당한 사람들은 애국자인가。

답 네!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소자는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대단히 엄중합니다。

문 지금까지 심리한 사실 중에 기소장에 기재된 것과 상위되는 점은 없는가。

답 없습니다。

검사총장은 재판장에게 더 신문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재판 성원 조 성모에게 신문할 것을 허하였는바 재판 성원 조 성모는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一九四六년 一〇월 입북한 후 하지와 어떻게 련락을 취하였는가.

답 제가 입북할 때 길 안내자로 데리고 온 서 득은이를 서울에 보내여 하지와 련결을 짓게 하였습니다.

문 一九四七년 二월 리 승엽과 교환한 밀서 내용에 대하여 말하시오.

답 간단히 말하면 나도 간첩이고 너도 간첩인데 같이 협력하자고 하면서 경제 자료를 보내니 당신의 간첩 자료와 종합하여 하지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리 승엽으로부터 이번 보내준 경제 자료는 우리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내 달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문 一九四八년 六월 서 득은을 통하여 하지에게 제공하였다는 간첩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

답 하지에게 당신이 내가 월북할 때 준 지령대로 지금에 와서는 나의 세력이 확장되고 심복자들을 당과 정권 기관내 요소에 배치하고 남북 대립 사상을 조성하였다는 형편을 알리고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 준비 정형을 전달하였습니다.

문 一九五〇년 五월 어떤 악당들의 입북을 보장하였는가.

답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들인 백 형복、조 용복、안 영달이 의거 입북을 가장하고 북조선에 잠입한 것을 비호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문 이 자들의 입북과 관련하여 리 승엽과 밀회한 내용을 말하시오.

답 그 자들의 금후 활동을 토의하고 리 승엽에게 백 형복을 내무 기관에 잠입시켜 간첩 활동을 하게끔 보장하여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안 영달은 왜 암살했는가.

답 그것은 안 영달의 밀고에 의하여 김 삼룡이가 리 승만 경찰에 체포 학살당하였다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면 안 영달이 당이나 내무 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이고、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간첩 범죄가 탄로될 위험성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 승엽에게 죽여 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적들이 남조선 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보도련맹』을 조직한 데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답 이 문제가 당 중앙 정치 위원회에 제기되여 토의되였을 때 나는 남로당은 조직이 견고하기 때문에 『보도련맹』의 『귀순 공작』으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만하였습니다.

문 一九五一년 四월 피소자는 자기 사무실에 림 화를 불러 놓고 무슨 말을 하였는가.

답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결정되였으니、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 등용되지 못한 섭섭한 감은 있겠으나 변말 말고 앞으로 문화 단체 내에서 호상 불신임과 알륵을 조성하는 공작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재판 성원 조 성모는 재판장에게 신문이 끝났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다른 재판 성원들에게 피소자에 대하여 신문하라고 한바 재판 성원 방 학세는 피소자에 대하여—

문 一九四五년 八월부터 공산당 비서로 있으면서 미국 간첩으로 활동하겠다고 하지와 약속한 동기는 무엇인가。

답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일제시대 공산주의 혁명 운동을 하노라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숭미 사상에 지배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까닭에 一九二五년 공산당과 공청을 일체 관헌에게 고발했고 一九三九년에는 그들 앞에서 다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고 변절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시기부터 내가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한 것같이 활동하여 온 것은 이미 一九三九년 언더우드와 손을 잡고 미국 간첩으로 된 후 그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 로동 운동 내에서 확고한 자기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여 보려는 의도로써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방 후 남조선에서 공산당 비서로 되여 가지고 미국 간첩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벌써 一九三九년부터 시작된 그 길을 택한 것이지요。

문 피소자는 이미 하지와 련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여서 一九四六년 二월에 피소자의 영향하에 있던 리 승엽、조 일명 등이 체포되였는가。

답 하지와 련락없이 밑에 있는 경관들이 체포하였으므로 하지에게 말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문 一九五〇년 六월 二八일 서울 해방 후 리 승엽 등이 조직한 『토지 조사 위원회』『조선 의용군 본부 특수부』라는 살인 단체에서 만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소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답 저도 간첩이고 리 승엽이도 간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범행이 탄로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임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는 못하였지만 저의 밑에 있는 리 승엽이 감행한 죄행인 것만큼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 리 승엽이를 북조선으로 소환한 것은 간첩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인가。

답 그렇습니다。

나의 요청에 의하여 하지는 리 승엽이를 평양에 파송하면서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금후는 간첩 활동을 직접 하지말고 리 승엽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 직위에 잡입하여 리 승엽을 비롯한 미국 간첩들의 범죄 활동을 비호 보장하여 주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재판 성원 방 학세는 재판장에게 자기의 신문은 끝났다고 고하였다。

재판 성원 림 해는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피소자는 어느 때부터 미제의 정탐으로 되였는가。

답 一九三九년부터 체포될 때까지 미국 간첩으로 있었습니다。

문 一九三九년 전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답 소위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자 많은 공산당원과 공청 간부들을 일제

관헌에게 밀고하여 체포케 하였으며 또 그들 앞에서 다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고 완전히 변절하였습니다。

변절 후에는 곧 미국 정탐 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문 피소자는 공화국 북반부 잠입 전후를 통하여 누구를 위해 사업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답 량쪽에 한 다리씩 짚고 사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조선 인민을 반대하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사업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 성원 림 해는 재판장에게 신문이 끝났다고 하였다。

재판 성원 김 익선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리 승엽이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애국자들을 학살한 데 대하여 피소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답 제가 미국 간첩의 두목으로서 미국인과 공모하여 그자들을 등용하여 모든 범죄 활동을 보장하여 주고 비호하여 온 것만큼 그들이 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문 그런데 왜 앞에서 답변할 때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고 어물거렸는가。

답 잘못 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여 보려는 데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재판 성원 김 익선은 재판장에게 신문이 끝났음을 알리였다。

재판 성원 조 성모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피소자가 감행한 일체 범행의 종국적 목적은 무엇인가。

답 미국 세력을 배경으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고 조선에 통일적인 친미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제가 이 정부의 수령으로 되려고 한 데 있습니다。

재판 성원 조 성모는 재판장에게 신문이 끝났음을 고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기소된 모든 행위가 확실히 있은 사실들이고 그것은 철두 철미한 반역 범죄라는 것을 시인하는가。

답 네 시인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총장과 재판 성원에 대하여 더 신문할 것이 없는가를 물었는바 각각 신문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동일 一三시 五〇분 휴정을 선언하였다。

* * *

공판은 동일 一六시 二〇분부터 다시 계속되였다。

재판장은 공판에 소환한 증인 중 한 철、 김 소목、 권 오직、 조 일명、 리 강국만 심리하고 그 외의 증인들은 사건 진상 규명에 있어서 신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심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대하여 검사총장의 의견을 물은바 검사총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소는 즉석에서 합의한 후 소환한 증인 중 한 철、 김 소목、 권 오직、 조 일명、 리 강국 차례로 그들만 심리할 것을 판정하였다。

증인 한 철에 대한 신문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렵회 서기는 증인 한 철을 입정시켰다。

재판장은 증인 한 철에게 피소자 박 헌영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 사실을 진술하라고 한 바 증인 한 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一九四七년 가을까지 남조선에서 박 헌영의 지도하에 로동 운동에 참가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동안 박 헌영은 미군 점령하의 남조선 로동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아직 로동 계급의 조직 사상적 수준이 낮은 실정에 비추어 분산적인 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면서 로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시켜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방면으로 방해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즉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로동 운동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기와 환경을 고려함이 없이 폭동으로 전환시키라고 강요함으로써 이 운동은 놈들의 폭압에 의하여 말살되고 간부는 전부 투옥되였습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그 시기 우리 파업 투쟁을 폭동으로 전환시킬 것이 아니라 계급 의식을 제고시키며 간부들을 양성하는 것이 옳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一九四六년 四월、 인천 동양 방직 파업이 일어났을 때도 리 승엽을 통하여 박 헌영은 로동자들에게 동양 방직 공장을 습격케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우리가 끝끝내 이것을 거부하였더니 박 헌영은 저를 불러놓고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산적이라도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후 九월 총파업을 준비할 당시도 박 헌영은 파업을 폭동으로 전환시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에 있어서도 추수기에 농민과 합류하여 一〇월에 단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박 헌영은 농민과 련계없이 九월중에 하라고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북조선 로동 계급과 련계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입북과 관련하여 신임장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조선 로동자들로부터 보내온 원호금 二〇〇만원을 틀어쥐고 파업 투쟁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의 튼튼한 동맹자인 농민과의 련계와 북조선 로동 계급과의 련계를 적극 방해하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남조선 로동 운동을 미제의 도살장으로 유도하여 로동 운동을 압살시켰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증인 한 철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가고 물은바 피소자 박 헌영은 이의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검사총장과 재판 성원들에게 신문을 권한바 검사총장은 증인 한 철에 대하여—

문 박 헌영이가 파업을 폭동으로 내여밀라고 강요하였습니까.

답 네 한데 뭉쳐서 할 것이 아니라 분산되여서 폭동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검사총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한 철 증인의 진술이 옳은가.

답 네 옳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한 철을 착석케 하고 립회 서기에게 증인 김 소목을 입정시키게 하였다.

증인 김 소목에 대한 신문

재판장은 증인 김 소목에게 피소자 박 헌영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는바 사실을 진술하라고 한바 증인 김 소목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당의 대남 련락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인 一九四七년 봄 一〇통이나 되는 밀서를 박 헌영으로부터 받아서 서울에 있는 리 승엽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에게 증인 김 소목에게 신문을 허한바 검사 총장은 증인 김 소목에 대하여—

문 一〇통 중 간첩 자료는 몇통입니까.

답 간첩 자료가 몇통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밀서들은 대남 련락선을 통하여 평양에서 서울까지 가지만 그것은 련락 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직접 리 승엽에게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검사 총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문 증인 김 소목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는가。

답 네 부합됩니다。

재판장은 증인 김 소목을 착석케 하고 렵회 서기로 하여금 증인 권 오직을 입정시켰다。

증인 권 오직에 대한 신문

재판장의 요구에 의하여 증인 권 오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박 헌영의 죄악은 八·一五 해방전부터 종과 사상에 지배되여 감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헌영은 해방전부터 자기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같이 자고 자대하여 왔고 자기를 조선 인민의 『수령』으로 자처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一九四六년 당의 방침에 의하여 대남 출판물을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 출판하게 된 것을 악용하여 주로 자기의 공명을 선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헌영은 간부 배치에 있어서도 자기나 나와 같은 변절자들을 당과 국가 기관에 계속적으로 잠입시켰습니다。

또 박 헌영은 외무상으로 있으면서 쏘련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사들과 외교관들을 멸시하면서 반동 선전을 하여온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중 대사로 파견되여 갈 때 중국에서는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섭할 때 속을 털어 놓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주중 북경 대사관에 자기의 심복자를 잠입시키기에 광분하였습니다。 례를 들면 송성철같은 자는 품행이 좋지 않아 신망이 없는 사실을 외무상이였던 박 헌영에게 수차 제기하였으나 박 헌영은 기어이 그를 주중 북경 대사관에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게 증인 권 오직의 진술을 승인하는가를 물은바 피소자는 승인한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들에게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라고 한바 각각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증인 권 오직을 착석시킨 후 렵회 서기를 시켜서 증인 조 일명을 입정케 하였다。

증인 조 일명에 대한 신문

재판장의 요구에 의하여 증인 조 일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박 헌영이가 미국 간첩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제가 감촉하게 된 것은 一九四六년 초부터입니다。

해방 직후 박 헌영은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종파 분자들과 같이 리 승만이를 대통령으로 하는 소위 『조선 인민 공화국』을 꾸미는 음모를 한 일이 있는데 이때는 그가 미국 정탐이라는 것을 감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六년 二월 리 승엽이와 같이 미 군정에 체포되여 우리는 미국 간첩이 될 것을 서약하고 석방되여 박 헌영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 박 헌영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석방된 것은 내가 하지와 교섭한 결과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박 헌영이 미국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하지 않는가 속으로 의심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一九四六년 九월 박 헌영은 나더러 五○○만딸라 미국 강제 차관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기초하라고 하므로 제가 기초하여 박 헌영에게 보낸 다음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 제가 기초한 것보다 더 격렬한 내용으로 정정되여 발표되였댔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였습니다。

그러다가 박 헌영이 미국 간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一九四七년 四월 리 승엽으로부터 평양에 들어간 박 헌영에게서 二차에 걸쳐 간첩 자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해방 일보、로력 인민 등의 주필로 있었는데 一九四七년 一一월 초에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입북하게 되였습니다。 입북하여서는 서 득은이와 같이 평양시 기림리에 있으면서 대남 선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던 중 一九四八년 三월경 박 헌영은 저에게 대충적인 북조선 경제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 신문 잡지 등에서 적당한 자료를 뽑아 첨부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경제 정보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일간에 걸쳐 완전한 경제 정보를 만들어 서 득은이를 통하여 박 헌영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 득은의 말에 의하면 그 자료는 유·엔 조선 위원단에 소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해주 제一 인쇄소의 출판 지도를 하면서 림 화、박 승원 등을 조종하여 출판물에 박 헌영을 조선 인민의 지도자인 것같이 선전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 여름 입북한 리 승엽이와 같이 북반부에서 간첩 활동을 전개할 것을 토의하고 그해 一○월부터 간첩 루트를 완성하고 간첩 범죄를 계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범죄 활동은 박 헌영의 비호와 보장이 없이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一九五○년 六월 二八일 서울이 해방된 후 七월에 박 헌영을 따라 서울에 나갔을 때 리 승엽 등이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청사 지하실에 비밀 류치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실과 『토

지 조사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우리들의 죄행을 감촉하거나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여다가 학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상부로부터 「토지 조사 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지시가 있자 의용군 본부내에 「특수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런 범행을 그대로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그 살인 단체의 책임자를 선정하게 되였는데 저와 리 승엽이 먼저 토의하고 다시 제가 박 헌영과 토의하여 살인 단체의 책임자로서 저의 처남인 동시에 박 헌영의 처남인 윤 대현이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一九五一년 九월 초순 리 승엽이가 부르기에 중앙당 그의 사무실로 가니 거기에는 이미 배 철、림 화、박 승원 등이 와 있었읍니다。

여기서는 벌써 제가 오기전에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을 조직할데 대한 음모가 토의되였던 것입니다。 리 승엽이가 어떠냐고 묻기에 저는 좋다고 찬동하였습니다。 이날 리 승엽의 발의에 의하여 우리들은 리 승엽을 총사령으로 하고 참모장에 박 승원、군사 조직 책임에 배 철、폭동 지휘 책임에 김 응빈、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에 림 화와 나로 하는 무장 폭동 지휘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一九五二년 九월 첫번 휴식 일요일에 박 헌영의 집에 리 승엽、배 철、나、림 화、박 승원、윤 순달이 모여서 현존 공화국 정부와 당을 전복한 후 우리들이 수립할 「정부」와 「당」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상으로 박 헌영、당의 총비서로 리 승엽을 결정하고 동시에 우리 공범자들이 각각 상으로 결정되였습니다。

또한 당 련락부의 신설과 관련하여 박 헌영과 리 승엽이는 자기의 심복자 배 철、박 승원、윤 순달 등을 배치하여 자기들의 범죄 활동에 리용하였으며 동 련락부 산하의 유격대를 四천명 가까이 집결하여 무장력을 증강하였고 한편으로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를 조직하고 이곳에 「박 헌영 지반」을 구축하려고 기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 단체내에서도 남반부 간부들을 규합하고 남북 대립과 리간、알륵을 조성하게끔 조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활동들이 박 헌영이 모르게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무장 폭동 음모와 「신 정부」 조직에 박 헌영이 동석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가 미국 간첩의 두목으로서 결국은 공화국에 수립된 인민 정권을 뒤집기 위하여 활동하여 오는 것만치 우리의 무장 폭동 음모도 그가 기도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새 정부」의 수상도 그가 일상 념원하는 바로 그것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박 헌영과 토의 하나 마나 그는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범행을 진척시켰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증인 조 일명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가고 물은바 피소자 박 헌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들에게 대하여 증인 조 일명의 진술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물으라고 한바 각각 물을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증인 조 일명을 착석시킨 후 립회 서기를 시켜 증인 리 강국을 입정케 하였다。

증인 리 강국에 대한 신문

재판장은 증인 리 강국에게 박 헌영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 사실을 진술하라고 한바 증인 리 강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박 헌영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조선 인민 공화국』조작을 기도하여 왔습니다。 박 헌영은 우선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당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미군 상륙 후 박 헌영은 미군 사령관 하지와 접촉하면서 미 군정에 아첨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一九四五년 一一월에 남조선 각지의 인민 위원회 대표자 대회를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하지의 지령을 받은 박 헌영은 이를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一九四六년 九월 박 헌영으로부터 미 군정의 정치적 모략인 미국 五〇〇만딸라 강제 차관 반대 성명서를 민전 명의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결과 박 헌영과 저를 비롯한 一〇여명의 공산당과 민전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저는 은신하여 있으면서 박 헌영에게 밀서로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문의한즉 입북하라는 지령을 줍디다。 나는 빼트와 만나 입북할 데 대한 담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박 헌영과 미군간에 꾸며진 정치적 모략인 것을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가 평양에 들어온 후 곧 뒤따라 박 헌영도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나는 박 헌영은 미군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저는 박 헌영의 비호 보장에 의하여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되여 간첩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저의 범죄 수행에 있어서 일체 유리한 조건은 박 헌영이가 지어준 것입니다。

박 헌영은 저의 범죄 활동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간첩 자료로 할 수 있는 비밀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례를 들면 당의 중요한 기밀이라든가 또는 정권 기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기밀들(그것은 외무국장인 저도 알 수 없었던 기밀들입니다)을 말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차례 빼트에게 간첩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저는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해주 제一 인쇄소 지도 책임을 맡아 보면서 박 헌영이가 희망하는 방향에서 출판 사업을 하도록 한 사실도 있고 박 헌영과 담화할 때 당과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비방、중상을 호상 교환하여온 일도 있습니다。

一九四八년 九월 제가 외무국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박 헌영과의 관계가 일시 단절되였댔습니다。

그후 一九五〇년 봄부터 박 헌영이 입북시킨 미국 간첩 현 애리스와 련계를 가지고 두번 그에게 군사 기밀을 탐지하여 제공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소자 박 헌영에게 증인 리 강국의 진술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나 론박할 것 혹은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하라고 한바 피소자는 증인 리 강국의 진술이 틀림 없기에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들에게 증인 리 강국의 진술에 대하여 물을 것이 없는가고 한바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들은 각각 신문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증인 리 강국을 착석시킨 후 동일 一八시 휴정을 선언하였다。

* * *

동일 一八시 一〇분 공판은 계속되였다。

재판장은 검사 총장과 재판 성원들에게 피소자나 증인들에 대하여 더 보충하여 신문할 것이 없는가고 물은바 각각 없다고 대답하였다。

재판장은 다시 피소자와 증인들에게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충할 것이 없는가고 물은바 각각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이로써 재판 신문을 끝마치고 검사 총장의 론고를 청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검사 총장은 별지와 같이 론고하였다。

三、국가 검사의 론고

피소자 박 헌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 행위 사건에 대한 검사 총장 리 송운의 론고

一、공판의 의의와 특수성

판사 동무들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의 고용 간첩이며 갖은 흉악하고 교활한 모략과 방법을 다하여 조국과 인민을 반대한 파괴 암해 테로 공작을 장기간에 걸쳐 감행하였으며 수많은 애국자들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반역 음모를 로골적으로 감행한 간첩 파괴 살인 조국 반역 도당의 두목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국가 소추 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사건 재료들과 피소자의 범죄 사실을 확증하는 일체 증거들을 추도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수년전에 리 승엽을 비롯한 미제 간첩 도당들에 대한 공화국 법령의 공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이 끝없는 증오와 저주로 회상하는 리 승엽 간첩 도당들이 감행한 매개 범죄 행위가 저기에 쭈구리고 앉아 있는 피소자 박 헌영의 지도와 직접적 참가에 의하여 감행되였다는 사실을 피소자 본인의 진술과 일체 사건 재료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똑똑히 확증하였습니다.

민족적 량심의 마지막 일편까지 던져버리고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전락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여 조선 인민의 천추에 잊지 못할 범죄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하여 주시는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흉한 범죄를 감행하고 였는 피소자 박 헌영의 죄책이 얼마나 엄중하며 그가 감행한 범행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결과를 낳았는가를 전체 조선 인민들과 함께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재판 심리는 미제의 고용 간첩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한 단죄일 뿐만 아니라 박 헌영과 그 도당들을 사촉하여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쏘련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변시킬 음흉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만대에 잊지 못할 원한과 재난을 남겨 놓았으며 오늘날 계속 그 피묻은 흉악한 마수를 뻗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전 인민적 증오와 저주이며 그들에 대한 복수에 불타는 준엄한 세기적 심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동지

존경하는 판사 동지들

나는 국가 소추 기관의 대표자로서 본 재판 심리에서의 나의 마지막 의무를 리행하면서 피소자 박 헌영의 범죄 사건의 기본적 본질을 특징지우며 범죄에 응당한 공화국 법령의 공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당신들에게 제기하는 것을 국가와 인민 앞에서의 나의 법적 의무로 인정합니다.

본 재판 심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바와 같이 피소자 박 헌영은 위대한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一九一九년에 일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三·一 운동시에 당시 조선 청년들 속에 널리 보급된 민족적 의분의 영향에 휩쓸리여 삐라 산포에 참가하였으나 그 직후 그는 서울에서 당시 친미 분자 차 미리사가 주간한 『녀자 시론』의 편집원으로 들어가 차 미리사를 통하여 미국인 간첩이며 연희 전문 학교 교장이였던 선교사 언더우드를 알게 되여 그와 친교를 맺게 되였으며 친미 사상으로 교양되였습니다. 그때부터 피소자 박 헌영은 미국을 숭배하는 친미 사상에 물젖게 되였으며 충실한 미국 숭배자로 되였습니다.

一九二〇년에 상해로 넘어간 박 헌영은 당시 상해에 은신하고 있는 친미주의자들의 비호하에 三·一 청년회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탈을 쓰고 조선 독립은 오직 미국의 비호하에서만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소자 박 헌영은 그의 첫 출발로부터 그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였으며 진실한 애국자도 아니였는바 그후 그가 완전히 미제의 국제 스파이로 전락하게까지 이르게 된 조국 반역 사상은 벌써 그때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의 충실한 선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영향하에 조선에 침투된 맑스 레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목적을 품고 一九二四년 상해로부터 조선에 들어온 박 헌영은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조선 공산 청년 동맹 비서로 되여 공산주의자들 간의 파벌 암투 질시를 조장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단결을 파괴하는 온갖 교활한 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미국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一九二五년에 일제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였을 때에 그는 수많은 동무들을 밀고 체포케 하고 변절되여 일제에게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하고 재판도 없이 『정신 병자』로 가장하여 一九二七년에 소위 『보석』이라는 구실을 붙여 석

방되는 비렬하고 추잡한 행위까지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三二년에 다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였을 때에도 자기의 변절을 다시 표명하고 일제에 더욱 충실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에 미국인 간첩 언더우드를 다시 만나서 미국의 간첩으로 활동할 것을 맹세한 후 상기 언더우드의 직접적 지시를 받아 미제의 국제 스파이로 간첩 임무를 실행하기에 발광하였습니다。

피소자 본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一九三九년 一○월 미국 정탐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로부터 미국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을 응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박 헌영의 이 고백은 일찌기 一九三九년 一○월부터 미국 간첩으로 전락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간첩으로 전락된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 一二월 미국 정탐 언더우드를 만나 그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로동 운동 내부에서 피소자의 간첩 활동 지반을 공고히 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하라는 명령과 함께 간첩 재료들을 수집 련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미국 정탐 언더우드와 긴밀한 련계를 취하면서…… 애국자로 가장한 후 『서울 콤크룹』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장차 자기의 반혁명적 활동의 지반으로 만들려고 기도하였으나 一九四一년 일미간의 전쟁이 발발되자 일제 경찰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에 자기 정체가 폭로될가 두려워 자기의 신변상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에 도피하여 전라남도 광주에 이르러서 은신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이 은신 생활을 지하 운동을 한 것으로 가장하고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공산당이 아직 자기의 기본 정치 및 조직 로선이 없었고 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혼란한 시기에 미 제국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리 승엽 도당들의 비호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공산당 당비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조선을 식민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 정탐 언더우드의 직접적인 지령을 충실히 실천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때문에 피소자는 일제를 대신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에 상륙하게 되자 즉시 간첩 파괴 암해 활동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一九四五년 九월말 하지를 만나 남조선에서 공산당을 미국 식민지 정책에 적극 순응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밀약하였으며 동년 一一월에는 서울 반도 호텔에서 언더우드로부터 직접 하지의 간첩으로 정식 인계되자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남조선의 공산당 내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의 지반을 공고히 하며 북조선 공산당 내부에도 그 세력을 부식시키며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시키는 한편 당내의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며 남조선의 공산당을 미국 정책에 복종시키는 당으로 지도하라는 지령에 의하여 一九四六년 二월 초순 박 헌영은 하지에게 남조선의 공산당 중앙 및 지방 조직 체계와 그의 활동 정형、그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 단체 조직과 간부 명단 및 민전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계속하여 一九四六년 三월과 五월 二차에 걸쳐 하지에게 남조선의 공산당 장성 정형 및 쏘 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공산당의 태도와 협의 대상 문제 등에 관한 중요 재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一九四六년 三월에는 미군 사령관 하지로부터 리 승엽과 조 일명을 당과 정부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 활동을 지도할 데 대한 새로운 지령을 받고 리 승엽을 남조선

의 공산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으로 등용하고 조 일명은 당 기관지인 해방 일보사 주필로 등용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一九四七년 九월까지 六차에 걸쳐 중요한 당 내부 기밀들을 수집하여 하지에게 계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박 헌영의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은 남조선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반부에서도 감행되였습니다。

그것은 一九四六년 九월 五일 서울 반도 호텔에서 하지로부터 남조선에서 공산당은 미 군정 실시에 방해되므로 탄압할터이니 이 기회에 북반부에 들어가서 간첩 파괴 암해 행위를 계속하며 북조선 로동당과 정권 기관을 장악하기에 노력하며 간첩 리 강국을 파견할터이니 그를 당이나 정권 기관의 중요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간첩 활동을 보장하라는 월북 지령을 받은 다음 이 범죄적 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지는 박 헌영으로 하여금 미국의 차관을 반대하는 날조적 성명서를 발표케 하고 이를 구실로 하여 미 군정이 박 헌영、리 강국 등에 대한 체포령을 조작하여 내리게 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희극을 꾸며 내여 일면으로는 박 헌영을 월북 잠입시키고 다른 면으로는 남반부 민주 일꾼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는 모략적인 범행이 조작 감행되였습니다。

이 모략적인 범죄의 본질에 대하여 이미 인민의 심판을 받은 미 군정 경무부 차장 최 경진의 고백에 의하면—

『一九四六년 九월 초순 서울 종로 명월관이란 료리집에서 나는 나의 지도하에 있던 수도 경찰청장 장 택상과 같이 술을 마시였는데 이때 장 택상은 나에게 영어로 쓴 박 헌영 등에 대한 체포장을 보이면서 「나는 오늘 하지 사령부에 갔다 왔는데 하지 사령관께서 공산당 간부들과 기타 좌익 거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나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을 정말 체포할 것이 아니라 체포하려 다니는 형식으로 三八이북에 쫓도록 하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체포령이 하지의 정치적 모략이니 이 체포 연극을 잘 꾸며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사실로써 이 범행의 정치적 모략성의 본질을 실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한 소위 체포령을 구실로 一九四六년 一〇월에 박 헌영은 자기의 심복자 서 득은을 길 안내자로 하여 월북한 즉시로 하지의 간첩선을 개척하기 위하여 一九四六년 一一월 초순부터 서 득은을 통하여 자기가 무사히 월북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련락하는 일방 계속하여 一九四七년 二월에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련락 책임자이던 김 소목과 리 승엽을 통하여 하지에게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七년 四월 재개될 제二차 쏘미 공동 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리 승엽을 통하여 하지에게 제공하였으며 계속하여 一九四八년 六월에는 조선 로동당의 중요 결정 및 당 내부 기밀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준비 사업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서 득은을 통하여 하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첩 행위는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남로당의 조직적 활동을 파괴 약화시켰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목적하던 쏘미 공동 위원회를 파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 박 헌영은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와 때를 같이 하여 『체포령』을 구실로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한 리 강국의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를 북조선 외무국장의 직위에까지 등용하고 一九四七년 二월과 동년 一二월에 걸쳐 박 헌영은 자기가 모쓰크바에 갔다온 중요 국가 기밀들을 그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첩 리 강국은 그 재료와 함께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一九四八년 八월까지의 기간에 수집한 공화국 북반부의 중요 정치 경제 군사에 관한 정보 재료 즉

평양 학원에 대한 재료
강계 개천 등지에 주둔한 인민 군대 및 경비대의 병력과 그의 배치 정형에 관한 재료
평양 주둔 쏘련군 사령부의 내부 실정과 북조선 주둔 쏘련 군대에 대한 중요 기밀 재료
북조선 인민 위원회 기구 체계、외교 정책 및 그에 관련된 일체 정보 재료
화폐 개혁 실시 정형에 대한 재료 一九四七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통계 재료
一九四八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재료

를 종합하여 자기의 비서로 있던 신 태희를 서울에 파견하여 빠트의 애인인 김 수임을 통하여 빠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공화국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간첩 활동을 더욱 활발히 수행하며 그의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一九四八년 六월에 하지에게 리 승엽을 월북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남조선에 주둔한 미국 정탐 기관에서는 박 헌영의 요청대로 一九四八년 八월에 자기들이 장기간 양성 훈련한 간첩 리 승엽을 공화국 북반부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리 승엽의 월북과 관련하여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九월 중순 남산리 자기 집에서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의 직접 간첩 활동은 리 승엽에게 인계하고 피소자는 일체 간첩 파괴 활동에 대한 총지휘자로 나섰습니다。

그후 하지가 남조선을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간첩 활동에 대한 련계는 직접 노불과 맺으라는 하지의 지시에 의하여 그후부터는 노불과의 간첩 활동이 시작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박 헌영은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간첩들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간첩분자들을 당과 정부의 높은 직위에 잠입시키였는바 즉

리 승엽은 당 중앙 위원회 비서
조 일명은 문화 선전성 부상
서 득은은 남로당 지도부 조직 책임으로
안 영달은 경기도 인민 위원장
림 화는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박 승원은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부부장으로 각각 잠입시켰으며 특히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六월 하지에게 간첩 련락으로 파견하였던 서득은을 통하여 박 헌영이가 一九二〇년도 상해 생활에서 조선 민족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이던 현 애리스를 자기의 첫 애인으로 하였고 제二차 대전 후 미군이 남반부에 상륙하였을 때 상면하였던 씨·씨·아이·지·케에서 미국 군대로 비밀 공작하던 현 애리스를 비롯한 몇사람의 미국 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반부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과 간첩 활동을 보장하라는 하지의 지령을 받고 있던차 一九四九년도에 와서 정치적 망명객으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에 와 있던 미국 간첩 현 애리스와 리 사민을 미국에서 추방 당한 진보적 인사로 음폐하여 입국을 보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 애리스를 중앙 통신사 또는 외무성에 리 사민을 조국 전선의 중요한 직위에 배치시켜 주면서 이들의 간첩 활동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 광범한 간첩망을 설치하고 미국 본토내에 있는 정탐부와 련계를 취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남조선에 있는 미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면서 一九四八년 一一월부터

一九四九년 七월까지 연 五차에 걸쳐 각 방면에 걸쳐 수집한 간첩 재료들을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는바 그 정보 재료들은—

一九四八년 一一월에 수집 작성한 공화국 내각 각료들의 리력 문건과 산업 발전 정형에 대한 정보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二월에는 쏘련군 철퇴 정형에 대한 군사 정보 자료 남북 조선 로동당 련합 중앙 위원회 구성 성원에 대한 재료, 북반부 인민 경제 부흥 발전에 대한 통계 등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四월에는 조선 인민군 병종별 병력수 및 그 주둔 위치의 군사 기밀과 一九四八년도 범죄 동태 등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五월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의 중요 결정 三통을 제공하고

一九四九년 七월에는 당 중앙 정치 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 간부들의 리력 문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첩 행위는 박 헌영의 공모자였던 간첩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박 승원, 림 화 등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됩니다.

피소자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이 간첩 분자들의 행위는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중국 및 쏘련을 침략하기 위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침략 정책 계획에 이바지 하였으며 동족 상쟁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재료로 되였습니다.

이러한 간첩 도당들은 그후 계속하여 一九五〇년도에 들어서면서 간첩 리 승엽은 박 헌영의 지휘하에 노불의 지도를 받으면서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동년 四월까지 니콜스와의 련계하에 간첩으로 잠입한 조 용복에게 인민군 항공 기밀과 조선 로동당 내부 실정에 관한 비밀을 三차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五월 초순경 노불의 지령에 의하여 잠입한 미국 간첩 백 형복과 안 영달, 조 용복 등을 만나 노불의 지령대로 리 승엽은 평양에서 종전과 같이 당과 정부의 기밀을 수집하며 안 영달은 새로 조직되는 당 서울 지도부에 잠입하여 그 내부 정형을 정상적으로 노불에게 제공하며 조 용복은 리 승엽이가 안 영달을 경유하여 노불에게 전달하는 련락을 담당하였으며 백 형복은 내무 기관에 잠입하여 리 승엽이와의 련계밑에 간첩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 정탐 기관에서 계속 간첩으로 훈련한 분자들을 접수하여 점차 간첩망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전쟁 계획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때 박 헌영은 잠입하는 간첩들을 의거 입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나는 一九五〇년 四월에 평양 남산리 나의 집에서 안 영달을 통하여 백 형복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백 형복은 안 영달과 같이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활동한 자이며 그가 리 승만 경찰에 있으면서 남조선 지하당을 파괴하는 일련의 중요한 활동을 감행하였음을 알고 나는 리 승엽에게 그의 신변상 보호를 맡기여 주었습니다』(五권 九二—九三정)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하는 간첩 분자들은 우리의 민주 기지를 파괴하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미제 무력 간섭이 개시되자 피소자 박 헌영의 간첩 활동은 더 교활하게 진행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五〇년 一二월 재 진공 이후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전쟁에서 공화국이 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들인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림 화, 서 득은 등의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높은 직위에 등용하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 一九三九년부터 미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전락된 박 헌영은 자기의 지휘하에 있던 간첩 리 승엽 도당들이 적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二、남반부 민주 력량 파괴 약화 행위

존경하는 판사 동무들

피소자 박 헌영은 미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미제 고용 간첩으로 또는 그의 두목으로 활동하는 일방 미제의 소위 『후방 숙청』이라는 흉책에 발맞추어 남로당을 파괴하려는 데 협력하는 동시에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반당적 반인민적 범죄들을 음폐하기 위하여 수많은 당 간부들과 민주 인사들을 테로 학살함으로써 남로당과 애국적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범죄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박 헌영의 이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의 목적은 자기의 범죄 활동에 방해되는 남반부 당 지도 간부들과 당원들 및 민주 인사들을 테로 학살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다른 면으로는 자기들의 죄상을 음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九월 하지의 지령에 의하여 직접적인 자기의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한 후 자기와 자기의 공모자들의 범죄적 활동 조건과 비밀 보장을 위하여 박 헌영은 자기의 공모자들인 리 승엽, 안 영달, 서 득은 등을 조종하여 남반부에서 적들과 투쟁하다 피난처를 찾아 월북하는 지하 당 간부들중 자기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하여 소위 『변절』 『간첩 혐의』 소위 『당 공작 기밀 루설』 등의 날조적인 구실을 붙여 三八 연선에서 수많은 일꾼들을 테로 학살하였습니다。

박 헌영의 조종하에 있던 그의 공모자 안 영달은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동년 八월까지의 사이에 一三차에 걸쳐 四二명의 남로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소위 『변절자』 또는 『간첩 혐의자』라는 날조적인 구실하에 장풍군 영남 련락소 부소장이던 전 구라에게 지시하여 살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一九四八년 八월 초순경 개성시 당 위원장이던 김 재관과 동년 一〇월경에는 장단군 당 위원장이던 서 구돈을 소위 『변절자』라는 구실을 붙여 학살할 목적으로 체포 감금하였다가 三八 경비대에 발각되여 소기한 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이 죄악은 당시 학살 테로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던 맹 종호의 진술에서 충분히 폭로됩니다。 그는 진술하기를 『……一九四九년 여름 내가 남조선 로동당 양양 련락소장으로 있을 당시 서 득은으로부터 남반부에서 당 공작을 하다 입북한 현 인초 외 二명을 간첩 혐의가 있으니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는 직접 그들을 심사하여 보았으나 아무러한 혐의 사실도 없었으므로 총살을 주저하고 있던 차에 리 승엽으로부터 자기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하여 엄격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후 리 승엽은 양양 련락소 지도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비밀리에 살해

하였습니다……』(五권 一三〇정)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인귀 박 헌영 도당들의 범행은 비단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一九四八년도부터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남로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보도 련맹』을 조직하고 류혈적이고 잔인하게 감행한 당 파괴 활동을 적극 방조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 헌영은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四八년 말경에 당 중앙 정치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남조선에서 리 승만 경찰이 「보도 련맹」을 조직하고 남로당원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그 자수 운동에 대하여 해당한 조직적 대책을 취하자고 나에게 제의하였을 때 나는 남반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만일 있다 하여도 남로당은 강한 전투적 부대로 보전되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리유는 내 자신이 미국 정탐 기관에 종사하는 것만치 적들이 남반부 당 조직을 파괴하고 그의 력량을 「보도 련맹」에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세력으로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라고 고백한 것으로써 명백합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그후 계속하여 一九四九년 六월 一八일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호소문이 발표된 기회를 리용하여 남로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남로당원들에게 폭동을 준비시킴으로써 적들에게 탄압의 구실을 만들어 적들로 하여금 로동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검거 투옥 및 대중적 학살을 감행케 하였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미 인민의 심판을 받은 백 형복의 고백에만 의하더라도 남로당 전라북도 및 강원도 당 조직을 직접 파괴하고 약 四〇〇 여명의 당 간부들을 투옥하였다는 사실에서 명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령대로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 와해시키기 위하

여 자기의 지도하에 있는 간첩 리 승엽 도당들을 중요 직위에 계통적으로 등용 배치하고 그들의 파괴 암해 활동을 지도 보장한 결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불과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의 직접적 지휘밑에 안 영달, 조 용복 등에 의하여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 당 서울 지도부 책임자 김 삼룡을 체포 학살케 함으로써 남반부 지하당 조직과 민주 력량을 최종적으로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그의 공모자들은 조국 해방 전쟁 개시 후 적들의 괴멸과 함께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추악스러운 범죄를 음폐하고 계속 반국가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방된 서울 지구에서 박 헌영의 직접적 지도밑에 있던 리 승엽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가장 충실한 리 중업을 두목으로 한 테로 학살 단체를 조직하고 동 청사 지하실에 설치한 비밀 류치장에 무고한 인민 七〇여명을 감금하고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가하던 나머지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을 붙여 七명의 로동당원들을 총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의 직접적 지도하에 있던 리 승엽은 남로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테로 학살함에 있어서 보다 조직적으로 은밀히 감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一九五〇년 七월초 안 영달과 같이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라는 비밀 살인 단체를 조직하고 이 살인 단체를 외면상으로는 국가 사업을 보장한다는 구실을 붙이고 자기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 학살하며 변절자들을 규합하는 도구로 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상부로부터 이 단체의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헌영의 지도하에 있는 리 승엽은 자기들의 테로 학살 행위를 계속 감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도밑에 있는 의용군 본부내에 소위 『특수부』를 설치하고 『토지 조사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인 단체 즉 『토지 조사 위원회』와 『의용군 본부 특수부』에 의하여 로동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고문 당하였으며 학살되였던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교활하고 음흉한 박 헌영은 자기들의 범죄 활동에 대한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도하에 있는 리 승엽 등의 테로 학살 행위를 은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로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은 자기들이 감행한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의 비밀이 로출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의 공모자들까지도 서슴치 않고 살해하였습니다。 즉 一九五〇년 七월 안영달이가 김 삼룡을 괴뢰 경찰에 밀고하여 체포케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박 헌영은 자기들의 추악한 범죄적 정체를 음폐하기 위하여 리 승엽에게 지시하여 안 영달을 전선에 동원되는 림 종한 대렬에 배속시키여 비밀리에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소자 박 헌영은 미국을 배경으로 또한 그들의 지시에 의하여 남로당을 최후적으로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울 해방과 관련하여 살아난 남로당원들과 애국자들마저 모조리 테로 학살케 함으로써 우리 당을 약화시키며 당 주위에서 대중을 리탈시키는 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三、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행위

판사 동지들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의 충실한 주구인 박 헌영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간첩 행위、민주력량의 파괴 약화 및 테로 학살 등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를 감행하는 한편 일찌기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조선에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한 지주 자본가 정권인 소위 『정부』 수립을 몽상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범죄 활동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박 헌영의 이와 같은 범죄적 활동의 목적은 해방 직후 소위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조선 공산당의 지도권을 장악한 첫날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봉사하는 정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다시금 우리 나라에 낡은 자본주의 제도를 확립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후 박 헌영은 一九四六년 九월 하지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에 월북하여 당과 정부 내에서 간첩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북조선 로동당을 내부로부터 파괴 와해하기 위한 암해 활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애국자로 가장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할 수 있었던 박 헌영은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의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혁명 분자들을 당과 정권 기관내에 잠입시키고 해주 제一 인쇄소와 강동 정치 학원을 장악하고 자기의 범죄 목적에 리용하였으며 그후 공화국 정부 수립과 남북 로동당 합당을 계기로 一九四八년 九월 리 승엽을 통하여 하지로부터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하고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력량을 집결하라는 지령을 받은 박 헌영은 직접 또는 리 승엽과 결탁하여 자기의 심복자들과 간첩 분자、변절자들의 죄상과 정체를 음폐하는 한편 당과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내에 간첩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여 범죄적 활동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로동당과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내에 잠입시킨 파괴 암해 분자들을 통하여 온갖 허구적 방법과 불신임을 류포 조성시키는 방법으로 당과 정부 주위에 집결된 인민 대중들을 리탈시키며 당과 정부의 정상적 활동을 약화시킴으로써 공화국 정권 전복을 쉽사리 달성하려고 획책하여 왔던 것입니다。

박 헌영의 이러한 행위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자기의 지도하에 있는 공모자들로 하여금 당 내부의 분렬을 조성하며 당과 정부의 신임과 위신을 저락시키며 당과 정부의 정책을 더욱 로골적으로 반대 비방하여 나서도록 조종하였는바 그중 특히 문화 예술 단체내에서 호상 불신임과 알륵을 조장시키여 남북 대립 사상을 선전함으로써 당내 사상 분렬을 조장시키는 한편 一九五一년 八월경에는 당 중앙 위원회 내에 련락부가 조직되게 되자 남반부 사업을 강화한다는 구실밑에 박 헌영의 직접 지도하에 련락부내에 공모자들과 심복자들을 집결하고 련락부를 공화국 인민 정권 전복 음모 활동의 참모부로 전환시킬 것을 목적으로 리 승엽을 당 비서의 자격으로 련락부를 지도하게 하며 배 철을 련락 부장으로、 박 승원과 윤 순달을 그의 부부장으로、 련락부 산하 금강 학원 원장에 김 응빈을 등용 배치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공화국 정권 전복 활동의 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一九五一년 一一월부터는 개성을 중심으로 신 해방 지구에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할 음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박 헌영은 자기의 공모자 리 승엽에게 지시하여 리 승엽으로 하여금 배 철、박 승원에게 현지 실정 조사 및 간부 선발 준비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동년 一一월 하순에는 배 철、박 승원、림 화에게 경기도를 자기들이 틀어쥐고 이곳을 공화국 정권 전복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간부 양성 및 력량 배양의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 실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 조직될 경기도 인민 위원장으로는 박 승원、부위원장으로는 안 기성、서기장에는 정 용구 등을 비롯한 박 헌영의 심복자들을 배치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권 전복 음모 행위에는 박 헌영의 지도하에 리 승엽、배 철、박 승원、림 화、조 일명 등으로 하여금 무장 폭동과 그의 실현을 위한 모략 활동을 적극 추진시키는 일방 이들로 하여금 一九五二년 九월 초순경에는 박 헌영의 응접실에서 공화국 정권을 전복한 다음 자기들이 앞으로 수립하려는 소위 『새 정부』 『새 당』의 구성 성원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 정부』의 소위

수상으로 박 헌영
부수상으로 주 녕하、장 시우
내무상으로 박 승원
외무상으로 리 강국
무력상으로 김 응빈
선전상으로 조 일명
교육상으로 림 화
로동상으로 배 철
상업상으로 윤 순달

그리고 『새 당』의 제一 비서를 리 승엽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의 공모자들은 미군의 공세 시기에 무장 폭동을 배합시킬 목적으로 무장 폭동 지휘부들로서—

총사령관 리 승엽
참모장 박 승원
군사 조직 책임 배 철

폭동 지휘 책임　　김 응빈

정치 및 선동 책임　　림 화、조 일명

등으로 형성하고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산하 유격 제一〇 지대에서만 하여도 一九五二년 一一월까지 근 四〇〇〇여명에 달하는 무장 부대를 편성하고 무장 폭동에 유리하게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속 공화국에 적대되는 사상을 부식시키면서 무장 훈련을 강화하고 소위 유사시에는 이들을 직접 무장 폭동에 동원시킬 계획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위 무장 폭동 지휘부 참모장이였던 박 승원은 『전선에서 미군의 공세가 시작되여 평양 방면으로 진공하여 오면 사전에 이미 폭동 지휘부가 조직 편성한 무장 부대들을 평양 주변에 집결시켰다가 리 승엽의 총지휘하에 폭동 작전 계획에 따라 일시에 무장 부대들을 동원시킬 것이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극악하고 천인 공노할 인민의 원쑤인 박 헌영과 그의 공모자들이 몽상한 무장 폭동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리 승만、박 헌영 등 반역자들을 두목으로 하는 미제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조선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박 헌영의 『최종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동지

존경하는 판사 동지들

미제 고용 간첩 피소자 박 헌영이 감행한 이상에 지적한 일련의 엄중한 범죄 행위들은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침략하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대륙 침략의 병참지로 만들기 위한 강도 미제의 대륙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들의 직접적 지시와 사촉에 의하여 감행되였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자기의 상전 미제 침략자들의 흉악한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갖은 음흉하고 간악한 방법과 비렬한 수단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무시무시한 파시스트의 본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一九년 서울에 와 있은 미국 정탐배 언더우드와 친교를 맺은 때로부터 미제의 아세아 침략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충실한 복무자로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수많은 범죄 행위들과 특히 一九三九년부터 미국 정탐 기관들과의 직접적 련계를 맺고 직접 미국의 고용 간첩으로서 처음에는 상기 미국인 간첩 언더우드의 지시밑에 그후에는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미군 사령관 하지、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미군 대좌 니콜스、미군 제二四 사단 헌병 사령관 빼트、하지의 정치 고문 빼취、서울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블、미군 헌병 대위 죤손 등의 직접적인 지령과 지휘밑에 감행한 상기한 일체 범죄 행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조국과 전체 우리 민족을 반대하여 수행되였습니다。

미제의 가장 흉악한 간첩 두목으로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여 당과 정부의 요직에까지 숨어들어 자기의 앞잡이들을 사촉하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 각 방면의 기밀을 계통적으로 미제 정탐 기관에 제공하는 동시에 공화국의 수많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미제로 하여금 검거 투옥 학살케 하여 마침내 남로당을 파괴하는 일방 조국 전쟁 시기의 곤난한 환경을 리용하여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의 음모를 꾀하는 데까지 이른 조국 반역의 엄중한 범죄를 직접 조직하고 감행한 피소자 박 헌영의 죄행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동 제六八조、동 제六五조 一항、동 제七六조 二항에 각각 해당되므로 그가 감행한 범죄의 엄중성으로 보아 상기 법조들이 예견하고 있는 가장 높은 형벌이 적용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비렬하고 추악한 미국의 고용 간첩인 피소자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간첩 도당 특히 국가와 인민에게 끼친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며 그 감행한 범죄의 엄중성은 오직 그들의 죽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동지

존경하는 판사 동지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피에 굶주린 승냥이의 탈을 쓴 미제의 고용 간첩인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한 본 재판 심리의 진행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공화국 법령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혁명적 법 질서의 공정한 수호자인 당신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한사람만이 아니라 미제 고용 간첩의 두목인 박 헌영과 그 도당들의 피묻은 흉악한 마수에 희생되여 천추에 원한을 품고 지금은 이미 지하에 누워 있는 전체 애국자들과 그들의 **부모** 처자 형제들의 이름으로 인민의 원쑤 미제의 간첩인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이미 제기된 **소추를** 강경히 지지하며 공화국 형법이 예견한 가장 엄혹한 형벌로 그를 단죄할 것을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한 본 재판 심리와 당신들의 공정하고 준엄한 심판이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음흉한 시도에 치명적 타격의 모범으로 될 것을 확신하며 백번 죽어도 인민의 원한을 끌수 없는 저주로운 미제의 간첩인 피소자 박 헌영에게 오직 사형을 내릴 것을 바랍니다。

검사 총장의 론고가 끝난 다음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최후 진술을 허한바 피소자 박 헌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四、피소자 박 헌영의 최후 진술

검사 총장의 론고는 전적으로 지당합니다。 저의 마수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를 범하였으며 불행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불행에 대하여서와 일체 범죄 행위에 대하여서는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 총장이 론고한 바와 같이 저의 죄악의 엄중성으로 보아 사형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공판 심리에서 『신 정부』와 『새 당』의 조직 음모라든가 무장 폭동 음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저에게 없는 것같이 진술한 부분은 한개 궤변으로 잘못된 것이기에 취소합니다。

제가 미국 간첩들의 두목이고 그들을 나 자신이 희망하는 범죄를 감행하게끔 모든 것을 비호 보장하여 온 장본인인 까닭에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과거에 감행하여 온 추악한 반국가적、반당적、반인민적、매국 역적 죄악이 오늘 공판에서 낱낱이 폭로된 바이지만 여기 오신 방청인들 뿐만 아니라 더 널리 인민들 속

에 알리여 매국 역적의 말로를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一九시 재판장과 재판 성원들은 판결을 평의 표결하기 위하여 퇴정하였다。

* * *

동일 一九시 三五분 재판장의 위임에 의하여 재판 성원 조 성모가 판결서를 랑독하였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 특사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고하고 동일 二〇시 공판이 끝났음을 선언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특별 재판

재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최 용 건

서기 박 경 호

평 양 시

五、판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이름으로써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五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최 용건을 재판장으로 하고 김 익선、림 해、방 학세、조 성모를 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특별 재판은 서기 박 경호의 립회로써 심리를 공개하고 최고 검찰소 검사총장 리 송운의 관여밑에 형법 제七八조、동 제六八조、동 제七六조 二항、동 제六五조 一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

생년월일 一九〇〇년 五월 二八일 생 남자

본적 충청남도 례산군 신양면 신양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화성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전 부수상 겸 외무상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극동 침략의 군사 기지로 할 계획에 근거하여 악랄한 음모를 집요하게 계속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一九四五년 九월 자국 군대의 남반부 상륙을 계기로 조선에 관한 국제 공약들을 란포하게 유린하면서 이 침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로골적으로 발광하였다。

즉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리 승만 매국 역도들로 괴뢰 정권을 조작한 후 공화국 남반부에 팟쇼적 군사 경찰 제도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요소에 대하여 갖은 테로 살륙을 자행하다가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 드디여 이미 계획 준비하여온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 창건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하고 전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화하기 위한 동족 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조선 인민의 영웅적 항거에 봉착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한 후 一九五三년 七월 二七일 정전 협정에 조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기간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직접적 발광과 병행하여 간첩 리 승엽、리 강국、조 일명、림 화 도당을 고용하여 남반부에서의 조선 인민의 정의로운 반항 투쟁을 진압하고 당과 민주력량을 와해 궤멸하였으며 다시 그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파송하여 당과 정부 내에 깊이 잠입시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색 첩보하는 간첩 범행을 수행하게 하였고 조선 인민의 애국적 단결을 약화 소멸시킬 목적으로 리간、대립、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모략을 계통적으로 감행케 하였으며 내종에는 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을 결행하기로 음모하는 데 이르기까지 내부로부터의 파괴를 기도한 일련의 범죄를 조직하고 조종하였다。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평양시에서 피소자 리 승엽 등 一二명에 대하여 선고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이상과 같은 간첩 행위、반혁명적 모략 행위、무장 폭동 음모 행위들은 이미 一九三九년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에 복무할 것을 원쑤 앞에 맹약한 간첩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 수행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一、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一九년경 서울에서 잡지 『녀자 시론』(女子時論)의 편집원으로 있을 때부터 동 잡지를 주간하는 친미분자 차 미리사와 기독교 선교사로서 연희 전문학교 교원(후에 교장)으로 있던 미국인 언더우드와의 친교를 통하여 숭미사상(崇米思想)을 품게 되였고 一九二五년 一一월 초순 일제 경찰에 체포되자 변절하여 평안북도 경찰부에 조선 공산당과 조선 공산 청년 동맹의 서울、신의주、평양、강화、대구、마산、광양、안동을 비롯한 각지의 지하 비밀 조직을 고백하고 지도적 간부들을 고발함으로써 일제의 주구로서 조선 혁명 운동 탄압에 복무하였으며 그 댓가로 『정신적 착란』이라는 구실밑에 『보석』의 명목으로 석방되였고 一九三九년 九월에는 대전 형무소에서 일제 앞에 혁명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 『사상 전향』을 표명하고 출옥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 一〇월 五일경 서울 종로 三정목 료리점 백합원(百合園)에서 연희 전문 학교 교장이고 기독교 선교사로 가장한 미국 정보 기관의 탐정인 언더우드를 상면하고 그의 요청을 응락하고 동인에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에 간첩으로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서약한 후 동년 一二월 언더우드로부터 지하에 깊이 침투하여 조선 혁명 운동 내부에서 자기 기

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지도적 지위를 탈취함으로써 장차 미제의 조선 침략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과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련락할 데 대한 지령을 접수하고 그것의 실천으로서 곧 서울 『콤크룹』에 접근하여 지도권을 탈취한 후 조선 혁명 운동에서의 종파적 조직인 이 『콤크룹』을 언더우드의 지령에 근거한 자기 활동의 기반으로 만들 것을 기도하다가 一九四一년 一二월 일 미간의 침략 전쟁이 개시되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 해방 당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있었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 조선이 위대한 쏘련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을 계속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일제를 최후까지 반대하여 빨찌산 투쟁을 하여 온 것 같이 꾸미기 위하여 산중에 식량을 매몰하는 등 교활한 간계로써 자신을 『애국자』로 가장한 후 혁명 운동에서 변절 탈락한 기회주의 분자들을 규합하여 조선 혁명을 최후까지 고수한 것이 자기가 지도하던 『콤크룹』인 것같이 날조하고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반부 상륙을 대기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五년 九월 미군이 남반부 지역에 상륙하자 동월 말경 서울 전 반도 호텔 건물 내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와 밀회하여 앞으로 조선 공산당을 미군정 정책에 순응케 하며 미 군정청의 포고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밀약함으로써 미제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맹약하였고 一九四五년 一一월 초순 서울 전 반도 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 및 언더우드와의 밀회에서 피소자 박 헌영은 전부터 간첩 련계를 맺고 있는 언더우드로부터 하지에게 정식으로 인계되였으며 동 석상에서 하지로부터 앞으로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 공산당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 부동한 것으로 하도록 노력할 것、북조선 지역 공산당 조직 내부에 자기 세력을 적극 부식할 것、중요한 공산당 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보할 것、공산당 내부에서 분렬 사상을 조성할 것、공산당을 합법적 타협적 방법으로 친미 방향으로 인도할 것、미 군정 앞에서 폭동、파업 등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간첩 비밀을 엄수할 것 등 새로운 지령을 받고 그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하지에게 맹약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상술한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조선 공산당 내에서 차지한 지위를 리용하여 당의 전투적 력량을 약화 마비시키고 남조선 전역에 걸친 조선 인민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정책에 합치되게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간첩 범행과 민주 력량 파괴를 위한 각종 모략과 해독적 활동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六년 二월 초순 서울 전 반도 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에게 조선 공산당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전반적 조직 체계와 그의 활동 정형、당의 지도하에 있는 대중 단체의 조직 체계를 비롯하여 간부 명단과 민전 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一九四六년 三월과 동년 五월 하지에게 조선 공산당의 장성 정형과 쏘 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당의 태도와 협의 대상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三월 서울 전 반도 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리 승엽과 조 일명을 당의 중요 위치에 배치하고 그들의 간첩 활동을 보장 지도할 데 대한 지령을 받은 후 리 승엽을 경기도 당 위원장으로부터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우익 정당 프락치야』 사업을 맡겼고 조 일명을 당 기관지 해방 일보의 주필로 등용함으로써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미군 간첩 리 승엽과 조 일명으로 하여금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一九四七년 九월까지의 기간에 전후 六차에 걸쳐 당의 활동에 관한 중요 기밀을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케 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六년 九월 五일 서울 전 반도 호텔 건물 내에서 하지와 밀회하고 그로부터 입북하여 북조선 로동당과 북조선 정권을 틀어 쥐기 위한 활동을 하라는 지령과 함께 간첩 리 강국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어 북조선에 파견할터이니 그를 중요 직위에 등용시키고 그의 간첩 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지령을 받고 실천을 맹세한 후 하지와 밀약한대로 리 강국과 공모하여 미 군정을 반대하는 민전 명의의 성명을 발표시키고 그에 근거하여 꾸며진 『체포령』을 구실로 하여 一九四六년 一〇월 초순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우선 一九四六년 一一월 초순 자기의 심복자인 입북 당시 안내자였던 서 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하지에게 알리게 하고 점차 당의 대남 련락선을 장악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리 승엽과의 간첩 범행 련락에 리용하였는바 一九四七년 二월 남조선 로동당 대남 련락 책임자 김 소목을 통하여 리 승엽에게 간첩 범행의 련계를 취할데 대한 밀서와 함께 북조선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내여 줌으로써 리 승엽―하지에 이르는 련락선을 완성하고 一九四七년 四월에는 앞으로 재개될 제二차 쏘 미 공동 위원회에서의 쏘련측 방침에 관한 자료를 보내였으며 一九四八년 六월에는 서 득은을 서울에 보내여 북조선 로동당의 중요 결정과 당 내부 기밀 자료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 준비 정형을 하지에게 전달케 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이러한 간첩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하지의 지령대로 자기와 때를 같이 하여 『체포령』을 구실로 잠입한 남조선 주둔 미군 제二四 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 대좌 뻬트의 고용 간첩인 리 강국을 一九四七년 二월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으로 등용케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를 자기의 신변인 혹은 해주 제一 인쇄소 지도 책임자로 임명하여 그의 간첩 활동을 적극 보장한 결과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된 바와 같이 리 강국으로 하여금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一九四八년 八월까지의 기간에 외무국장의 직위를 리용하면서 평양 학원에 관한 자료、강계、개천 등지의 인민군 및 경비대의 병력 관계와 배치 정형、평양 주둔 쏘련군 사령부의 동태、북조선 주둔 쏘련 군대에 관한 기밀 및 북조선 인민 위원회 기구와 외교 정책、화폐 개혁 실시 정형、一九四七년도 북조선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통계 자료、一九四八년도 국가 예산에 관한 종합 자료 등 중요 기밀을 전후 五차에 걸쳐 미군에게 전달하였을뿐만 아니라 一九四七년 二월과 동년 一二월 직접 리 강국에게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미군에게 첩보케 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六월 하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계획을 알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간첩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서부터 간첩 리 승엽을 파송하여 줄 것을 밀서로써 요청하여 리 승엽을 입북케 한 후 一九四八년 九월 중순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리 승엽과 앞으로 간첩 활동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공화국 창건과 관련하여 박 헌영의 존재가 미국인에게는 더욱 귀중하게 되였으니 앞으로 간첩 활동을 직접 하지 말고 리 승엽에게 맡기라……』는 하지의 지시에 근거하여 피소자 박 헌영은 종래의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당과 정부의 중요 지위를 리용하여 리 승엽、리 강국을 위시한 미제의 고용 간첩들의 범죄 활동 조건과 신변을 보장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고 얼마후 그들은 하지의 귀국과 관련하여 『……금후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불의 지시밑에서 활동하라』는 하지의 지령을 접수하고 노불과의 련계로써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북조선 지역 내에 연속 잠입한 간첩들

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의 탈을 쓴 미 제국주의 고용 간첩의 두목인 피소자 박 헌영의 보장과 지도에 의하여 당과 정부를 비롯한 중요 기관 내부에 깊이 기여 들어 가지고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은 간첩 활동과 갖은 반혁명적 모략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한편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六월 서 득은의 편을 통하여 『현 애리쓰를 비롯한 미국 정보원을 구라파를 통하여 북조선에 파견하겠으니 그들의 입국과 간첩 활동을 보장하여 주라』는 하지의 지령을 접수하고 있다가 一九四九년 봄 정치적 망명자로 가장하고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를 결쳐 잠입한 간첩 현 애리스와 리 사민에게 입국사증을 발급케 한 후 현 애리스를 중앙 통신사 또는 외무성에、리 사민을 조국 전선의 요직에 배치하여 그들의 간첩 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간첩 활동은 一九五〇년에 이르면서 소위 『북벌』 계획의 진척에 따라 일층 활발하여 갔다。 즉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노불과 그밑에서 활동하던 미 극동 상령부 항공 정보관 미군 대좌 니콜스는 일제 고등 경찰이였고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던 극악한 민족 반역자 백 형복과 미군 간첩 안 영달과 조 용복을 일행으로 하여 一九五〇년 四월 의거 입북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북조선에 잠입시켰고 간첩 리 승엽은 노불의 지령에 의하여 백 형복을 공화국 내무성 내에、안 영달을 새로 조직할 당 서울 지도부에 각각 침투시키려고 기도하였고 조 용복을 내각 인민 검열 위원회에 잠입시키고 그들에게 인민군 항공 부대에 관한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당 내부의 중요 기밀을 제공하는 등 간첩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五〇년 五월 평양시 남산리 자택에서 안 영달과 백 형복을 만나 보고 리 승엽에게 백 형복의 신변상 보호를 지시하여 그 자들의 범죄 활동을 보장하여 주었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五〇년 一二월에 아군이 재 진공하게 되자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위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인 패전에로 유도할 목적에서 미 제국주의의 고용 간첩들인 리 승엽、리 강국 도당들을 더욱 높은 지위에 잠입시키려고 백방으로 암약하였는바 이러한 범죄 활동은 一九五三년 二월 간첩 리 승엽 동당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였다。

二、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五년 九월 이후 하지와의 련계로써 상술한 간첩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조선 로동당과 애국적 민주 력량에 대한 파괴와 범행을 감행하였다。 즉 피소자 박 헌영은 간첩 리 승엽、조 일명、리 강국 도당을 일찌기 당의 중요 지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하여 미 군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당의 정치적 활동에 불리하다는 구실을 붙이여 동맹 파업과 일체 항쟁을 제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남반부 근로 계급의 애국 투쟁을 약화시킴에 전력하였고 한편으로 피소자 박 헌영은 리 승엽 등 공모자들로 하여금 충직한 당 일꾼들을 『변절자』 『간첩 혐의자』 『당 비밀 루설자』 라는 무근한 루명을 씌워 살해케 하였는바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동년 八월까지의 기간에 一三차에 결쳐 황해도 장풍군에서 四二명의 남조선 로동당원과 민주 인사들이 살해당하였고、 一九四九년 여름 강원도 양양에서 현 인초 외 二명이 동일한 루명으로 살해당하였으며、 一九四八년 八월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 재찬을、 동년 一〇월에는 장풍군 당 위원장이였던 서 구돈을 같은 루명으로 살해하려고 체포하였다가 공화국 경비대에 발각됨으로써 목적을 달성치 못한 사실들이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판결로써 확증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 헌영은 적들과의 모험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수다한 애국 투사들을 원쑤의 학살에로 유도하였고 당과 민주 력량을 적의 파괴 앞에 내여 맡기였다。 즉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이래 미제가 남조선 로동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보도 련맹』을 조직하고 류혈적 탄압을 야수적으로 감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기 받고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하여 원쑤들의 파괴 공작을 완전히 허용 보장하였으며 피소자 박 헌영의 비호에 의하여 범죄 활동을 보장받은 안 영달 등은 一九四九년 六월 一八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 전선 호소문이 발표되자 이것을 계기로 무원칙하게 폭동 준비와 총궐기 태세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전 남조선 로동당 조직에 통고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탄압 구실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에 굶주린 살인마들 앞에 당 조직을 로출시켜 주어 남조선 전역에서 대중적 투옥 학살을 손쉽게 감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는 피소자 박 헌영에 의하여 범죄 활동을 비호 보장 받은 안 영달、 조 용복 등과 백 형복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조선 로동당 서울 지도부 책임자 김 삼룡이 체포 학살됨으로써 남반부 민주 력량의 핵심인 지하당 조직이 최종적으로 파괴되였다。

또한 피소자 박 헌영의 공모와 리 승엽의 직접적 지도와 조직에 의하여 안 영달、 리 중업、 맹 종호 등은 一九五〇년 六월 二八일 서울시 해방을 계기로 하여 『토지 조사 위원회』 또는 『조선 의용군 본부 특수부』라는 비밀 살인 단체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반 혁명적 범행을 감축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무고한 인민 七〇여명에 대하여 비법 감금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거듭하고 그중 七명의 남조선 로동당원을 총살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 안 영달 등의 김 삼룡 체포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피소자 박 헌영은 자기들 죄악의 발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 승엽에게 명령하여 안 영달을 남하하는 유격대에 배속한 후 비밀리에 살해하여 버리게 하였다。

三、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三九년 一〇월 언더우드와의 결탁으로써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는 반역의 길에 들어섰는바 그것은 원쑤의 앞잡이로서 조선의 혁명적 근로 계급을 완전히 무장 해제함으로써 미제의 조선 침략 야망을 보장 실현케 하는 죄악의 길이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위대한 쏘련 군대의 무력에 의한 八·一五 해방 직후 조선의 혁명 력량이 완전히 통일 단결되지 못하고 혁명적 당의 기본적 정치 및 조직 로선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틈을 타서 미 제국주의 간첩、 친일 분자、 변절자 등을 자기의 주위에 규합하고 그들을 조선 공산당 내의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미제에 복무할 자기의 반동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해방된 조선에 자본주의 제도를 확립할 목적에서 매국역적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친미 친일 반역 분자들을 대표적 세력으로 하는 친미 정권 『조선 인민 공화국』을 조작하고 조선 공산당과 남조선 민족 전선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케 하는 범죄 활동을 피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조선 인민들 자신이 장악할 인민 정권의 수립을 반대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六년 九월 五일 하지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여 당과 인민 정권 내에 확고한 기반을 축조하고 당과 정권 기관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범죄 활동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북한 후 해주 제一 인쇄소와 강동 정치 학원 내에 리 강국、 조 일명、 리 원조、 박 승원、 림 화、 한 병옥 등을 위시한 반혁명 분자들을 잠입시켜 그들을 조종하면서 그곳을 범죄 수행에 리용함으로써 하지로부터 받은 과업의 실천에 착수하였고 一九四八년 九월 하지의 지령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리 승엽에게 인계한 후는 오로지 당과 정권 기관을 내부로부터 약화 파괴하기 위한 범죄 활동에 전력을 경주하고 점차 범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六년 一〇월 이후는 당과 정권 기관과 조선 인민군을 비롯한 중요 기관 내부에 간첩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고 그들의 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지도함으로써 자기 범행의 종국적 목적 달성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결과 리 승엽을 사법상 당 중앙 위원회 비서 정치 위원 인민 검열 위원회 위원장에, 조 일명을 문화 선전성 부상에, 김 점권을 경공업성 부상에, 김 광수를 상업성 부상에, 한 병옥을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후방 총국장에, 리 강국을 무역성 일반 제품 수입상사 사장에, 장 시우를 무역상에, 배 철을 당 중앙 위원회 련락 부장에, 박 승원 윤 순달을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부부장에, 리 원조를 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부부장에, 김 응빈을 금강 학원 원장에, 서 득은을 당 중앙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에, 안 영달을 남조선 로동당 지도부 련락 책임에, 림 화를 조쏘 문화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에, 김 남천을 문학 예술 총동맹 서기장에, 리 재우를 직업 총동맹 중앙 위원회 조직부장에 잠입시켜 리간 알륵 대립 불신을 조성시키는 갖은 정치적 모략과 암해 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 조국 해방 전쟁이 발발되자 남반부 당과 민주 력량을 파괴한 죄악을 숨기고 남반부 전 지역의 당 및 정권 기관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토대로 하여 공화국 정권 전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도에서 자기의 영향하에 있던자 二〇〇여명을 안주에 집결시켜 조선 인민군의 반격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 지역의 도, 시, 군당 및 정권 기관 책임자로 임명하여 파견하였고 공모자 리 승엽은 해방된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일한 범죄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로동당 경기도 당 위원장에 김 점권을,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에 안 영달, 그후에 박승원을 배치하고 경기도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에 안 기성, 김 요한 등 반혁명 범죄자를 포치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五一년 四월 림 화에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반혁명 분자들이 지도권을 장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주어 그들에 의하여 문학 예술 총동맹 내부에서 사상적 대립과 불신과 알륵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五一년 八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련락부가 신설됨을 계기로 대남 공작 강화를 구실로 리 승엽에게 지시하여 동 부서를 자기의 심복자들로 조직케 한 후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반당적 반정부 음모를 격화 확대케 하였으며—

피소자 박 헌영은 리 승엽 등과 공모하여 一九五一년 一一월부터 개성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를 조직하고 그곳을 반혁명 범죄 활동의 근거지로 할데 대한 범죄적 음모를 획책하였고—

피소자 박 헌영에 의하여 지도되는 리 승엽, 배 철, 박 승원, 림 화, 조 일명 등은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판결로써 확정된 바와 같이 조선 인민이 원쑤 격멸에 총궐기한 간고한 전쟁 기간인 一九五一년 九월 초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리 승엽 사무실에서 예상되는 적군의 군사 공세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할 무장 폭동을 단행할 것을 토의하고 리 승엽을 무장 폭동 총사령으로 하고 박 승원을 참모장으로, 배 철을 군사 조직 책임으로, 김 응빈을 폭동 지휘 책임으로, 림 화와 조 일명을 선전 선동의 책임으로 하는 무장 폭동 지휘부를 결정하였으며 그후 거듭된 밀의에서 무장 폭동의 주력으로 예견한 유격 제一〇 지대를 근 四천명에 달하기까지 증강하고 평양 부근에 이동 주둔시킬 것을 기도하는 한편 그들과 금강 학원 학생들에게 공화국에 적대하는 반혁명적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과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一九五二년 九월 이 악당들은 다시 피소자 박 헌영의 주택에서 밀회하

여 무장 폭동으로써 당과 정부를 전복한 이후에는 조선 근로 계급을 기만하여 미제의 조선 침략을 완성케 하기 위한 합법적『좌익 정당』으로서의『새 당』을 결성하고 미국에 예속되여 자본가 지주 계급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차 리 승만 괴뢰 정부에 련합될 운명을 예견한『신정부』를 조직할 데 대한 음모를 감행하였는바 이들은 박 헌영을 수상으로 하고 장 시우, 주 녕하를 부수상으로, 박 승원을 내무상으로, 리 강국을 외무상으로, 김 응빈을 무력상으로, 조 일명을 선전상으로, 림 화를 교육상으로, 윤 순달을 상업상으로, 배 철을 로동상으로 하고 리 승엽을『새 당』의 총비서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소자 박 헌영은 본건 범행 착수와 동시에 부단한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는바 그것은 특히 一九四六년 一〇월 북반부에 잠입한 이후의 기간에 우심한바 있었다。

피소자 박 헌영은 남반부로부터 입북한 당원들을 기만 회유하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시키고 불순 분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과거 죄상을 은폐하여 주는 등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전심 전력하였고 당과 국가의 직무에 충직한 열성자에 대하여는『변절자』『배신자』라고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비관하고 직무에서 리탈하게끔 패하였으며 이전부터의 심복자 장 시우를 교묘히 사촉 선동하여 반당적 반국가적 범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서 득은, 리 강국 등을 시켜 당 자금 조달을 구실로 동방 상사, 영민 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원조를 가장하여 매수 접근시켰으며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심복자들에게 거액의 경제적 지출을 하여 부화 방탕한 생활과 동시에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 박 헌영 자신도 탐욕적인 부화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체포 당시 八七만원의 공화국 화페와 一六〇〇그람의 순금을 횡취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소자 박 헌영은 一九四八년 九월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국제주의자』로 가장하고 외무성 내에 자기의 심복자들을 다수 끌어 들여 요직에 배치하고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들과의 우호적 친선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범죄 활동을 계속하였는바 그것은 전 주쏘 특명 전권대사 주 녕하, 전 주중 특명 전권대사 권 오직과 동 대사관 참사 송 성철을 자기의 반혁명적 범죄에 인입하거나 또는 접근시키고 그들에게 쏘련과 중국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선전 선동을 거듭 감행하여 왔다。

이상 사실은 피소자 박 헌영의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의 진술과 증인 한 철, 김 소목, 권 오직 등의 증언 및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 승엽 등 一二명에 대한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八조,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六五조 一항 등 형사 사건 기록(一三책 총 四〇〇〇폐지)에 의하여 확증된다。

피소자 박 헌영이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화를 반대하고 공화국의 인민 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에 반역하고 미 제국주의에 복무한 간첩 행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 모략, 선전 선동 행위 및 리 승엽 등 반혁명 도당들의 무장 폭동 음모의 실현을 비호 보장하여 준 행위는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八조,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六五조 一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당 재판소는 형사 소송법 제二二三조, 동 제二二八조 一호, 동 제二三七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소자 박 헌영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 몰수를,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 몰수를, 형법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및 전부의 재산 몰수를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동인을 형법 제七八조,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하고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본건에 첨부된 증거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특별 재판

재판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최용건

김익선

림해

방학세

조성모

평양시에서

피소자 리승엽 조일명 림화 박승원 리강국 배철 윤순달 리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

피심자 리승엽 조일명 림화 박승원 리강국 배철
윤순달 리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 등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

一、기 소 장

제二차 대전에서의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 조선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조선 인민들에게는 자기의 창조적 로력으로써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였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 자기의 군대를 상륙시킨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된 조선을 재 식민지화하며 쏘련과 중국을 반대하는 극동 침략의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 정책을 계속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시킬 데 대한 국제 공약을 고의적으로 파괴 유린하면서 친일과 민족 반역자 등 매국적 반동 도배들을 규합하여 조국 남반부에 반동 통치 기구를 조작하고 인민들에 대한 반동 테로 통치를 감행하는 한편 해방

후 북반부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달성된 강력한 민주 건설의 제반 성과들을 파괴하며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광분하여 왔다。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간섭을 하는 한편 자기들의 침략 기도를 용이하게 달성할 목적으로 공화국 남반부에 이미 오래전부터 설치하여 온 정탐 기관들과 리 승만 역도들의 탐정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정탐 파괴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그의 지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을 내부로부터 파괴 약화시킬 목적으로 혁명에서의 변절자들과 일제 통치 시기부터 이미 배족적 매국 행위들을 감행하여 온 고용 간첩들인 리 승엽、조 일명、림 화、리 강국 도당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과 정권 기관내 지도적 직위에 잠입시켰다。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앞잡이로 전락된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의 지령을 받아 오면서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과 반국가적 간첩 테로 학살 행위를 감행하였다。

리 승엽 도당들은 미제의 사수하에서 공화국에 수립된 인민 정권을 전복하며 변생된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려는 비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와 당 중앙 기관 내에서 차지한 높은 지위를 리용하여 당의 통일과 투쟁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며 공화국 정부의 제반 시책들의 실현을 방해 파탄시키고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간의 리탈을 조성시키기 위한 흉악한 책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미제의 군사적 지원 밑에 무장 폭동으로써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기도하였다。

미제의 충직한 고용 간첩인 리 승엽 도당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방조하여 당 및 국가 기밀을 수집 제공하였으며 특히 전쟁 과정에 있어서는 각종 군사 기밀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 수행을 적극 방조하였다。

리 승엽 도당들은 반역적 음모 책동을 감행하기 위한 자기들의 지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서와 또한 자기들의 흉계가 탈로될 것을 고려하여 허다한 인명을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제 침략자들의 충직한 앞잡이로서 리 승엽 도당들이 감행한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학살 행위들이 본 사전 예심에 의하여 판명되였다。

미 제국주의를 위하여 감행한 간첩 행위

리 승엽을 위시한 조 일명、림 화、박 승원、리 강국、조 용복、백 형복、설 정식 등 간첩 분자들은 벌써 八·一五 직후부터 미국 정탐부의 탐정군으로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간첩 행위에 종사하였다。

八·一五 해방 직후 남반부 지역에 상륙한 미제 침략자들은 당시 조선 공산당 내부에 잠입한 반혁명적 분자들을 자기들의 앞잡이로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탐 기관은 一九四六년 二월 당시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인 피심자 리 승엽과 공산당 기관지 해방 일보사 편집국장 조 일명들을 간첩 활동에 인입하고 리 승엽을 그의 두목으

로 내 놓았다。

피심자 리 승엽은 一九四六년 二월 남조선 미 주둔군 사령관 륙군 중장 죤 알·하지의 정치 고문 미군 장교 빼취와 련결을 맺게 된 경위와 자기 본래의 사상적 본질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八·一五 해방 직후 나는 미국을 배경으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들의 정책을 지지 동정하여 왔으며 특히 나는 一九四五년 九월 서울 전국 준비 위원회에서 조직한 미군 신문 기자와의 회견 석상을 리용하여 조선 공산당은 앞으로 미군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며 미국과 친선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기록 제一권 一三五—一三六페지)

리 승엽과 간첩 활동에 대한 련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심자 조 일명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六년 二월 하순경 하루는 나를 미국 탐정 기관에 인입시킨 헌병 대위 죤슨은 자기의 통역을 데리고 내가 일하고 있던 해방 일보사에 찾아와서 자기와 약속한 간첩 활동 임무를 충실히 집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리 승엽과 련계밑에 그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한 비밀 재료들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죤슨의 지시로 一九四六년 二월 말경 공산당 경기도 당부 사무실이던 서울시 청진동 백석황의 집에서 리 승엽에게 전시한 죤슨의 지시를 전달하고 그와 당 내부 실정에 대한 정보 재료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기록 제一二권 六二—六三페지)

이와 같이 리 승엽을 위시한 간첩 분자들은 미제의 지령에 의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역적 행동에 들어 섰던 것이다。

이들은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당내에서의 지도적 직위와 직권을 리용하여 당에 대한 미제 침략자들의 내부로부터의 와해 음모에 순응하여 남로당 중앙 및 지방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체계와 일체 당 내부 실정에 대한 재료를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여 왔다。(기록 제一二권 六三—六四페지)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정치 및 경제에 관한 기밀들을 전시 재료와 함께 놈들에게 제공하여 왔고 더우기 一九四七년 五월 二차 쏘 미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 쏘 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쏘련 대표단의 정책과 그의 태도 등의 재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기록 제一권 一六九페지 및 제三권 一一三—一一四페지)

피심자 리 승엽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충실히 복무함으로써 그의 사업 성과에 따라 一九四七년 五월부터는 노불(미 국무성 촉탁이였으며 당시 미 군정청 정치 고문 그 후는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이던 자)과 직접적 련계밑에 활동할 수 있었다。

피심자 리 승엽은 신문에서 노불과의 련결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四七년 五월경 서대문 경찰서에서 당시 미 군정청 정치 고문이던 노불 박사를 상면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불 박사는 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지 않는데 북조선 적색 정권과 로동당이 미국을 적극 반대하므로 당신과 같은 애국자들이 조선에 좌우의 중간 세력을 규합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며 미국은 당신을 적극 후원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때 미국의 강대한 력량에 의거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불의 정치적 활동에 가담할 것을 승락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이날부터 빼취와의 련결을 끊고 노불과 전적으로 련결을 맺게 되였습니다……』(기록 제一권 一三九—一四〇페지)

미 제국주의자들과 이미부터 결탁한 리 승엽과 조 일명은 자기들의 반역 행위를 비단 남조선

지역에서만 국한하지 않았다。

즉 一九四八년 七월 리 승엽은 월북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서울 덕수궁 뒤에 있는 미국 대사관원의 주택에서 노불을 상면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불 박사는 나에게 당신은 평양에 가게 되면 북조선 사회 정세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와 만반의 준비들을 갖추도록 하라는 지령을 주었습니다……』 (기록 제一권 一四二폐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령에 의하여 파견된 리 승엽은 공화국 북반부에 미국 탐정 기관의 지부로서 간첩망을 설치하고 노불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자기보다 먼저 월북한 공모자 조 일명과 비밀 토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자기에게 충실한 추종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바 一九四八년 八월경에는 앞으로 간첩 자료를 노불에게 전달하기 위한 련락선을 개척하기 위하여 조 일명과 같이 당시 해주 제一 인쇄소 부책임자인 피심자 박 승원을 흡수하였고 동년 一一월 초순경에는 이미 一九四五년 一二월경부터 서울에 주둔한 미군 정탐 기관인 씨·아이·씨 고문 언더우드 및 미군 장교 로빈손 또는 공보처 여론 국장이던 설 정식과 련계밑에 밀정 행위를 감행하여 온 당시 해주 제一 인쇄소 편집 위원으로 있던 림 화를 인입하였다。 (기록 제一二권 六一폐지)

피심자 박 승원과 림 화는 피심자 리 승엽과 조 일명의 권유로 그들의 간첩 활동 목적을 알고 각각 이에 가담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기록 제五권 七三폐지 및 제六권 六七—六八폐지)

한편 피심자 리 승엽은 一九四八년 九월경 노불의 지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파견된 간첩 분자 안 영달을 통하여 앞으로의 간첩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시를 받은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월북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으므로 나의 월남이 곤난하다는 것을 알아채린 노불 박사는 련락차로 나에게 안 영달을 파견하여 주었으므로 나는 그를 一九四八년 九월 초순경 평양 남산리 박 헌영 주택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안 영달은 나에게 노불의 지령으로 만일 앞으로 월남하지 못할 형편이면 이북에서 종전대로 사업하라는 것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영달과의 토의에서 앞으로 간첩 재료 전달에 있어서 조 일명을 통하여 해주 박 승원에게 보내여 그에게 넘겨 보내면 그로 하여금 노불 박사에게 전하도록 약속하고 이를 그에게 가서 우선 보고하라는 것과 공화국 헌법 및 정부의 정강과 정부 구성에 대한 재료 등을 주어 동년 九월 중순에 월남시켰습니다……』 (기록 제一권 一四四 및 一四六폐지)

이와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의 간첩망 조직 포치와 정탐 기관과의 련락 체계의 확립까지 완료하고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 걸친 광범한 간첩 활동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피심자 조 일명의 신문에서도 판명된 바와 같이 一九四九년 一〇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리 승엽 도당은 수차에 걸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내부 실정에 관한 재료와 인민 경제 부흥 발전에 대한 통계 및 국가 기밀 재료들을 미국 정탐 기관에 계통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박 승원도 역시 자기가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림 화를 통하여 자기에게 전달되는 일체 정보 재료들을 해주 인쇄소 대남 련락선을 리용하여 서울에서 리 승엽의 지령에 의하여 밀정 행위를 하고 있는 안 영달에게 보내였으며 그를 통하여 미국 탐정 기관에 전달되였음을 확인하였다。 (기록 제六권 六七—七二폐지)

특히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 탐정 기관의 직접적 지령하에 그들의 소위 북벌 계획을

목적한 군사 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더욱 열중하였다.

一九四九년 四월경에는 조선 인민군 병종별 병력수 및 그의 주둔 위치 등 중요 군사 기밀을 수집 제공하였다。(기록 제一권 一七三페지)

신문에서 피심자 리 승엽은 이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자기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 겸 사법상의 직위를 리용하여 공화국 三八 경비대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四九년 九월경 황해도 및 강원도 三八선 일대의 당 지도 검열 사업을 계기로 서해안 황해도 옹진 지구로부터 동해안 강원도 양양 및 동해안 계선에 이르는 三八선 일대를 순회하면서 三八 연선에 배치된 공화국 경비대의 병력 및 무력 배치 정형과 주둔 위치 등 군사 기밀을 수집하였습니다……』(기록 제一권 一四八페지)

이 외에 一九四九년 여름에 피심자 리 승엽은 피심자 조 일명을 은파산 전투 정형에 대한 군사 정보를 수집케 하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조 일명은 현지에 가서 박 승원에게 그 과업을 위임하였다。(기록 제一권 一七四페지 및 제三권 九五페지)

조 일명을 통하여 리 승엽의 지시를 받은 박 승원은 그후 즉시 자기 자신이 수집하는 한편 해주 인쇄소 편집국원 정 락관을 현지에 파견 시찰케 하여 전투 정형 및 병력 배치 관계 등 군사 기밀을 수집하여 리 승엽에게 보고하였다。(기록 제六권 七四—七六페지)

상기 군사 정보들은 전부 리 승엽에 의하여 노불에게 전달되였다。(기록 제一권 一七五페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발광적인 군사적 침략 준비 활동이 적극화됨과 관련하여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의 공화국에 대한 간첩 활동도 역시 악랄하여졌다。

즉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리 승엽은 노불의 지시를 받은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으로서 대 이북 군사 간첩을 목적하고 서울에 파견된 미군 대좌 니콜스와 피심자 백 형복 및 안 영달에 의하여 지도되는 미국 간첩 분자 조 용복과 련결을 맺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북벌 계획은 그것이 단순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쏘련과 중국을 침략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리 승엽 도당과의 련계밑에 공화국에 대한 간첩 활동에 직접 참가하였던 피심자 백 형복은 자기가 감행한 간첩 활동의 목적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一九四九년 一一월 하순경 서울 리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장의 사무실에서 나는 미군 대좌 니콜스와 대 이북 간첩 활동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게 되였는데 이때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미국에 있어서나 기타 반공산주의 진영에 있어서 령토상 가치의 비중보다 쏘련 및 중국을 비롯한 위성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는 초점으로 그 가치가 크다。 특히 조선은 三八선을 계선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두 지역에 다 같은 조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탐 활동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되고 있다……』(기록 제八권 九七—九八페지)

리 승엽은 상기 니콜스와 백 형복、안 영달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 용복과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련결을 가지면서 동년 一一월까지 三차에 걸쳐 중앙당 자기 사무실에서와 평양시 남산리 자기 집에서 만나 인민군 항공 부대에 관한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조선 로동당 내부 실정에 관한 기밀을 그에게 주어 미군 간첩 기관에 전달하였다。(기록 제一권 一八四—一八六페지)

피심자 조 용복과 백 형복은 리 승엽으로부터 三차에 걸쳐 군사 기밀과 당에 대한 비밀을 제공하였음을 시인하였다。(기록 八권 一五九—一六一페지 및 一〇권 三一二—三一八페지)

그후 一九五〇년 五월경 노불의 지시에 의하여 자기들의 정체를 음폐하고 월북한 안 영달、조 용복、백 형복에게서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전달받은 리 승엽은 그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〇년 五월 一〇일 나는 안 영달、조 용복과 같이 당 중앙 위원회 나의 사무실에서 노불 박사의 지령을 실천할 데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평양에서 당과 정부의 기밀을 종전과 같이 수집할 것과 안 영달은 새로 파견되는 남반부 당 지도부의 매개 간부들에 대하여 료해하는 동시 서울에 돌아가서 서울 지도부에 침투하여 그 내정을 정상적으로 노불에게 제공할 책임을 졌으며 백 형복에게는 계획대로 공화국 내무 기관에 잠입하여 공화국 북반부 지역 내에 있는 미국 및 리 승만 정부에서 파견한 간첩들의 신변을 보호하며 또한 나와 련계밑에 정보를 수집할 데 대한 책임을 지우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 용복에게는 서울에 가서 안 영달과 같이 사업하기로 하되 안 영달이가 먼저 서울에 가서 더 긴급히 요구되는 정보 재료를 요구하여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로 하고 당분간 휴양소에 가서 휴양하기로 하였습니다……』(기록 一권 二〇一—二〇二 및 八권 一六四—一六五페지)

리 승엽은 이와 같이 노불의 새로운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정보 재료를 계속 안 영달을 통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그가 변절함이 없이 투쟁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여 당내에서 계속 공작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이러한 방법으로 안 영달로 하여금 一九五〇년 六월 초순 다시 파견될 기회를 주고 당 서울 지도부에 잠입하여 당내 비밀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동시 노불로부터 긴급히 재료를 요구할 시에는 조 용복을 파견할 것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 재료의 신속한 련락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전기 및 변신 암호 등을 휴대시켜 파견하였다。(기록 제一권 一五二페지 및 二〇六페지)

그후 피심자 리 승엽은 당 비서의 직권을 리용하여 내무 기관에 백 형복을 침투시킬 목적으로 그를 내무 기관에 넘겨 주면서 자기의 승인이 없이는 누구든지 조사하지 말 것과 잘 대우하여 주라는 전제 조건으로 내무 기관에 보내였고 조 용복은 안 영달로부터 련락이 있을 때 서울에 파견시키기로 약속한 후 一九五〇년 五월 중순경 강원도 석왕사 휴양소에 보내여 정양케 하였다。(기록 제一권 二〇二—二〇三페지)

리 승엽 도당의 간첩 활동은 그 후도 여전히 계속되였다。이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이 개시되자 자기의 상전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안 영달과 같이 토의하고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에 안 영달이가 이미 운영하던 정보망과 자기 영향하에 있는 자들과 간첩 활동에 가담하여 온 림 화 등 자기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동태、인민 군대 및 내무 기관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 등을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 재료를 수집하여 왔다。(기록 제二권 五七페지)

이에 대하여 피심자 림 화는 신문에서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자기 지도 밑에 있던 남조선 문화 단체들을 동원시켜 우에 지적된 정보 재료를 수집하여 리 승엽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다。(기록 제五권 一一一—一一三페지) 뿐만 아니라 리 승엽은 一九五一년 三월 인민 군대가 전략상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후퇴할 때 노불과 련결을 갖기 위하여 개별적 인물들을 자기의 간첩 활동에 인입하고 서울에 남겨 두었다。

이렇게 노불에게 자기의 활동 정형을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기 위한 조치는 一九五一년 七월에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리 승엽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월북한 이 인물들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되였다。(기록 제一권 二二三—二二四페지)

예심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가장 음폐하면서 자기들의 간첩망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하여 一九五一년 七월에는 당시 인민군 五八호 병원 원장이던 피심자 리 강국을 공동적 간첩 활동에 인입하였다。

피심자 리 강국은 신문에서 자기가 리 승엽 도당의 반역적 간첩 활동에 가담하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는 벌써 一九三五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부의 일원인 크로리에 의하여 그들의 주구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조선에 귀국한 미제의 전형적인 고용 간첩으로서 八·一五 해방후 미국 정탐 기관과 다시금 련결을 맺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三五년 一〇월 독일로부터 귀국할 때 미국 뉴욕에서 크로리를 만나 앞으로 그와 련계 밑에 조선에 귀국한 후 활동할 것을 약속하고 그로부터 장차 나와 같이 조선에서 사업할 사람으로 뉴욕 조선인 로동자 구락부에서 현 피타와 리 월리암을 소개받았습니다……귀국 후 나는 크로리로부터 받은 과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그와 련결을 가지기 위하여 一九四二년 二월경부터 서울에서 미국 선교사의 후원으로 서울 리화 녀자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인이 경영하는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으로 있던 김 수임과 련애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통하여 크로리와 련계를 가지려고 계속 八·一五 해방까지 노력하여 왔습니다。八·一五 해방 후에는 나의 이러한 숙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자 크로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가 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미국 기관과 련계를 맺을 목적으로 一九四五년 九월부터 나의 애인 김 수임을 조선 주둔 미군 사령부에서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반도호텔에 안내인으로 취직시켜 미국 二四군단 헌병 사령관 미군 대좌 빼트와 접근시키면서 그를 통하여 一九四六년 六월 처음으로 빼트를 소개받고 그와 앞으로 련계밑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그후 동년 九월 월북과 관련하여 그의 간첩으로 가담하였습니다……』(기록 제四권 一九六—一九八페지)

어데까지나 자기 상전에 충실하였던 리 강국은 미국 탐정 기관의 신임을 얻어 一九四六년 九월에는 미 군정청이 조직한 체포령에 의하여 애국자의 복면을 쓰고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심자 리 강국은 자기의 월북·목적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나는 미군 제二四군단 헌병 사령관 빼트로부터 월북하면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고 인민 정권 기관내의 지도적 직위에 잠입하여 가지고 북조선의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지하여 제공하며 미국 기관에서 파견하는 정탐들의 신변을 보장하여 줄 것과 당 및 정권 기관내에 동료들을 규합하여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파괴 문란시킬 데 대한 지령을 받았습니다……』(기록 제四권 一〇一페지)

이와 같은 미군 탐정 기관의 지령을 받고 월북한 피심자 리 강국은 一九四七년 一월부터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 국장의 책임적 직위에 잠입하여 자기의 상전인 미제의 지령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그후 계속적으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중요 정보 재료들을 수집 제공하였다。(기록 제四권 一〇三—一一〇페지)

그후 리 강국은 一九四八년 九월 공화국 창립과 관련하여 외무 국장의 직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종전과 같이 그 직위를 리용하여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없었으나 一九五〇년 五월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 현 애리스와 리 월리암을 평양 자기집

에서 二차에 걸쳐 만나 간첩 활동 련계를 맺을 데 대하여 밀담하였다。(기록 제四권 一七三—一七四페지)

한편 리 강국은 노불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피심자 리 승엽과 련결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一九四六년 一二월에는 빼트의 지시에 의하여 과거의 자기의 애인이며 당시 빼트의 애첩인 간첩 김 수임을 남로당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리 승엽에게 김 수임을 당에서 리용할 것을 소개하였다。(기록 제一권 二二八페지 및 제四권 一〇二페지)

이에 대하여 피심자 리 승엽은 자기가 一九四六년 一二월경 입북하였다가 월남할 때에 리 강국으로부터 소개받은 김 수임을 서울 나가서 상면하였다는 것과 그는 벌써 이 시기에 리 강국이 가 미제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였으므로 그를 자기들의 간첩 활동에 인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리 승엽 도당들의 간첩 활동에 가담한 리 강국은 그후 一九五二년 一〇월까지 수집되였던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四차에 걸쳐 당 및 정부의 중요 비밀을 수집하여 림 화를 통하여 리 승엽에게 제공하였다。(기록 제一권 二三三페지 및 제一一권 一二四—一二八페지)

림 화는 자기 진술에서 정보 재료들을 리 강국과 리 승엽간에 련락한 데 대하여 이것은 리 승엽 및 그의 공모자들의 정체를 음폐하여 주기 위한 목적이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五권 一二二—一二二페지)

특히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이 자기들의 간첩 활동 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당 및 국가 자금을 이에 류용한 사실들이 본 사건의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이것은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一九五〇년 六월 초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만 하여도 리 승엽으로부터 三차에 걸쳐 금 三판과 미국 화폐 수천딸라를 받아 안 영달에게 전달하였다는 피심자 조 용복의 진술과 또한 안 영달로부터 치안국 사찰 과장 리 성주가 남조선 화폐 二천만원을 받았고 자기가 三백만원을 받았다는 피심자 백 형복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였다。(기록 제八권 一〇八페지)

이 외에도 리 승엽이가 조 일명에게 간첩 활동의 보수로 제공한 중 제一호의 다수 금품에 의하여서도 더욱 명백히 판명되였다。(기록 제三권 一一七—一一八페지)

남반부 민주 력량 파괴 약화 음모와 테로 학살 행위

리 승엽 도당들은 미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종사하는 일방 그들의 지령에 의하여 공화국의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려는 음모와 테로 학살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활동에 방해되는 민주 인사와 당 지도 간부들을 살해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충직하며 한편으로는 리 승엽을 위시하여 그의 공모자들이 이미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반당적 반인민적 죄상을 음폐하려는 데 있었다。

이 활동은 노불의 직접적 지도밑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북벌 계획에 의한 그들의 소위 『후방숙청』의 구호에 보조를 맞추어 지하에 들어간 남반부 로동당을 탄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있었다。

一九四九년 六월 一八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제의한 호소문을 기회로 그들은 이 민주 운동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리 승엽 도당들을 시켜 당 단체들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노불로 하여금 안 영달을 시켜 로동당원들을 선두로 한 민주 인사들에게 이 시기를 계기로 『폭동을 준비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여론화

시켜 이에 호응하도록 사촉함으로써 적들도 하여금 남반부 민주 력량을 쉽게 파괴 약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안 영달의 간교하고 교활한 활동에 대하여 피심자 백 형복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〇년 一월 초순경 안 영달은 내가 종사하고 있던 서울리 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자기가 남로당을 위시한 남반부 민주 력량에 대한 파괴 활동을 하여 온데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그 내용에 의하면 一九四九년 여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호소문이 발표되였을 때 그는 노불의 지시밑에 자기의 당적 직위를 리용하여 산하 당 단체들에 인민 군대가 오래지 않아 진공하여 올 터이니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서울에서만 하여도 수류탄 六、〇〇〇개 사건을 야기시켰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사실들을 제때에 노불에게 알리여 줌으로써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 있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기록 제八권 一六九—一七〇폐지)

안 영달의 이와 같은 정치적 모략에 대하여 그의 지도하에 있던 피심자 조 용복도 증언하였다。(기록 제一〇권 三五一—三五三폐지)

남반부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려는 리 승엽 도당들의 계획적인 음모 활동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당 서울 지도부를 완전히 파괴하며 그를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하여 그의 지하 정체를 알려고 애쓰던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의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도와 방조밑에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왔다。

그리하여 서울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였던 피심자 백 형복으로 하여금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는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미군 대좌 니콜스의 직접 지도밑에 안 영달과 피심자 조 용복의 협력에 의하여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을 드디여 체포할 수 있었다。

피심자 백 형복은 자기가 니콜스의 지도밑에 김 삼룡을 검거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一월 안 영달을 내세워 로동당 서울 지도부를 파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진행하게 되였다。

그러나 안 영달은 수개월간 당 사업의 실제적 활동에서 유리되여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도 본부를 찾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영달의 제의로 당시 서울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여 취급중에 있던 그의 부책임자 조 용복을 석방시켜 우리의 활동에 인입하기로 하고 나는 엄격한 비밀 보장밑에 누구도 모르게 三〇만원을 안 영달에게 주어 그를 통하여 마치 당에서 지출된 것같이 하여 그의 처에게 전달하여 조 용복 취급 형사에게 뢰물로 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 용복의 사건은 이미 종결되였고 그의 밑에 련루자들이 많았으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석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 보장상 검사에게까지 가서 교제케 하여 석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왜 그러냐하면 석방후 공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이 조 용복의 석방 문제에 대하여 널리 알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내무부 치안국장

리 호를 롱하여 가지고 내무 차관 장 경근에게 요청하여 장 경근으로 하여금 종로 경찰서장 윤 명운을 불러 조 용복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를 즉시 석방케 하고 외면적으로는 그의 처가 전부터 석방 교섭하였기 때문에 석방된 것으로 가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 영달과 조 용복을 활동시킴으로써 로동당 서울 지도부 기밀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게 되여 김 삼룡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기록 제八권 九一—九二폐지)

또한 이 공작에 가담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반혁명의 길에 들어선 조 용복은 자기가 이와 같이 변절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〇년 一월 중순경 밤늦어 안 영달과 백 형복이가 나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힘으로 나를 석방하였다고 하면서 인제 당신의 모든 비밀은 다 폭로되였으니 앞으로 나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여 줄 터이니 자기들의 권유에 응할 것을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 처음에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런즉 안 영달은 날보고 왜 그렇게 고집하시오 리 승엽 같은 사람도 공화국과 대한 민국에 량 다리를 걸고 있는데 우리 따위야 별 일 있소 참 놀랠 일이지요 하면서 강요하므로 결국 나의 신변의 안전과 정치적 야욕에서부터 그들과 같이 활동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기록 제一〇권 三一〇—三一一폐지)

그는 계속하여 진술하기를 『……나는 김 삼룡 직계선에서 김 형륙과 공작하였던 관계로 안 영달을 서울 당 지도부 특수책임 김 형륙에게 련결시켜 주었으므로 안 영달은 종전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변절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만큼 신임하게 되여 김 삼룡의 거처까지 알게 되였습니다……』(기록 제一〇권 三一一—三一二폐지)

이상과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은 남반부 당 지도 간부들을 체포 학살케 하였으며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일방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계속 음폐하기 위하여서와 세력 확대를 위하여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변절』『간첩 혐의』 또는 『당 공작의 비밀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붙여 학살하였다。

리 승엽과 서 득은의 지시에 의하여 감행된 이러한 학살 만행에 대하여 피심자 맹 종호는 진술하기를 『……一九四九년 여름 내가 양양 련락소장으로 있을 시 서 득은으로부터 남반부에서 당 공작을 하다가 입북한 현 인초 외 二명을 간첩 혐의가 있으니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는 직접 그들을 심사하여 보았으나 아무러한 혐의 사실도 없으므로 총살을 주저하고 있던차 리 승엽으로부터 자기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후 리 승엽은 양양 련락소 지도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살해케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九권 五五폐지)

다른 증인 전 구하도 이와 같은 학살 행위에 참가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나는 황해도 장풍군 영남 련락소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안 영달의 지시로 一九四八년 八월까지 一三차에 걸쳐 四二명을 변절자 또는 간첩 혐의자 등의 리유로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四八년 八월 초순경에는 개성시 당 위원장이였던 김 재찬과 동년 一〇월경 장단군 당 위원장이던 서 구돈을 변절자라고 하여 암살할 것을 안 영달에게서 지시받고 그들을 체포하여다가 감금하고 있던 중 三八 경비대에 발각되여 살해하지 못한 사실들이 있습니다……』(기록 제二권 二六六—二六八폐지)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의 테로 학살 행위는 전쟁 개시 후 해방된 서울 지구에 나가서 더욱 잔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리 승엽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 청사 지하실에 류치장을 만들고 그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인 리 중업을 두목으로 한 테로 학살 단체를 형성하였다.

이 테로 학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던 피심자 맹 종호는 여기에서 감행된 학살 진상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나는 六·二八 서울 해방 직후 리 승엽의 지도밑에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지하실에 감금된 로동당원과 기타 인원 七명을 당 공작상 비밀 보장이라 하여 처단할 것을 대원 허 균、맹 봉 등에게 지시하여 화물 자동차에 실어 한강 강변에 데리고 가서 총살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록 제九권 五九—六〇폐지)

뿐만 아니라 리 승엽은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안 영달을 두목으로 하는 살인 『단체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이 단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면상으로는 국가 사업을 협조한다는 구실로써 비밀리에 학살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였다. 피심자 리 승엽은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나의 사무실에서 안 영달과 토의하고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였는데 그 목적은 우리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자들을 없애 버리기 위한 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기록 제一권 二四三—二四四폐지)

그후 七월 중순 상부로부터 이 단체의 해산 지시를 받은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의 음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리 승엽의 지도밑에 있던 소위 의용군 본부내에 『토지 조사 위원회』를 그대로 옮겨 놓고 이를 외면상 『특수부』라고 칭하였다.

그후 二개의 살인 단체에 의하여 당원들과 민주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대상으로 되였다. 당시 소위 의용군 본부 특수부에 체포 감금되였다가 내무 기관에 의하여 구원된 증인 오 창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〇년 七월 중순경 아무 리유없이 무장대원에게 체포되여 의용군 본부라는 곳에 감금되였는데 당시 내가 있던 류치장 내에는 약 三〇명 내지 四〇여명의 남녀들이 구금되여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혹독한 고문으로 실신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후 얼마 안되여 내무 기관에서 이러한 정형을 알고 이곳에 구금되였던 사람들을 인계하게 됨으로써 석방되였습니다……』 (기록 제七권 一七一—一七二폐지)

리 승엽과 그 공모자들이 이상과 같은 살인 단체를 조직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범죄 활동을 같이 감행하던 최 만용、윤 대현들의 진술에서도 명확히 확증되였다. (기록 제二권 一九二폐지 및 제二권 二一三폐지)

특히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공모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밀이 폭로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서슴치 않고 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리 승엽은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五〇년 七월 하순경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체포하게 하였다는 말이 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박 헌영에게 보고하였더니 박 헌영은 나에게 즉시 안 영달을 소환하여다가 전선에 내보내여 잘 싸우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기회에 우리들의 범죄 행위를 음폐할 목적으로 전선에 동원되는 림 종환 대렬에 배속시키고 림 종환에게 안 영달을 처단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기록 제一권 一五四—一五五폐지)

그는 계속하여 『……一九五〇년 七월 하순 김 삼룡을 피검하게 한 안 영달의 당 파괴 행위를 어디까지나 음폐하기 위하여 당시 의용군 본부 책임자였던 리 중업에게 당 특수선에서 일하였던 전 영애를 체포하여다가 김 삼룡 리 주하를 밀고하여 피검케 한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써든지 조사 구명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기록 제一권 二五一—二五二폐지)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시 전 영애를 취급한 현장에서 조력하던 증인 윤 대현의 증언과 피해자 전 영애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되였다。(기록 제二권 二一三폐지 및 二권 二四四폐지)

리 승엽 도당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심복들과 비밀 단체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아무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으며 심지어 배 철은 一九五二년 一一월 자기들의 반국가적 활동의 조직자이며 그의 두목인 리 승엽의 부화한 생활면이 폭로될 념려로부터 소위 위신 보전이라는 리유로 피심자 맹 종호에게 지시하여 무고한 부녀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획책하였다。(기록 제七권 一四一—一四二폐지)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행위

리 승엽 도당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공화국을 반대하는 간첩 행위와 남조선 민주 력량 파괴 약화 및 테로 학살 행위 등 반국가적 활동과 병행하여 그들의 직접 지도밑에 장구한 시일에 걸쳐 공화국 정권 전복을 기도하여 왔다。

이와 같이 미국 정탐 기관의 지도밑에 리 승엽 도당이 감행한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 활동은 출세주의적 모략으로서 조선 로동당 부위원장 및 공화국 내각 부수상의 직위에까지 등용되였던 박 헌영에 의하여 비호 보장되여 왔다는 사실이 본 사건의 예심에서 판명되였다。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은 벌써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박 헌영의 출세주의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가지고 자기들의 자본주의적 『락원』과 착취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전적으로 의거하여 그들의 방조밑에 정권을 수립하려는 범죄적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

피심자 리 강국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해방과 독립은 미국의 세력에 의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미국의 후원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八·一五 해방 직후 미국의 지지와 성원에 의한 정권이 조선에 수립되여야 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박 헌영 등과 같이 소위 「조선 인민 공화국」 조작 음모에 참가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기록 四권 一三五—一三六폐지)

다른 피심자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리 원조 등도 이와 같은 목적에서 조직하려는 소위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음모에 참가하여 활동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다。(기록 제二권 一二一—一三폐지 및 제三권 二一九—二二〇폐지 및 제五권 一四〇—一四一폐지 제七권 七三폐지)

뿐만 아니라 이들은 一九四五년 一二월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의 날조적인 선전에 발맞추어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

피심자 조 일명은 당시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 일보사 편집 국장으로 피심자 박 승원은 동 신문사 정치 부장의 직위를 리용하여 『신탁 통치』 반대의 기사를 해방 일보에 발표하였다。(기록 제三권 一七〇—一七一폐지 제六권 一二三폐지)

피심자 림 화, 리 원조 등은 一九四五년 一二월 하순경에 서울 명치좌에서 역시 모쓰크바 三

상회의 결정은 신탁 통치니 그를 반대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조직하였다。(기록 제五권 一七五폐지 및 제一〇권 三七폐지)

특히 이들은 쏘 미 공동 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인 一九四六년부터 一九四七년 五월까지에 걸쳐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민족에 대한 분렬 정책과 밀접한 련계밑에 표면으로는 서울에 통일 중앙 정부가 수립될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三八선을 계선으로 그를 량단하려는 민족 분렬 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기록 제二권 一五—一六폐지 및 제三권 一七一—一七四폐지)

이와 관련하여 피심자 리 강국、박 승원、리 원조 등은 호상 결탁밑에 자기들이 一九四六년 九월부터 해주 제一 인쇄소를 민족 분렬과 남북 대렵 사상을 고취시키는 범죄적 음모의 소굴로서 전환시켰음에 대하여 고백하였다。(기록 제四권 一六三—一六四폐지 및 제六권 一二七—一三〇폐지 및 제一〇권 一九七—一九九폐지)

그후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 조종밑에 공화국 수립을 계기로 하여 애국자의 가면을 쓰고 당과 정부 기관의 중요한 지도적 직위에 잠입하여 가지고 그의 직위와 직권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부식하는 한편 정부내에 자기들의 력량을 확대하려는 파괴 및 정치적 모략 활동을 더욱 적극화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리 승엽은 자기가 주동이 되여 시종 일관하게 감행하여 온 정치적 모략 활동은 그것이 一九四六년 二월 이후부터 직접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지도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기록 제二권 六〇—六一폐지)

리 승엽 도당들은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후 자기들의 음모 활동을 목적한 력량 확대를 위하여 당과 국가 기관의 중요한 직위에 변절자 민족 반역자 간첩 분자들과 기타 오래 동안 자기들의 영향하에 있던 반혁명적 분자들 중 가장 자기들에게 충실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거와 정체를 음폐하여 주면서 높은 직위에 등용하려고 광분하여 왔다。

이 사실에 대하여 피심자 맹 종호는 진술하기를 『……나는 一九四九년 여름 당시 당 중앙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서 득은으로부터 남북 조선 로동당의 합당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리력 문건인 나의 자서전에 순결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여 좋은 경력으로 장식하여야 출세할 수 있다는 방법을 교시받고 나의 불순한 八·一五전 경력과 가정 환경을 기만하여 시종 일관하게 투쟁하여 온 혁명 투사로 가장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九권 一五五폐지)

또한 피심자 조 일명、박 승원、림 화 등도 자기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권 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지도적 직위에 잠입하였음을 시인하였다。(기록 제三권 一六一폐지 제五권 一三三—一三四폐지 및 제六권 一〇〇폐지)

리 승엽 도당들의 교활성은 이러한 데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불순 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기 위하여 위협 또는 경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까지 적용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리 강국은 자기들의 주위에 불순 분자들을 규합함에 있어서 평양시 전동방 산업 및 영민 공사를 통하여 경제적 매수 방법이 감행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다。(기록 제四권 一六八—一六九폐지)

이것은 피심자 리 승엽、림 화、조 일명의 진술과 증인 전 영민 공사 사장 박 일룡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되였다。(기록 제三권 一七八폐지 및 제五권 一四八—一五〇폐지)

다른 방법으로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추악하고도 비렬한 정치적 모략 활동을 위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약화시키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로부터 리탈시키며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시책을 외곡 선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三八선을 계선으로 민족을 분렬시키기 위한 사상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이것은 피심자 리 승엽、리 강국、조 일명、박 승원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였다。(기록 제二권 一六—一七폐지、제三권 二二一—二二五폐지 제四권 一六五—一八八폐지 제六권 一〇九—一一一폐지)

그후 리 승엽 등의 정치적 모략 활동은 六·二八 후 리 승엽이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파견됨을 계기로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피심자 리 승엽은 이 시기에 있어서 자기들의 활동이 로골화된 것은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 서울에서 안 영달을 통하여 받은 노불의 지시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안 영달을 통하여 전달받은 노불의 지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〇년 六월 二六일 노불은 서울에서 퇴각하면서 안 영달을 통하여 나에게 간첩 활동과 겸하여 앞으로 미군이 인천과 원산에 상륙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미군과 호응하여 인민 봉기를 조직하라는 것과 인민군이 해방시킨 지역에서 정치적 세력 토대를 구축하면서 중간 및 우익 분자들을 자수시키는 형식을 취하여 굴복시키고 있다가 미군이 진공하여 오면 다시 나서도록 조직하라고 하였습니다。』(기록 二권 五七—五九폐지)

노불의 이와 같은 지령에 근거하여 리 승엽은 즉시 그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一九五〇년 七월 중순경부터 반동 진영의 괴수들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중간 및 우익 분자들을 자기의 주위에 규합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기록 제二권 二四—二五폐지)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와 테로 및 간첩 행위를 목적하고 조직한 『토지 조사 위원회』에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자들과 변절자 및 반역자들을 집결시켰으며 특히 자기의 출생지인 경기도 관내에서 자기의 지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에 김 점권、도 인민 위원장에 안 영달 그 후임으로 박 승원 부위원장에 안 기성(리승엽 장인) 김 요환 인천시 인민 위원장에 강 태민 등 자기의 심복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그 정체를 음폐 가장하고 등용하였다。(기록 제二권 二六폐지 제六권 一三二—一三三폐지)

이와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기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그곳을 강력한 활동 근거지로 전환시키려고 하던 리 승엽의 반국가적 음모는 一九五一년 一월 四일 二차 서울 해방 후에도 계속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안 영달을 통하여 받은 노불의 명령에 근거하여 인민 봉기를 조직할 목적에서 감행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기록 제二권 五八폐지)

一九五一년 八월 말경 적들이 원산과 안주에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리 승엽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미군의 추기 공세에 의하여 군사 정세가 돌변될 것과 이와 관련하여 혼란 상태가 조성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 틈을 타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자기의 심복들인 배 철、박 승원、림 화 등을 자기 사무실에 불러놓고 무장 폭동을 조직할 것을 토의하였다。

이날 회합 정형에 대하여 피심자 림 화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리 승엽은 새로운 미군의 추기 공세에 의하여 군사 정세가 돌변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군사 정세와 관련하여 제一차 후퇴 시기와 같은 혼란 상태가 조성될 것이니 그 틈을

타서 무장 폭동을 조직한다면 쉽게 당과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회합에 모인 나와 배 철、박 승원은 리 승엽의 의견을 전부 찬동하고 계속하여 이날 비밀 회담에서는 미군의 침공시 그에 호응하여 후방의 혼란한 틈을 타서 무장 폭동을 조직하기로 토의하고 폭동 부대로서는 금강 학원(당시 서울 학원) 학생 및 무장 부대들을 동원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록 제五권 一八二—一八三페지)

바로 이때로부터 이들은 당과 공화국 정권을 과괴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을 획책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후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음모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一九五一년 九월 초순에는 리 승엽의 지도하에 비밀 회합을 소집하고 『무장 폭동』 세력 기반의 준비와 그의 지휘 성원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피심자 조 일명은 이날 회합에서 토의된 문제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미군의 침공시 그의 군사적 원조에 의하여 무장 폭동을 조직 지휘하기 위한 사령부로서 리 승엽을 총사령으로 하고 나와 림 화는 정치 및 선전 선동 조직 책임자로서 폭동시 행동하기로 되였으며 박 승원은 참모장、배 철은 군사 조직 책임자로 선정되였고 폭동 지휘 책임자는 김 응빈으로써 구성된『폭동 지휘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합에서는 무장 폭동시에 동원할 력량 집결을 위한 당면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폭동 력량으로 간주한 금강 학원을 폭동시에 기민하게 동원시키기 위하여 평양 근처인 대동군 대천리 부근에 이전하기로 함과 동시 그의 인원을 확충하고 무장 훈련을 강화시킬 것과 또 동 학원 및 유격 부대 간부들을 우리들이 신임할 수 있는 간부로써 교체할 것과 동시에 련락부 산하 각 련락소를 강화하여 무장 폭동시 그를 동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배 철、박 승원 등에게 위임되였고 기타 문예총을 위시한 각 사회단체 내에서 우리들의 영향하에 있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우리들의 주위에 집결시켜 력량을 확대할 것이 나와 림 화에게 위임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三권 二二七페지)

리 승엽과 배 철、박 승원 등은 그의 무장력을 급속히 확장하기 위하여 금강 학원 원장 및 책임적 간부들을 자기들에게 가장 충실한 김 응빈、맹 종호 등 심복들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은 미군의 추기 공세에 호응하여 무장 폭동으로써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금강 학원 및 련락부를 무장 폭동 음모 소굴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 사업을 추진시켰으나 인민 군대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자기들이 기대하던 미군의 추기 공세는 좌절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자 리 승엽 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령에 의하여 자기들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무장 부대 및 그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 사업을 계속하였다。

리 승엽 도당들은 당 중앙 련락부를 무장 부대의 참모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업상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불순한 과거를 가진 자들을 련락부에 집중시키는 일방 당과 정부의 결정과 자기들에게 위임된 당과 국가적 책임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무장 부대를 조직 강화하는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배 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당 련락부장으로 있으면서 리 승엽의 지도밑에 당과 정부의 결정과 신임을 리용하여 무장 폭동에 동원시킬 무장 부대로서 금강 학원 및 유격대와 각 련락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영향을 받은 믿음직한 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기록 제七권 二〇三페지) 뿐만 아니라 一九五一년 一一월 경에는 정부로부터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준비 사업

을 집행할 데 대한 지시를 받은 리 승엽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새로 조직하려는 경기도 인민 위원회 관내 지역을 자기들의 흉악한 음모를 획책하기 위한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 승엽은 배 철、박 승원에게 현지 실정 조사 및 간부 선발에 대한 준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一九五一년 一一월 하순 경에는 자기의 심복들인 배 철、박 승원、림 화 등을 중앙당 자기 사무실에 모아놓고 경기도 인민 위원회의 『시정 방침』과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회합에 직접 참가하였던 피심자 박 승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날 리 승엽은 우리들에게 상부에서는 개성시를 중심으로 개풍 및 연백과 황해도 장풍군 일부를 떼여서 새로 경기도를 내여 놓을 계획이 있는 것같다。 경기도 인민 위원장에는 박 승원 당신이 예정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경기도를 우리가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력량 배양의 기지로 삼을 수 있고 또 간부를 양성하는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때문에 우리는 시급히 이곳에 믿을 수 있는 간부를 파견하여 준비 사업을 착수하며 또 그곳에 배치할 정권 기관 간부도 미리 토의하여 복안을 짜야 하며 그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우리가 경기도를 틀어쥐고 우리의 활동 근거지를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기록 제六권 一七〇페지)

이와 같은 목적에서 리 승엽은 새로 조직할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심자 박 승원을 부위원장에는 안 기성을、서기장에는 전 용구 등을 비롯한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심복들을 배치하려고 획책하였다가 파탄되였다。(기록 제二권 八六페지)

그러나 리 승엽 도당들은 이와 같은 자기들의 추악한 반국가적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다。

리 승엽은 一九五二년 二월 정부로부터 남연백에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의 양성 사업과 영농 사업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를 이미 파탄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음모에 예상하였던 자기들의 력량 확대의 지점으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피심자 리 승엽은 제一〇 지대에 대한 자기의 기대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나는 새로 조직되는 유격대 제一〇 지대를 인민 군대 제대병 및 병상 퇴원병들 중에서 우리의 세력 영향하에 들 수 있는 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으며 이 기회를 리용하여 유력한 「무장 부대」로 만들고 이들로써 농사를 짓게 하여 자급 자족하게 하면서 이를 기초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간부 양성」의 토대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 철、박 승원과 같이 이 합법적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들의 무장 부대를 급속히 강화하기 위하여 一九五二년 一一월까지 총 三、九〇〇여명을 집결시켰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二권 八七페지)

또한 리 승엽은 유격대 제一〇 지대에 자기의 심복인 피심자 맹 종호를 지대장으로 임명하고 정치부 지대장으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유 원식을 파견하였다。(기록 제二권 八七페지)

그는 대원들에게 언제든지 자기의 명령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며 당과 정부를 배반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九五二년 三월부터 一九五三년 一월까지 전후 四차에 걸쳐 一〇 지대를 직접 검열하고 지대장 맹 종호를 고무 격려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심자 맹 종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一九五二년 九월경 리 승엽은 주 녕하를 데리고 나에게 와서 제一〇 지대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반부에서 유격 투쟁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핵심을 양성하라는 지시를 주었고 제一〇 지대 대원 약 四〇〇여명이 참가한 환영 대회에서 리 승엽은 대원들의 소위 「애향 사

상」에서 발휘한 용감성을 높이 찬양하여 주면서 그를 고무하였으며……그후 리 승엽은 동년 一○월경에 재차 一○ 지대에 와서 나에게 남연백군 지역에 모나끄 왕국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이것을 공화국 정권에서 분리시켜 자급 자족 경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소위 리상향을 건설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기록 제三권 一四四페지 및 제九권 一四六페지 제九권 一五三페지)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 배 철, 박 승원은 유격 제一○ 지대의 조직과 관련하여 一九五二년 三월에는 강원도 내금강 홍 현기 부대를 역시 자기들의 무장 폭동 음모에 동원시킬 목적으로 평양 부근 중화에 주둔시켰다。

그후 그의 무장력 규합을 위하여 적극 활동함으로써 一九五二년 九월경까지 자기들의 영향하에 있던 자들로 一、一○○여명을 집결하고 그들에게 당과 정부를 반대하는 적대적 사상을 고취하였다。(기록 제二권 七五페지 제六권 一五一―一五二페지 및 제七권 一九八페지)

뿐만 아니라 리 승엽、배 철、박 승원 등은 자기들의 기반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공작을 구실로 각 련락소의 무장 성원을 증강하고 그 기구를 확장하였다。

一九五二년 三월에는 중부 련락소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四월경에는 개성 련락소를 당 련락부에 직속시키고 그후 동년 七월에는 다시 개성 련락소에서 옹진과 연백을 분리하여 련락부 직속 주재부를 설치하였으며 그후 一○월에는 각 련락소 무장 성원을 一九五二년 四월 현재 五○○명으로부터 八○○명으로 증강하고 점차 그들에게 무장 훈련과 반당적 반정부적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였다。(기록 제二권 七五―七六 제六권 一五一―一五三 제七권 一九九―二○一페지)

이와 관련하여 련락부를 확장하고 그의 사업은 중앙당 본부 어느 부문에서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인원을 증강하고 조 일명 등 자기들의 심복들을 다수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였다。(기록 제二권 八三페지 제六권 一七七페지)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을 조직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미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평양 방면으로 진공하게 되면 사전에 그를 평양 주변에 집결시키고 련락부를 중심으로 이미 조직한 무장 폭동 지휘부에서 장악하고 리 승엽의 총지휘 하에 폭동 작전 계획에 따라 동원시키려고 기도하였다。(기록 제二권 六一 제六권 一四五 제七권 二四九페지)

리 승엽과 그 공모자들은 이와 같이 무장 폭동의 방법으로 현존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 부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정부 및 기타 국가 기관과 사회단체 내에서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자들을 인입하여 기반을 더욱 강화할 목적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음모 활동들은 그의 공모자 조 일명、림 화、리 원조 등에 의하여 문화 선전성、문예총、조쏘 문화 협회에서도 진행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피심자 리 원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一년 九월부터 문예총 사업을 지도하면서 우리 력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김 남천에게 문예총 내에서 리 승엽의 영향하에 있는 자들을 규합하여 문예총의 지도권을 장악하도록 노력할 것을 사촉하였으며 나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적극 방조하여 주면서 一九五二년 一월에는 리 태준에게 문예총 산하 문화 선전사、문학 예술사、문예총 출판사를 통합할 것을 지시하고 김 남천을 합동한 후 주필로 등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一○권 六六페지 제一○권 一○一페지)

리 승엽과 그의 공모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공화국 정권을 전복한 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의

거하여 변생된 자본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五二년 九월 초순 박 헌영의 사택에서 자기들이 장차 수립하려는 소위『새 당』『새 정부』의 조각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심자 리 승엽은 이날 회합에서 토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一九五二년 九월 첫 휴식 일요일 박 헌영의 집 응접실에서 배 철、조 일명、림 화、박 승원、윤 순달 등과 같이 현존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한 후 우리가 수립하려는「새 정부」와「새 당」에 추대할 지도자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 정부의「수상」으로 박 헌영 「부수상」에는 주 녕하、장 시우 「내무상」박 승원「외무상」리 강국 「무력상」김 응빈「선전상」조 일명 「교육상」림 화「로동상」배 철「상업상」윤 순달 그리고「새 당」의 제一 비서로 내가 추대되기로 토의하였습니다。』(기록 제二권 六八페지)

이와 관련하여 피심자 박 승원은 자기들이 기도한『새 정부』의 성격에 대하여 진술하기를『……우리들은 공화국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가 지주 소자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 민족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기록 제六권 一八八—一八九페지)

이상과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의 실제 행동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간첩 행위와 남반부 민주 력량의 파괴 약화 테로 학살과 또한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의 준비에 있었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적 행위의 한 부분이였다는 사실이 본 사건 예심에 의하여 판명되였다。

피심자 각 개인의 죄행

본 사건의 피심자들 각자의 죄행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一、리 승 엽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되자 변절적인 과거의 경력을 속이고 당과 정권 거관 내에 잠입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 겸 사법상、인민 검열 위원회 위원장、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에 있은 자로 一九四五년 九월 미군이 남조선에 진주하자 미군 정책을 지지할 것을 성명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二월부터는 직접 미군 정탐 기관에 가담하여 미 국무성 촉탁이며『대한』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블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 파괴 테로、정권 전복 음모 등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1、一九四六년 서울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가담한 후 그의 지령에 의하여 피심자 조 일명과 련합하여 월북 전까지 서울에서 밀정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월북 후는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역시 조 일명과 같이 一九四八년 八월부터 박 승원을 흡수하였고 기타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 분자 림 화、안 영달、조 용복 및 백 형복 등을 一九五〇년 五월까지 공동 간첩으로 인입하였으며 一九五一년 七월경에는 역시 미국 정탐 기관의 탐정꾼 리 강국을 인입하고 그들을 지도하여 오면서 당 및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각 분야의 비밀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수집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활동에 방해되는 민주 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안 영달、조 용복

등과 결탁하여 남조선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활동을 감행케 하였으며 드디여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는 자기의 공모자 안 영달, 조 용복으로 하여금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 김 삼룡을 리 승만 괴뢰 경찰이였던 피심자 백 형복에게 고발하여 피검케 하였으며

ㄴ、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며 자기들의 국가적 죄상을 알고 있는 자들을 테로 학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一九四八년부터 안 영달 맹 종호 기타 자기의 심복들에게 지시하여 당 간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六·二八 후 서울에 가서는 더욱 대량적 학살을 목적하고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 등을 조직 지도하였으며

ㄷ、 피소자 리 강국 조 일명 박 승원 등 자기의 공모자들과 같이 인민들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여 민족 분렬을 조성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또한 변절자 및 반역자 기타 불순 분자들을 당과 국가 기관의 중요한 지도적 직위에 등용 배치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확대하여 가지고 온갖 정치적 모략 활동을 하도록 조직 지도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안 영달을 통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인민 봉기를 조직할 데 대한 노불의 지령을 받고 一九五一년 八월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피심자 배철 박 승원 조 일명 림 화 등과 결탁하여 무장 폭동 음모 본부를 조직하고 폭동을 감행하기 위한 무장 부대와 력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두목으로 활동하여 왔다는 사실이 피심자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완전히 판명되였다。

二、 조 일명 문화 선전성 전 부상

그는 一九三四년 혁명 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하여 일제의 사상 전향 기관인 서울 대화숙에서 일본어 강사로 소위 내선 일체의 사상을 제창하여 오던 조선 인민의 반역자이였으며(기록 제三권 一五三—一五六페지) 八·一五 해방 후 一九四六년 二월부터 미국 정탐 기관의 밀정으로 가담하였던 자로

ㄱ、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과 같이 一九四七년 九월까지 五차에 걸쳐 당 내부 실정 및 기타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기록 제三권 八五—八八페지 및 제三권 一一二—一一四페지)

一九四八년 八월부터는 리 승엽과 같이 박 승원 림 화 등을 자기들의 간첩 행위에 인입한 후 그들과 같이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각 분야의 비밀 자료들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기록 제三권 八二—九五페지 및 一一七—一三五페지)

ㄴ、 一九五〇년 七월에는 서울에서 리 승엽과 공모하여 자기들의 비위에 대치되는 간부들과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살해를 목적하고 의용군 본부 내에 특수부를 조직하였으며 그의 범행을 지도하였다。(기록 제三권 一二三—一二九페지)

ㄷ、 리 승엽 등의 정치적 모략 활동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조성하려는 온갖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여 왔으며(기록 제三권 二一八—二二五페지) 一九五一년 九월부터는 역시 리 승엽 등의 무장 폭동 음모 활동에 참가하여 그의 폭동 음모 본부를 조직하고 폭동시 정치 및 선전 선동 조직 책임을 담당하는 동시 그의 력량 확대를 위하여 문화 선전성 내에 불순한 자들을 인입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심자 리 원조로 하여금 문예총 내에서 불순한 분자들을 집결하도록 사축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기록 제三권 二三〇—二三五페지)

三、림 화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그는 一九三五년 일제 경찰과 야합하여 혁명적 문화 단체인 카프를 해산시키도록 책동하였으며 친일 『문인 보국회』 리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소위 내선 일체의 사상을 주창하는 등 민족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왔으며(기록 제五권 一二八—一三二페지) 八·一五 해방 후는 미국 정탐 기관의 밀정으로 가담하여 리 승엽 등과 련계밑에 간첩 행위를 감행한 자로

ㄱ、一九四五년 一二월부터 미국 정탐 기관 또는 전 남조선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 국장이였던 피심자 설 정식 등과 련계밑에 당 및 문화 단체의 비밀을 그들에게 계속 수집 제공하였으며(기록 제五권 八三—八九페지) 一九四八년 一一월부터는 피심자 리 승엽과 간첩 련계를 가지면서 조 일명 박 승원 리 강국 등과 결탁하여 一〇여차에 걸쳐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는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각 분야의 정보 자료들을 련락하였고 六·二八 이후 서울에서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정치 정보를 수집 제공하였다。(기록 제五권 七六—七九페지 및 一一〇—一二五페지)

ㄴ、리 승엽의 정치적 모략 활동에 참가하여 조 일명 박 승원 리 원조 등과 같이 변절자와 기타 불순 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하며 당과 정부의 시책과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였다。(기록 제五권 一七二—一七八페지)

一九五一년 八월에는 무장 폭동 음모 활동에 참가하여 폭동 음모 본부를 조직하고 폭동시 조 일명과 같이 정치 및 선전 선동 조직 책임을 담당하고 그의 력량 집결을 위하여 문화 예술 단체를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며고 활동하였다。(기록 제五권 一八〇—一九〇페지)

四、박 승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그는 一九三五년 일제 경찰에 체포된 후 변절하여 그들의 밀정으로 혁명 동지들을 밀고하여 왔으며 한편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사』 기자로 종사하면서 신문을 통하여 조선 청년들을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오던 자로(기록 제六권 九五페지 및 제六권 九六페지) 해방 후 자기의 과거를 음폐하고 당에 잠입하여 있으면서

ㄱ、一九四八년 八월부터 리 승엽의 간첩망에 가담하고 그의 지도밑에 一九四九년 一〇월경까지 림 화 조 일명 등과 결탁하여 계속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각 분야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안 영달을 통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기록 제六권 六六페지、 제六권 七六페지)

ㄴ、리 승엽 등과 결탁하여 조 일명 리 강국 기타 피심자들과 같이 계속하여 민족 분렬의 조성 획책과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며 반역자 및 불순 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기 위한 온갖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다。(기록 제六권 八四페지 제六권 三〇페지)

一九五一년 八월부터 공화국 정부의 전복을 목적하고 리 승엽 조 일명 배 철 림 화 등과 같이 무장 폭동 음모 본부를 형성하고 그의 참모장의 책임을 담당한 후 배 철과 같이 리 승엽의 지도밑에 력량 확대와 무장 부대를 강화하는 등 무장 폭동 준비 활동을 감행하였다。(기록 제六권 一五七페지、 一八一페지)

무여성 일반 제품

五、리 강국 전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 그리고 체포 직전에는 수입 상사 사장

그는 공산주의의 탈락자로서 一九三五년 독일 백림 대학을 마치고 조선에 귀국할 때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지도자 크로리를 만나 앞으로 그와 범죄적 련계를 가질 것을 밀약하였던 자로(기록 제四권 一九六—一九七폐지)

ㄱ、一九四六년 九월 미국 정탐 기관에 간첩 활동을 서약한 후 一九四七년 一월부터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의 직위에 잠입하여 一九四八년 八월까지 五차에 걸쳐 북조선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제 부문에 대한 비밀 등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기록 제四권 一〇三폐지 및 一一三폐지) 一九五〇년 五월경에는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 분자 현 애리스와 리 월리암과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감행할 것을 약속하였다。(기록 제四권 一七三—一七四폐지)

一九五一년 七월부터는 리 승엽의 지도하에 있는 간첩망과 련계를 맺고 一九五二년 一〇월까지 四차에 걸쳐 공화국의 군사 정치적 비밀을 수집 제공하였다。(기록 제四권 一二六—一二八폐지)

ㄴ、조선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킴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지도밑에 리 승엽과 결탁하여 계속 력량 확대와 조선 인민의 통일을 약화시키며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등의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기록 제四권 一五八—一七九폐지、제四권 一一四—一二三폐지)

六、배 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

그는 八·一五 해방 후 박 헌영 리 승엽 등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 一九五一년 八월부터는 전시 련락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리 승엽 박 승원 조 일명 림 화 등과 같이 공화국 정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 본부를 형성하고 그의 군사 조직 책임을 담당한 후 박 승원과 같이 그를 실현하기 위한 력량 확대와 무장 부대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기록 제七권 一八六폐지、제七권 二〇二폐지 및 二二六폐지)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배 철은 당과 정부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며 조국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온갖 정치적 모략 행위를 감행하였다。(기록 제七권 一三二폐지、제七권 一三九폐지)

一九五二년 一一월에는 리 승엽의 부화한 생활을 음폐하며 소위 위신 보장이라는 리유로 무고한 부녀들을 피심자 맹 종호에게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또한 一九五二년 一一월경에는 무고한 인민 二명을 피심자 윤 순달에게 지시하여 살해하도록 하였다。(기록 제七권 一四〇—一四二폐지、제七권 一二七폐지 및 一三一폐지)

七、윤 순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그는 八·一五 해방 전후를 통하여 박 헌영의 심복으로 그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 一九五二년 六월부터는 중앙당 련락부 부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리 승엽 등의 공화국 정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에 참가하여 그의 무장 부대의 조직 강화 및 력량 확대를 위한 활동과 반국가적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는 일방 一九五二년 九월에는 박 헌영을 중심한 범죄적 정부 구성을 위한 토의에 참가하였다。(기록 제九권 三〇六—三一〇폐지 및 제九권 三二二폐지)

一九五二년 一一월경에는 무고한 인민 三명을 피심자 배 철과 토의밑에 지시하여 살해하였다。(기록 제九권 三一二폐지 및 제九권 三一五폐지)

八、리 원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전 부부장

그는 一九三五년부터 八·一五까지 일제 어용 기관인『조선 일보사』기자 또는 서울『대동 출판사』부주필로 있으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으며(기록 제一〇권 七七페지、七八페지) 해방후 교묘하게 당에 잠입하여 一九四五년 一二월부터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에 참가하여 계속 림 화 조 일명 박 승원 등과 같이 민족 분렬을 조성하기 위하여 획책하면서 한편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였다。(기록 제一〇권 四六―五二페지、五四―六三페지、九六―九九페지)

一九五一년 六월부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당과 정권을 파괴 전복하려는 목적에서 림 화 조 일명 등의 영향밑에 직접 그의 력량 확대를 위하여 문예총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기록 제一〇권 六五―七一페지 및 一〇〇―一〇四페지)

九、백 형복 전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

그는 八·一五 해방 전부터 일제 경찰의 순사 부장으로 고등계 형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여 온 자로(기록 제八권 八一페지) 八·一五 해방후 리 승만 괴뢰 경찰에 가담하여 전라북도 및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조선 로동당 전라북도 당 위원장이던 황 의래를 비롯하여 기타 당 지도 간부들과 애국 인민 二〇〇여명을 체포 학살함을 직접 조직 지휘함으로써 전라북도 및 강원도 당부를 파괴하였다。(기록 제八권 八二페지、八六페지)

一九五〇년 一월부터 안 영달과의 련계밑에 피심자 조 용복을 반역적 간첩 행위에 인입하고 동년 三월 二七일에는 그들의 방조밑에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을 체포하였다。(기록 제八권 九六페지)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동년 四월까지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미군 대좌 니콜스와 결탁하여 三차에 걸쳐 조 용복을 공화국 북반부에 침투시켜 리 승엽과 련계밑에 공화국의 군사 기밀과 기타 당에 대한 비밀을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기록 제一二권 二二페지 및 一二권 四〇페지) 一九五〇년 五월 八일에는 미국 정탐 기관의 직접적인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과 련계밑에 간첩 활동을 목적하고 변절자 안 영달 조 용복 등과 같이 의거 입북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기록 제八권 一六二페지、一六八페지 및 一〇二페지)

一〇、조 용복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상급 검열원

그는 一九三二년 六월 일본에서 공청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변절하여 조선에 귀국하여 가지고 일제 신문 기자 또는 개인 기업을 경영하여 오던 자로서 一九五〇년 一월 변절하여 괴뢰 경찰 백 형복의 밀정으로 가담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김 삼룡을 밀고 체포함에 방조하였다。(기록 제一〇권 三四〇―三四九페지)

그후 一九五〇년 四월까지 三차에 걸쳐 그로부터 간첩 임무를 받고 입북하여 리 승엽으로부터 당 활동 및 군사 정보와 기타 안 영달과 자기의 변절 행위를 음폐하는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과업 등을 받아가지고 전시 백 형복에게 전달하였으며(기록 제一〇권 三一三―三一七페지) 一九五〇년 五월 초순경에는 미국 탐정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과 련계밑에 간첩 활동을 감행할 목적으로

안 영달 및 피심자 백 형복 등과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기록 제一〇권 三三一—三三四페지)

一一、맹 종호 전 조선 인민 유격대 독립 제一〇지대 지대장

그는 一九三四년 혁명적 단체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감옥에서 출옥한 후 변절하여 一九三九년 二월부터 일본인 고등계 형사와 결탁되여 일제의 직업적 밀정으로 종사하면서 허 헌 정 창섭 등을 비롯한 기타 많은 혁명적 인사들을 밀고하여 온 자로서(기록 제九권 四六—四八페지)

ㄱ、一九四七년 말경 미 군정청 경무부장 조 병옥의 비서 고 학래로부터 간첩 지령을 받고 一九四八년 四월북 잠입하여 一九四八년 여름까지 二차에 걸쳐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정보와 一九四八년 四월 련석 회의에 참가한 남반부 대표자 명단을 고 학래에게 제공하였다。(기록 제九권 七〇—七二페지)

ㄴ、一九四七년 五월부터 박 헌영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 활동에 가담하여 온갖 불순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며 인민들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모략 행위를 감행하여 왔으며(기록 제九권 八二—八七페지) 또한 一九五二년 二월부터 유격 제一〇 지대장으로 있으면서 리 승엽 등의 정권 전복 음모에 참가하여 리 승엽 배 철 박 승원 등의 지시에 의하여 무장 폭동시 동원시킬 무장 부대를 조직 강화하는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기록 제九권 一三九—一四六페지 및 一五四페지)

ㄷ、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에는 서울에서 리 승엽의 심복인 리 중업 등과 결탁밑에 자기들의 범죄적 비밀을 음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대치되는 세력과 자기들의 범죄 활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학살 행위를 위하여 비밀적으로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지하실에 七〇여명의 당 간부 및 무고한 인민들과 기타 적 기관에 종사하여 온 자들을 감금하고 취조중 내무기관의 단속에 의하여 학살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중 七명만을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총살하였다。(기록 제九권 五九—六〇페지)

一二、설 정식 전 남조선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 국장 그리고 체포 전에는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총정치국 제七부 부원

그는 八·一五 해방 전 미국 자본가들의 장학금에 의하여 미국 마운트 유니온 대학과 콜롬비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八·一五 후에는 一九四五년 一一월부터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 국장으로 있으면서 남로당과 민주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一九四六년 五월경에는 공보처 소속 미군 장교 로빈손과 결탁밑에 당시 남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 부위원장으로 있던 림 화를 정탐 활동에 인입하고 남조선 문화 단체와 당 내부의 비밀 자료들을 수집하여 로빈손에게 제공하였으며(기록 제一〇권 二一一—二一八페지) 一九四六년 九월 림 화의 보증으로 자기의 정체를 음폐하고 당에 잠입하였으나 一九四九년 一二월에 변절하여 사상 전향 기관인『보도 련맹』에 가담하고 괴뢰 경찰과 결탁하여 당과 공화국 정부와 민주 진영을 반대 비방하는 반동적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등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기록 제一〇권 二一七페지 및 二二八—二三〇페지)

피심자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박 승원 리 강국 배 철 윤 순달 리 원조 백 형복 조용복 맹 종호 설 정식 등은 각각 렵심에서 통고된 자기의 범죄 행위를 시인하였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상호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및 대질 신문들로써 확증되였다。상술한 바에 의하여

一、 리 승엽 一九〇五년 二월 八일 생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비서 겸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

二、 조 일명 一九〇三년 一二월 一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문화 선전성 전 부상

공화국에 수립된 인민 정권을 폭력 수단으로 파괴 전복할 목적에서 반국가적 음모 단체 및 그의 지도부를 조직 지도하였고 정치적 모략 활동으로 인민들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조성시키려고 한 리유로 그리고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치 군사 경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한 리유로 또한 자기들의 범죄적 비밀을 음폐하기 위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一항 제七六조 二항 제六八조 제七二조에 해당한다。

三、 림 화 一九〇八년 一〇월 一三일 생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직업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四、 박 승원 一九一三년 二월 二八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공화국 정권을 폭력 수단으로 전복할 목적에서 반국가적 음모 단체 및 그의 지도부를 조직하였으며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한 리유로 그리고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목적하고 조직된 리 승엽 등의 간첩망에 인입 또는 흡수되여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그를 전달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一항 제七六조 二항 제六八조에 해당한다。

五、 리 강국 一九〇六년 二월 七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무역성 일반 제품 수입 상사 전 사장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치 군사 경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리 승엽 등의 간첩망에 가담하여 활동한 리유로 그리고 리 승엽 등과 같이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八조 제七六조 二항에 해당한다。

六、 배 철 一九一二년 一월 六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

七、 윤 순달 一九一四년 一월 一六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공화국 정권을 폭력 수단으로 전복하기 위한 반국가적 음모 단체 및 그 지도부를 조직한 리유로 그리고 반국가적 정치 모략 활동을 감행한 리유로 또한 살해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一항 제七六조 二항과 제一一二조 四호에 해당한다。

八、 리 원조 一九〇九년 六월 二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전 부부장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려는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에 가담하여 그의 력량 확대를 위하여 활동한 리유로 그리고 정치적 모략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二항 제七六조 二항에 해당한다。

九、 백 형복 一九一七년 一〇월 二四일 생

주소 서울시 중구 효현동

직업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전 중앙 분실장

일제의 경찰 또는 리 승만 괴뢰 경찰의 요직에 있으면서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한 리유로 그리고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 등의 간첩망에 참가하여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九조 제七八조 제七一조에 해당한다。

一〇、 조 용복 一九〇九년 五월 二一일 생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직업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상급 검열원

리 승만 괴뢰 경찰을 위한 밀정 행위와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과 련계밑에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형법 제七八조 제六八조에 해당한다。

一一、 맹 종호 一九一一년 八월 一〇일 생

주소 황해도 평산군

직업 조선 인민군 유격대 제一〇 지대장

공화국 정권을 파괴 전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된 리 승엽 등의 정권 전복 음모에 참가하여 무장 부대의 조직 강화를 위하여 활동한 리유로 그리고 인민들에게 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시키며 민족 분렬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치적 모략 행위를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를 음폐하기 위한 테로 행위와 적 탐정 기관과 련계밑에 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二항 제七六조 二항 제七二조 및 제六八조에 해당한다。

一二、 설 정식 一九一二년 九월 一八일 생

주소 평양 특별시

직업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총정치국 전 제七부 부원

남조선 미 군정청의 요직에 있으면서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민주 진영의 비밀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반역 행위를 감행한 리유로 그리고 리 승만 괴뢰 경찰과 결탁하여 반

국가적 문학 작품을 창작한 리유로 이는 형법 제七九조에 해당한다。

본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二五조에 의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심리에 속한다。

一九五三년 七월 三〇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 총장 리 송 운

二、공판 심리

피소자 리승엽 조일명 림화 박승원 리강국 배철
윤순달 리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

一九五三년 八월 三일—六일

一九五三년 八월 三일부터 六일까지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장 김익선을 재판장으로 하고 판사 박룡숙 판사 박경호를 성원으로 하고 서기 김영주가 렵회한 공개 공판에서 검사 부총장 김동학 검사 김윤식 리창호 변호인 지영대 리규홍 김문평 정영화 길병옥 관여하에 피소자 리승엽 조일명 림화 박승원 리강국 배철 윤순달 리원조 백형복 조용복 설정식 맹종호들의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一항 동 제六八조 동 제七六조 동 제七二조 등 사건을 심리하였다。

개정 선언

재판장 지금부터 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박 승원 리 강국 배 철 윤 순달 리 원조 백 형복 조 용복 맹 종호 설 정식의 형법 제七八조 제六五조 一항 동 제七六조 동 제七二조 동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오전 一〇시)

박 룡숙 판사、피소자를 확인하시오。

(박 룡숙 판사는 피소자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一、피소자 리 승엽 一九〇五년 二월 八일 생 남자
본적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외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 청계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비서 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

二、피소자 조 일명 (별명 조 두원) 一九〇三년 一二월 一일 생 남자
본적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주소 평양시 기림리
직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문화 선전성 전 부상

三、피소자 림 화 一九〇八년 一〇월 一三일 생 남자
본적 서울시 가회동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내리
직업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四、피소자 박 승원(별명 박 일철) 一九一三년 二월 二八일 생 남자
본적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하당리
주소 평양시 대성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五、피소자 리 강국 一九〇六년 二월 七일 생 남자
본적 서울시 사직동
주소 평양시 기림리
직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무역성 조선 일반 제품 수입 상사 전 사장

六、피소자 배 철 一九一二년 一월 六일 생 남자
본적 서울시 아현동
주소 평양시 로성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

七、피소자 윤 순달 一九一四년 一월 一六일 생 남자
본적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기암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八、피소자 리 원조 一九〇九년 六월 二일 생 남자
본적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부동
주소 평양시 대타령리
직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전 부부장

九、피소자 백 형복 一九一七년 一〇월 二四일 생 남자
본적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원종리
주소 서울시 연희동
직업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

一〇、피소자 조 용복(별명 박 상옥) 一九〇九년 五월 二一일 생 남자
본적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 청계리
직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상급 검열원

一一、피소자 맹 종호(별명 허 종일) 一九一一년 八월 一〇일 생 남자
본적 함경북도 경성군 주북면 두남동
주소 황해도 평산군 로동리
직업 조선 인민 유격대 제一〇 지대 전 지대장

一二、피소자 설 정식 一九一二년 九월 一八일 생 남자
본적 서울시 효자동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기암리
직업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총정치국 제七부 전 부원

재판장 피소자들은 기소장 등본을 받았습니까。

피소자들 받았습니다。

재판장 소추 검사는 누구십니까。

검사 부총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검사 부총장 김 동학이며 검사 리 창호와 김 윤식이 같이 참가하였습니다。

재판장 변호인들은 누구십니까。

변호인 지 영대 피소자 리 승엽을 위한 공선 변호인 지 영대입니다。

변호인 김 문평 피소자 림 화 리 원조 설 정식을 위한 공선 변호인 김 문평입니다。

변호인 리 규홍 피소자 조 일명 백 형복 윤 순달을 위한 공선 변호인 리 규홍입니다。

변호인 정 영화 피소자 배 철 조 용복 박 승원을 위한 공선 변호인 정 영화입니다。

변호인 길 병옥 피소자 리 강국 맹 종호를 위한 공선 변호인 길 병옥입니다。

재판장 피소자들은 자기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며 증인 및 기타 증거 채택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공판은 재판장 김 익선 판사 박 룡숙 박 경호로 구성한 재판소가 심리하며 서기로서 김 영주가 립회하였는데 이 재판소 성원 및 립회 군관 중에 자기와 원한 관계가 있거나 사건 해결에 리해 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소송 당사자들은 배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소 성원 및 립회 군관에 대하여

배제 신청할 것이 없습니까。

피소자들 없습니다。

변호인들 없습니다。

검　사 없습니다。

재판장 소추 검사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검찰소 부총장 김 동학에 대하여 배제 신청할 것이 없습니까。

피소자들 없습니다。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박 경호 판사、 증인들의 출정 여부를 확인하시오。

박 경호 판사 (립회 서기에게) 소환한 증인들이 전부 출두하였습니까。

립회 서기 김 영주 소환한 증인 一三명 중 차 약도 이하 一〇명은 출정하였고 증인 전 영애 전 구하 윤 대현은 사정에 의하여 금일은 출정 못하고 명일 출정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박 경호 판사는 출정한 증인 一〇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증인 려 근호 당 四五세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칠암리

증인 윤 병상 당 三六세
주소 평양특별시 기암리

증인 김 한경 당 五一세
주소 순안군 성옥리

증인 차 약도 당 三六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증인 최 만용 당 四二세
주소 개성시 고려동

증인 리 경민 당 三一세
주소 황해도 남연백군

증인 전 우한 당 二五세
주소 황해도 남연백군

증인 김 홍수 당 三四세
주소 평안남도 대동군 내동리

증인 최 성환 당 四三세
주소 평양특별시 기림一리

증인 박 태을 당 四六세
주소 평양특별시 중구역 서성리

박 경호 판사 증인들은 피소자 리 승엽 등 一二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본 사건에 관하여 자기가 아는 것을 진상대로 재판소 앞에 말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고합니다。 증인들은 서약서에 서명 날인

하십시오。

（증인들은 각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별실로 퇴정하였다。）

재판장 새 증인 또는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변호인들 없습니다。

피소자들 없습니다。

재판장 소환한 증인중 三명이 출정하지 않은채로 공판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변호인들 없습니다。

피소자들 없습니다。

재판장 이제부터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배 철 림 화 맹 종호 윤 순달 리 원조 백 형복 조 용복 박 승원 설 정식에 대한 기소장 랑독이 있겠습니다。

（판사 박 경호는 기소장을 랑독하였다。）

재판장 피소자들은 기소장 내용을 전부 승인합니까。

피소자들 전부 승인합니다。

재판장 二〇분간 휴정하겠습니다。

* * *

재판장 공판을 속개하겠습니다。（一一시 二〇분）

심리 순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검 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一九六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처음에 피소자들을 심리하되 피소자 조 일명 박 승원 림 화 백 형복 조 용복 리 강국 리 승엽 배 철 맹 종호 윤 순달 리 원조 설 정식의 순서로 심리하고 다음으로 증인들을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변호인 지 영대 변호인들의 종합된 의견으로서는 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등 기소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리하고 증인들은 재판소의 재량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판장 심리 순서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 피소자 조 일명 박 승원 림 화 백 형복 조 용복 리 강국 리 승엽 배 철 맹 종호 윤 순달 리 원조 설 정식의 순서로 심리하고 증인들은 재판소의 필요에 따라 심리하기로 판정되였습니다。

조 일명에 대한 신문

재판장 피소자 조 일명、

（피소자 조 일명은 진술대 앞으로 나오다。）

재판장 피소자의 경력을 말하십시오。

조 일명 저는 一九〇三년 一二월 一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토지 약 一五,〇〇〇평을 소유하는 지주의 장남으로 부유한 가정에 출생하여 남부럽지 않는 생활 환경속에서 자랐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 문과를 졸업한 후 서울 등지에서 공산당 재건 활동을 하다가 一九二九년 一二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여 一九三〇년 四월에 三년 六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 과정에 사상적으로 약화되고 비겁해졌으며 一九三三년 一〇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기 출옥 당시 공산주의 운동은 환경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는 내용의 전향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본적지에 돌아와 있다가 一九三三년 一二월에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였다가 一九三四년 四월에 석방되면서 나는 사상적으로 여지없이 타락되여 국제 공산당으로부터 맡은 과업을 포기하고 일신상 안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절하여 반역적 길에 들어서게 되였던 것입니다。 一九三四년 여름부터 一九三八년 봄까지 본적지에서 머슴을 두고 농사하다가 一九三八년 봄에 서울로 이사하고 一九四〇년부터 중석 채굴업을 하는 〃삼각 상회〃의 사무원으로 있었고 一九四三년 六월부터는 술 장사도 겸하여 안일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四년 二월부터는 대화숙 인쇄소 주문원으로 취직하여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을 적극 방조하였습니다。 一九四四년 一월부터 三월까지 대화숙 야간 학교 일본말 교사로 三개월간 종사하면서 소위 〃황국 신민화〃 운동을 적극 방조하였고 一九四四년 七월에는 대화숙 기관지 『사상 보국』에 일본말을 배우자는 반역적 론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황국 신민이 되기 위하여 일본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였습니다。

一九四五년 一월부터 조선 해륙 운수 주식 회사 해운과의 사무원으로 일제의 군수 물자 수송에 복무하는 한편 주류 판매업을 하면서 八·一五 해방까지 지났습니다。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면서 저는 소부르죠아적 공명심과 출세주의에서 당 조직 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五년 九월에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 일보 편집국장이 되였습니다。

一九四六년 五월 놈들의 탄압에 의하여 해방 일보가 해산된 후 一九四六년 五월부터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기국원으로 입직하여 一九四六년 一二월까지 근무하다가 남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간부부 부부장으로 되여 一九四七년 五월까지 있었고 一九四七년 六월부터 남로당 기관지 로력 인민사 주필로 一九四七년 一二월까지 있었고 一九四七년 一二월에 입북하여 一九四九년 一〇월까지 박 헌영의 지도하에 남반부 당 특수 공작을 했습니다。 一九四九년 一二월부터 조선 로동당 중앙 본부 서기로 있다가 一九五〇년 八월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계획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다가 후퇴한 후 一九五〇년 一〇월부터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 제七부 부부장으로 있다가 一九五一년 一월부터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 선동부 정치 상학 지도과장으로 있었으며 一九五一년 五월에 민주 조선사 부주필로 되였다가 一九五一년 一一월에 문화선전성 부상으로 임명되여 체포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범죄 사실중 간첩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 일명 간첩 활동에 대하여 말한다면 一九四六년 二월에 해방 일보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나의 하숙인 서울시 삼청정 최 옥희의 집에서 나와 리 승엽과 최 옥희와 조 원숙이와 같이 자고 있다가 체포되여 四인이 분리되여 구금되였는데 저는 성동 경찰서에 구금되였는바 미군 헌병 대위 쫀손이란 자가 그의 통역을 데리고 나를 취급하였습니다。 쫀손 대위는 저에게 리승만 암살 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신문하는 데 대하여 제가 부인한즉, 그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협력자로 되여야만 용서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변절하여 그들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때부터 미국 간첩으로 전락되였습니다。 수일 후에 저와 리 승엽과 최 옥희는 석방되여 三인이 저의 하숙집에서 잘 때 리 승엽에게 내가 변절한 사실을 말한즉 리 승엽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리 승엽이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국 헌병 대위 쫀손은 저를 석방하면서 며칠 후에 해방 일보사에 저를 찾아 온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며칠 후에 미군 쫀손은 약속대로 해방 일보사에 찾아와서 이미 약속한대로 간첩 임무를 충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리 승엽을 아는가 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별한 련락이 필요할 때에는 반도호텔에로 찾아오라고 하였으며 저는 이것을 승인하고 며칠 후에 공산당 경기도당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시 청진동 백 석황의 집에 찾아가서 리 승엽을 만나 리 승엽 밑에서 활동하라고 하는 쫀손의 지시를 전달하니까 리 승엽도 승인하였고 최근의 자료를 수집 제공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므로 저는 응낙하였고 리 승엽은 공산당 중앙 및 지방 조직 체계 및 간부들의 사업 분공 정형과 아지트의 소재 당원수 등 자료를 수집 제공하자고 하였습니다。

一九四六년 四월에 이상과 같은 내용의 당 기밀 자료를 수집하여 제一차로서 리 승엽을 통하여 미국 간첩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제二차로서는 一九四六년 五월에 지금 말한 바와 같은 당내 기밀과 남반부 인민 생활 형편 등을 제가 수집하고 정리하여 리 승엽을 통해서 쫀손에 제공하였습니다。

제三차로 一九四六년 말에 三당 합당 후 간부가 변동되였으므로 一九四七년 一월 상기와 같은 기밀 자료와 북조선 사회 형편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리 승엽에게 주어 쫀손에게 제공케 하였습니다。

제四차로 一九四七년 六월 쏘미 공동 위원회에 참가하는 쏘련 대표의 정책과 태도에 대하여 리 승엽이가 날조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제가 반도호텔에 찾아가서 접수구에서 쫀손을 면회 왔다고 한즉 기다리라 하여 대기하던 중 쫀손이 저를 보고 들어오라고 하여 二층 구석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 그에게 간첩 자료를 제공한즉 그는 『텡큐』하면서 그것을 받은 후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후 五차로서 一九四七년 九월에 역시 당 기밀을 전번과 같은 방향에서 작성하여 제가 반도호텔에서 쫀손에게 제공하고 그후 리 승엽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는데 즉 이상이 남반부에서 제가 간첩 자료를 제공한 사실입니다。

재판장 북반부에 와서 계속한 간첩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 일명 一九四七년 一二월 초에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북반부에서 박 헌영의 사업을 원조하기 위하여 입북하였습니다。

입북 후 리 승엽과의 간첩 행위로서는 一九四八년 七월에 입북한 리 승엽은 八월에 평양 기림리 저의 집에 래방하여 해주 인쇄소에서 누가 가장 신임할만 한가고 묻기에 저는 간첩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박 승원이가 가장 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리유는 박 승원이가 일제시 변절하였고 박 헌영에게 충실하며 비밀을 잘 지키는 데서 박 승원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간첩망 조직에 대한 리 승엽과의 첫담화였습니다。

一九四八년 一○월에는 남산리 박 헌영의 집에서 간첩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는데 그때 리 승엽은 남반부에서는 자기 대신 안 영달이가 미군에게 간첩 자료를 직접 전달

하게 하고 三八선을 넘기는 것은 박 승원에게 책임지우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평양을 잘 떠나지 못할 것이니 평양에서 해주 간의 련락자를 두어야 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때 림 화가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림 화는 일제 시기에 변절하였고 현재 설 정식이와 관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쏘련 류학 간다던 것이 못가고 그 시기에 해주에 가서 있으므로 그 사람을 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데서 제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림 화를 불러서 간첩망에 흡수한 후 북반부 출신의 공화국 내각 각료와 부상 각 직속 국장 명단을 리 승엽으로부터 받고 제가 남반부 출신인 간부 명단을 꾸며 정리한 후 즉시 박 승원에게 전화를 하여 림 화를 평양에 오라고 했더니 그후 남산리 박 헌영의 집에 있는 저에게 대동문앞 영빈 상사에 와 있노라는 림 화로부터의 전화가 왔으므로 저는 기다리라고 하고 저녁에 차를 타고 가서 림 화를 저의 집에 데리고 가서 림 화에게 리 승엽은 당신이 일제 시대에 변절한 사실 및 설 정식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나와 리 승엽이 토의한 내용을 말하여주고 앞으로 리 승엽에게 충실하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니 리 승엽의 지시에 적극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림 화도 찬성했습니다。 이리하여 림 화를 우리 크룹에 가담시키고 그로 하여금 리 승엽 및 나와 해주에 있는 박 승원 간의 련락을 一개월에 一회씩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박 헌영의 집에서 리 승엽을 만나 림 화가 가담했다는 것을 알린 후 리 승엽은 림 화에게 충실히 공작하라고 하였고 림 화는 그 지시를 승낙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먼저 말한 공화국 각료들의 리력 북반부 산업 발전 정형 농촌 정형을 종합한 자료를 남산리 박 헌영의 집에서 림 화에게 주어 해주에 있는 박 승원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 一二월 림 화가 평양에 왔을 때 그로부터 전번 간첩 자료를 박 승원에게 전

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리 승엽에게 이것을 전달하였습니다。

一九四九년 二월에 리 승엽으로부터 북반부 산업 관계 비밀 자료로서 공장 광산들의 복구 발전 정형 그 소재지 철도 수송력 은행 라디오 전신 전화 설비 등의 자료를 받아 제가 정리하고 쏘련 군대 철퇴 정형 남북 로동당 련합 중앙 위원회 성원 명단 등 두가지를 제가 첨가하여 리 승엽에게 주었던바 리 승엽은 이를 직접 림 화에게 주어 림 화가 박 승원에게 전하여 남반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제二차입니다。 제三차로서 一九四九년 四월에 인민 군대 장성 정형 각 병종별 병력 등에 대한 자료와 사법성에서 작성한 一九四八년도 범죄 통계 등을 리 승엽이가 저에게 주어 제가 삼광사에서 림 화에게 주어 박 승원에게 전달케 하면서 이때 저는 림 화에게 박 승원이는 평양에서 보내는 간첩 자료를 제때에 남반부에 넘기지 않는데 대한 리 승엽의 추궁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제四차로서 一九四九년 七월에 중앙당 정치 위원회 및 기타 간부들의 리력 문건 一〇여매를 리 승엽으로부터 받아서 삼광사 二층에서 림 화에게 주었습니다。 一九四九년 七월에 리 승엽으로부터 옹진군 은파산 전투에 관한 군사 기밀을 수집하라는 과업을 받고 해주에 있는 박 승원을 만나려 가니까 옹진에 나가고 없어서 박 승원을 만나기 위해서 림 화를 데리고 옹진 지구에 가던 도중 고촌리에서 박 승원을 만나 량군 병력 배치 및 전투 결과 등을 수집하여 가지고 평양으로 오라는 과업을 주고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五일 후 박 승원은 경비대 소대 전투 정형 등을 수집하여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자료를 받아 박 헌영의 집에서 리 승엽에게 전달하였는데 리 승엽이가 이를 미군에 제공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一九四九년 一〇월에 리 승엽이가 三八 경비대 배치 정형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사본하여 림 화에게 주라는 것을 저는 미처 사본하지 못하고 있다가 림 화가 왔으므로 림 화에게 이것을 사본하여 가지고 가게 하고 원본은 리 승엽에게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화국 군사 정치 경제 정세를 수집하여 남반부 미국 간첩 기관에 전달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쟁 시기인 一九五〇년 六월 二八일 서울 해방 후 七월 중순경 서울에 가서 하루는 리 승엽이가 저를 불러 서울 인민들이 공화국 정부와 당 및 인민 군대에 대한 불평 불만과 미군 및 괴뢰군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자료를 문화 단체를 리용하여 수집할 과업을 림 화에게 주었으니 독촉하라고 하므로 림 화에게 전시 리 승엽의 말을 전달하고 림 화로부터 三회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받아 리 승엽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一九五〇년 八월 초순까지 간첩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재판장 간첩 범행에 대하여는 다 말했습니까。

조 일명 네、다 말했습니다。

재판장 다음 남조선에서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며 자기의 범행을 음폐하기 위한 테로 학살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 일명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며 저희들의 범죄 사실을 음폐하기 위하여 제 비위에 맞지 않는 간부를 처단하였고 공화국 정책을 외곡한 사실을 진술한다면 一九五〇년 七월 중순 서울에 간즉 리 승엽이가 저를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사무실에 불러다 우리의 비밀을 아는 자가 내무 기관에 체포되면 비밀이 탄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토지 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들의 비밀을 알만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안 영달에게 지시하였으니 이 사업을 도와주라고 하므로 저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리 승엽은 다시 저를 불러 내무 기관의 간섭에 의하여 『토지 조사 위원회』가 해산되였다고 하면서 다시 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의용군 본부에 『특수부』를 조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이 어떠한가? 라고 묻기에 저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테로 학살 음모에 리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용군 본부에 『특수부』를 조직하고 『토지 조사 위원회』 사업을 인계하고 책임자로 저의 처남인 윤 대현을 추천하고 그후 중앙청 뒤 박 헌영의 집에서 박 헌영에게 『토지 조사 위원회』 사업을 『의용군 본부 특수부』에 넘기고 윤 대현을 『특수부』 책임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보고한즉 좋다고 승인하였습니다。

그후 이 사업 진행 정형을 리 승엽에게 보이기 위하여 리 승엽을 데리고 의용군 본부에 가서 현장을 돌아 볼 적에 二〇 내지 三〇명의 인민을 고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김 형륙을 신문하는 데 저도 리 승엽도 직접 그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용군 특수부』는 내무 기관의 간섭에 의하여 一〇일 내에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가 범한 살인 사건으로서는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체포하였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사회 여론화되였다는 말을 서 득은에게서 듣고 이 사실이 내무 기관에 알려져 안 영달이가 체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즉시 박 헌영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즉 박 헌영은 노해서 안 영달을 빨찌산에 보내여 처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리 승엽에게 이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리 승엽은 처음에 의아스럽게 생각하더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며칠 후에 안 영달을 빨찌산 림 종환 부대에 소속시켜 전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후 처단되

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 무장 폭동으로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고 반혁명적 정부를 수립하려던 음모 활동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조 일명 저희 도당은 무장 폭동으로써 현존하는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고 저희들 반혁명적 도당으로써 자본가 지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반혁명적 그루빠의 이 음모는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계속되여 온 것입니다。八·一五 해방 직후 박 헌영의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소위 『八월 테제』에 근거하여 이 음모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一九五一년 一월경에 들어서서 리 승엽을 두목으로 하는 우리 그루빠는 매우 초조 불안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세력이 남반부에서 여지없이 몰락하고 북반부 당 내에서도 나날이 축소되여 가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쟁탈할 수가 없게 되였기 때문이며 현 전쟁 시기에 미군의 군사적 원조를 받는다면 무장 폭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고 무장 폭동을 지연시키고 있다가는 저희 반역적 변절자의 죄악이 폭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一九五一년 九월에 리 승엽이가 민주 조선사에 차를 보내여 오라고 하기에 리 승엽의 사무실에 찾아간즉 리 승엽은 배 철 림 화 박 승원 등과 같이 있었습니다。인사를 한즉 리 승엽은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더니 나에게 미군이 추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추기 공세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세이다。미군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무장 구테타를 일으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폭동을 감행하기에는 지금이 대단히 좋은 기회이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어떤가고 묻기에 저도 좋다고 찬성하였습니다。

그 방법을 물은즉 리 승엽은 금강 학원의 무장 부대를 리용하되 미군이 접근할 때에 이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하였는데 리 승엽은 폭동 시의 지휘부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여기 모인 사람으로 구성하되 자기가 총사령 박 승원이 참모장 배 철은 군사 조직 책임 김 응빈은 폭동 지휘 책임 저와 림 화는 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 제의는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였습니다。리 승엽은 배 철 박 승원에게 금강 학원을 황해도에서 평양이 가까운 대동군에 이전시킬 것과 학원 및 무장 유격대의 간부를 신임할만한 사람으로 교체할 것 등을 지시한즉 그들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저와 림 화에게는 사회단체와 저희들의 직장에서 비밀리에 저희들의 세력 규합에 노력하라고 지시하므로 그 실천을 승낙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문화 선전성에서 사업하면서 一九五二년 봄 불순 분자 박 찬모를 선전성 문화국 부국장으로 추천하였다가 선전상으로부터 거절당하였고 一九五二년에는 리 원조가 저에게 지시하기를 당신이 교묘하게 조절하여 문예총 내에 남조선파의 세력을 확장하라고 하기에 저는 그 실천을 위하여 제가 지도하는 영화 촬영소 국립 예술 극장에 있는 남반부 배우들을 무원칙하게 추켜세우고 과대 평가하였는데 례를 들면 배우 급수 제정에 있어 리 경팔을 三급으로부터 一급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미국 군대는 인민 군대의 방어 전투에 의하여 한걸음도 북반부에 들어

오지 못하게 되므로 저희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一九五二년 九월 첫 공휴일에 대성산 박 헌영의 집에서 배 철 박 승원 윤 순달 리 승엽 림 화가 모였습니다。 저와 리 승엽과 장기를 놀면서 리 승엽이가 박 헌영 내각이나 구성해 보자고 한즉 림 화는 부수상에 장 시우 주 녕하를 제의하였고 배 철은 무력상에 김 응빈 내무상에 박 승원을 저는 교육상에 림 화 당 제一 비서에 리 승엽을 림 화는 선전상에 조일명 외무상에 리 강국을 박 승원은 로동상에 배 철 상업상에 윤 순달을 각각 제의하여 만장 일치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 검사측에서 신문하시오。

검 사 존손은 어떤 사람이며 어데 소속된 사람입니까。

조일명 미군 헌병이고 직위는 대위였습니다。

검 사 입북한 후 리 승엽이와 비밀 토의 밑에 간첩 련락선을 개척한 데 대하여 진술하시오。

조일명 一九四八년 七월에 리 승엽이가 입북하여 八월에 기림리 저의 집을 찾아와서 해주에서 누가 믿을만한가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제시 변절하였고 비밀을 잘 지키는 박 승원이가 해주 인쇄소 책임자로 있으면서 남조선 당 련락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박 승원이가 적임자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八년 一○월에 남산리 박 헌영의 집 응접실에서 리 승엽을 만났는데 리 승엽은 자기가 남조선에서 입북한 후 남조선에서는 안 영달이가 간첩 련락 책임을 맡고 있으니 박 승원을 통하여 안 영달과 련락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면서 박 승원은 정말 믿을만 한가고 다시 따지기에 저는 믿을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 승엽은 해주와 우리들 사이에 중간 련락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겠는가고 묻기에 저는 림 화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를 추천한 리유는 림 화는 일제시에 카프를 파탄시켰고 또 해방후 미 군정청 여론국장 설 정식과 련계를 가진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해주에 있으므로 림 화를 추천하게 되였습니다。 리 승엽은 좋다고 하면서 림 화를 불러 오라고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해주에 있는 박 승원을 통하여 림 화를 불러다가 간첩망에 인입하였습니다。

검 사 三八 이남에 보내는 간첩 련락선은 어떤 것입니까。

조일명 해주에서 당 기관지 련락선을 박 승원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리용하였습니다。

검 사 당신이 반동 선전 선동한 범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일명 저의 크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북반부 정책에 대한 무원칙한 불평 불만을 론의하였고 인민과 정부를 리탈시키는 방향으로 선전하였으며 또한 一九四九년 봄에 리 강국에게 공화국에서는 인민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나 거리에 다니는 인민들의 얼굴은 창백한데 무엇이 인민 생활이 안정된 것인가고 허위 선전하였습니다。

검 사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쏘련군이 조직하고 남조선 정부는 미군이 조직하였으니 합리적이라고 말한 일이 있는가。

조일명 一九四六년 가을 미 군정은 좌우 합작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며 조선 반동 분자들을 앞잡이로 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으로부터 반대 성명을 쓰라는 과업을 받았으나 저는 이미부터 미국 세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북조선에는 쏘련 군대가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남조선에는 미군이 정부를 조직했으니만큼 반대 성명을 못 쓰겠다고 말함으로써 미국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검 사 당신이 일제 감옥에서 출옥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공산주의 운동을 아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조 일명 아주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검 사 당신이 간첩망에 가담한 것은 언제입니까。

조 일명 一九四六년 二월부터입니다。

검 사 간첩 자료를 리 승엽과 공동으로 수집하였습니까。

조 일명 리 승엽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수집하였고 저는 당 중앙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얻어 리 승엽이가 수집한 자료에다 제가 수집한 자료를 첨가하여 정리 완성하였습니다。

검 사 당신들이 미군에 제공한 쏘미 공동 위원회에 참가하는 쏘련측의 견해에 대한 자료는 당신들이 날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예측이였는가。

조 일명 저희들의 추상적 견해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검 사 당신들이 간첩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박 헌영의 사택을 많이 리용했는데 그 리유는 어데 있는가。

조 일명 남산리 박 헌영의 사택 응접실은 남조선 특수 공작 사무실로 되여 있었고 서 득은이가

여기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데서 리용하였습니다。

검 사 저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리 규홍 본건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 일명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정치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리 규홍 당신이 일제 시대에 체포되여 구금된 것은 어떠한 사건 때문이였습니까。

조 일명 六·一〇 만세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여 체포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 리 규홍 저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피소자들이 망상한 소위 『새 정부』는 어떤 성질의 정부입니까。

조 일명 새 정부의 기본 조건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미국 무력에 의하여 수립한다는 것 둘째는 국내의 일체 민주 세력을 배제 구축하고 박 헌영의 세력을 규합하여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내적으로는 공화국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자본가 지주의 정권을 수립한 후 대외적으로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고 매국 괴뢰 정부가 되려는 데 있습니다。

재판장 미군 또는 리 승엽으로부터 간첩 보수를 받은 데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조 일명 一九五〇년 서울에서 리 승엽으로부터 금반지 금가락지 등 六〇여개와 금팔지 금비녀 금단추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장 그것은 몰수되였습니까 또는 은닉해 두었습니까。

조 일명 제가 가져다 처에게 보관시켰다가 五차 전원 회의에서 저의 종파 문제가 제기되자 처에게 이것이 발각되면 총살당하게 되니 단단히 보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처는 처남에게 가져다 보관시켰다가 본 사건이 제기되자 압수당하였습니다。

재판장 일제 시대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공산당에 접근하여 나오게 된 동기는 어데 있습니까。

조 일명 진실로 당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제가 맑스주의를 배워서 글을 좀 쓸 줄 아는 데서 박 헌영이나 리 승엽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비호 밑에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여 보려는 데서였습니다。

재판장 미군 간첩들과 접촉하게 된 경위를 말하시오。

조 일명 一九四六년 二월 성동 경찰서에 검거되여 미군 헌병 대위 죤슨으로부터 리 승만 암살 음모 혐의자로 취조받았는데 나는 그런 음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즉 믿을 수 없으니 우리와 협력하여 간첩을 하면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기에 저는 죤슨의 위협에 굴하고 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죤슨은 며칠 후 해방 일보사에 찾아와서 간첩 임무를 충실히 리행하라고 하면서 리 승엽의 지시하에 활동하라고 하며 특별히 자기를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도호텔에 찾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죤슨 이외의 다른 미국인과의 관계는 없었습니까。

조 일명 빼취와 련결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장 검사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오후 三시 三〇분까지 휴정하겠습니다。

박 승 원에 대한 신문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三시 三〇분)

피소자 박 승원、

(박 승원은 진술대 앞으로 나오다。)

재판장 피소자의 경력을 말하시오。

박 승원 저는 一九一三년 전라북도 영주군 한 중농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一〇세 때부터는 가세가 더욱 장성하여 二만평의 토지를 가진 봉건 지주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나의 소년시의 가정 환경은 오늘과 같은 범죄의 발단에로 나를 인도하는 근거로 되였습니다。 조부와 부친은 사소하나마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오던 저는 一三세시 보성 고보에 입학하자 화요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一四세시 六·一〇만세 사건 때 학교 내에서 학생 동맹 휴학과 삐라 살포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여 약 一〇일간 구류당하였고 그 후 一九二七년 동맹 휴학 사건으로 출학당하고 서울 중동 학교에 편입하여 독서회 조직 관계

로 체포되여 五개월간 구금되였다가 기소 유예로 석방되였고 그후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자 저는 서울로부터 고향인 영주에 돌아가서 농사를 하다가 一九三〇년 六월 서울에 다시 와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一九三一년도에 보성 전문 학교 상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다시 학생 운동 사건이 一九三二년 경찰에 발로되므로 피신하여 다니다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였습니다。

일본에서 리원조 배 철을 알게 되였고 전국 로동 조합 산하 토건 로동 조합 사무실에서 공작하다가 一九三三년 一〇월 일본 공산당 검거 사건 때 체포되여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고 一九三四년 보석으로 석방되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저는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그후 고향에 돌아와 농촌 운동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여 서울 검사국에서 기소 유예로 석방되였습니다。 석방된 후 다시 영주에 돌아가서 운동을 계속하다가 一九三五년 六월 一七일 체포되여 고문을 받는 중에 놈들에게 굴복하였고 뿐만 아니라 동료 三명을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저는 一九三七년 공판정에서 전향을 성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변절자로서 전락되였습니다。 그 결과 저의 전향으로 약 四〇명의 동료가 전향했습니다。 그후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작업 상여금으로 국방 헌금을 하고 그 덕분으로 만기가 되기 一개월 전에 가출옥의 혜택을 주므로 이에 보답하여 작업 보수금을 또 국방 헌금하고 그 길로 곧 대화숙으로 들어가 일제를 위하여 복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보사에 들어가서 신문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청년 학생층 또는 전체 인민들에게 기사를 통하여 황민화 운동을 광범히 고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一九四四년도에 이르러 일제가 패망할 것이 명백하게 된 조건하에서 저는 시국을 옳게 관찰하고 일제 패망 후에 나에게 닥쳐올 위험을 느끼고 애국자로 가장하여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면서 매일 신보사에서 사직하고 일본인 경영인 산피광 문경 출장소 주임 대리로 있으면서 로동 계급의 착취에 헤매다가 八·一五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죄과가 있는 데서 매우 불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애국자로 가장하고 문경군에서 당 및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군 인민 위원장 군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공작하다가 소환에 의하여 서울에 와서 경력을 기만하고 서울 신문사 정치부장으로 있다가 그후 중앙당 선전부원을 거쳐 一九四六년 一월부터 선전부장 대리로서 공작하다가 一九四六년 一〇월에 입북하여 박헌영의 지시로 해주 제一 인쇄소 편집국장으로 파견되여 공작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 말에는 동 인쇄소 부주필로 또 그후에는 주필로서 공작하다가 一九四九년 七월 소환되여 중앙당 련락과장으로 공작하였고 一九五〇년 三월부터는 유격 운동에 참가하였고 一九五〇년 五월 입북하여 동년 六월에 전라북도당 조직 과업을 맡고 나갔다가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되자 광주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 리 승엽의 추천에 의하여 경기도 인민 위원장을 하다가 후퇴기에는 유격 제一 지대 정치 부지대장으로 공작하다가 그후 一九五一년 五월 입북하여 중앙당 련락부 부부장으로 배치되여 체포당시까지 있었습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간첩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박 승원 저는 간첩 무장 폭동 등의 방법으로 현존하는 당과 정부를 전복하고 부르죠아적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간첩 활동의 내용을 말한다면 리 승엽 조 일명 등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당 및 정부의 중요 기밀을 계통적으로 미국 상전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는

해주 제一 인쇄소 부주필로 있을 당시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一九四八년 八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시에 입북한 리 승엽은 저를 만나자 남로당에 보내는 극비 문건이 있으니 이를 당신이 책임지고 전달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은 의아를 느꼈으나 이 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문건이 간첩 자료라는 것을 알아채렸습니다。 그 리유는 평양에 련락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리용하지 않고 또 주필도 통하지 않고 나에게 과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것은 나의 불순한 과거 경력을 음폐하는 보신주의와 아울러 소부르죠아적 출세주의 사상 근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후 一九四八년 가을 평양 박 헌영의 집에서 리 승엽을 만나니 그가 다시금 『그전에 내가 말한 그 문제를 정확히 집행하겠는가』 라고 묻기에 저는 그때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하자 리 승엽은 극비밀리에 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후 동년 一二월 림 화가 저를 만나 하는 말이 자기가 박 헌영의 집을 찾아간즉 얼마 안 있어 리 승엽이 가왔는데 그는 그곳에서 다시금 그전에 말한 공작을 충실히 집행하겠는가 하면서 과거 당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전부 알고 있다는 내용의 언사로써 위협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 해주에서 림 화는 저에게 봉투를 주기에 뜯어보니 당 정권 기관의 간부 명단 그들의 경력 등의 내용과 북반부 산업 경제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 경혁을 통하여 안 영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후 이러한 방법으로 전후 五차에 걸쳐 공화국 기밀을 안 영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시 그시 리 승엽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넘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一) 군사 정보 (二) 당 및 정부의 기밀 (三) 공화국의 인민 경제 건설에 관한 내용 등이였습니다。

군사 정보로는 인민군 무력과 三八 경비대의 무력 및 그 배치 정형 등과 은파산 까치산 전투에 대한 상보 등이였고 당 정부내의 기밀로는 중요 결정 시책 등이였고 특히 당 정치 위원회 결정 三통을 전달하였습니다。 인민 경제 부문에 관한 내용으로는 산업 부흥 건설 생산 정형 앞으로의 계획 등의 정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해주 제一 인쇄소의 련락 루트를 리용하여 이남에 넘겼습니다。

一九四九년 六월에 은파산 까치산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저는 옹진 유격대와 당을 지도하면서 三八 경비대와의 배합 작전을 목적하고 옹진 지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조 일명과 림 화가 옹진에 와서 리 승엽의 지시 즉 옹진 지구의 전투 정형 기타 유격대 기밀을 수집 제공하라는 지시를 접수하고 저는 정 탁판을 옹진에 파견하여 이를 세밀히 조사 수집한 후 二회에 걸쳐 중간 보고하고 전투가 끝난 다음 수집된 기밀 자료를 가지고 평양에 가서 박 헌영의 집 사무실에서 리 승엽을 만나 그에게 三八 경비 려단의 작전 기밀, 유도 작전 및 기타의 전술 지휘부의 성원과 위치 및 옹진 전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부언할 것은 박 헌영의 집을 정상적으로 우리의 아지트로 정한 리유는 첫째 박 헌영이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과 둘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데서입니다。

그후 一九四九년 九월 리 승엽이가 해주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중앙당의 지시로 당 생활 및 군사 관계 검열차로 三八선 순회 공작을 하게 되였으니 같이 협력하라』고 하므로 그와 함께 三八선 순회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리 승엽은 三八선 정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주로 해주에서 양양에 이르는 사이의 경비대 배

치 정형, 루트 정형 등을 겸열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여 수집한 자료는 침략자 미제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되였다고 확신합니다。 한마디 부언할 것은 우리들과 박 헌영과의 관계인데 박 헌영은 우리들의 간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직접 정치적으로 보장하여 주었고 아울러 정치적 지시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리 승엽의 말에 의하면 악랄한 변절자 안 영달(백 형복과 야합하여 김 삼룡을 체포한 자)을 박 헌영이가 대단히 비호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일례만 들어도 이러합니다。 따라서 박 헌영은 직접 우리 사업에 지휘자로 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다음 무장 폭동 음모에 대하여 말하시오。

박승원 무장 폭동에 대한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박 헌영은 리 승엽을 핵심으로 불순 분자와 변절자들을 모아 현존하는 당과 정부를 전복하고 미제의 괴뢰 정부 수립을 기도하였고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까지도 민주 세력을 말살하고 자본주의적 낡은 제도를 복구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장 폭동 기도는 일조 일석에 된 것이 아니라 장구한 기간의 음모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과 정부의 요직에 기여들어 합법적으로 당과 정부를 파괴하려 하였으나 전에 진술한 바와 같이 합법적 방법으로써는 현존하는 당과 정부를 타도하려는 모략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무장 폭동을 기도하게 되였습니다。 이 무장 폭동 음모는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부터 진행되였는데 해주 제一 인쇄소는 박 헌영 일파의 아성으로서 一九四六년 一〇월 박 헌영과 권 오직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였습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남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구실로 박 헌영과 리 승엽의 직접 지도하에 있었고 박 헌영의 출세주의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것을 우리들의 모략의 근거지로 리용하였는바 이 구성에는 박 헌영 리 승엽에게 충실한 자들과 혁명에서의 변절자들을 남반부에서 끌어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반부 당을 대상으로 하는 비밀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외부와의 관계를 일절 단절하고 박 헌영을 지지하는 자들을 집결하여 박 헌영의 아성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 회의에서는 박 헌영에게 멧세지를 드리며 박 헌영 만세를 불렀고 해주 대표자 대회 시에는 박 헌영에게 드리는 노래를 불렀고 또 남반부 빨찌산들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며 박 헌영 만세를 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산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상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쇄소에서 발간하는『로력자』지에는 김 일성 원수에 대한 것은 거의 실리지 않고 매호마다 박 헌영을 위대한 인물인 듯이 과장하여 소개하였으며 사진까지 게재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박 헌영의 주위에 집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한『로력자』지에는 북반부의 민주 건설 사업은 거의 소개하지 않았으며 그와 반면에 남반부 유격 투쟁을 과장하여 소개하였는바 빨찌산 전과를 三배로 확장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두말할 것없이 우리들 손에 정권을 장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一九五一년 八월에 이르러서는 종전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써는 현존하는 당과 정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조선 인민들이 김 일성 원수와 공화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며 우리와 같은 몇개 변절자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의 무력 침략을 계기로 무장 폭동 음모를 조직하게 되였으며 그 실천 활동에 착수하였던 것

입니다。

一九五一년 九월경 미군의 추기 공세를 기회로 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리 승엽이가 남로당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위시하여 우리 일당이 중앙당 련락부장、부부장 등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을 리용하여 유격대라는 명목하에 무장 력량을 조직 지도하였습니다。

一九五一년 九월 하루는 리 승엽의 방에 간즉 거기는 림 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리 승엽은 당과 정부를 전복하는 무장 폭동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에 동의하고 시기는 미군이 진격할 때로 하고 미군에 호응하여 진격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一九五一년 九월 초순 배 철 림 화 조 일명과 같이 리 승엽이 있는 데서 무장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저는 참모장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 준비 사업으로서는 첫째로 무장력을 계속 증강할 것 둘째로는 세력을 집결하는 사업 즉 우리들에게 추종하는 분자들을 규합하며 우리들이 신임하는 간부들을 등용할 것과 세째 음밀히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무장 폭동 기지를 설정할 것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 련락부를 그 참모부로 리용하고 이상 세가지 방향에서 사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장 폭동을 직접 감행할 수 있는 무장 부대인 리 승엽이가 직접 지도하는 금강 학원을 폭동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이를 평양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간부들을 우리들의 심복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무장을 확대 강화하며 무장 훈련을 강화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원장에 김 응빈 정치 부원장에 맹 종호 등 기타 간부들을 우리의 심복들로써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민 군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미군의 진공이 좌절되자 이상과 같이 기도한 무장 폭동 계획은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파탄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무장 폭동 음모를 계속하였는바 우선 금강 학원에 대한 교육은 박 헌영의 출세주의 로선에 립각하여 오직 박 헌영을 높이 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배 철 및 저를 위시한 변절자 및 그들의 가족 및 친척 친우 등 불순 분자들을 등용 배치하면서 남반부 투쟁에는 성분을 가리지 말라고 지도한 결과는 련락부의 간부 구성중 五六%가 기본 성분이 아닌 자들로써 형성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력 집결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로당원들에게 민족 분렬 사상을 주입시키며 배 철 윤 순달 등과 저는 당 기금 五〇만원을 지도원들에게 분배하여 주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지도원을 가장 사랑하는 듯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매수하여 세력을 집결하는 데 소비하였고 또 위협의 방법으로써도 이들을 규합하였습니다.

그후 一九五二년 一一월 리 승엽은 자기 사무실에 나를 오라기에 간즉 폭동 기지 설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우선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였는데 여기에는 나 박 승원을 위시한 다수 불순 분자들로써 간부를 구성함으로써 폭동 기지로 화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심복들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조직에 착수하였으나 당 정치 위원회 결정으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이 중지됨에 따라 이 음모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一〇 지대를 중심으로 간부 양성과 경제적 축적에 경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테타를 준비하였으며 앞으로 수립될 소위 새 정부와 새 당을 구성하게 되였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一九五二년 九월 첫 공휴일에 리 승엽 배 철 조 일명 림 화 등과 같이 박 헌영의 집에 모여 수상에 박 헌영 부수상에 장 시우 주 녕하 각 상에 기여 인물들이 참가하고, 당 제一 비서로서는 리 승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새 정부는 자본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임은 틀림없으나 다만 리 승만 괴뢰 정부와 다르다고 볼 점은 두가지를 들 수 있으니 그것은 첫째로 수령이 리 승만이가 아니라 박 헌영이라는 것과 당 책임자가 김 성수가 아니라 리 승엽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리 승만 정부는 미제에 로골적으로 아부한다면 새 정부는 표면상 혁명적 언사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피소자가 불순한 경력을 가지고도 당에 잠입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였소.

박 승원 그것은 저와 같은 변절자 리 승엽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검 사 간첩 활동하는 리 승엽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았소.

박 승원 그것은 말할 것없이 미 제국주의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 사 그러면 당신도 미제의 앞잡이라는 것을 승인하는가.

박 승원 네 승인합니다.

검 사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이 발표되였을 당시의 당신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박 승원 조선(남조선) 공산당 지도부에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저도 반쏘 사상이 있었기에 반탁 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검 사 리 승엽과 간첩 련계를 맺을 당시의 환경을 말하시오.

박 승원 당시는 전체 조선 인민이 열광적으로 고대하는 八·二五 총선거 직전이였습니다.

검 사 누구의 집에서 토의했는가.

박 승원 해주 권 오직의 집에서 토의했습니다.

검 사 조 일명이가 당신을 간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리 승엽에게 추천하게 된 근거는 어데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승원 그는 저의 변절 행위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끌게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조일명이가 당신이 변절한 사실을 알았는가。

박승원 네 알았습니다。

검 사 간첩 활동 정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해 보시오。

박승원 저는 림 화가 리 승엽의 심복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그를 통하여 모든 행동을 하였는데 전후 五회에 걸쳐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 사 간첩 자료들이 전부 미제에게 전달되였는가를 확인하여 보았는가。

박승원 네 매번 확인한 결과 정확히 전달된 것을 알았고 이를 리 승엽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검 사 최 의범을 아는가。

박승원 그는 경기도 인민 위원회 교양과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자인데 五차 전원 회의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그의 부친은 일제시 제주도 지사이고 장인은 악질 목사이며 그는 변절자의 가정에서 출신한 불순 분자입니다。

검 사 피소자들이 불순 분자만을 끌어들인 리유는 어데 있소。

박승원 그런 자라야만 우리의 심복이 될 수 있겠기에 그리하였습니다。

검 사 당신들이 조직하는 『새 정부』가 리 승만 괴뢰 정부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가。

박승원 이에 대하여 저는 생각하기를 새 당과 새 정부는 미제의 비호하에서 조직되는 것만큼 결국 리 승만 정부와 통합하는 련립 정부로 형성될 것이며 그후 이 정부는 두가지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즉 하나는 괴뢰 정부에 흡수될 것이요 다음으로는 미제의 완전한 앞잡이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새 정부는 소부르죠아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부이기 때

문에 대부르죠아 정부인 리 승만 정부에 흡수되여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검 사 저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정 영화 二○세까지의 가정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박승원 부친이 토지 二만여평을 가진 지주로 호화로운 생활이였습니다。

변호인 조선 젊은이들이 일제 군대에 끌려 나가게 하는 기사를 쓸 당시에 민족적 량심은 없었습니까。

박승원 이것은 모두 객관적 환경에 지배를 받은 행위였는데 왜 민족적 량심이야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인 리 승엽으로부터 간첩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박승원 없습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무장 폭동 음모를 한 날짜는 언제인가。

박승원 一九五一년 九월부터 一九五二년 겨울까지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장 『새 당』과 『새 정부』를 조직한 것은 언제인가。

박승원 一九五二년 九월 첫 공휴일입니다。

재판장 리 강국과의 간첩 관계는 없었는가。

박승원 없었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조 일명! 박 승원이 진술한 내용이 전부 틀림없는가。

조 일명 네 틀림없습니다。

재판장 (박 승원에게) 박 헌영의 집에서 몇번이나 모의했는가。

박 승원 수십차에 걸쳐 모의했습니다。

재판장 박 헌영이가 당신들의 음모 행위를 보장하여 주었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박 승원 박 헌영이가 전적으로 우리를 비호해 주었습니다。 그 례로서는 조 일명과 리 강국을 등용 배치하는데 노력한 것 등으로 보아서 또 우리는 박 헌영이가 내세운 로선을 집행하기 위하여 음모를 진행하였기에 그가 전적으로 보장하여 주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피소자들의 행동으로써 군중이 얼마나 모략에 빠졌는가。

박 승원 다만 몇몇 변절자 반역 분자들만이 우리를 추종하였고 우리의 정체가 폭로되는 날이면 군중은 한사람도 우리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장 검사 보충 심리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보충 심리할 것이 없습니까。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二〇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五시 一五분)

림 화에 대한 신문

재판장 공판을 계속하겠습니다。(五시 三〇분)

림 화! 진술대 앞으로 나오시오。

변호인 김 문평 림 화는 신체가 쇠약하니 앉아서 진술할 것을 허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판장 (림 화에게) 앉아서 진술하시오。(여기서 재판장은 『림 화는 구류장에서 자살하려고 안경 알을 깨서 오른팔 동맥을 끊어 출혈을 심히 하여 인사 불성에 이른 것을 그후 수혈을 많이 하여 생명은 구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신체가 쇠약하여졌습니다』라고 부언하였다。)

재판장 림화! 경력을 말하시오。

림 화 저는 一九〇八년 빈농가에 출생하였고 四—五세 시에 가정은 소상업을 경영하였으며 一七—一八세까지 소시민적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며 一九二一년부터 서울시 보성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一九二六년 一二월경에는 리 기영 한 설야 등과 같이 이미 一九二五년에 조선 공산당의 영향하에 조직된 프로 문학 단체인 카프에 가입하여 一九二八년 七월경부터는 카프 중앙 위원으로 사업하였고 그후 一九三二년 四월경부터는 그의 서기장으로서 조선 문학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던 차 一九三四년 四월과 五월에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저와 같이 활동하고 있던 카프의 지도자였던 한 설야 리 기영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부들이 전라북도 경찰부에 피검되였습니다。 이때 저는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검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문화인은 어떠한 시기에서나 작품

을 쓰면 살 수 있으니 차라리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일제에게 아부함으로써 나의 일신상 안락을 도모하려는 데로부터 一九三六년 六월 하순경에는 경기도 경찰부 주임인 일본인 경부 사이가를 서울시 신설정에 있는 절간 『탑동승방』에서 만나 그가 저에게 카프를 해산시킬 의사에 대하여 문의하기에 저는 전시와 같은 사상적 의도로부터 사이가에게 내가 서명한 카프의 해산 선언서를 제출하고 일제와 완전히 결탁하였습니다。 그후 프로 문학의 계급적 립장을 떠나 순수 문학을 주장하면서 내선 일체와 반쏘 반공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一九三五년 八월부터 一九三七년 九월 초순경까지 경상남도 마산시 저의 처가에서 병을 치료하고 一九三七년 九월 중순경 서울에 다시 돌아와 동년 一〇월경부터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변절한 자들의 집단인 서울시 보호 관찰소에 가담하였으며 한편 금광 기업주이던 최 남주의 자본 지출 밑에 일제의 합법적 출판 기관인 『학예사』를 경영하여 오면서 一九三九년 四월경에는 『학예사』를 대표하여 조선 총독부 도서과 주최로 서울 부민관 식당에서 개최되였던 각 출판 기관 대표자들과 문단 중요 작가들 회의에 참가하여 이 좌석에서 룡산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 사령부 보도부 대표인 소좌 정씨의 호소인 『시국 협력』에 호응하였으며 동년 六월경에는 소위 『국민 총력 련맹』 문화부장이던 일본인 야나베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약 三〇분간의 회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조선인 문학가들이 시국에 협력하여 『내선 일체』의 강화와 『국민 정신』 배양에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때 회담에는 동 『조광사』에 있는 사진사가 참가하여 그 회담 장면을 촬영까지 하고 그를 조광 잡지에 발표케 함으로써 많은 문단 일꾼들과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일제를 위하여 충실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一九三九년 九월에는 『말을 이식한다』는 제목의 일본어 론문을 직접 경성 일보에 발표하여 조선인 작가들에게 일본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그후 一九四〇년 六월경에는 『조선 반공 협회』 기관지인 『반공의 벗』에 『북한 산맥』 또는 『태평통』 등 수필을 발표하여 독자들에게 반쏘 반공적 사상 영향을 주입시켰으며 동년 六월경부터 一九四二년 一二월경까지는 부르죠아 영화 회사인 『고려 영화사』 문예부 촉탁으로 종사하면서 一九四二년 三월경에는 『조선군 사령부 보도부』에서 제작한 조선 청년들을 일제의 징병으로 출동시키는 선전 영화인 『기미도 보꾸』의 대화를 직접 교정하였으며 一九四三년 一월부터 一九四四년 一二월까지는 『조선 영화 문화 연구소』 촉탁으로 있으면서 반동적인 조선 영화 년감 및 『조선 영화 발달사』를 편집하고 조선 문화 및 영화의 발달은 당연히 일제와 합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자 동월 一八일경 서울에서 부르죠아 순수 문학 제창자들인 김 남천 리 원조 리 태준 등과 같이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고 사업하다가 一九四七년 가을 쏘련 고급 당학교에 가기 위하여 평양으로 왔으나 과거 경력이 불순하다는 리유로 가지 못하고 一九四七년 박 헌영의 지시로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六·二五 전쟁이 개시되자 서울에 가서 조선 문화 총동맹을 조직하고 그의 부위원장으로 공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이제부터 간첩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림 화 저는 과거 불순한 경력으로부터서와 객관적 환경의 지배의 결과에 八·一五 해방후 문화 예술 방면에서 지도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一九四五년 八월 一八일경부터 서울에서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의 의장으로 사업하면서 동년 一〇월경 서울시 중구역 태평통에 있는 미군 정탐 기관인 써·아이·씨와 결탁하여 조국과 인

민을 팔아 먹는 간첩 행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간첩 기관과의 결탁 경위를 말하겠습니다. 一九四五년 一〇월 하루는 미군 씨·아이·씨에 소환되여 간 일이 있는데 이날 직위와 성명 미상인 미국인과 나의 리력을 중심으로 하여 담화를 하였는데 이때 그는 저에게 문화 단체 책임자로서 미군에 대한 태도를 묻기에 미군이 조선의 민주화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 동년 一二월경 재차 전시 씨·아이·씨에서 오라고 하기에 찾아갔었는데 이때는 통역도 없이 조선말에 능숙한 동 씨·아이·씨 고문인 언더우드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담화하였는데 언더우드는 나에게 내가 지도하던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의 사업 내용을 문의하다가 말하기를 미군은 조선을 진정으로 원조하여 줄 것이며 또한 조선의 문화 사업을 위하여서도 많은 방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호상 협조하여 사업하자고 하기에 그에 동의하였으며 앞으로 미 군정청 공보처와 호상 련계를 가지고 사업하자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조직 구성 관계와 그 산하 단체인 문학 건설 본부 영화 건설 본부 무용 건설 본부 등 단체의 기구 체계도에 간부 명단이 첨부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언더우드와 약속한대로 一九四五년 一二월 중순경 련락원을 통하여 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후 저는 언더우드의 말대로 미 군정청 공보처와 련계를 가지고 사업하였는데 공보처와의 련계 경위를 말한다면 一九四六년 五월경 하루는 문화 단체 총련맹 회관 저의 사무실에 당시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으로 있던 설 정식이가 찾아와서 동 공보처 소속 미국인 로빈손이가 문화 단체 책임자를 만나자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하기에 그것을 응낙하고 四、五일 후 로빈손을 만나기 위하여 공보처 여론국장 설 정식을 찾아가 그의 소개로 로빈손을 만나서 앞으로 련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내가 언더우드에게 제공한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의 조직 구성 체계도를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빈손과 련계를 맺은 후 一九四七년 八월 리 승엽과 련계를 가지기 전까지는 동 미국인 또는 설 정식을 통하여 그에게 당시 제가 공산당 선전부 문화과장 겸 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의 내용은 당시의 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 조직 체계와 간부 명단 전평 및 전농의 조직 체계와 간부 명단 민전 구성 관계와 간부 명단 및 공산당 간부 명단 또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과 남조선에서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三당 합당 대회 문헌집과 또한 공산당 선전부를 통하여 접수한 정로(正路)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 민주 개혁에 대한 선전 자료집 당시 북조선에서 발간한 신문과 서적 등인바 제가 직접 로빈손의 요구에 의하여 가져다 준 것은 三차인데 그 자료는 전시 말한 남조선 제 민주 단체 조직 구성 관계와 간부 명단이며 그 외의 자료는 설 정식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남반부에서의 문화 분야에서 사업하던 시기에 감행한 나의 간첩 행동이였습니다. 그후 저는 리 승엽과 련결을 맺고 간첩 행위를 하였는데 그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一九四六년 六월경 로빈손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조선 공산당 간부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좌익 측에 있는 리 승엽과 같은 사람들은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一九四七년 四월경 남로당 문화부원으로 있으면서 스포쯔 단체를 지도하고 있던 김 영건을 통하여 남조선 축구 선수인 현 효섭을 알게 되였는데 그때 현 효섭으로부터 그의 숙부인 조선적 미국인 소좌 현 피드 및 그의 누이인

현 애리스와 리 승엽이 자주 교제한다는 내용과 또한 四월경에 당시 남조선 민전 선전부에서 공작하던 리 승엽의 처제의 남편인 김 동석으로부터 리 승엽은 빼쥐와는 수시로 상면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통역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리 승엽이가 틀림없이 미국과의 련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一九四七년 六월경 서울시 리화동에 있는 남로당 서기국 아지트에서 리 승엽을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로빈손으로부터 리 승엽에 대하여 들은 내용을 말한즉 자기도 미국을 반대하지 않으며 가능한 대로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절대로 비밀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담화하고 그후 공보처 미국인에게 리 승엽과 련계를 맺겠다는 것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리 승엽의 지도 밑에 미국인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즉 제가 一九四七년 一一월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입북하기 전까지 그의 지시대로 진행한 간첩 행위는 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 산하의 각 문학 예술 단체의 간부 명단들과 그의 활동 내용 등을 수집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一九四七년 一一월 二〇일 리 승엽의 지시로 입북하여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 사업하다가 하루는 조 일명이가 찾는다고 하기에 평양에 간즉 그는 박 헌영과 리 승엽을 지지하는 문화 예술 운동을 진행할 데 대하여 말하기에 저는 동의하고 그후 박 헌영의 집 응접실에서 리 승엽과 대면하고 박 승원과 련락하는 책임을 담당하라는 내용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그 이튿날 조 일명으로부터 제一차로 간첩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주에 가서 박 승원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도 계속하여 간첩 자료를 수집하여 적에게 넘겨 주었는바 一九四八년 一一월경 제一차로 조 일명에게서 받은 간첩 자료의 내용은 공화국 내각 각료들의 리력 문건과 북조선 산업 발전 정형에 대한 자료와 북조선 농촌 경리 발전 정형에 대한 자료였으며 제二차로 一九四九년 二월경에 넘겨준 자료는 북조선 인민 경제 발전 정형에 대한 자료와 남북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구성 성원 명단과 북조선 지역에서 쏘련 군대가 철거한 정형을 기록한 문건들이였으며 제三차로 넘겨준 자료는 一九四九년 四월경인데 인민 군대 병종별 병력수 및 그의 주둔 위치 등의 자료와 사법성에서 작성한 一九四八년의 범죄 통계표 당 정치 위원회 결정 三통 등이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매번 제가 직접 박 승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남조선에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후 六·二五 전쟁과 함께 해방된 서울에 가서 리 승엽을 만나 그로부터 군대 정권 기관 활동과 그 시책 그들 호상간의 갈등 관계 인민들의 사상 동태 물가 등을 탐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가 지도하는 문예총의 심복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리 승엽에게 전달하였는바 이것이 늦어진 관계로 리 승엽으로부터 독촉을 받은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다가 一九五〇년 七월 말에 락동강 전선에 종군하게 되면서 이 사업은 일시 중단되였습니다。 一九五一년 七월 리 승엽의 사무실에서 리 강국과 같이 만났을 적에 리 승엽은 리 강국에게 앞으로 자주 나를 만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자료가 있으면 림 화를 통하여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一九五一년 一一월 리 강국은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장 시우 한병옥 박 헌영 등이 당과 정부에 대하여 불평을 말한다는 담화를 하므로 저는 이 말을 듣고 리 승엽에게 전달하였습니다。 一九五二년 九월 리 강국으로부터 ① 전선 군수 물자 공급 정형이 개선되여 三개월분의 군수품이 확보되였다는 것 ② 개성 정전 담판에서 조선측 대표보다도 중국 대표가 강하다는 것 등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리 승엽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一九四六년 미 군정청 공보처에 자료를 제공한 때로부터 一九五二년 九월까지 악랄한 간첩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재판장 다음은 무장 폭동에 대하여 말하되 다른 피소자들이 이미 진술한 내용은 략하고 언급되지 않은 부분과 또는 다른 피소자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만을 진술하시오。

림 화 다음 무장 폭동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저와 같은 추악한 간첩 분자들이 미제 침략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무장 폭동을 조직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모략 운동은 해방 전후를 통한 나의 반당적 문화 운동으로부터 또 개인 영웅주의와 출세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출발하여 감행하게 되였습니다。

폭동 조직에 대한 내용은 박 승원의 진술과 같기에 이를 략하고 다만 一九五二년도 박 헌영의 집에서 조각할 당시 장 시우와 주 녕하를 부수상으로 제가 직접 추천하였다는 점을 첨가합니다。

재판장 피소자 림 화의 자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소추 검사 신문하십시오。

검 사 써·아이·써와 련계를 맺었다는데 써·아이·써는 어떤 기관인가。

림 화 미국 정보 기관입니다。

검 사 언더우드와 만나 통역없이 담화했는데 어느 정도로 의사가 통했는가。

림 화 그는 조선인과 같이 조선말에 능하기에 의사가 충분히 통하였습니다。

검 사 언더우드와 담화시에 문화 사업에 대하여 공보처와 련락 관계를 맺였다는데 그 련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림 화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적 계급성을 배제하고 미제의 어용 문학으로의 조선 문학 확립 및 그의 방도 등이였습니다。

검 사 일제시 피소자가 행한 문학 운동은 계급적 문학 운동이였는가。

림 화 아닙니다。그것은 일제의 어용 문학이였습니다。

검 사 미군 환영 사업을 조직한 일이 있는가。

림 화 약 三〇〇명의 문화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미군 환영 시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검 사 간첩 활동시 평양에 있는 리 승엽 조 일명과 해주에 있는 박 승원 간의 련락 문제만을 담당한 것으로 말했는데 박 승원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옹진에도 같이 나간 것으로 보아 비단 련락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노력한 것이 아닌가。

림 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검 사 리 강국과 리 승엽 간의 련락 책임을 당신이 담당한 리유는 무엇인가。

림 화 리 강국은 공개적인 불평 분자이므로 부관이 일상적으로 달려 있는 리 승엽이와 직접 만나는 것은 기밀 보장상 불리한 것이므로 제가 중간 련락을 하게 되였습니다。

검 사 문예총에서 반동적 선전을 한 내용을 말하시오。

림 화 문예총내 작가들에게 아직 북조선에는 로선이 명백히 나서고 있지 않으니 작품을 쓰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써 그들의 창작과 계급적 문학 예술 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검 사 그 리유는 무엇인가。

림 화 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문학이 왕성하면 우리의 것이 파탄 몰락되겠기 때문이며 다시 말하면 문학 활동에서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 사 나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김 문평 피소자는 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습니까。

림 화 중학 四년까지 다녔습니다。

변호인 소년 시대에 유년 시대보다 생활이 윤택해졌다는데 그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림 화 부친이 상업에서 약간 성공한 데서 윤택해졌습니다。

변호인 결혼 후에 처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림 화 받았습니다。

변호인 해방후 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의 기밀을 언더우드에게 전달하였다는데 그 단체는 좌익 단체입니까 우익 단체입니까。

림 화 그것은 좌익 단체입니다。

변호인 만약 재생의 길을 준다면 조국을 위하여 당과 정부를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림 화 만일 기회만 준다면 모든 것을 다바쳐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변호인 저의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박 승원!

림 화의 진술에서 차이나는 점이 없는가。

박 승원 없습니다。

재판장 (림 화에게)

무장 폭동시 문화 단체를 장악할 데 대한 지시를 리 승엽으로부터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말하시오。

림 화 무장 폭동과 관련하여 불순한 문화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고무 추동하여 폭동 사업에 리용하려는 데 리 승엽의 의도가 있었고 저도 역시 그랬고 다른 사람도 역시 그랬습니다。

재판장 그 과업 실천 여부를 말하시오。

림 화 노력하였습니다。실례로서 리 원조 리 태준 등과 밀접히 련계를 가졌고 다음 작가들 간의 대립을 조성시켰고 이 틈을 타서 남조선 출신 작가들을 추동 규합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조선 출신 작가들을 추켜 세우는 일을 조직하였습니다。

판 사 박 경호 피소자 박 승원 조 일명、피소자들의 실지 행위와 림 화의 진술 간에 차이가 있는가。

조 일명 박 승원 없습니다。

재판장 (림 화에게) 언더우드、로빈손은 어떤 자인가。

림 화 언더우드는『씨·아이·씨』소속이고 로빈손은 공보처의 책임적 지도자입니다。

판 사 그들과 몇번이나 만났는가。

림 화 三회 만났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첩 자료를 전달한 회수를 말하시오。

림 화 박 승원에게 련락한 것이 六회이고 서울에서 문학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 군사 정치 경제 인민들의 사상 동태 등의 자료를 수집 제공한 것이 한번입니다。

판 사『신 내각』에서의 피소자의 벼슬은 무엇인가。

림 화 교육상입니다。

판 사 장 시우와 주 녕하를『부수상』으로 추천한 리유는?

림 화 그들이 우리와 또 특히 박 헌영이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검사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변호인 지 영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리 승엽이가 三八선을 시찰할 때 그와 동행한 리유는 무엇입니까。

림 화 옹진 지구까지 동행하였는데 리 승엽의 간첩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조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재판장 二〇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七시 二〇분)

백 형 복에 대한 신문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七시 四〇분)

피소자 백 형복! 자기의 경력을 말하시오。

백 형복 저는 一九一七년 一〇월 二四일 빈농가에서 출생하여 소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一九四〇년 一〇월 三〇일 일제의 순사 시험에 합격되여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로서 전라북도 전주 경찰서 외근 순사 류치장 간수 등을 거쳐 순사부장으로 승격하여 一九四五년 三월 一二일에 전주 경찰서 고등계 형사로 있다가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

게 되였습니다。

해방 후에 저는 자기의 친일 주구의 행위로 말미암아 민주 력량을 겁내여 실지 집에 들어 앉았다가 맥아더의 포고 즉 종전의 직에 취임하라는 포고를 듣자 이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과거의 반역적 행위를 반성함이 없이 미제의 비호하에 경찰 기관에 들어가 전라북도 군산 경찰서 리리 경찰서 등에서 사법 주임으로 있다가 그후 전북 경찰청 수사과 경제 주임 보안과 부과장 수사과 부과장을 거쳐 一九四七년에는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었으며 그후 一九四九년에는 강원도 경찰청 사찰과장 동년 一一월에는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으로 있으면서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하며 반역 행위에 적극 광분하다가 一九五〇년 五월 니콜스의 지시에 의하여 의거 입북의 형식을 가장하고 입북하였습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간첩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백 형복 제가 강원도 사찰과장으로 있을 당시 간첩 행위를 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미군 항공 경무 사령관 니콜스의 지시에 의하여 북조선에서 월남하여 온 자들에게서 이북의 항공 정형 기타 군사 비밀들을 수집하여 그에게 주는 등 충실히 그의 지시를 집행했더니 니콜스가 두번이나 강원도를 방문하여 왔으며 그때마다 저를 칭찬하였고 一九四九년 一一월에 저를 중앙 분실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一九四九년 一一월에 조직한 정보 련락 회의에 참가하였을 시 니콜스는 그때 말하기를『조선은 경제적으로나 령토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 및 쏘련에 대한 비밀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하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나 또는 반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들의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사찰과에서 좋은 자료들을 그리 제출치 못하였으나 이번 중앙 분실장 교체를

계기로 하여 정보 사업을 담당한 당신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활발히 적극적으로 사업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옳다고 접수하고 실행하려고 했으나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던 중 一九四九년 一二월 상순경에 니콜스를 만나 서울 경찰서에서 수집한 남로당의 비밀 자료를 준족 수첩에다 쓰고 만족을 표시하는 것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족을 표시하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아첨하면서 앞으로 정보 사업에 참고될 좋은 자료가 없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현재는 그리 좋은 자료가 없으나 우리는 북조선의 정치 군사 경제적 형편은 잘 알고 있다고 하므로 어디서 얻었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노블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노블은 리 승엽과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리 승엽에게서 받은 많은 자료중 쏘미 공동 위원회에 참가하는 쏘련 대표의 태도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군의 정보 활동에 대하여 경탄하고 앞으로 미군에 더욱 밀접히 련계를 취할 것을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 안 영달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시오。

백 형복 안 영달은 경상남도 경찰부에서 체포해 가지고 왔기에 알았습니다。 안 영달은 변절자 허 만도에게 취조당하며 경찰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니 그는 이를 부산에 끌고가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경상남도 경찰부에서 취조당하다가 안 영달은『나는 김 삼룡과 같이 일하는 중앙당 간부인데 김 삼룡을 체포해 줄터이니 석방시켜 달라』고 청하였으므로 경상남도 경찰부에서는 안 영달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안 영달의 말은 허위일 것이라고 하니 그를 압송하여 온 경남 사찰과장은 나에게 안 영달을 직접 상면하라고 하기에 그를 류숙시키고 있는 려관에 가서 만나보고 안 영달과 그를 데리고 온형사를 데리고 료리집에 가서 식사를 하며 안 영달을 타진해 보니 그는 저보고 조 용복을 만나게 하여 주면 곡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의 말이 전연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그를 리용해 보려고 제가 경상남도 사찰과장으로부터 안 영달을 인계 받고 다음 날 다시 려관에 찾아가서 장기 화투 등을 놀면서 안 영달에게 당신을 조 용복의 집에 보내는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믿을 수 없으니 박 일원과 같이 당신도 남로당 비판서를 쓰라고 하였고 우리의 지시를 잘 들으면 당신의 이 행위를 음폐해 준다고 하였더니 안 영달은 약 六○페지에 달하는『남로당 총비판서』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모두 니콜스의 승인 내지 지시 밑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안 영달이 쓴 남로당 총비판서를 읽어 보니 중요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즉 남로당에 북반부에서 오는 간부 명단 및 그들의 경력 자기는 노블 박사와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지시밑에 남북 총선거 호소문 발표시 당원들이 당 중앙을 불신임하게 할 의도에서 이북에서 인민군이 곧 내려올 것이니 전체 당원은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게 하였다는 점 또 리 승엽과 련계 밑에 노불과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판서를 가지고 니콜스를 찾아가서 보고하였더니 그는 좋아하면서 안 영달을 만나자고 하기에 그를 안 영달에게 련결시켜 주고 간첩망에 인입한 후 석방하였습니다。

다음 안 영달과 조 용복과 련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안 영달을 조 용복의 집에 들여 보내고 문밖에서 들어보니『래일 낮에 집에 오라』고 하는 조 용복의 처의 말소리가 집안에서 부터 들렸고 안 영달은 나와서 조 용복이가 없으니 래일 다시 오자고 하므로 다음 날 안 영달을 조 용복의 집에 보냈더니 조 용복은 종로 경찰서에 피검되였다고 하면서 안 영달은 돈만 대면 남로당에서 주는 것같이 하여 내가 조 용복의 처에게 주어 조 용복을 취조하는 형사에게

뢰물을 먹이는 방법을 쓰자고 하기에 저는 三〇만원을 안 영달에게 주니 안 영달은 조 용복의 처에게 그 돈을 주었고 처는 담당 형사에게 먹였으나 조 용복은 검사국에 이미 넘어가게 되였으므로 다시 방법을 강구한 후 치안국장을 찾아가서 우리를 믿고 조 용복을 석방시켜 달라고 청하여 치안국장은 종로 경찰서장에게 조 용복을 석방하라고 하였으나 종로 경찰서장이 듣지 않으므로 다시 내무부 차관에 말하여 차관이 종로 경찰서장에 지시하여 조 용복을 석방시켰습니다。

그후 조 용복을 안 영달에게만 맡겨둘 수 없으므로 우리가 직접 조 용복을 포섭하기로 결의하고 안 영달이와 저와 一九五〇년 一월 초순경 밤에 조 용복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조 용복에게 내 신분을 말하고 나와 협력하자고 하니 조 용복은 처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안 영달은 『당 비서도 량 다리를 걸고 있는데 우리 따우가 뭘 그리 고집하오』라고 하니까 조 용복은 『비서라니?』하며 놀라니 안 영달은 바로 리 승엽이라고 말하자 조 용복은 맥이 풀려 머리를 숙였을 적에 제가 또 위협을 하니 나중에는 응낙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오고 후에 안 영달이가 와서 말하기를 조 용복에게 김 삼룡을 잡으라는 과업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一九五〇년 一월에 조 용복의 공작으로 김 삼룡과 안 영달이가 련결되여 안 영달은 김 삼룡의 아지트를 정하여 주게 되므로 이때부터 저는 김 삼룡의 일체 행동 공작 정형 등을 그의 옆방에서 들을 수 있었고 얼굴도 볼 수 있었으며 김 삼룡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二월 김 삼룡은 『안 영달은 당을 수습하고 조 용복은 이북 련락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안 영달은 『김 삼룡을 아낄 필요는 없다。 김 삼룡의 세력은 다 없어졌으며 지금 그를 체포한다면 그 대신 리 승엽이가 오거나 또는 박 헌영이가 비서로 올 것이니 곧 체포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반대하여 검거하지 않고 있다가 一九五〇년 三월 二六일 서울시 분실에서 김 삼룡 체포에 날뛰고 있음을 알고 저희들의 공로를 뺏길 것을 겁내여 제가 직접 안 영달과 형사들을 지휘하여 가지고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였습니다。

재판장 『의거 입북』하던 경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백 형복 一九五〇년 四월 초에 조 용복을 북반부에 보내 리 승엽으로부터 김 삼룡 피검 후 북반부에서의 당 중앙의 동향과 그의 후임을 조사케 하였던바 조 용복은 리 승엽을 만나고 돌아와서 리 승엽의 말이 남로당 간부들이 전부 피검되였는데 안 영달과 조 용복만 살아 있으니 이는 의심사지 않을 수 없으니 의심사지 않을 방책을 강구하라고 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니콜스에게 전달하니 그는 좀 생각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四월 二五일 저의 집에서 니콜스 안 영달 등 회합에서 니콜스는 백 형복이가 의거 입북의 형식으로 안 영달과 조 용복과 같이 이북에 들어가라고 하므로 저는 주저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니 안 영달은 니콜스의 제안이 좋다고 하며 북에서는 의거 입북자는 관대히 볼뿐만 아니라 이북에는 리 승엽이가 있으니 무사하다고 하므로 저는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니콜스는 안 영달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백 형복이가 가라고 하며 멀지 않아 북벌할 터이니 잘되면 치안국장을 시켜준다고 하기에 저는 응낙하고 입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四월 二六일 니콜스와 같이 조선호텔에 가서 미국인의 신문을 받고 二八일 니콜스와 안 영달과 같이 노불을 만났는데 노불은 우리를 칭찬하면서 입북 후의 과업에 대하여 ① 당신들이 입북한 후 곧 북벌이 개시될 터인데 전쟁이 개시되면 인민 군

대가 먼저 침범했다는 선전 조직을 하라는 것을 리 승엽에게 련락할 것 ② 백 형복을 리 승엽에게 소개하여 내무 기관에 넣을 것 ③ 조 용복을 필요할 때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 ④ 백 형복은 내무 기관에서 간첩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남에서 파송하는 간첩들을 보호할 것 등의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업을 맡은 후 입북하기 위하여 우선 안 영달、조 용복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게 하고 저는 의거 입북을 가장하기 위하여 김 삼룡 피검 경위에 대한 외곡된 자료 괴뢰 정부의 예산표 기타 사찰과의 기밀 문건 몇매를 가지고 가족까지 데리고 一九五〇년 五월 七일 입북하였습니다。 五월 八일 평양에 도착하여 리 승엽의 알선으로 내무 기관에 잠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경찰에 복무하던 시기의 반역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백 형복 저는 만 九년 二개월에 걸쳐 일제 및 괴뢰 정부 경찰에 복무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적극 활약하였습니다。 전북 사찰과 부과장으로 있으면서 전북도당을 파괴하였는바 여기서 남로당 지방 간부를 도에 올려다가 지하 조직을 알아내고 지하 조직을 파괴할 데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도내 각 경찰서에 보급시키고 一九四八년 六월 황 의태를 처단케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경찰에서 직접 학살하는 례는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전시 시당 산하 당원 三〇여명을 재판에 회부하였고 그외 五〇여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강원도 사찰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원주 군사부 사령관 안 모를 변절시켜 서울에서 그의 동기생 一〇여명을 체포하였고 그후 또 五명을 체포하여 변절시켜 보도 련맹에 가입시켰으며 도당 간부 동 필현 등을 서울에서 인계 받아 변절시키고 기타 수십명을 학살하였습니다。 그외에도 八〇여명을 검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중앙 분실장으로 있으면서 전기한 바와 같이 김 삼룡을 교묘히 체포하였고 수많은 로동당원들을 체포하여 처형케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일제 경찰의 두목 그후 리 승만 괴뢰 경찰의 두목으로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미국인 노블 니콜스 등의 지시와 협력 밑에 고등계 사업에 능난한 수완을 발휘하며 조선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한 투쟁을 말살하기에 광분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측에서 신문하시오。

검 사 리 승엽과 직접 만난 일은 없는가。

백 형복 리 승엽이가 一九五〇년 五월 나의 숙소에 찾아와서 괴뢰 정부 교통성 프락치 사건과 김 삼룡 검거 사건을 묻기에 그것을 세세히 대주었습니다。

검 사 당신이 리 승엽에게 노불을 아는가고 질문하였을 때 그의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백 형복 『잘 압니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검 사 남조선에 있을 때 노불과 니콜스가 리 승엽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던가。

백 형복 一九四九년 七월 사찰과장실에서 그들은 리 승엽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노불은 후회하는 표징을 하기에 저는 즉석에서 제가 미제에 충실한 사람인데 념려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후 一九五〇년 五월 제가 입북할 적에 노불은 이북에는 리 승엽과 같은 애국자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검 사 안 영달 조 용복 등과 련계 밑에 간첩 행위를 하면서 일거 량득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백 형복 그것은 김 삼룡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둠으로써 남로당 내의 기밀을 날날이 알아내는 한편 북로당과 남로당 간의 련락 관계까지 알아내는 동시에 리 승엽이가 보내는 간첩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 사 북반부에서 받은 군사 경제에 관한 간첩 자료는 어떠한 것이였습니까。

백 형복 주로 무전 암호문이였습니다。

검 사 북조선에 입북하여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데서 찾았는가。

백 형복 그것은 리 승엽이가 이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 사 괴뢰 경찰에서 공작비를 쓴 것이 있는가。

백 형복 그것은 조 용복의 처에게 전시한 바와 같이 三〇만원을 준 것이 있고 그외에도 각처에서 많은 공작비를 썼습니다。

검 사 내무 기관에 잠입하면 무엇을 하려 하였는가。

백 형복 리 승엽을 통하여 잠입하여 가지고 ① 미제가 잠입시킨 간첩을 보호하며 ② 기밀 수집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검 사 미제로부터 경제적 보수를 받은 내용은。

백 형복 입북 직전에 三、〇〇〇딸라를 받았습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리 규홍 당신이 입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백 형복 一九五〇년 五월 七일입니다。

변호인 입북한 후 미제로부터 맡은 과업을 수행하였소。

백 형복 완수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 그후 무엇을 하였소。

백 형복 내무 기관에 잠입하려고 기도한 것뿐이고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변호인 일제 순사 노릇을 한 리유는 무엇이요。

백 형복 농사하기가 힘들어서 순사를 했습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전주시당 위원장 외 五〇여명을 체포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백 형복 약 二〇명을 학살한 후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 처형케 하였습니다。

재판장 전북도당 간부 림 오、정 림 등을 체포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백 형복 학살하였습니다。

재판장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백 형복 그것은 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장 강원도에서 애국자 二〇여명을 체포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백 형복 춘천 경찰서에 넘겨 처단케 하였습니다。

재판장 니콜스가 사찰과장 련락 회의 때 말한 리 승엽으로부터 노불에게 전달되였다는 그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백 형복 쏘미 공동 위원회에 참가하는 쏘련 대표의 태도 문제였습니다。

재판장 김 삼룡의 아지트에 여러번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백 형복 그 아지트는 리 성주의 친척집인데 그 집에 가서 김 삼룡이 있는 옆방에서 구멍을 뚫하여 김 삼룡의 일체 거동을 세밀히 관찰하였습니다.

판사 박 룡숙 얼굴도 보았는가.

백 형복 첫날은 그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다음번에는 안 영달로 하여금 김 삼룡 선생이 방에서 나올 적에 문 앞에서 전지로 그의 얼굴을 비치게 하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판 사 조 용복을 통하여 남로당 내의 기밀 자료를 몇번이나 받았는가.

백 형복 三회 받았습니다.

판 사 피소자는 입북시 어느 루트를 리용했습니까.

백 형복 로동당 루트를 리용했습니다.

판 사 김 삼룡을 체포하는 것을 처음 피소자나 니콜스가 반대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백 형복 김 삼룡을 체포하면 당내 정치적 파동이 일어나서 안 영달의 정체가 폭로될 뿐만 아니라 하부 당 조직들이 더욱 깊이 지하로 들어갈 것이므로 체포를 유예하면서 당 내의 기밀을 세밀히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측에서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이상으로써 제一일 공판을 끝마치고 명일 오전 九시부터 제二일 공판을 개정하겠습니다.

— 제二일 一九五三년 八월 四일 —

재판장 지금부터 제二일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립회 서기에게) 피소자 및 증인들이 전부 출정하였습니까.

립회서기 피소자들은 전부 출정하였고 어제 출정하였던 증인들도 전원 출정하였습니다.

재판장 오늘 새로 출정한 증인은 없습니까.

립회서기 새로운 증인으로서 전 영애, 윤 대현, 전 구하가 출정하였습니다.

재판장 박 경호 파사, 새로 출정한 증인들을 확인하시오.

(판사 박 경호는 새로 출정한 증인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一、증인 전 영애 년령 당 四二세
주소 평양 특별시 대타령 一〇구 六반

二、증인 전 구하 년령 당 四四세
주소 평안북도 철마군

三、증인 윤 대현 년령 당 三六세
주소 평안남도 룡강군 중리

판사 박 경호 증인들은 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아는 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허위 진

술하거나 아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고합니다。

별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십시오。(증인들은 각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재판장 증인 차 약도만 남고 다른 증인들은 별실로 물러가시오。

(차 약도 이외의 증인들 별실로 물러가다。)

증인 차 약도에 대한 신문

재판장 증인 차 약도、당신이 차 약도입니까。

차 약도 네。

재판장 김 삼룡을 학살하던 정형에 대하여 말하시오。

차 약도 저는 리 승만 괴뢰 경찰 경비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一九五〇년 六월 二六일 오후 五시경에 김 삼룡과 리 주하를 학살하던 정형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동일 오후 五시 헌병 사령관 송 요한 대령의 호출에 의하여 간즉 대령은 말하기를 사형 집행할 것이 있으니 제三과장과 법무 소령과 같이 가서 이 과업을 수행하라고 하기에 법무 소령과 제三과장이 있는 데 가서 수고한다고 인사를 한즉 제三과장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형 집행에 대한 결재 서류인데 보라고 하기에 본즉 리 승만이 서명 날인하고 서기로 서 성모의 서명 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그런 서류가 二〇건 내지 三〇건씩 있기에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돌려 주었더니 이 말을 절대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법무 소령이 집쁘 二대를 가지고 와서 병사 몇명을 달라고 하기에 四명을 지명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송 효순 소령이 김 삼룡、리 주하를 결박하여 가지고 멀지 않은 산에 가서 처리하며 매장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二五분 내지 三〇분쯤 지나서 두 사람을 싣고 왔기에 호송차로 사령부 뒷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제三과장이 보고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에 올라간즉 二〇〇메터 지점에 매장할 장소가 있었는데 사 창동 상사가 량인을 소나무에 결박하고 가제로 눈을 싼 후 제가 뒤로 물러서라고 하니 一二 내지 一三 메터 물러선 후 제三과장이 있다가 거기서 처리하라고 하기에 제가 사격시켜서 四명이 二발 내지 三발을 발사했을 때 내가 멎으라고 하였는데 제三과장이 리 주하는 잘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결박한채로 끌어다 매장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후 법무 소령보고 수갑을 어째서 벗기지 않았는가고 물은즉 그 수갑을 벗기려면 열쇠가 없기에 형무소까지 가야 한다고 하기에 그냥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흙을 높이 올리려고 하였으나 흙이 새 흙이 돼서 보기 좋지 않으니 풀을 꺾어다가 덮으라고 하기에 풀을 꺾어다가 덮었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김 삼룡을 누가 체포하였습니까。

차 약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신문할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 어느날 살해했습니까。

차 약도 一九五〇년 六월 二六일 오후 五시경입니다。

재판장 헌병 사령관의 지시란 무엇이며 대통령의 결재란 무엇인가。

차 약도 그것은 리 승만이가 김 삼룡、 리 주하를 살해하는 것을 결재한 것이며 미군과 같이 일을 하니까 미군 헌병 사령관이 이들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재판장 매장하기 전에 사망했는가를 확인하였습니까。

차 약도 흉부를 맞은 것을 보고 사망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장 그 당시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차 약도 헌병 사령부 경비대 대장이였습니다。

재판장 증인 차 약도에 대하여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사、 변호인들、 피소자들、 모두 없다고 대답하다。)

재판장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조 용 복에 대한 신문

재판장 조 용복、 피소자의 경력을 말하시오。

조 용복 저는 一九〇九년 五월 二一일 경상남도 밀양군 삼내면 금천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정 환경은 제가 六세 나는 해에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고 생활은 그다지 곤난한 편은 아니였습니다。 그후 밀양 보통 학교를 거쳐 一九二五년 경성 중앙 고등 보통 학교에 입학하여 一九三〇년 二월에 졸업하기 며칠전인 五학년 三학기에 광주 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퇴학당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여 일본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 가서 렵교 대학 예과 二년에 입학하고 있으면서 공산 청년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一九三二년 六월에 일본 공산당에 가담하여 "아까하다"를 렵교 대학에 배포할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일했습니다。 동년 九월경에 일본 공산당에 가담했다는 죄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였다가 학생이라 하여 기소 유예로 출옥되였으나 물론 학교는 퇴학당하였습니다。 저는 석방된 후 동경 서북 지구 위원회 지시로 동경시 오시마구 폐물 수매소 로동자들 속에서 신문 배포 사업을 하게 되였습니다。 一九三三년 三월 성북 지구당 간부들이 피검되게 되자 저는 할 수 없이 동년 八월에 조선에 귀국하였습니다。 그 당시 밀양에서 형이 경영하는 조선 일보 지국에서 신문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一九三四년 九월부터 조선 운송 주식 회사 서기로서 一九四二년 초까지 일했습니다。 그 다음 운송 주식 회사를 퇴직한 후 一九四二년 봄부터 七마력짜리 발동기를 가지고 정미소를 경영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동경에서 조선에 나오면서 조직에서 떨어지고 그후 혁명 활동을 포기하고 조직에 련계를 가질 생각도 없이 그날 그날의 안일을 위해서 해방전까지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해방전 경력입니다。

재판장 해방 후 경력을 계속 말하시오。

조 용복 저는 조선 해방이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의 앞에는 새 서광이 빛났던 것입니다。 해방 후 공산당에 입당하여 一九四五년 一二월 三일부터 一九四六년 八월까지 공산당 경상남도 밀양군당 선전부장으로 사업하다가 一九四六년 九월부터 一九四七년 三월까지 남로당 밀양군 삼랑진 면당 위원장으로 있었고 一九四七년 四

월부터 남로당 밀양군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고 남로당 경상남도당에 소환되여 一九四八년 七월까지 선전부 부부장으로 있다가 一九四八년 八월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이 있을 당시 해주 인민 대표 회의 참가차로 밀양군 대표로 월북하여 八·二五 선거 후 동년 一〇월부터 一九四九년 二월까지 강동 정치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一九四九년 三월에 조 일명의 지시로 안 영달이와 같이 서울에 가서 지하당 공작을 하다가 안 영달은 동년 七월에 입북하였는데 그후 안 영달이가 사업하던 사업을 맡아가지고 김 삼룡 밑에서 사업하다가 九월에 서울 륙군 방첩대에 체포되였다가 一〇여일 후 석방되여 나오니까 입북하였던 안 영달이가 돌아 왔으므로 다시 안 영달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재판장 해방 후 경력에 대하여서만 진술하시오。

조 용복 서울에서 남로당 지도부에서 사업하다가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 김 삼룡이가 체포되고 조직이 파괴되므로 五월에 입북했습니다。

그 다음 조국 해방 전쟁시 다시 서울에 가서 유격대와 의용군 사업을 하다가 七월에 경상북도에 파견되였다가 돌아오던 도중 부상되여 九월부터 치료하다가 一九五一년 一一월에 다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후 一一월부터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사업과 개성 련락소 지도원으로 사업하였고 一九五二년 五월 말에 련락부를 거쳐 다시 인민 검열 위원회 상급 검열원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재판장 범죄 사실 중 안 영달과 련계를 가지고 김 삼룡을 체포하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 용복 제가 一九四九년 一二월에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남로당 조직 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그 이듬해 一월 一〇일경 래일과같이 검사국에 송치되기로 되였는데 그 전날 오후 七시 무조건 석방되였습니다。 그때 종로 경찰서 사찰계 주임은 말하기를 당신을 석방시키는 데 대하여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상부 지시에 의하여 당신을 석방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종로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나의 안해가 경찰서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안해가 말하기를 안 영달이가 부산에서 석방되였으며 이번 안 영달이가 당 자금으로 교제한 결과 제가 석방되였으며 집에서 안 영달이가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간즉 안 영달이와 어떤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안 영달이가 나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찰과 중앙 분실장 백 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영달은 나에게 당신은 백 형복의 노력에 의하여 석방되였다고 말하고 백 형복은 나에게 당신을 석방시킨 것은 앞으로 대한 민국에 협력시키기 위한 것이니 그리 알고 잘 협력하라고 하였으나 그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해방 후 제가 당한 여러가지 참난으로써 즉 서북 청년 단원들에게 테로당하여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지고 형은 미 군정에 체포되여 피살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저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적개심이 많은 데서부터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 형복은 당신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김 삼룡을 비롯한 로동당원의 일체 비밀은 안 영달을 통하여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변절한다 하더라도 홍 민표와 같이 앞에 내세우고 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장하여 주면서 사업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재차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영달은 말하기를 동무 무엇 그리 고집을 부립니까 지금 중앙당 비서까지도 대한 민국과 공화국에 두 다리를 걸고 있는데 우리따위 졸병이야 무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중앙당 비서라는 말에 충격을 느끼

고 그는 누구인가고 물으니까 리 승엽이라고 하기에 저는 놀랬습니다。 이러한 구실로 내가 변절한 것은 아니나 충격을 받았으며 백 형복에게 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응낙했습니다。 이것이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게 된 제일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 형복과 안 영달이가 김 삼룡 선생의 안부를 물으므로 저는 건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석방된 사실을 김 삼룡 선생에게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므로 나는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김 삼룡 선생과의 련계가 여하한가 하고 묻기에 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五、六일을 지나서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기 전에 사용하던 아지트에서 특수부 책임자였던 김 형룩이를 만나 나와 안 영달이가 변절되지 않고 무사히 석방되였다는 것을 김 삼룡 선생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三일 후에 안 영달이가 김 삼룡 선생을 만나겠다고 하는 요청을 전했더니 二、三일 후에 김 형룩을 통해서 안 영달을 만나자는 전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안 영달을 김 삼룡에게 련결시켰습니다。 그러자 二월 초에 김 삼룡 선생이 당 공작차로 입북하라는 지시를 하므로 입북하게 될 때에 안 영달은 백 형복의 지시라고 하면서 북반부 정치정세와 항공 정보 등을 수집하라는 과업을 주기에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 영달은 이상 정보를 리 승엽에게서 들어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입북하여 평양에서 리 승엽을 만나 당 공작을 보고하고 제가 안 영달을 통하여 백 형복으로부터 과업말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북할 때 안 영달은 리 승엽에게서 정보를 받아 오라고 하였으나 저는 참아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북조선에는 항공 병력은 어떤가고 물은즉 리 승엽은 한개 사단이 있다고 하고 또 나는 비행기 성능은 어떤가고 물은즉 리 승엽은 제二차 세계 대전시에 사용하던 구라망보다 성능이 좀 우수하다고 말하였으며 정치 정세에 대하여는 당 또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 언제 남조선에서 물러 간다고 말하고 있는가고 물은즉 리 승엽은 언제든지 물려 갈 수 있지 그것은 미국의 자유다。 그러나 미국이 물러가면 인민 군대가 남반부를 진공할 것은 정한 일이기 때문에 미군이 안나간다고 말하였습니다。 리 승엽은 나의 정탐 사업을 아는지는 모르나 대답은 순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평양에 一주일간 체류하고 월남하여 서울가서 안 영달에게 이것을 보고하였고 이 정보들은 백 형복을 통하여 미군에게 들어갔습니다。 그해 三월초에 안 영달로부터 입북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로당으로부터 당 공작을 보고할 사명과 동시에 역시 백 형복이가 주는 과업 즉 항공 병력 정치 정세 탐지에 대한 과업을 맡았습니다。 평양에서 리 승엽을 만나 역시 당 공작을 보고한 후 간첩 행위에 대한 실토는 못하였습니다。 항공 병력에 대한 정형을 물은즉 리 승엽은 병력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훈련과 기술은 향상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한 안 영달을 통하여 백 형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三월 二七일 안 영달이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김 삼룡 선생이 체포되고 김 형룩이가 변절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서대문동 어데서 체포되였는데 자기가 김 삼룡 선생을 만난 후 백 형복을 만났는데 김 삼룡 선생의 거처를 묻기에 대주었더니 체포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조직이 이렇게 되여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안 영달은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에 리 승엽을 만나러 四월 二일 제三차로 입북하였습니다。 이때는 리 승엽의 사택 응접실에서 만나 비로소 내 자신과 안 영달이가 백 형복에게 변절하였고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 승엽은 처음에는 대단히 흥분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 있어서의 대책을 물은즉 김 삼룡이가 체포되고 조직이 탄로되였는데 안 영달과 조

용복이만 무사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안 영달이와 당신은 김 삼룡을 체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할 대책이 있는가고 묻기에 저는 김 형욱이가 변절하여 김 삼룡을 체포하게 하였다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고 한즉 리 승엽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 용복이와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고 가장하기 위한 세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니 속히 서울로 가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 삼룡의 후임을 물으니 리 승엽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상 리 승엽과의 담화 내용을 안 영달과 백 형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一〇일 후에 저는 해군 방첩대에 체포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절했기 때문에 저를 체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마는 대외적으로 제가 변절하였다는 사실을 음폐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 형복이가 구출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二〇일이 지나도록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변절자 홍 민표가 신문하면서 三八선 루트를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五월 一일 해군 방첩대에서 무조건 석방되였습니다。 五월 二일 식전에 백 형복이가 찾아 왔는데 처가 안 영달이와 같이 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그는 안 영달의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곧 오라고 하였기에 백 형복이와 같이 집쁘차를 타고 남쪽을 향해 가다가 시청 륙군 방첩대를 지난 후 해군 방첩대를 지나 백 형복 집에 도착한즉 안 영달이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안 영달과 백 형복과 제가 한자리에 앉은즉 안 영달이가 말하기를 백 형복이가 나를 석방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三八선 루트를 묻기에 三八선 이남은 알고 있으나 이북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어도 오는 일요일 이전에 三八선을 넘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三八선 루트를 조사하라고 하기에 저는 어째서 이렇게 조급히 三八선을 넘어야 하는가고 한즉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당과 공화국의 범죄자로 되였으니 우리의 살길은 공화국과 대한 민국에 랑 다리를 거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리 승엽이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겠는가 하였습니다。 나와 백 형복은 미군의 지령에 의하여 입북하게 되였는데 이 기회를 잘 리용하면 대한 민국에서도 공화국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안 영달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한즉 그는 백 형복은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경찰 고관인데 우리가 입북하여 백 형복이가 의거 입북한 것같이 가장하면 공화국에 대한 범죄를 음폐할 수 있고 우리는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고관을 의거 입북시킨 공로자로 되므로 이것은 일거 량득이라고 하므로 나는 그럴상 싶었습니다。

담화를 계속하면서 백 형복과 안 영달은 미국인의 직접 지령 하에 활동하므로 괴뢰 정부 내에서는 이 정체를 모른다。 그러므로 백 형복은 의거 입북을 가장함으로써 안 영달과 저는 당의 신임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백 형복은 북조선에 가서는 리 승엽을 통하여 공화국 내무 기관에 잠입시켜 이미 북반부에 잠입한 간첩들과 련계를 가지며 자신도 공화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안 영달은 다시 남조선에 나와서 당 중앙에 잠입할 것과 이북에서 리 승엽이가 보내는 정보는 일체 안 영달이가 미국인에게 전달하기로 하라는 과업을 맡았다는 말을 듣고 이때에 저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느라고 말했겠지만 안 영달은 『동무 자신은 별로 과업은 없고 三八선 루트만 조사하여 제공하고 가족을 데리고 입북하면 된다。 입북 후 우리에게 협력할 여부는 동무 자신의 자유에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비밀이 탄로되지 않겠지만 동무도 함부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화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 체포되면 경치다고 하므로 저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곧 三八선 루트를 확인한즉 그대로 주속되

여 이북과 련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五월 七일 저와 안 영달과 백 형복은 가족을 데리고 입북하였습니다。 이것이 남조선에서의 나의 범죄 사실 전부입니다。 一九五〇년 五월 一〇일경 내가 입북한 이튿날 리 승엽의 사무실에서 저와 안 영달은 리 승엽을 상면하였는데 三八선에서 사고로 저는 하루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리 승엽은 이미 안 영달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나 나에게는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미군으로부터 맡은 과업을 실천할 데 대한 토의를 하였는데 리 승엽은 발언하기를 안 영달은 백 형복을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신임을 얻었으므로 다시 당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평양에 있는 동안 남조선 당 재건을 위한 간부들의 인물을 선정해 보라고 하였으며 백 형복은 내무 기관에 잠입시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진술에서 잊은 것은 미국인이 준 과업 즉 미국이 멀지 않아 북벌을 시작하고 인민 군대가 먼저 불의 습격하였다고 하겠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과 자료가 리 승엽에게 있으면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리 승엽에게 전하였더니 리 승엽은 그 대책은 우선 북벌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군에게 인민 군대의 군복을 입혀서 三八선 산악 지대에서 남진시키고 라디오를 통하여 인민군이 침공을 개시하였다고 방송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 형복은 내무 기관에 잠입하기로 하였으며 저 자신은 안 영달이가 남반부에 간 다음에 그와 급한 련락이 있으며는 련락하기 위하여 대기하기로 하고 일시 휴양소에 휴양갔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것보다 더 큰 범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六월 二五일 전쟁 개시 후 七월에 서울에 나가서 시 위원장실에서 안 영달을 만났는데 자기는 계획대로 남반부 당내에 잠입하였으며 인민 군대가 먼저 침공한듯이 꾸미기 위한 리 승엽의 방안을 미군에게 전하였으며 六월 二五일 미국인이 서울을 떠날 때 노블은 국방군이 서툴게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국방군은 너무나 무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락망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조선을 도와 참전할 것이고 유·엔 경찰군도 동원되여 련합군이 참가할 것이다。 또한 지금 정세에 있어서 쏘련은 평화 정책을 실시하므로 조선 전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통일에 급급하여 조선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련합군과 인민군과의 전쟁으로 되니만치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락망하지 말고 서울 지도부에 남아 있어야 하며 미군은 다시 진공하여 오겠는데 인민 군대는 락동강 또는 경남 계선까지만 진공한다면 그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원산、인천 등지에 상륙 작전을 하여 조선의 허리를 끊고 남진한 인민 군대를 포위 섬멸하고 압록강 계선까지 진공하여 조선을 통일시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안 영달은 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중대한 군사상 기밀을 알고도 당과 공화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범하여온 범죄 사실들입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김 삼룡 선생은 피소자나 안 영달이가 변절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되였겠는가。

조용복 네、우리가 김 삼룡 선생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 사 결국、피소자들의 역할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

조용복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였다면 김 삼룡 선생은 영영 체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 사 (재판장에게) 피소자 백 형복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백 형복!

검 사 (피소자 백 형복에게) 당신의 어제 진술과 오늘 피소자 조 용복의 진술에서 상이나는 점은 없습니까。

백 형복 없습니다。

검 사 (재판장에게) 백 형복에 대한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백 형복! 앉으시요。

검 사 (피소자 조 용복에게) 당신이 안 영달을 통해서 백 형복에게 제공하는 당내 비밀 자료가 어데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았는가。

조 용복 백 형복을 통해서 미국놈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 사 피소자가 리 승엽에게 와서 안 영달이가 변절한 내용을 말하니까 리 승엽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조 용복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김 삼룡 선생이 체포되였다고 말한즉 처음에는 흥분하더니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하면서 이제는 김 삼룡을 안 영달과 당신이 변절하여 체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날조하라고 하였습니다。

검 사 당신과 안 영달 백 형복 三인이 입북할 데 대한 토의를 한 것은 어느 때부터였는가。

조 용복 제가 입북하였다가 월남하여 해군 방첩대에 체포되였다가 석방된 익일인 五월 二一일부터 입니다。

검 사 당신들 三인을 입북시킨 자는 누구입니까。

조 용복 미국인들입니다。

검 사 북반부에서 당신들의 신분을 보장해 준 것은 누구입니까。

조 용복 북반부에서 우리들의 신분을 보장해 준 사람은 리 승엽이였습니다。

검 사 피소자는 이미부터 백 형복 및 안 영달과 련계가 있었는데 해군 방첩대에 체포되여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리유는 어데 있는가。

조 용복 그 말을 하지 않은 리유는 나의 정체가 리 승만 경찰 하부 말단에 알려지면 우리들의 비밀이 폭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백 형복은 수일 후에 저를 석방시킬 것이라는 자신심이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검 사 가족을 대동하고 입북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조 용복 첫째로 신임을 받을 조건으로 되며 특히 백 형복은 가족까지 옴으로써 정말 의거 입북한 것같이 가장하려는 것이며 저와 안 영달은 남반부에서 피신하여 온 것같이 보이려는 데 있습니다。

검 사 인민 군대가 먼저 진공하였다는 자료를 날조하라는 미군의 지시를 리 승엽에게 전하였을 때 리 승엽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조 용복 三八선 산악 지대에서 국방군을 인민 군대로 가장시켜 남진시키는 동시에 라디오를 통하여 인민 군대가 침공한다고 방송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검 사 피소자는 어째서 입북 후 휴양소에 가 있었는가。

조 용복 제 몸이 쇠약하였고 안 영달이가 남반부에 있으므로 그와 긴급히 련락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려는 데서였습니다。

검 사 안 영달이나 피소자들이 간첩 자료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조 용복 저희 자신들은 호상 선물을 가져 왔다고 하였습니다。

검 사 저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정 영화 피소자가 인민 검열 위원회 상급 검열원으로 있었는데 리 승엽으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보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상급 검열원으로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조 용복 상급 검열원이 된 것은 실력이나 경력으로 보아 그 자격은 없지만 리 승엽이가 저를 상급 검열원으로 등용한 것은 저와 리 승엽과의 관계를 앞으로 가깝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특별한 보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리 승엽이가 대한 민국과 공화국에 두 다리를 걸고 있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과 피소자 자신이 량 다리를 걸게 된 것과 어떤 련관이 있습니까。

조 용복 저 자신이 일본에서 일본 경찰에 두번、조선에서 일제 경찰에 두번、해방 후 남조선 경찰에 두번、미군 첩보대에 한번 체포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절개를 지키고 큰 과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로부터 석방된 후 백 형복과 안 영달에 의하여 변절하였는가 하면 물론 저 자신이 계급성과 당성이 강했다면 리 승엽이가 변절하였다고 해서 변절할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 해방 후 여러번 체포되여 고문당하고 서북 청년회에 여러 차례 테로당함으로써 심신이 약해진 때에 안 영달로부터 리 승엽이가 변절했다는 말을 듣고보니 지금까지 싸우던 의지가 꺾이고 용기를 잃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경찰로부터 석방되여 나올 당시 안 영달과 백 형복이가 와서 간첩 행위에 가담하라고 요구할 때 거절하다가 나중에 응낙하게 된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조 용복 첫째로 리 승엽이가 변절하였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받은 점과 다음으로는 그로 인하여 제 자신이 생명이나 보존하겠다는 비겁성에서였습니다。

변호인 피소자의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였다고 하는데 몇살까지 부유한 생활을 하였으며 토지 소유 관계는 어떤가요。

조 용복 아버지와 형이 한약방을 하였고 토지는 전혀 없으며 약방 수입으로 중류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대학까지 나온 것은 나의 향학력이 강한 데 있었고 가정에서 전적으로 학비를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경제적으로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김 삼룡、리 주하 동지가 체포된 후 당에서 그 경위를 조사키 위하여 김 용팔을 파견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 용복 김 용팔이가 조사차로 왔을 때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三차로 입북시에 리 승엽으로부터 우리가 김 삼룡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만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지시에 의하여 조작하였던 자료를 김 용팔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재판장 리 주하는 어떻게 되여 체포되였다고 하였습니까。

조 용복 김 삼룡 선생이 체포된 후 김 삼룡 선생의 부인이 련락원과 같이 리 주하 댁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련락원이 체포되여 고문에 못이겨 리 주하 선생의 거처를 말한 결과 리 주하가 체포되였을 것이라고 김 용팔을 통하여 보고했습니다。

재판장 김 삼룡이가 체포된 경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조 용복 그것은 김 형룩이가 체포되여 변절하였는데 김 삼룡 선생의 집을 아는 모 녀성의 집을 김

형룩이가 고백하였고 그 모 녀성을 통하여 김 삼룡 선생의 집을 알고 체포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二차로 간첩 련락차로 입북하였을 시에 리 승엽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습니까。

조 용복 무전 암호 자료를 받았습니다。

판사 박룡순 인민 검열 위원회 상급 검열원으로 있으면서 리 승엽으로부터 반동 분자들의 가족 동향과 아울러 육아원에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조 용복 리 승엽이가 간첩 자료에 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판사 앞으로 그 자료들을 어떻게 리용하려는 줄 알았습니까。

조 용복 반동 분자들을 매수 규합하여 앞으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데 그들을 리용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 검사와 변호인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조 용복 착석하시오。(조 용복 착석하다。)

이미 판정한 심리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다음에는 피소자 리 승엽을 심리하려고 하는데 딴 의견이 없습니까。

검 사 동의합니다。

변호인들 재판소의 재량에 맡깁니다。

(재판소는 즉석에서 평의하고)

재판장 심리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다음에는 피소자 리 승엽을 신문하기로 판정되였습니다。

이제로부터 三〇분간 휴정하겠습니다。(一一시 三〇분)

리 승 엽에 대한 신문

재판장 지금부터 공판을 계속하겠습니다。(一二시)

피소자 리 승엽!

(리 승엽 진술대 앞으로 나오다。)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승인합니까。

리 승엽 네 전부 승인합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경력을 말하시오。

리 승엽 저는 경기도 부천군 부천면 성재리 뱃사공의 아들로 一九〇五년 二월 八일 출생하였고 그후 가정은 인천에 나와서 조그마한 려인숙을 경영했고 저는 인천 상업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소부르조아적 사상이 나에게 생겨났습니다。 三·一운동 당시 저는 학생이였지만 민족적 감정에 휩쓸려 三·一운동에 참가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 관계로 퇴학당하고 일본 선생을 배척했다 하여 취직도 못하고 있다가 그후 일본에 고학하려 갔다가 三개월만에 돌아와서 그 당시 一九세시였으나 독립단에 참가하여 동북에 가려고 했으나 병으로 가지 못하고 二〇세 시에 쏘련에서 나온 사람을 통하여 쏘련에 공부가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일본놈에게 체포되여 또 못가고 그후 민족주의 청년회에 가담했고 一九二三년에 공산 청년 동

맹에 가입했고 一九二五년 九월에 조선 공산당에 가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생활을 보면 어떤 로동 생활 또는 농민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소부르죠아적인 생활이였기 때문에 저는 쓰라린 로동자들의 생활 형편을 알고 진정으로 로동자들이 정권을 잡아야 하겠다는 열망에서 당에 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서적을 보고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적 반항심에서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못되였던 것입니다. 一九二六년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운동에 가담하여 인천에 와서 권 오직, 조 일명과 같이 사업하다가 다시 발각되여 경상도로 피신하여 폐병을 앓다가 어장 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一九三一년 五월 박 헌영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에서 나온 김 형선과 같이 경상남도당 재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등지에 가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농촌에 들어가 농촌 운동을 협력하였습니다. 一九三一년 一○월 혁명 삐라 사건으로 검거되였다가 만기 출옥되여 그후 다시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一九三七년에 다시 검거되여 함흥에서 형을 받고 복역한 후 一九三九년에 출옥되였습니다. 一九四○년에 다시 검거되였는데 일제 경찰이 전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했는데 화요파에 속한 조 봉암이가 같이 있다가 하는 말이 지금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으니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권고하였습니다. 그래 一○일후 변절을 선언하고 석방되여 박 헌영을 만났습니다. 一九四○년 말까지 같이 사업하다가 당시 박 헌영이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가정 살림을 처음 시작한 때이므로 후에 지하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一九四一년 五월부터 一九四五년 六월까지 미곡상 조합 사무원을 거쳐 식량 배급조합 리사까지 하면서 일제 식량 정책을 지지 협력하였습니다. 一九四三년에 일제 패망이 뚜렷이 보이게 되자 저는 영웅주의 출세주의에서 一九四三년 화요파 계통 몇사람과 공산주의자를 모집해가지고 한편으로 려운형과 련계를 가지고 전국 준비 회의를 가졌는데 八·一五 직전에 와서 발각되였습니다. 八·一五 해방 후는 장안 공산당을 조직한다고 거기에 가담하여 제二 비서로 사업하였는데 제 자신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였지만 며칠 있다가 보니까 장안 공산당 내에는 공산당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들이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박 헌영과 공산당을 재전하고 경기도 도당 위원장을 거쳐 중앙당 위원 및 정치 위원으로 사업하다가 一九四六년에 박 헌영이가 입북하자 제가 책임지고 사업하다가 박 헌영으로부터 입북하라는 지시를 받고 一九四八년에 입북해서 공화국 수립 당시 사법상으로 있었습니다.

재판장 미군 간첩과 련계 밑에 간첩 행위한 것을 말하여 보시오.

리 승엽 一九四六년 二월에 빼취와 련계를 맺은 후 공동 피소자 조 일명이 진술한대로 간첩 자료를 제가 직접 빼취에게 三회 제공하고 두번은 조 일명을 시켜 빼취에게 주고 一九四七년 五월에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였을 당시 노불을 만나 노불이 간첩할 것을 요청하기에 그를 승낙하고 그와도 련계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재판장 간첩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리 승엽 一九四六년 二월에 조 일명과 같이 체포되여 저는 본정 경찰서에 구금되여 있으면서 처음에는 괴뢰 경찰들이 신문하다가 다음에는 미국놈들에게 넘겼는데 미국놈들은 저에게 간첩행위를 하면 석방하겠다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하니까 만일 미 군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엄혹한 형벌에 처한다는 데서 본래의 나의 소자산적 계급 사상에서 또는

민족주의 사상에서 비겁한 본성이 나타나 우선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석방된 후 빼취를 만나니 그는 조 일명과 같이 련계를 가지고 사업하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그후 경기도당에서 조 일명을 만나 앞으로 협력하여 간첩 자료를 수집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간첩 자료 수집 련락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주동적으로 하되 저는 공부를 적게 한 관계로 자료만 모아주면 조 일명이가 정리하여 보고하게 하고 一개월 내지 三개월에 한번씩 빼취와 조선호텔 또는 민족 전선 앞에서 만나 전후 세번에 걸쳐 제가 직접 간첩 자료를 주고 조 일명에게 시켜서 두번 제공하였습니다。一九四七년 五월 북반부에서 온 문건을 가지고 박 헌영의 수표를 받으려 가는데 경찰에 발견되여 五리쯤 도망하다 체포되여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였는데 미국인 노불과 장 택상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익 및 중간측까지 포섭한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북반부에서 적색 분자들이 반대하고 또 남조선 공산당이 이를 반대한다。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가담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미군은 환영하며 적극 협력해 주겠으나 해보라고 하므로 저는 비겁성과 반동적 사상에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승인하게 된 리유는 첫째로 저는 일제 시대 혁명 운동에 가담은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고 혁명 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하였다는 정치적 약점이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정권에 대한 야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 회담에서 쓰미 공동 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조선 인민은 통일 정부 수립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간첩 활동에 적극 협력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그후 一九四七년 七월까지 남조선 당 형편과 북조선의 경제 형편과 인민 생활 형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그리고 노불은 덕수궁 뒤 미국 대사관 사택에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므로 저는 왜정 시대 영어를 좀 배웠기 때문에 노불을 三차에 걸쳐 찾아가 만났을 때는 통역없이 의사를 통했습니다。一九四七년 가을 쓰미 공동 위원회가 파탄되였을 적에 제가 노불에게 조선이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니까 그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은 무력으로써도 통일하겠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一九四八년 一월에 노불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하니 노불은 락망하지 말라 조선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그후 五월에 한번 만나 자료를 주었고 다음 七월에 박 헌영으로부터 입북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저는 미국의 지시 밑에 나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데서 노불을 만나서 입북한다는 것을 고하고 一주일 내지 二주일이면 돌아 오겠다고 말했습니다。당시 노불은 나에게 지시하기를 이북 정세를 조사하여 올 것과 만약 월남하기 곤난하면 거기서 사업하면서 간첩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 양양을 거쳐 입북하였는데 입북할 당시 이북에서 저를 더욱 신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대산 빨찌산에 들렸다가 강릉、양양 등을 거쳐 들어왔습니다。그리하여 해주 대표자 대회 직전에 조 일명을 찾아가서 앞으로의 간첩 활동을 토의하고 거기에 대한 루트와 인물을 설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一九四八년 九월초에 안 영달을 박 헌영 집에서 만났는데 안 영달이가 하는 말이 노불을 아는가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한테서 지시받고 왔다고 하면서 간첩 자료를 보내라는 노불의 지시를 전하여 주었습니다。저는 일시 고민하였으나 나의 정치적 야욕에서 노불의 지시에 계속 응할 것을 결의하고 안 영달이가 나가는 편에 공화국 정부의 정강、공화국 내각에 들어간 청우당원 또는 남북 간부들의 비례 혹은 각료 중앙당 부장들에 대한 리력 문건 헌법 초안 등을 보내주었습니다。그 이후에 노불에게 자료를 전달한 정형을 말한다면 조 일명 등 어제 공동 피소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박 승원은 해주에 있으면

서 자료를 이남에 전달할 책임을 지고 렴 화는 중간 련락 책임을 지고 제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 일명이가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전후 六차에 걸쳐 당과 정부의 중요 결정 군사 배치 및 무력 정형 또는 당 중앙 정치 위원회 결정들을 미군에 전달함으로써 미군으로 하여금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一九四九년 말에 안 영달이가 입북하였기에 역시 제가 당 및 행정 부분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안 영달에게 주어 전달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四월 조 용복이가 입북하였을 적에 처음에는 그도 간첩에 가담된 줄 몰랐습니다. 조 용복이가 와서 김 삼룡 선생을 자기와 안 영달이가 체포케 하였다고 하므로 이때 저는 비록 반동은 하지만 저의 동지가 체포되였다는 말을 듣고 다소의 감정은 있었으나 제 죄가 너무 크기에 그에게 이남에 나가서 당신네들이 체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음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五월에 안 영달, 조 용복, 백 형복이가 입북해 들어 왔을 때 중앙당 나의 사무실에서 五월 一〇일경 안 영달을 만났는데 안 영달이가 김 삼룡 선생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불이 지시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즉 백 형복은 내무 기관에 잠입시키고 안 영달은 중앙당에 잠입시키고 조 용복은 적당히 쓰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극동 정책상 조선을 포기할 수 없다. 남북 조선을 미국이 장악해야 하겠는데 이것은 금년에 수행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벌을 해야 하겠는데 세계 인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인민 군대가 먼저 침범한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리라는 노불의 말까지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에 대하여 『인민 군대가 먼저 침공하였다』고 방송하면 된다는 것과 국방군에게 인민 군대의 의복을 입히고 三八선 부근에서 후퇴시키면서 인민 군대가 침공하여 온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안 영달에게 남로당의 책임자로 리 중엽을 지정하고 안 영달에게는 정보 수집 책임을 지우고 앞으로 어떠한 비상 상태가 일어날 때에는 무전으로 련락하라고 하면서 무전 암호와 무전기 一대를 주어 내보냈습니다. 六월 一〇일 안 영달이가 이남에 나간 후 얼마 안되여 인민 군대의 진공으로 서울시가 해방되고 저는 서울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갔는데 七월 一일 안 영달이가 찾아와서 노불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나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극동 정책상 미군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유·엔군의 무력으로써 침공할 것이다. 쏘련은 평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선 전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중국은 전후 복구 건설에 바쁘기에 조선 전쟁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군 대무력을 동원하여 원산,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 이남에 진군한 인민 군대를 포위하고 후방을 차단하여 후퇴가 곤난하게 만들어 섬멸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공할 것이다. 그때에는 당신도 우리도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유·엔군이 침공할 적에 이에 호응하여 평양에서 인민 봉기를 조직하면 유·엔군이 조선 인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표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영달은 이때 중간파와 우익층이 많이 서울에 잠복해 있으니 이들에 대하여 관대 정책을 실시하며 자수케 하여 이들 중 믿을만한 자들을 우리 편에 인입시키고 우리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체포 처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재판장 리 강국을 간첩 활동에 인입한 데 대하여 말하시오.

리 승엽 저는 리 강국이가 一九四五년 八·一五 해방후 서울에서 그가 건국 준비 위원회 서기장 및 소위 인민 공화국 사무장으로 사업할 때부터 알게 되였습니다. 그후 박 헌영의 집에서도 종종 만났습니다. 一九四六년 九월경 미 군정에서 리 강국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 리 강

국은 입북하였습니다。 一九四六년 말경에 제가 당 사업 토의차로 입북하여 박 헌영의 집에서 역시 리 강국을 만났는데 이때부터 친밀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一九四六년 말경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실에서 리 강국을 만나게 되였는바 그때 리 강국은 나에게 말하기를 서울 김 수임이라는 녀자가 반도호텔에 있는데 미군 기관에 취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리용할 수 있는 녀성이라고 나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一九四七년 초순경부터 三、四차에 걸쳐 서울 옥인동에 있는 김 수임의 집에서 그에게 리 강국의 안부를 전하면서 상면하여 보았는데 그를 당 사업에 리용하기는 곤난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김 수임 자체가 미군 헌병 대좌 빼트의 애첩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한편 리 강국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촉감에는 리 강국이가 김 수임을 통하여 빼트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촉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당의 지시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七월경에 입북하면서 안 영달에게 김 수임을 교양주어 리용하라는 과업을 주고 북에 들어 왔는바 一九四八년 九월에 입북한 안 영달을 박 헌영의 집에서 상면하였는데 안 영달이가 하는 말이 노불이 남조선에 보내는 련락 문건은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자기 (안 영달)만을 통하라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김 수임이가 리 강국과의 련계 밑에 빼트앞으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一九四八년 八월에 공화국이 선포될 당시 리 강국이가 외무국장 직위에서 떨어져 정치적 장래에 대하여 실망에 빠졌을 때 박 헌영 집에서 그를 만나 실망하지 말고 또 경솔히 불평을 말고 근신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범죄 활동이 당과 정부의 주목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후 리 강국은 동북 장춘에 소개한 웽그리야 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조선에 다시 이동한 후 一九五一년 一월 중앙당에 인사차로 나의 사무실에 찾아 왔을 당시 마침 림 화가 왔습니다。 이때 저는 리 강국에게 당신 문제는 당에서 잘 해결해 줄터이니 아무 불평도 말하지 말고 또 나와 자주 만나면 제三자가 더욱 의심하니까 좀 삼가자고 말하는 등으로 그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여 주면서 시기적으로 제기된 정치 정세와 관련되는 자료가 있다며는 개별적으로 림 화를 통하여 전하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리 강국은 이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테로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말하시오。

리 승엽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 안 영달이가 중간 및 우익 분자들을 쟁취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기관 간판을 붙이면 공작원이 출입하기 곤난하니까 토지 조사 위원회라는 간판을 붙이자고 제의하므로 그를 승낙하고 안 영달에게 책임지웠습니다。 이 토지 조사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우리들의 비밀을 탄로시킬만한 자들을 처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하였는데 그후 보고를 받지 못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모르나 당시 토지 조사 위원회가 내무 기관 사업을 대행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상부로부터 해산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이것을 해산하고 의용군 본부내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七월 중순경에 의용군 본부에 가본바 당시 二〇명 내지 三〇명이 감금되여 있었으며 저는 고문하는 것을 보고 잘 한다고 격려까지 하였고 피검자들을 속히 처단하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재판장 공화국 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준비와 소위 새 정부 구성에 대한 음모 행위를 말하시오。

리 승엽 무장 폭동을 준비하라는 노불의 지시를 받고 나의 정치적 야심에서 이를 준비하게 되

였습니다。 一九五一년 八월에 중앙당 나의 사무실에서 배 철、조 일명、박 승원 등과 같이 모였을 적에 저는 당시 조선이 처한 군사 정치 정세 즉 미군이 다시 원산 안주 방면으로 올라올 것이 예견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후 저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악이 있기에 이번 기회를 리용하여 나의 정치적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정권을 수립하자고 제의하였더니 그들은 전부 찬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九월에 조일명、림 화、배 철、박 승원 등을 불러다 우리들이 무장 폭동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는 유격대와 금강 학원의 인원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불순한 사상을 주입하는 동시에 우리들을 적극 지지하는 자들을 유격대 또는 금강 학원 간부로 배치할 것과 유사시에 즉시로 동원될수 있게 평양 주변에 금강 학원을 이동해 올 것을 배 철에게 책임지우고 또한 락후한 문화인들을 선전 유인하여 우리 편에 인입할 것을 림 화에게 책임지우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군사 지휘 책임을 김 응빈에게 지우고 정치 책임은 조 일명과 림 화가、참모 책임에 박 승원、저는 총사령의 역할을 하기로 토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미군은 침공해 오지 못하였기에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실천하려는 데서 표면상으로는 유격대와 대남 공작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부대의 인원과 무장을 계속 확대하여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강 학원 학생수를 증가시키고 후비대로서 一九五二년 三월에 유격 지도처 산하 부대인 一〇 지대를 황해도 남연백군 일신면에 창설하여 이것을 남반부 공작 기지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三분지 一은 대남 공작 정치 자금으로 소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기회만 있으면 一〇 지대의 력량을 공화국 정권 전복에 리용하려 했으며 一〇 지대 인원을 四、〇〇〇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하여 오던 중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립후보로 나서면서 새 공세가 예견되므로 공화국 정권 전복에 대한 음모를 다시 적극화하게 되였으며 一九五二년 九월 첫 일요일에 대성산 박 헌영의 집에서 배 철、박 승원、조 일명、윤 순달、림 화 등과 같이 공화국 정권 전복 후 새로 수립할 내각에 대하여 예비적 토의를 하였는바 그 구성을 본다면 수상에 박 헌영、부수상에 장 시우、주 녕하、내무상에 박 승원、외무상에 리강국、선전상에 조 일명、교육상에 림 화、로동상에 배 철、상업상에 윤 순달로 하고 저는 당 제一비서로 토의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측에서 신문하시오。

검 사 피소자가 一九四六년 二월경 조 일명과 같이 경기도경찰에 체포되였다가 빼쥐와 련계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석방되여 서울시 청진동에 있는 백 석황의 집에서 조 일명을 상면하여 앞으로 간첩 활동 대책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리승엽 경기도 경찰에 체포되였다가 석방된 一〇일 후 청진동 백 석황 변호사의 집에서 조 일명을 불러다 만났는데 조 일명은 저에게 빼쥐 밑에서 간첩 활동을 하게 되였다고 말하기에 저는 앞으로 나와 련계를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자는 것을 말하니까 조 일명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정탐 노릇을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 조 일명은 정리하여 미군에 전달하기로 토의하였습니다。

검 사 그때부터 미국 간첩 활동을 시작했는가。

리승엽 네 그랬습니다。

검 사 간첩 활동을 약속한 후 몇번이나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리승엽 빠취에게 제가 직접 세번 전하고 조 일명이가 세번 전하였습니다。

검 사 一九四八년 八월에 입북한 후 기림리 조 일명의 집을 찾아가서 토의한 앞으로의 간첩 활동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하시오。

리승엽 제가 입북하여 조 일명 댁을 찾아가 앞으로 간첩 활동을 할데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여기서 간첩 활동망을 조직하기 위한 인물 선정 문제를 조 일명에게 말한바 조 일명은 해주 제一인쇄소에서 장악하고 있는 루트를 리용할 것과 박 승원에 대한 약점을 말하면서 박 승원이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여 박 승원을 간첩망에 흡수하기로 하고 그후 해주 인민 대표회의에 나가 권 오직의 집에서 박 승원을 만나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토의하였습니다。다음 림 화를 소개 받아 앞으로 간첩 활동을 확대할 데 대한 것을 토의하고 모든 자료를 수습하여 안 영달을 통하여 빠취에게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 사 一九四九년 옹진 양양 등 三八선 지역을 시찰한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리승엽 三八선을 시찰하게 된 것은 간첩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였으며 옹진에서 양양까지 三八선을 돌아 보고 제가 직접 본 것들로 자료를 만들어 빠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 사 당시 그 자료를 제공한 결과 미제에 어떠한 리익을 주었습니까。

리승엽 그들에게 三八선 무력 배치 정형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리익을 주었습니다。

검 사 당신은 자기의 진술에서 자기가 량면주의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량면주의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리승엽 초기 미군과 쏘련군이 주둔하였을 당시에는 량면주의자였지만 지금 와서는 량면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미 제국주의의 주구로서 그들의 지배 밑에 한자리 해보려는 반역자입니다。

검 사 一九五〇년 七월 노불이 퇴각하면서 안 영달을 통해 당신에게 전한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리승엽 一九五〇년 七월 초에 제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갔을 때 안 영달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노불이 서울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전쟁 초기에 일본군과 유·엔군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리 승만은 국방군에 큰 기대를 걸기에 국방군에게 북벌을 맡겼더니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 국방군은 믿을 수 없다。벌써 의정부가 떨어지고 서울이 떨어지게 되였으며 지금 정부의 간부들은 퇴각하고 있다。그러나 락망하지 말라。미국은 극동 정책상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九월달에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천、원산 등에 상륙하여 인민 군대의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 섬멸하고 압록강까지 진공하게 될 것이니 이때에 리 승엽은 평양에서 인민 봉기를 조직하라고 말하였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검 사 六·二八 후에 서울에서 책동한 내용을 말하시오。

리승엽 안 영달을 시켜서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수 운동을 추진하여 一、〇〇〇여명을 체포하였는데 그 중에는 반동 분자도 있고 변절자도 있었습니다。여기서 변절자를 리용하려고 했고 또 우리들의 비밀을 아는 자는 처단하였습니다。그런데 토지 조사 위원회는 내무 기관 사업을 대행한다는 리유로 해산당하므로 의용군 본부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제가 의용군 본부 특수부에 시찰 나가본즉 三〇명 가량 체포되여 고문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저는 이것을 보고 잘한다고 말했으며 속히 처단하라는 과업을 주였습니다。그 다음으로는 중간 우익층을 찾아다니면서 표면으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들

이 호감을 살 수 있는 언사를 쓰면서 그들을 나의 주위에 집결시켜 나의 정치적 야욕을 만족시키려 하였습니다。

검 사 괴뢰군을 려관에 합숙시킨 일이 있는가。

리승엽 제가 그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으나 괴뢰군을 합숙시키는 려관에 가본 일은 있습니다。

검 사 림 화를 시켜 서울에서 간첩 자료를 수집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시오。

리승엽 림 화에게 인민 군대 및 공화국 정부와 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라는 과업을 주어 수차 보고를 받았고 또 각 구역 인민 위원회를 통하여 인민들의 동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검 사 무장 폭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습니까。

리승엽 무장 폭동 준비로서 배철、 박 승원으로 하여금 금강 학원에 인원을 증가케 하고 저희들에게 충실한 자들로써 간부를 교체하고 학생들에게 불순한 사상을 주입시켰고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구실로 지형 조사와 인민들의 동향、 경제 정형 등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남반부 사람들로 조직할 것과 한편 옹진 남연백 방면에 괴뢰군 공격대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에 혼란을 가져 왔으므로 이를 리용하여 농사 둔병제를 두어 경제적으로나 무장력으로나 독립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선 남연백에 유격 一〇 지대를 조직하고 맹 종호를 지대장으로 파견하였으며 나는 六차에 걸쳐 이곳을 시찰하면서 그들을 고무 추동하여 유격 대원을 四、〇〇〇명까지 확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四、〇〇〇명이 모두 저희들을 따라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무장력량을 확대하는 데 많이 치중하는 한편 근거없이 불평부리는 불평 분자、 남반부에서 투쟁을

포기한 자 등을 우리 주위에 규합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검 사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할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리승엽 저는 본래 경기도 출신이며 아는 사람도 있고해서 나의 군중적 토대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대남 공작이라는 구실로 친근자들을 파견하여 二〇만명 가량 되는 주민들에게 리 승엽을 지지하는 사상을 주입시키며 경제적 독립을 구성함으로써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검 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리승엽 물론 미국놈은 리 승만을 적극 후원할 것은 사실이고『너 떡 먹어라』하고 리 승엽에게 정권을 주기는 만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만 내가 이제는 갈 길이 없어서 발악적으로 시도해 보았을 뿐입니다。

검 사 유격대 一〇 지대와 금강 학원 이동 문제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리승엽 금강 학원이 평양으로부터 멀어서 가까운 데로 옮기고 무장 폭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를 옮기려고 기도하였으나 실지로 이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검 사 당신은 안 영달이가 살해된 사실을 아는가。

리승엽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치하였는데 김 삼룡 선생 체포 사건에 안 영달이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돌기 때문에 박 헌영에게 보고한즉 빨찌산에 내보내서 처단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하므로 림 종환에게 처단하라는 과업을 주어 그의 빨찌산 부대에 소속시켜 전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검 사 당신이 기도하던『새 정부』와 리 승만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리 승엽 우리들의 시도는 결국 공중 루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남조선에는 김 성수와 리 승만 두파가 싸우고 있는데 미국놈은 리 승만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이것으로 보아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반 나눠 줄 리는 없습니다。미국놈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데 우리들을 리용하다가 결국 우리를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노불이 말하기는 당신은 장변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으며 정권을 주겠다고는 하였으나 그것은 가망성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사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 정부를 전복한 후 수립할 새 정부의 정치적 방향과 형식은 어떤 것인가。

리 승엽 저는 자기의 죄과로 인하여 미제의 간첩으로 전락되여 그들에게 리용되였고 만일 기회가 있어 정권을 얻는다면 좀 살아보고 못되면 죽든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새 정부를 망상은 하였으나 구체적 계획도 없는 최후 발악이였고 설혹 정권을 잡는다면 소부르죠아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되였을 것입니다。

검 사 조 용복의 말에 의하면 피소자는 공화국과 대한 민국에 량 다리를 걸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

리 승엽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여 있는데 공화국을 반대하고 미국을 도와주는 제가 두 다리를 걸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나의 사상이 그릇된 데서 미국놈을 백방으로 믿고 미국놈을 도와 준 것입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지 영대 노불이 자기와 련계를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면 어떤 몇가를 준다고 약속한 일은 없습니까。

리 승엽 경제적 보수는 약속한 바 없었으나 정부를 구성한다면 한자리 준다고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미국놈의 감언 리설에 속은 것은 저의 비겁성에서입니다。

변호인 공산주의자에게 비겁성이 있습니까。

리 승엽 공산주의자에게는 비겁성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연히 당에 잠입한 자이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변호인 八·一五 전에 이미 변절하였는데 일제 패망 후 다시 당 사업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리 승엽 한몫 끼여 출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한몫 끼우려면 우익 정당도 많은데 하필 왜 공산당에 들어왔습니까。

리 승엽 반동은 사멸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안 영달 사망 후에도 간첩 자료를 수집하였습니까。

리 승엽 그 후에도 자료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안 영달이를 경기도 위원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리 승엽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어떤 때는 추천하고 어떤 때는 처단하는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리 승엽 저희들의 심복이기에 한때는 그를 높은 자리에 추천하였으나 저희들의 죄행이 폭로될 것을 겁내고 그 범죄를 음폐하기 위해서 처단한 것입니다。

변호인 범죄 과정에 자기 반성해 본 일이 있습니까。

리 승엽 부끄러운 말이지마는 五차 전원 회의 후에 반성했습니다。

변호인 조 용복을 시켜서 반동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조사한 원인은 어데 있습니까。

리 승엽 합법적 방법으로 간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였음을 고백합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정권을 잡자는 것은 한개 환상에 불과하고 미국놈들에 리용되고 만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생각입니까。

리 승엽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

재판장 그 당시의 의도를 답변하시오。

리 승엽 그때는 물론 환상은 아니였습니다。 미국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부 믿지는 않았으나 노불이 말하기를 리 승만은 로후하고 그 외에는 인물이 없다。 당신은 나이도 장년이고 유망하니 정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해주리라는 것을 믿었지만 쏘미 공동 위원회 당시 저의 신변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데서부터 미군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시작한 일이며 충실히 한다면 한자리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놈의 세력에 의존하여 변생된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리 승엽 저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진공해 올 때 그와 호응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미군의 지시 밑에 반동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간첩 자료들의 중요성과 그것을 미국놈에 줌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까。

리 승엽 첫째로 미국이 알고싶어 하는 인민 군대의 무장력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적에게 유리하게 하였고 둘째로 공화국의 물질적 토대인 산업 발전 정형에 대한 자료를 알게 하는 것이며 세째로 인민들의 동태를 알림으로써 공화국 정부에 대한 인민의 지지 정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리 승엽 미국놈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八·一五 직후에 피소자의 정치적 사상적 배경은 어떤 것이였습니까。

리 승엽 저는 박 헌영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장안 공산당 당시부터 박 헌영의 반동적 사상 영향을 받았으며 그를 정치적 배경으로 생각했습니다。

판사 박경호 매국 역도 리 승만과 박 헌영과의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리 승엽 八·一五 직후 서울에서 저희들의 사업한 정형부터 말하겠습니다。 조선은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해방되였다는 것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는 사실이였습니다。 그것은 실례로서 해방 직전 내가 충청남도 어느 곳에서 기아상태에 빠져 길바닥에 누워 있을 때 들은 것인데 한 농민이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보고 『쏘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을 해 무엇하는가』고 한것 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박 헌영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북조선에 쏘련 군대가 진주하였는데 서울안에서 단독히 공산당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 헌영은 그 당시 말하기를 조선 인민은 자기 힘으로 조선을 해방시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박 헌영 자신은 조선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

보다도 해외에서 일제와 투쟁한 애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헌영은 서울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먼저 나서서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표현이였습니다。

一九四五년 九월 六일 우리가 서울에서 소위 인민 공화국을 조직할 때 박 헌영도 참가하였는데 정부 구성은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구성한다는 그 자체로 보아도 박 헌영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친미파 장 개석파와 결탁하여 민주 력량을 배제하고 박 헌영과 저와 리 강국은 리 승만 김 구 등등을 추대하는 인민 공화국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一九四五년 一二월에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 내용도 모르고 반대했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쏘련이 참가하여 결정한 것이니 진정으로 조선 인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쏘련이 약소 국가에 대하여 해로운 결정에 참가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헌영은 당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을 지지하고 반대 성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박 헌영의 조종에 의하여 우리가 반역적 행위를 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범죄적 행동에 대하여 박 헌영에게 보고하였거나 또는 토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 헌영은 공화국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근거없는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우리들의 행위를 묵과하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 헌영의 친근자가 될 수 있었고 그와의 일상적 련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 사 피소자가 반역 행위를 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리유는 무엇인가。

리승엽 사상적 근본이 나쁜 데서 일제시부터 혁명에서 변절하였고 미국인에게 이 약점을 잡힌 데로부터 그에게 일단 매수되고 보니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범행하게 되였다는 말입니다。

판 사 어떻게 되여서 박 헌영의 집에서 번번이 음모 공작을 하게 되였는가。

리승엽 최초에는 제가 집이 없는 관계로 박 헌영의 집에 있었고 그 집 응접실은 대남 공작을 하는 서 득은의 사무소로 되여 있는 관계이며 특히 박 헌영은 저와 같은 불순 분자들을 잘 비호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인들에게) 보충 신문할 것이 있으면 신문하시오。

검 사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오후 四시 三〇분까지 휴정하겠습니다。 (二시 一〇분)

리 강국에 대한 신문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리 강국! 자기의 경력을 말하시오。

리 강국 저는 一九〇六년 二월 경기도 양주군의 지주 리 기태의 二남으로 출생하였고 제가 三세시에 토지 일부를 팔아 가지고 부친이 서울에 가서 살았고 차츰 파산 지경에 이르러 충남 영산을 비롯한 각지의 친척집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후 보성 중학교에 편입하여 특대 면

비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민족주의 사상이 배양되고 반일 감정이 폭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一九三〇년 경성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대학에서 일본인 교수 미야께로부터 맑스 레닌주의를 배웠습니다. 교내에서 합법적 맑스 레닌주의 써클을 만들고 연구하였으나 이것은 제가 진정한 맑스 레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맑스 레닌주의는 학계를 풍미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호기심과 공명심에서입니다. 동 대학 연구실에서 二년간 공부하고 一九三二년 처남 조 준호의 경제적 원조에 의하여 독일 백림 대학에서 三년간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독일 계통이고 독일은 사회주의 운동이 강하였고 미야께가 독일에서 돌아 왔기에 제가 독일로 류학가게 되였던 것입니다. 一九三二년 五월 독일에 도착하여 재독일 공산주의자를 만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프로레타리아 과학 동맹에 가담하였고 혁명적 아세아인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一九三二년 一〇월 독일 공산당에 가입하여 일본인 그루빠 책임자로 있였습니다. 一九三五년까지 공산주의 실천 활동을 전개하다가 三년간으로 약속한 학비 관계도 있고 또 본국에 가서 운동하겠다는 데서 一九三五년 一一월말 귀국하였습니다. 미야께 교수 사건 관계자라는 리유로 귀국 즉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였으나 기소 유예로 석방되였습니다. 그후 처남 조 준호가 경영하는 증권 회사의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부화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一九三六년 四월 리 주하와 같이 원산 적색 로조와 관계를 맺고 一九三八년 一〇월 원산 사건이 발각되였는데 이때 저는 지하로 들어가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피신 생활을 하다가 동년 一二월 체포되였습니다. 一九四一년 五월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동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一九四一년 五월에 예심 종결이 되자 『공산주의 실천 운동에서 손을 뗀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포기할수 없다』라는 전향문을 쓰고 보석으로 석방되였습니다. 一九四一년 五월에 출옥하였다가 다시 체포되여 一九四二년 五월에 二년 징역을 五년간 집행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고 석방되여 一九四二년 五월부터 八·一五까지 대화숙 회의에 참가하거나 신궁 참배를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면서 술, 마장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제시에는 변절은 했으나 일제에 협력은 말자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조 준호의 경제적 원조는 나의 부화한 생활을 조성하였으나 타방 제가 적극적 친일파로 안된 요인으로도 됩니다. 일제 말기에는 최 용달과 같이 해방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八·一五와 동시에 저는 민주주의 진영에 나섰습니다. 그 리유는 ① 자기의 과거 생활을 비판할 여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것 ② 세계 정세를 약간 알았기에 민주 진영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을 리해하고 민주주의자로 가장하였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 달성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미제와 련계를 가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려 운형의 지도 밑에 건국 준비 위원회 사업에 참가하였고 박 헌영의 공산당 조직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철저하지는 못하나 속죄의 정신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열성을 발휘하려고 하였습니다.

一九四五년 九월 소위 인민 공화국 조직에 참가하여 서기장이 되였고 一九四六년 六월부터 민전 사무국장으로 사업하면서 一九四六년 九월 하지의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선언서를 발표한 관계로 체포령이 내리자 박 헌영의 지시로 곧 입북하였습니다. 입북 후 박 헌영의 신변인으로서 一九四六년 一〇월부터 一九四七년초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一九四七년 二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으로 있다가 一九四八년 九월부터 상업성 법규부장으로 있었고 一九五〇년 一一월부터 인민군 제六九호 병원 원장으로 사

업하다가 一九五一년 一월부터는 七二호 병원장으로 있었고 一九五二년 一一월부터 무역성 일반 제품 수입상사 사장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사업하였습니다.

재판장 미국 간첩과 련계를 맺게 된 경위와 그후 간첩 활동 정형을 말하시오.

리 강국 공동 피소자들이 불가피적으로 미제 간첩으로 전락되였다면 저는 자원적인 미제의 주구입니다. 그러므로 더 악질적이라고 자인합니다. 미제의 주구로 된 원인은 제가 세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르죠아적 자유주의 사상 잔재가 농후한 데서 미국을 높이 평가하였고 미국 세력에 의한 조선 해방을 몽상하여 왔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류학시 미국인 크로리를 알게 되여 크로리와 담화 중에 그는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맑스주의에 동정함을 느끼고 그와 련계를 맺게 되였습니다. 一九三五년 귀국시에 미국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조선 해방에 관심을 둔다고 하기에 호상 련계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귀국 후 련락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때 크로리가 첩보 기관에 관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인 공산주의자라는 사람 二명까지 만나 담화하였습니다. 귀국 직후 일제의 탄압과 나의 안일을 위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미국인과의 련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一九四二년 김 수임을 알게 되여 미국과 손을 잡을 길을 찾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현 못하였습니다. 八·一五 해방후 저는 남조선이 미제에 강점된 데로부터 더욱 미제와 련계를 맺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기회가 없어 하지, 빼취와는 다만 공적 관계만 맺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과 련계를 맺으려는 데서 김 수임이가 반도호텔에 취직하는 데 동의하였고 一九四六년 六월 김 수임이는 나에게 헌병 사령관 빼트와의 련계가 되였다는 것을 알려 주므로 즉시로 빼트와 상면하고 호상 협력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미 군정을 비판한 때이기에 은밀히 미 군정청을 지지하는 태도로 나섰습니다. 그후 남에서는 기회는 없었으나 一九四六년 六월 미제가 획책한 좌우 합작 공작에 순응하였고 一九四六년 八월—九월 三당 합당 문제가 제기되자 미 군정은 이를 방해하였는데 이때 저는 표면적으로는 三당 합당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내막으로는 이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一九四六년 九월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 리유는 저 자신은 미제의 세력을 나의 정치적 야욕에 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군 간첩과 련계를 맺고 있었으나 당시 표면상 민전 서기국장으로 있으면서 미 군정의 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체포령이 내리자 당에서 숨으라는 지시에 의하여 김 수임의 집에 숨었다가 박 헌영의 지시로 입북하게 되였는데 저는 입북하고도 미제와 련계를 취하기 위하여서와 또 三八선까지 헐하게 오는 수단으로 빼트를 만났더니 빼트는 체포령은 하지의 명령이니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입북한 후에도 협력하자고 하며 그의 요구는 ① 김 수임을 민주 진영과 련계를 지어줄 것 ② 미군이 이북에 잠입시키는 자들을 옹호하여 줄 것 ③ 우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 줄 것 등이였습니다.

一九四六년 九월 一三일 빼트가 소개한 미국인 차로 서울에서 개성까지 와서 개성에서 최 만용의 안내로 입북하였습니다. 입북 후 저는 미국인 차를 타고 왔다는 것을 박 헌영에게 말하니 박 헌영은 그런 말을 하면 의심을 받으니 말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북후 친우를 물색하였는바 즉 남조선 출신 불평 분자를 중심으로 하되 권 오직, 한 병옥, 장 시우, 박 승원, 림 화 등과 친교를 맺고 입북 후 빼트의 요구를 실천키 위하여 一九四六년 一〇월 서 득은에게 김 수임을 리용하라고 권고하였고 또 一九四六년 一二월에는 리 승엽에게 김 수임을 소개하는 방법을 획책하였으며 一九四七년 一월부터 一九四八년 五월까지 五차 정보를 제

공하였는데 그 방법은 당 련락원으로서 나의 비서인 신 태희를 리용하여 그 편에 정보 자료를 주어 월남시켜 김 수임에게 보내여 김 수임이가 빼트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一차는 一九四七년 三、四월경인데 一九四七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서 二차는 一九四七년 八월에 쏘미 공동 위원회에 대한 쏘련측과 북조선측의 태도와 북조선 인민 위원회 기구표 三차는 一九四七년 一二월 평양 학원 금강 학원을 견학하고 그 무장 상태 훈련 등이 정규군과 같다는 세밀한 내용 四차는 一九四八년 三월 一九四七년 인민 경제 계획 실천 정형 五차는 一九四八년 八월인데 八·二五 총선거를 위한 문건들과 간부 책벌 결정을 위시한 一九四八년도 북조선 인민 위원회 결정 등과 아울러 이 외에 날조 문건 二건이 있는바 ① 쏘련군 사령부의 간섭이 있다는 것 ② 화폐 개혁으로 소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였기에 인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행위의 정체는 일조 일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저는 미제와 련계 밑에 수집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一九四八년 八월 이후에는 련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작이 중단되였으나 이것은 제가 개심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실각으로부터 위축된 까닭입니다。 一九四八년 七월 미군 간첩이 파견한 현 애리스와 리월리암이 래방한 일이 있었고 一九五〇년 이 자들이 재차 와서 내가 미군과 련계를 취하는 것을 안다는듯이 표시하면서 자기들은 미군 간첩이라는 것을 말하고 협력을 요구하므로 저는 충분히 생각해서 후일 만나자고 하였는데 그 후는 그들이 안오므로 간첩 련계는 맺지 못했습니다。

一九五一년 六월 당 간부부에 갔다가 리 승엽을 만나니 리 승엽은 나와 종종 만나는 것은 좋지 못하니 전달할 자료가 있으면 림 화를 통해 달라고 하므로 저는 여기서 전달할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간첩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감하고 이를 응낙하였습니다。 제가 간첩 자료라고 직감한 리유는 ① 리 승엽에게 김 수임을 소개한 후 리 승엽은 김 수임을 인입했다고 말한 바 있고 ② 一九四八년 八월 후는 김 수임으로부터 련락이 없기에 김 수임은 나와는 련계를 끊고 리 승엽과 직접 련계를 맺는다고 생각한 것과 ③ 리 승엽은 나에게 신변을 주의하라는 충고를 준 일이 있었고 ④ 리 승엽은 저를 등용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에서입니다。

리 승엽의 요구에 대하여 저는 그리 큰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리 승엽이가 간첩이라는 나의 추측에 있어서 리 승엽이가 미제의 주구라는 점에서는 반은 맞고 리 승엽은 제가 김 수임을 소개하기 이미 전부터 미제의 간첩이였다는 점에서는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때로 제가 리 승엽을 김 수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리 승엽이가 간첩이 된 것인가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여론을 알리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체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림 화에게 말하여 그 중에서 림 화가 자료를 취사하여 리 승엽에게 제공케 하였습니다。 제가 림 화에게 전한 내용은 림 화의 진술과 동일합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피소자가 진술한 리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소자가 걸어온 길과 실지 행동과는 모순되지 않는가。

리 강국 모순됩니다。

검 사 류학한 목적과 공산주의 크룹에 참가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리 강국 맑스주의를 연구하려고는 했으나 그후 활동을 비판해 본다면 저는 계급적 리해라든가

조선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 류행식 맑스주의 조류에 인입되여 일종의 공명심 출세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 사 一九四一년 五월 리 주하와 같이 로동조합 사건에 가담한 목적은 무엇인가。

리강국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명심、정치적 야망에서였습니다。

검 사 해방 직후 박 헌영의 테제인『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지지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리강국 이는 나의 변절적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이와 같은 데서 八·一五후 명확한 태세를 파악치 못한 데서였고 한편으로는 박 헌영과 협력하면 나의 출세주의적 숙망이 달성될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그 테제의 내용이 반당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당을 소부르죠아 정당화하는 그러한 로선이란 것을 알면서 무조건 지지하였습니다。

검 사 박 헌영의 그 테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리강국 테제 초안을 토의할 때부터 나는 참가했는데 그 테제는 공공연하게 우경적 종파주의적 반당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나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지한 것은 나의 출세주의적 욕망이 혁명의 리익보다 컸기 때문에 그를 달성하기 위하여 박 헌영의 비위에 맞추자는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 사 (재판장에게) 리 승엽에게 좀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

검 사 리 강국에게 림 화를 통하여 간첩 자료를 내라고 한 사실을 승인하는가。

리승엽 네 승인합니다。

검 사 리 강국이가 보낸 간첩 자료를 몇번이나 받았는가。

리승엽 림 화를 통해 네번 받았습니다。

검 사 리 승엽에 대한 신문은 끝났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 앉으시오。

검 사 입북 후 박 헌영에게 보고한 내용을 말하시오。

리강국 제가 남반부에서 한 행동 전부를 다 보고하지는 않았고 다만 몇개의 사실들과 친한 녀자의 알선으로 미국 자동차를 타고 왔다는 것을 말한즉 박 헌영은 그런 말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충고하면서 그 녀자란 어떤 녀자인가고 묻기에 저는 당내에서 일반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검 사 언제부터 리 승엽이가 간첩 두목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리강국 一九四八년 九월부터 그가 미국 간첩에 걸렸으리라고 생각은 했으나 一九五一년 七월에 와서 그로부터 정보 수집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적에 비로소 간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검 사 피소자는 자발적으로 미제에 가담했다고 했는데 다른 피소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리강국 저는 사상적으로 다른 피소자들보다 더 나쁘고 더욱 악질적이고 해방 전부터 계속된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검 사 당신은 국제 간첩과 련계를 맺었다는 것을 승인하는가。

리강국 네 승인합니다。

검 사 김 수임의 소식을 그후 들었는가。

리강국 들었는데 그 내용은 김 수임이가 一九五〇년 미국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 사 한 병옥、장 시우 기타 등등의 사람들로부터 간첩 자료를 제공받은 일이 있는가。

리 강국 그것은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담화 과정에서 내가 수집한 것입니다。

검 사 수집한 정보 자료를 리 승엽에게 넘긴 리유는。

리 강국 그것은 미제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길 병옥 빼트와 련계를 맺고 남반부에서는 정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없습니까。

리 강국 그때는 없었습니다。

변호인 김 수임을 리 승엽에게 소개한 리유는 무엇입니까。

리 강국 빼트의 요구대로 김 수임을 남로당에 련결시켜 주려는 데서입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빼트로부터 받은 임무를 입북하여 수행하였는가。

리 강국 수행하였습니다。

재판장 모략 행위는 일상적으로 하였다는 기소 사실을 승인하는가。

리 강국 네 승인합니다。그 대상은 박 헌영의 직계 졸도들인 리 원조、박 승원、한 병옥、권 오직 등입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정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리 강국 미제의 전형적 주구입니다。

판 사 박경호 김 수임은 피소자의 처인가。

리 강국 처는 아니고 다만 애인입니다。

판 사 크로리、현 애리스、리 월리암 등의 정체는?

리 강국 그들은 모두 미국의 간첩들입니다。

판 사 당신의 모략 행동의 배경은 누구인가。

리 강국 박 헌영입니다。 그는 저에게 미제의 주구가 되라고 직접 말한 일은 없으나 그는 우리를 불순한 방향에로 지도하고 불순 분자를 리용하여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려고 한 점이라든가 또는 종파 행동에 대한 비판 검토는 없고 무조건 신임하는 것이 그의 도리로 되였었다는 것이라든가 리 승엽 조 일명이 서울에서 一九四六년 초에 체포되였을 적에 이들에 대한 석방 항의를 박 헌영이가 하고도 그들이 석방된 후 하등의 검토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저희들의 간첩 행위의 보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림 화에게) 리 강국이가 진술한 데 대하여 딴 의견이 없습니까。

리 승엽 림 화 없습니다。

재판장 三〇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六시 三〇분)

* * *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七시)

변호인 김 문평 림 화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니 퇴정하여 치료할 것을 허용하여 주기 바

랍니다。

재판장 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 사 딴 의견이 없습니다。

재판장 (림 화에게) 퇴정하여 치료를 받으시오。

배 철에 대한 신문

재판장 배 철! 경력을 말하시오。

배 철 저는 一九一二년 一월 六일 개성시 남본정에서 자유 로동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七세 때에 부친은 개성 남산 병원에 들어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제가 一〇세 때부터 기독교 전도사로 있는 관계로 생활은 풍부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부친은 부화한 생활로 인하여 전도사의 직위에서 떨어져 잡화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렇게 되여 가정은 더욱 부유하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부르죠아적 사상이 충만되였고 오늘과 같이 당과 국가를 반대하는 범죄를 감행할 요소가 배양되였습니다。

저는 一九二七년에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四월에 서울 중앙 고등 보통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권 도규로부터 민족주의 사상 영향을 받아 오던 중 동맹 휴학을 한 관계로 정학 처분을 당하게 되자 그후 一九二八년 四월 개성 송도 고보에 편입되여 여기서 박 락수를 만나 맑스 레닌주의적 교양을 받고 독서회를 조직하였고 一九二九년 광주 학생 사건 당시 송도 고보 투쟁 위원회 책임자로서 동맹 휴학 시위 등을 조직한 관계로 경찰에 체포되여 四개월간 구금되였다가 불기소로 석방되였습니다。그후 서울에서 기독교 계통 청년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一九三一년 三월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 사회학과 야간부에 입학하여 여기서 좌익 학생 투쟁에 가담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사상적으로 무장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학생들 간에 류행된 좌익 운동에 휩쓸려 따라간 것입니다。

공산 청년 동맹에 가담하여 동맹 사업을 진행하다가 체포되여 四개월간 감금되였다가 一九三二년 四월에 석방되여 一九三二년 一〇월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반제 동맹 관동 지구 서기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체포되여 一九三三년 六월 불기소로 석방되여 동년 九월 귀국하여 一九三四년 九월 광량 학원 교원으로 있다가 경찰의 간섭으로 퇴직하고 一九三五년 초에 일본에 가서 동경 제판소 직공으로 들어 갔는데 그 동기는 로동을 하며 맑스 레닌주의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四년간 일하며 로동자 二、三명을 좌익 진영에 쟁취하였고 년말 수당금 투쟁으로 인하여 퇴직당하였습니다。그후 일본 적색 투쟁 동지를 만나 써클을 조직하고 좌익 서적 수집에 노력하다가 一九四〇년 四월 피검되여 一년 후 불기소로 석방되여 一九四一년 七월 일본 수산 주식 회사 제빙공으로 일하면서 김 경제、김 명학、기지이 고지마 등과 련계를 맺고 공작하였습니다。八·一五 후 일본 도꾜에서 재일본 조선인 련맹을 조직하고 저는 중앙 련맹 조직부장 겸 애국 투사 구호 위원회 재정 책임을 담당하고 민주주의 인사 구국 투쟁 협회에 참가하였고 一九四五년 一〇월 一四일 일본 공산당 조선인 위원회 위원으로 되고 재일 조선인 련맹의 지시에 의하여 재일본 조선인 련맹 서울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一九四

六년 一월 서울에 왔습니다. 민전 상무 위원을 거쳐 서울시 민전 부위원장 공작을 하다가 一九四七년 一〇월 중앙당 지시에 의하여 경북도당 책임 지도원으로 파견되였고 一九四八년 五월 一〇일 단선 반대 투쟁 후 전라남도 도당 수습 책임을 지고 내려갔다가 괴뢰 경찰에 체포되였으나 八·一五 선거 무렵 상인으로 가장하고 석방된 후 경북도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一九五〇년 八월 三一일 안동에서 신임 위원장에게 도당 사업을 인계하고 九월 二四일 출발 후퇴하여 一九五一년 四월말 최고 사령부 유격 지도 처장을 거쳐 一九五一년 八월 련락부장으로서 피검전까지 사업하였습니다.

재판장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무장 폭동을 기도한 데 대하여 진술하시오.

배 철 一九五一년 八월말 리 승엽과 같이 무장 폭동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음모는 六·二五 직후부터 시작되였던 것입니다.

이번 음모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 죄악을 회고하여 본다면 제가 련락부장으로 된 첫날 박 헌영은 말하기를 남반부 당이 파괴된 조건하에서 북에 있으면서 지도하는 것은 곤난은 하나 그러나 해야 한다, 중요한 간부를 금강 학원에 집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리 승엽은 남에서는 지하 당과 유격대는 한개의 통일적 체계인데 여기서는 이를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고 또 정전이 되면 우리에게 개성만 주어도 좋겠다라고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박 헌영의 말은 세력을 북에 집결시킨다는 것인바 중요 간부를 남에 보내지 말고 금강 학원에 집결해 두자는 것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략은 무장 폭동과 련계가 있었습니다.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경 리 승엽으로부터 『미해방 지구에 있어 우리당 사업 강화 방침에 관하여』 라는 정치 위원회 결정서 초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박 승원과 같이 오라기에 갔즉 거기에는 이미 림 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전시 결정을 우리의 악당들의 음모 공작에 적응되게 기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좌석에서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공화국 정부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의 말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현존 정권을 전복할 데 대한 음모적 의도를 제시한바 모두 이를 찬성하고 무장 폭동을 조직 진행할 데 대하여 결의 찬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박 헌영의 반역적 정치 로선을 실현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폭동 조직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숙되였던가 하면 그것은 되였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미제를 배경으로 하여 그의 비호하에서 전쟁으로 인한 곤난한 조건을 리용하여 이를 감행할 수 있다는 조건과

二、二차에 걸치는 후퇴를 통해서 남조선에 있던 우리의 심복들이 대부분 입북하여 우리 세력의 토대가 형성되였다는 점과

三、련락부가 조직됨과 함께 남반부 지하 당과 유격대를 일원적으로 박 헌영, 리 승엽의 직접 지도하에 두고 유격대와 각 련락소에 배치된 무장 력량이 우리들 배하에 있다는 것과 급속히 이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우리는 폭동 조직의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박 헌영의 로선에 립각하여 그의 지휘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의 증명으로서는 박 헌영이가 어느날 유격대 간부를 남조선에 내보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지시하였는바 이것을 분석하면 우리 력량을 집결하라는 것이고 다음 박 헌영은 말하기를 김 삼룡, 리 주하가 죽음으로써 남반부에서 사실상 우리 기반이 무너졌다고 하였는

데 이것을 분석하면 이는 나머지 당 간부는 다 박 헌영 주위에 집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몇가지 례만 들어도 이러합니다。 이때 마침 리 승엽을 부수상으로 등용한다는 설이 있었는바 그렇다면 결국 허 가이만 제외한다면 내각의 실권이 남조선 출신자에게 장악될듯 하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합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쟁탈할 수 있는 기회로 된다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리 승엽은 부수상으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장 폭동의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一九五一년 八월말경 미제의 추기 공세를 리용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一九五一년 九월 초에 리 승엽 사무실에서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저 자신과 박 승원 등이 모여서 무장 폭동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공을 조직하였는바 폭동 사령부를 조직하고 폭동 참모부는 당 련락부내에 두며 무장 력량은 금강 학원 유격대 一〇 지대와 각 련락소 성원들로써 충당하고 미군의 추기 공세를 리용하여 당 정권 기관이 혼란된 모멘트를 리용하여 폭동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에 림 화를 위시한 불순 문화인들은 폭동 성공을 위한 문화 선전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불순 분자들을 골간으로 남조선 출신 간부 일체 남로당원들에게 현존 당과 정권들의 시책을 외곡 선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박 헌영과 리 승엽의 주위에 전체 력량을 집결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위하여는 당 련락부를 도용하는 것으로써 그 조건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타산하였습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리 승엽은 미군은 원산과 안주 지구로 상륙하여 조선을 량단하는 방법으로 강점하려는 것이니만치 우리의 무장 력량들을 평양 근처에까지 이동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리 승엽의 제의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금강 학원을 평양 부근 중화로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전쟁 정세가 인민 군대의 견고한 방어로써 미군 진공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지반이 튼튼한 서흥에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선의 정형으로 말미암아 무장 폭동은 일시 연기하고 계속 력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무장 폭동의 실현을 위하여 유격대 중에서 신임할 수 있는 자들을 다수 선발하여 금강 학원에 집결시켜 금강 학원을 一、二〇〇명에까지 증강시키였습니다。

동시에 무장 력량의 강화를 위하여 당 련락부를 二배로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련락소 인원을 二〇〇명으로부터 八〇〇명에까지 확장시키기로 하고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一〇 지대는 一九五二년말까지 五、〇〇〇명의 력량으로 장성시킬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무장 력량 三〇〇명으로부터 一九五二년 말까지 六、〇〇〇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세력 규합은 련락부에서의 우리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과 병행되였습니다。 왜냐하면 련락부는 참모부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박 헌영、 리 승엽의 적극적 활동에서 련락부는 二〇명으로부터 六〇명으로 정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중 약 六〇%의 인원이 우리들 불순 분자로써 차지하였는바 그 중에는 일제 헌병 변절자 심지어 六대 지주 출신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질적 불순 분자 심지어 일제의 악질 경찰까지도 우리의 대렬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남반부 출신의 상、 부상

기타 간부들까지도 규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력량 강화 사업을 위하여 사상적 면으로는 박 헌영식 출세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출세주의 방향에로 추동하였으며 『남반부 사람의 남반부』라는 부르죠아적 민족주의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남북 대립을 획책하였으며 다음 남로당원들은 북조선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선전함으로써 그들에게 불평을 조성시키며 이로써 그들을 우리 주위에 집결시키는 흉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상적 면에서의 모략 뿐만 아니라 불순 분자의 규합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매수의 방법까지 리용하게 되였습니다。

당 재정을 도용하여 남로당원들에게 각종의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면서 『공화국 정부에서는 남반부 당원들의 곤난한 환경을 고려함이 없이 아무런 경제적 원조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화국 정권보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만이 당신들에 대한 구세주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우리 주위에 집결하려고 하였습니다。우리들의 세력 집결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사소한 반대자라도 이를 구축 배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집결한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당적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출판물 기타 각종 선전 수단을 통해서 김 일성 원수에 대한 투쟁 력사라든가 인민의 지도자로서 그를 조금도 선전하지 않고 김 삼룡、 리 주하와 같이 싸우다 죽어야 하며 조선 혁명에서 진정한 주인은 박 헌영이며 또 우리의 부대는 리 승엽이가 지도하는 영예를 고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한편 박 헌영과 리 승엽에 대한 숭배주의로 고취 교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양의 결과에 一〇 지대에서는 박 헌영과 리 승엽에게 신곡과 함께 멧세지를 보내는 운동까지 제기하게 되던 것입니다。

세력 규합을 위한 음모 활동에서 루락된 것은 경기도 인민 위원회 조직 문제와 관련한 범행인바 개성을 중심으로 한 해방 지구에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경기도 인민 위원장으로 박 승원을、 기여의 간부들로는 불순 분자들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또 그 산하 시군 인민 위원장과 리 위원장들에 불순 분자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경기도를 우리의 세력 근거지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정치적 기지를 창설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합법화할 목적으로 리 승엽은 해방된 경기도 지구에 나와서 해방 지구 각 시 군당 일군들에게 경기도 인민 위원회가 나와야 할 물질적 근거를 만들라고 강박하였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까지 수집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계획을 작성하여 가지고 당과 정부에 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一九五二년 가을에 『신 내각』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그 내용은 공동 피소자들이 이미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재판장 테로 행위를 위시한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정형에 대하여 말하시오。

배 철 우리들의 정치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테로 학살 사건을 광범히 조직하였는바 그 일례로서 一九五二년 一〇월 一〇 지대장 맹 종호가 나의 련락부 사무실에 왔을 때 그에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즉 一〇 지대 지휘부에 녀자들을 많이 두고 롱락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욕설을 퍼부은 후 당장에 이것을 처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리유는 첫째로 지휘부내에 부화한 경향이 발생함으로써 지휘자들의 위신이 떨어져 일반 대원들이 그들의 지도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으며 둘째로는 우리의 정치모략 음모가 그 녀자들의 입을 통하여 외부에 루설될 수 있으며 또 리 승엽을 위시한 간부들의 위신이 저락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리 승엽의 기술 서기로서 김 정숙이란 녀성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 저곳 다니면서 리 승엽에게서 림질이 전염되였다고 떠벌인다고 하기에 저는 김 정숙을 그대로 두면 리 승엽의 사적 생활의 부화한 내용이 폭로될 것과 나아가서 리 승엽의 위신이 저락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역시 비밀 보장상 김 정숙도 적당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一〇 지대 건설 참모 리 광호(별명 리 철)가 지원군의 자동차와 식염을 절취하려다가 비무장 지대에서 권총 발사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기에 저는 이 사실로 인하여 내무 기관에서 一〇 지대 사업을 검열하고 저희들의 죄상까지 적발할 우려가 있기에 이자도 역시 적당히 처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후 모 련락소장이 루트 안내원 서모가 변절하였다고 하며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왔기에 만일 그를 내무성에 넘긴다면 우리의 비밀이 탄로될 것이 두려워 윤 순달과 련락소장에게 지시하여 처단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적당히 처리하라는 말은 우리 불순 분자간에서 통용되는 술어인데 이는 곧 학살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박 헌영과의 관계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들의 정치적 음모와 간첩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박 헌영은 갖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비호하며 불순한 행동을 조장하였는바 즉 은밀히 조직적 지도적 역할을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상술한 나의 진술과 공동 피소자들의 진술로써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은 끝끝내 최후 발악할 것을 시도하였으니 그것은 즉 五차 전원 회의 이후 불순한 경향에 대하여 비판할 대신에 도리여 박 승원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농사나 질 수 밖에 없다 함으로써 최후 발악을 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한 일이 있는가.

배 철 네, 있습니다. 저와 리 승엽, 박 승원, 윤 순달 등이 모이면 일상적으로 반국가적 언사를 썼습니다.

검 사 처리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 철 학살하라는 용어로서 저희들 간에 통용되였던 말입니다.

검 사 (리 승엽, 조 일명, 박 승원에게) 배 철의 진술에서 지적된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를 승인하는가.

리 승엽, 조 일명, 박 승원 네, 승인합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정 영화 피소자가 무장 폭동 음모에서 군사 조직 책임자라는데 군사 기술이 있습니까.

배 철 군사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변호인 피소자가 정치적 음모를 위하여 당 재정을 도용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배 철 약 一四五만원 도용하였습니다。

재판장 박 헌영、리 승엽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음모에서 피소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철 그것은 박 헌영、리 승엽이가 추구하는 것과 꼭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존 당과 정부를 전복하고 소부르죠아적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나의 출세주의 공명심에 립각한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장 피소자가 본건 정치 모략에 강요를 받아 가담하였는가 자진하여 가담하였는가。

배 철 자진하여 가담하였습니다。

재판장 거기에서 논 역할은。

배 철 누구보다도 그 음모에서 적극적이였으며 우리와 반대되는 자들에 대한 고도의 적개심을 발휘하는 즉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장 무장 폭동은 어느 시기를 리용하려 했는가。

배 철 미군 침공의 시기를 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피소자들의 야망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가。

배 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류된 이후 반성해 보면 우물 안의 개고리와 같은 망상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판 사 박 경호 박 헌영의 집을 언제나 아지트로 정한 리유는 어디 있는가。

배 철 박 헌영의 집은 비밀 보장상 적당하였고 한편으로는 박 헌영이 적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판 사 박 헌영 내각이 조직된 원인은。

배 철 그것은 우리의 음모 행위의 목적이 그런 것만큼 그런 내각을 조직하게 되였습니다。

판 사 이 내각을 조직하면 박 헌영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배 철 박 헌영은 이를 찬성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그가 내세운 조건에 튼튼히 립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판 사 신 내각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배 철 이것은 무산 계급과도 공산주의와도 인민들과도 민주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는 부르죠아적 반동적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괴뢰 정권입니다。

재판장 （검사와 변호인들에게）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사、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명일 오전 一○시까지 휴정을 선언합니다。

— 제三일 一九五三년 八월 五일 —

재판장 제三일 공판 개정을 선언합니다。

（재판장은 피소자들과 증인들의 출정을 확인한 후 증인들을 별실로 물러가게 하였다。）

맹 종호에 대한 신문

재판장 맹 종호! 자기의 경력을 말하시오.

맹 종호 저는 一九一一년 八월 一〇일 함북 경성군 주북면에서 라남 헌병대 보조 감독으로 근무하던 맹 경재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六세시에 한문 서당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一一세시에 소학교에 입학하여 一五세에 졸업하고 경성 고등 보통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 一七세 당시 동맹 휴학에 참가하였다가 一년간 정학 처분을 당한 일이 있고 그후 광주 학생 사건으로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一년간 징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 부락 청년들과 조그마한 청년 크르쇼크의 조직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하 운동을 하다가 신간회 조직에 참가하였고 그후 고향에서 五〇리 밖에 있는 달구지 공장 목수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一九三二년에 주을에 가서 정 창섭 박 치우 장 기남 등을 만나 그들과 같이 경성 로동 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업하다가 一九三四년 四월 라남 경찰서에 체포되여 함흥 형무소에서 四년간 징역하다가 一九三九년 一월초에 석방되여 고향에 돌아와 경성 지구 사상 보국 련맹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북 주을에 가서 식료품 장사를 一년간 하다가 그후 남양에 가서 위탁 판매소를 경영한 후 서울에 가서 一九四四년부터 一九四五년 四월까지 표면상으로는 광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리면적으로 일제 경찰의 비호밑에 만주에 다니며 아편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五년 五월에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광산 광주로서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八·一五 해방후 저는 서울에 올라가 경력을 기만하고 조선 공산당에 잠입하였습니다. 그후 一九四六년 三당 합당시에 남로당 서울시 중구당 부위원장의 직위에서 공작하다가 一九四七년 四월 말에는 동 위원장, 동년 八월부터 남강원도 당부 위원장으로 공작하다가 一九四七년 一一월에 입북하라는 당의 지시에 의하여 입북후 강동 학원을 마치고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一九四九년 九월까지 남조선 련락소 양양 책임자로 있다가 병으로 인하여 함북 주을에 가서 치료한 후 평양에 돌아와 중앙당 련락소에서 일하다가 一九四九년 九월에는 유격대 정치 지도원으로 나갔다가 동년 一一월에 입북하였다가 一九五〇년 三월에는 김 상오 부대에 소속되여 오대산에서 빨찌산 투쟁을 하다가 조국 해방 전쟁 개시후 서울에 나가 유격대 대장으로 일하다가 박 헌영을 만나 려수 순천 유격대 정치 위원으로 파견되였습니다. 一九五〇년 九월 二五일 화남 지구 유격대를 거쳐서 제二 군단 지휘부에 도착하여 리 승엽을 만난 적은 一九五〇년 一二월 一일입니다.

그리하여 一九五一년 一월에 리 승엽으로부터 정치 지도부 공작 임무를 맡고 동부 전선에 배치되여 공작하다가 동년 五월에 배 철의 지도 밑에 련락소 소장으로 공작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잘못한다는 데서 소환되여 금강 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유격대 一〇 지대장으로 공작하였습니다.

재판장 해방전에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시오.

맹 종호 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 정치에 가장 충실한 앞잡이의 한사람이였습니다.

제가 범죄하게 된 근원을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조부가 말하기를 조선에 량반이 있다 해도 우리보다는 못하다. 우리는 맹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느 량반보다도 우월하다는 말을 들

은 데서부터 나는 량반 출신이라는 데 대한 자존심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리기적이며 영웅주의의 사상을 품게 되면서 언제든지 자기의 리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맹 휴학에 참가하였다든가 지하 운동에 참가한 것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데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나의 리기주의적인 정신에서 참가한 것입니다。

一六세시에 어떤 부잣집 딸과 결혼한 후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부가 말한 바와 같이 조선 력사에 길이 남길 량반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一九三九년에 함흥 감옥에서 출옥 당시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향 성명서를 쓰고 나와서 一九三九년 여름에는 일제가 조직한 보국 련맹에 가담하여 간사로 있으면서 청진 시민들로부터 五〇〇원의 기금을 거둬 가지고 일본 경찰에 제공하였고 일본 기원 二六〇〇년 기념에 일본 가시하라 신궁에 참배가기로 하였으나 저는 양복만 하여 입고 가지 못하였으나 그후 신궁 참배자들이 돌아와서 청진에서 귀환 보고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회의에 참가하여 환영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을 영원히 일제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였습니다。 그후 남양에서 아편 밀수입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견되고 보니 징역 가는 것이 싫어서 라남 경찰서 고등계 주임 다까하시를 찾아가서 말한즉 그의 말이 그러면 용서하겠는데 그 댓가로 조선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조사하여 제공하라고 하므로 이 과업을 수락한 후 라남 관내에 있는 사상범 출소자 五〇〇여명의 사상 동태를 조사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그는 말하기를 당신은 함북에서 일하는 조선 공산당원들을 알 터인데 그들이 대개 남양을 거쳐서 동북이나 또는 쏘련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들이 어떠한 사상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라고 하기에 저는 사람들의 동향을 조사하여 직접 나의 손으로 정서하여 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밀정을 하여도 경찰은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까하시가 큰 인물이라면 제가 계속 그 밑에서 밀정을 하였을 것이지만 알고 보니 큰 인물이 아니기에 그 후부터는 그와의 련계를 포기하였습니다。

그후 서울에서 다년간 순사로 있다가 고등계 형사의 요직에까지 복무하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 그가 정 창섭에 대하여 감시 책임을 맡고 있는 기맥을 알면서 정 창섭이가 연안으로부터 돌아와 청진 제철소에서 공작하는 정형을 동생에게 밀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동생으로부터 계속 그를 감시할 것을 과업받은 후 정 창섭이가 서울에 올라 왔다가 채 전을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서울에 왔다 갔다는 것을 맹 종호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채 전을이가 저에게 전하므로 저는 이것을 동생에게 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종로 경찰서에 있는 아라끼 형사와 교제하여 그의 비호밑에 아편 밀수업을 계속하면서 그의 밀정 노릇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언할 것은 과거 지하 운동을 하였다 하여 허 헌 선생은 나를 신임하고 일제가 멀지 않아 패망된다는 것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라끼 형사에게 허 헌을 밀고한 결과 허 헌 선생은 一九四四년 겨울에 서울에서 검거되였다가 다행히도 옥사하지 않고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八・一五전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 말살하려던 행위입니다。

재판장 간첩 활동에 대하여 말하시오。

맹 종호 제가 간첩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一九四七년 一二월에 입북하라는 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저는 이때 처와 두 아이 그리고 과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입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합법적 방법으로 입북할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저의 동창생 홍 길송을 우연히 만나 그에게 부탁한 결과 그를 통해서 당시 경무 부장의 비서인 고 학래를 알게 되여 그에게 과실과 돈육 등 뢰물을 제공하고서 그의 명함을 얻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무사히 양구 경찰서를 거쳐 三八선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고 학래는 명함을 줄 당시 그 댓가로서 이북의 제반 기밀 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저는 홍 길송을 통하여 고 학래의 이 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제가 이 요구를 수락한 리유는 현재 남북으로 갈려 있는 조건하에서 만일 앞으로 리 승만 정부가 조선을 통일시킨다면 그 때에 한자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부터 지어 놓자는 데 있었습니다。 동년 一二월 홍 길송과 같이 무사히 철원까지 도착하였으나 홍 길송은 신분이 명확치 않다고 다시 이남으로 나가게 되였는데 이때 저는 홍 길송에게 북조선 인민 위원회 각 국장 명단과 도 내무 부장 명단 그리고 三八 경비대 배치 정형、당원 파송 절차 등을 문건화하여 홍 길송에게 주어 고 학래에게 제공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번의 간첩 행위이고 두번째는 입북하여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한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것을 종이에 써서 박 달영이가 남로당에 나가는 편에 보내여 고 학래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은 조 병옥을 통하여 미군에 제공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테로 학살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맹 종호 테로 행위와 인민을 학살한 내용을 말한다면 一九四九년 一월에 금강 학원 학생이던 민생 현 인초 강 춘자라는 녀자 등이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하여 박 헌영의 비서인 서 득은으로부터 三八선에 가서 없애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을 심사한 결과 꼭 죽여야만 될 근거는 없고 다만 약간의 사업상 결함이 있었을 뿐이므로 그 집행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그후 리 승엽이가 죽이지 않았다 하여 욕설하면서 속히 죽이라고 하기에 一九四九년 一一월 二일 련락소 방에서 저와 리 학수 등 몇사람이 있는 데서 학살하였는데 그들은 김 일성 장군 만세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그후 一九五〇년 六월 二九일에 리 승엽을 만났는데 유격대 책임을 지게 되였습니다。

어느날 서울시당 지도부 책임자인 리 중업이가 부르기에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에 가니까 정치 공작 대원의 말이 왜 그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는가고 묻기에 지하실에 가본즉 거기에는 약 五〇명의 사람들이 감금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밥과 물을 먹었는가 하고 물은즉 먹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한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였습니다。

이날 리 중업은 지하실에 자수자와 변절자 수십명을 체포해 두었는데 이를 내무 기관에서 넘기라고 하니 간단한 명단과 범죄 사실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기에 그를 심사하는 과정에 三일간에 약 二〇명이라는 인원이 또 체포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신문하여 A B C급으로 나누었는데 A급은 빨찌산에서 변절한 자 B급은 시민 C급은 괴뢰 군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가 주동이 되여 심사한 결과 A급 一四명중 七명은 총살하여야 하기에 그것을 리 중업에게 보고하니 적당히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을가 하여 다시 문의하니 또 적당히 처리하라고 하기에 저는 대원들에게 지시하여 자동차로 실어다가 그냥 포승한채로 한강에다 처넣은 다음 기관단총을 란발하여 잔악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이때 학살당한 七명은 전 유격대원인데 그들을 학살한 리유는 만일 그들

을 내무 기관에 넘긴다면 유격대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저희들이 감행한 만행이 폭로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테로 학살 행위는 그후 一九五二년 二월부터 동년 一二월까지 조선 인민 유격대 제一〇 지대장으로 있던 기간 중에도 계속 진행되였는데 도주 대원과 간첩 혐의자를 되는대로 총살 타살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만행을 하게 된 것은 리 승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리 승엽은 一九五二년 三월에 一〇 지대를 검열하고 저에게 一〇 지대의 비밀을 루설시키려는 자들과 기타 애매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없애 버리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시에 의하여 부하 간부들과 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인식을 침투시킨 결과 一九五二년 四월에 남연백군 내성면에 주둔한 三六 중대에서 체포하여 온 간첩 혐의자 三명중 一명을 고문 치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을 련락부 부부장이던 박 승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참모장 리 백림을 보냈더니 이는 돌아 와서 三명중 一명이 고문끝에 사망된 사실을 남은 二명이 아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될 위험성이 있으니 그들을 감금해 두고 그들에 대한 처분 문제는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련락부장 배 철의 지시를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배 철은 이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추궁이 없었으므로 저도 부하에 대하여 전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으며 그런 데로부터 지대 간부들이 애매한 자는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결과 동년 五월에는 간첩을 잡는다는 구실밑에 부하를 동원하여 남연백군 일신면 三〇—四〇리 어간의 전 부락을 뒤지고 三七 중대에서는 간첩 은닉 혐의로 세광리 인민 위원장을 체포하여 오던중 빈집 보땅에 매달고 심혹하게 때려서 죽여 버렸습니다. 저는 三七 중대장에게 지시하여 그를 비밀히 매장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 면당 위원장이 이 사실을 문의한 데 대하여 저는 체포하여 가지고 오다가 도중에서 놓아 버렸다고 기만하였습니다.

동년 八월에 매독이 있다는 녀자 리 승화와 도주 대원(성명 미상) 二명을 총살하였습니다. 그후 동년 一一월경에 황해도 옹진에서 아편 장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성명 미상인 녀자 二명과 남자 二명을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 약 一〇〇만원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략탈한 후 그것이 탄로됨을 우려하여 총살한 사실과 섬으로부터 간첩 임무를 맡고 매독균을 전염시킬 목적으로 들어온 녀자 一명과 대한 청년단원 五명을 체포하여 학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一九五二년 八월 배 철에게 리 승엽의 비서였던 김 정숙이가 성병 관계로 一〇 지대에서 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문의한즉 배 철의 대답이 그러면 선생(리 승엽)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나 저는 인간적 면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의도에서 살해까지는 하지 않고 밀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一〇 지대 대원 변 메리라는 녀자가 임신중이라는 것과 건설 참모 리 철어가 비무장 지구인 개성에서 공포를 발사하였다는 사실들이 외부에 루설된다면 내무 기관으로부터 취조를 받겠으니 은밀히 살해하여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때까지 이미 죽인 것만 하여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과 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리 승엽이나 배 철의 약점을 쥐려는 데서 이들을 죽이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밖에 一九五〇년 五월에는 남조선에 공작을 나갔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간첩 행위를 하겠다고 기만하고 들어와서 자수한 강동 학원 학생 一명을 六·二五 직전에 리 승엽의 지시로 학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모략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맹종호 저는 폭동을 하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다만 나의 출세를 위하여 간첩 활동을 하려는데서 리 승엽의 야욕에 알맞도록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 김 일성 수상을 반대하여 나서게까지 되였습니다。 그것은 一九四七년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이 재개된 시기인데 리 승엽은 북반부에 들어와서 가면을 쓰고 가장 열성적으로 일하는척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였습니다。 제가 련락소장 사업을 잘못한다는 데서 소환되여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즉 一九五一년 一二월초 배 철은 말하기를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우리 손으로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창설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二〇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 승엽이가 어떤 흉책을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놈들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부한 결과 유격 一〇 지대장이 되여 리 승엽과 함께 一〇 지대 기지 선정을 위하여 청룡면 일대를 일주할 당시 리 승엽은 참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격대원을 양성하고 앓는 사람은 치료하고 아이들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고 하기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 리 승엽과 배 철도 저에게 추차 유격 지구를 좋은 땅으로 떼라고 지시하기에 저는 그 부근 인민들을 구축할 것을 리 승엽에게 제의하였더니 좋다고 승인하였으므로 특수 지구를 창설하라고 말뚝을 박아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덮어놓고 총살한다는 명령으로 주민들을 위협한 후 인민 정권 기관 내무 기관을 무시하고 인민들에게 래일 몇시까지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들의 토지와 가옥을 빼앗은 다음 유격 지구를 창설하였습니다。

저는 기지 선정에 있어서 항공의 피해가 적은 지대를 우리가 차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리 승엽은 리 위원장에 지시하여 저를 수리 조합 위원장이 되게 하고 그 권한을 전적으로 장악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더우기 유격대 一〇 지대가 조선 인민군 제七七二군부대라는 칭호를 달게 되자 군대라는 명목 밑에 더욱 무법 천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당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무조건적으로 입당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 음모의 목적은 대남 공작의 경제적 기지와 간부들의 양성、정치적 공작、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는 결국 공화국 정부를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저는 언제나 박 헌영과 리 승엽을 지지하는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면서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특이한 점도 없이 실행되였는데 이것은 가장 교묘한 수단 방법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서 교양 지도원이 제四차 전원 회의 문헌과 김 일성 원수의 력사적인 二월 연설을 교양 자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저는 이 사람아 적후 공작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할 사이가 있겠는가 하면서 중지시키고 도리여 박 헌영과 리 승엽의 연설 지시 등을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정식으로 전시 문헌들을 연구할 데 대한 지시문이 내려 온 것을 분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김 일성 원수의 호소문에 대한 궐기 대회를 가지려고 한 데 대해서도 실정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고의적으로 중지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상을 주입하도록 교양하여 왔습니다。 그후 리 승엽이가 주 녕하를 데리고 一〇 지대에 왔기에 그들을 지지하는 환영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리 승엽이가 연설한 것을 특보라고 하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그들을 환영하는 연극과 연예 등을 조직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배 철은 이것을 리

승엽의 연설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기만 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하면서 랑독해 준 사실과 실지 리 승엽 만세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거의 그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수령』은 박 헌영이라는 것을 대원들에게 교양주었습니다。 一〇월에 신곡이 나자 멧세지까지 바쳐 박 헌영과 리 승엽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시켜 개인 재산을 략탈하여다가 一〇 지대를 꾸렸더니 리 승엽은 하면 되지 않는가고 저를 찬양 격려하면서 여기에 모나교 왕국만큼 만들고 남에서 온 가족들까지 모아다 놓오면 좋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사 피소자가 경성군 보국 련맹에 가담하여 고동계 형사에게 동군 관하에 있는 五〇〇여명의 인사들의 사상 동향들을 제공한 사실을 승인합니까。

맹 종호 승인합니다。

검사 청진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던 정 창섭을 피소자의 동생에게 밀고한 결과 겨기서 일하던 로동자는 몇사람이나 체포되였는가。

맹 종호 四〇여명이 체포되였습니다。

검사 피소자는 간첩 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맹 종호 서울과 철원 등지에서 수집하였습니다。

검 사 간첩 행위의 내용은 무엇인가。

맹 종호 공화국의 경제적 위력을 파괴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 서거 시거에 제기되는 정책과 인민경제 계획 내용과 각 부서와 국장 명단과 군사 기밀로서 라남에 인민군 제五사、평양 사동에 기계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검 사 서울에서 한강에 대리교 가 학살한 七명은 누구인가。

맹 종호 一명은 유격대에서 도주한 사람이고 또 一명은 남로당에서 변절한 사람어고 그외 사람들은 잘 기억되지 않으나 대부분 저희들의 비밀을 탄로시킬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길 병옥 입복할 당시 합법적으로 들어오겠다고 생각한 리유는 어데 있었습니까。

맹 종호 합법적으로 들어 오려고 한 리유는 저의 가족과 재물을 다 가져 오려는 데 있었습니다。

변호인 피소자는 간첩 행위를 서면으로 하였습니까。

맹 종호 고 학래는 간첩 행위를 요구할 적에 자기 삼촌을 통하여 달라고 하였기에 서면으로써 그의 삼촌 홍 길송을 통하여 간첩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판장 일제 당시 피소자는 혁명가들을 일제에게 밀고하여 체포케 한 댓가로 어떤 보수를 받았는가。

맹 종호 아편 밀매 행위를 마음놓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그 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맹 종호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밀정을 할 터이니 그 대신 내가 아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모른척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창설하려고 하였는데 그 위원장은 누구로 하려고 하였는가。

맹 종호 위원장으로 박 승원 부 위원장에 안 기성 그리고 적당한 사람을 한사람 더 선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 一五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一二시)

*　　*　　*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一二시一五분)

(소송 당사자들에게) 피소자 맹 종호에 대한 보충 심리를 할 것이 있으면 신문하시오。

검 사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리 승엽과 배 철이가 김 정숙과 최 원순이라는 녀자를 학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자는 그를 집행치 않았다는데 그 지시를 집행하지 않은 리유를 말하시오。

맹 종호 인간적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몰랐다면 물론 학살하였을 것입니다。

검 사 (재판장에게) 피소자 리 승엽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리 승엽!

검 사 맹 종호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 없는가。

리 승엽 맹 종호는 제가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무조전적으로 전부 옹호하였다고 하는데 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중 불순 분자와 반역자만을 옹호하였습니다。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습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윤 순 달에 대한 신문

재판장 피소자윤 순달! 자기의 경력을 말하시오。

윤 순달 저는 一九一四년 一월 一六일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서 윤 정현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당시의 가정 형편은 전답 약 一二、〇〇〇평 정도를 소유하고 그 일부는 머슴을 두고 자작을 하였으며 그 일부는 소작을 주었습니다。 당시 조부는 완고한 봉전적인 사람이였으나 三·一 운동에 참가하였고 부친은 일찍부터 배일 사상이 농후한 사람으로 창씨도 반대하고 대구면에서 청년들을 동원하여 진보적인 사립 학교를 조직하고 청년들을 교양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八세 때 한문 서당에 다니다가 부친이 조직한 사립 학교에 입학하여 학업하던 과정에 일제가 이 학교를 폐쇄하고 전북 공립 보통 학교에 편입시킨 까닭에 저도 공립 보통 학교에 전학하였습니다。 이 학교를 四년 졸업한 후 강경 공립 보통 학교 五학년에 입학하여 객지 생활을 하게 되였습니다。 당시 삼촌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많은 서적들을 읽고 또 민주주의 사상을 체득하면서 농촌 계몽 운동으로 청년단 소년단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학교 六학년 때부터 삼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천 운동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一八세 당시 동무들과 같이 독서 써클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一九二九년 광주 학생 사건 당시 그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였다가 수일 후에 석방되였습니다。 학교는 물론 퇴학당하고 고향

에 돌아오니 삼촌은 역시 사상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때부터 직접 공장 로동자들과 같이 사업하여야 된다는 자각과 의욕이 강해지던 차 때마침 저의 지도자였던 로 봉주를 통하여 신 철 동무를 만나서 철도 로동자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철도 기관사 양성소를 시험쳤으나 합격되지 못하고 전기 기술만 습득한다면 능히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二년제인 서울 전기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영등포 철공장에 전기 견습공으로 취직하여 당시 공장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안 병춘 리 병희 동무들의 지도를 받고 직접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어린 때이므로 독자적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였고 다만 상부 동무들의 심부름이나 충실히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안 병춘의 지도를 받고 있던중 一九三五년 一二월경에 권 영태 동무를 만나 그의 지도를 받고 있다가 박 윤혁 등과 련결되여 가두에서 사업하였으나 이것은 주로 산재되여 있는 동무들을 규합 교양하는 과정이였습니다。 一九三五년 四월에 경성 전기 주식 회사 전공으로 취직한 후 一九三六년 一〇월경에 권 영태의 경성 콤크룹 조직 사건으로 인하여 박 윤혁 등과 같이 종로 경찰서에 피검되여 미결로 있다가 一년의 형을 받고 一九三七년 七월경에 서대문 감옥에서 석방되였습니다。 그후 고향에 가서 一九四〇년 봄에 나의 처 유 복순과 결혼하였습니다。 동년 四월 경에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 이전 동무들의 거처를 찾았으나 그 대부분이 휴식 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서울 돈암동에서 지함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두 동무들을 접촉하고 있던차 동년 八월경 박 윤혁의 어머니를 통하여 김 삼룡 동무를 처음 알게 되여 그의 지도를 받다가 一一월 말에 광주 지방에 가서 일할 과업을 맡고 전남 광주에 가서 전기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제가 광주로 간 후 김 삼룡 동지 등의 피검으로 인하여 조직이 파괴된 후에 련락이 끊어져 있던중 一九四一년 가을경에 리 순금 동무가 찾아와서 련결이 되였으며 그를 통하여 박 헌영을 알게 되여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의 지도하에 八·一五 해방 당시까지 일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八·一五전 경력은 복잡하였으나 조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조선 해방을 맞았습니다。 저는 一九四五년 七월 말에 서울과 련결을 가지기 위하여 저보다 먼저 상경하였던 라 남제 동무를 찾아 서울에 올라갔다가 해방을 맞이한 후인 八월 一七일 박 헌영 상면을 필두로 하여 지하에 있던 동무들과 형무소에 있던 동무들을 상면하게 되였고 조선 공산당 재건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테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 헌영의 소위 『현 정세와 우리 임무』라는 테제 로선을 지지하고 그를 전 인민의 수령으로 내세우며 조선의 정권은 오직 콤크룹만이 장악해야 된다는 야망에서부터 모든 력량을 그에게 집결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八월 二五일경에 김 삼룡 동지로부터 전남으로 내려가서 광주 시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에 가서 이미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무들의 크룹과 조선 공산당 재건 전남 준비 위원회 동무들과 같이 九월 一五일 광주 시당 위원회를 결성하고 유 혁 동무를 시당 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조직 부장으로서 있다가 수일 후에 그가 도당으로 가게 되자 저는 시당 위원장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활동하여 오던중 미 군정을 반대한 원인으로 一九四六년 三월 중순경에 광주 경찰에 피검되였습니다。 여기서 一년 六개월의 징역 언도를 받고 즉시로 공소한 결과 一九四七년 五월 중순경에 변호인들어 하지 성명에 『언론 자유』란 말을 걸고 투쟁하여 무죄 언도를 받았습니다。 동월 二〇일 경에 안면있는 경찰에게 재차 체포되였다가 형무소에서 출옥한 것이 명확하였으므로 一一월경에 석방되였습니다。 그후 전남 지방에서는 있지 못하게 되였으

므로 도당에서 중앙에 제의한 결과 서울로 소환되여 김 삼룡 리 주하의 지도로 동년 一二월부터 남로당 중앙 조직 부장의 위치에서 사업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一九四九년 二월 말에 조직 부장이던 리 중업이 체포됨에 따라 三월부터는 그 대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성북 경찰서에 저도 체포되였습니다。 체포된 후 一년 六개월 징역에 四년간 집행 유예를 받고 동년 六월 말에 석방된 후 七월 초순경에 김 삼룡 동무와 련결을 짓고 다시 조직 부장 대리로서 사업하다가 一九四九년 八월 二五일에 수도청에 다시 피검되여 一九五〇년 六월 二八일 서울 해방시 석방되였습니다。 그후 七월 六일경에 조선 의용군 간부 부장으로 임명받고 초모 사업을 하다가 七월 一一일 리 승엽의 지시로 각 도 유격대 기간 부대인 리 중업 허 성택 박 세영 김 점권 서 득은 부대가 진출할 때 저도 정치 위원으로 락동강 계선까지 갔다가 동년 八월 二〇일경에 김 책 전선 사령관으로부터 유격대를 인민 군대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이관 수속을 완료한 후 서울에 도착하여 九월 초순에 평양에 와서 인민 군 三一사단 정치 부사단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一九五〇년 九월 二〇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여 부대를 조직중에 적이 상륙하여 九월 二七일까지 서울 방어 전투를 하다가 동월 三〇일경 후퇴 명령을 받고 강계까지 가서 최고 사령부로부터 三一사의 명칭을 유지하라는 데서 부대를 보충받아 가지고 一二월 말경 재 진공하여 경북 영주까지 진출하였다가 다시 후퇴 명령을 받고 진부 계선에 왔다가 一九五一년 二월에 二七사단 정치 부사단장으로 전임되여 방어 전투를 계속하다가 一九五二년 一월부터 四월까지 김 책 군관 학교에서 단기 강습을 마친 후 군대에 있기보다는 박 헌영 리 승엽의 직접 지도밑에 있고 싶어서 박 헌영 리 승엽에게 제의하여 당 중앙에 소환되여 련락부에서 五월부터 사업하게 되였고 一九五二년 六월 一六일부터 련락부 부부장으로 정식 비준이 있어 사업하다가 체포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재판장 테로 학살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윤 순달 一九五二년 八월경 각 련락 소장 회의에서 성 가석이라는 자가 二회에 걸쳐 적에게 넘어가 우리의 공작원을 잡아 주었다는 보고를 듣고 배 철에게 알렸더니 성을 내면서 화선에서 적당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므로 집행시킨 사실과 동년 一一월 경에는 리 현상이가 남반부에서 온 간첩 혐의있는 녀자 二명을 체포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기에 당시 배 철이 없는 조건하에서 제가 대리하면서 전보로써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학살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모략 행위에 대해서 말하시오。

윤 순달 다음 모략 행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저는 八·一五 전후 계속 박 헌영의 지도를 받아온데로부터 우리의 모든 목적은 공화국 수령으로 박 헌영을 추대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남반부에서 일할 때에는 이와 같은 사상은 그리 농후하지 않았으며 군대로부터 당 련락부에 소환되여 보니 련락부 내의 모든 규률이 나의 비위에 맞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속에서 배 철이와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 저도 역시 점점 그 생활에 물젖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평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불평이 커져서 나중에는 조국에 대한 엄중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였는데 그 실례로는 一九五二년 九월 첫 일요일에 박 헌영 사택에서 새 정부 구성 문제까지 토의하게 된 사실입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폭동을 위한 무장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떠하였는가。

윤 순달 제가 련락부에 왔을 초시에는 一〇 지대 인원이 一、三〇〇명이였으나 이를 증가시켜 후에는 二、〇〇〇명으로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시킨 것은 물론 리 승엽의 지시도 있으나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 사 그를 강화시키는 목적을 피소자는 알았는가。

윤 순달 물론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무장 폭동에 리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오늘처럼 자세한 문제는 몰랐습니다。

검 사 새로 구성되는 『정부』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 바 있는가。

윤 순달 저는 특별히 생각한 일은 없으나 그것은 오늘 조선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면 부르죠아 제도라는 것 두가지 중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반동적인 정부입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리 규홍 피소자가 변절한 것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윤 순달 련락부에 와서부터입니다。

변호인 그 사상적 근거는 어데 있습니까。

윤 순달 八·一五 전부터 박 헌영의 지도를 받아 왔기에 八·一五 후도 계속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숭배하고 지지하는 데서부터입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조선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면 자본주의 정부밖에 구성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박 헌영을 수령으로 하는 새 정부는 어떤 성격의 정부인가。

윤 순달 물론 저는 그 전에는 박 헌영이가 부르죠아 정부를 예견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예심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부가 반동적인 정부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재판장 상업상으로 추천되였을 적에 거부하지 않은 리유는 어데 있는가。

윤 순달 나의 출세하려는 욕망에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그것은 의식적 행위였는가 혹은 무의식적 행위였는가。

윤 순달 의식적 행동이였습니다。

재판장 박 헌영이가 없는 데서 그를 수상으로 추대하였으나 그가 접수할 수 있다고 피소자는 말하였는데 그 리유는 어데 있는가。

윤 순달 박 헌영은 공동 피소자들의 진술과 같이 출세주의자이고 저희들 종파주의 두목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판장 보충 신문할 것이 있으면 신문하시오。

검 사 박 헌영의 로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윤 순달 그것은 우경적이고 미군들을 쓰련군의 상위에 모시려는 즉 부르죠아 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 사 당신은 그 점을 언제부터 리해하였습니까。

윤 순달 예심 과정에서 알게 되였습니다。

검 사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윤 순달 그 전에는 박 헌영을 비판할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접수하여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예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검 사 당신의 진술에서 박 헌영이나 리 승엽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립장에 섰습니까。

윤 순달 제가 그들의 불순한 행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도리여 그를 지지한 이상 그들과 같은 립장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리 승엽이나 박 승원의 정책이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윤 순달 박 헌영을 위한 것입니다。

검 사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윤 순달 옳지 않다고 느낀 바 있습니다。

검 사 그러나 그를 옹호한다든가 그의 지시를 적극 실행한 원인은 어데 있는가。

윤 순달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지한 것으로 되나 그 당시에는 그들이 시키는 내용을 깊이 분석 연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리 승엽 배 철! 피소자 윤 순달의 진술이 틀림 없는가。

리승엽 배 철 틀림 없습니다。

리 원 조 에 대 한 신 문

재판장 피소자 리 원조! 자기의 경력을 진술하시오。

리 원조 나는 一九〇九년 三월 二일 경상북도 안동군 봉건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정 환경은 집 一동과 밭 ○○○평 가량이였습니다。 一九一八년 一○세시에 보통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一九一九년 三·一운동이 지난 후 저의 가정은 고향에서는 살수가 없어서 약 三○리밖 산골에 들어가서 부모 형님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一九二四년 대구로 이사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빈한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월사금 면제로 공부하고 一九二八년에 결혼한 후 동창생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 일본대학 야간 전문부에 입학하여 신문 배달과 토목공을 하면서 고학하다가 一九三一년부터는 광업가 김 태원으로부터 학비를 받게 되여 一九三二년에 일대 전문부를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가정은 몰락하고 또 부친은 봉건적 사상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는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一九二八년 저의 친우와 형이 검거된 영향으로 저는 민족주의 사상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습니다。 졸업후 나는 소설을 쓰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쓰지 못하고 一九三二년 四월 일본 법정 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일본 아까하다지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까하다 도모노가이』에 참가한 관계로 一九三二년 一一월 체포되였다가 二九일만에 석방되였습니다。 제가 이 회에 참가한 것은 진실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가 아니라 당시 학생 인테리들과 소부르죠아들이 가지는 일종의 영웅심과 류행 조류에 휩쓸려 좌익 서적을 읽었던 것이므로 체포당하자 겁을 먹고 석방된 후에 다시는 이 회에 가담치 않았습니다。

一九三五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조선 일보사에 기자로 취직하였습니다。 一九三七년에는 학예부 차석으로 승급되여 一九三九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一九三九년 七월에

대동 출판사 주간 대리로 있으면서 『광업 조선』의 권두언에 일제 략탈 정책을 지지 찬동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一九四一년 四월에 친우와 같이 폐유 회수기를 제작하는 심양 제작소를 조직하고 그 간부로 있다가 동 회사가 해산되자 一九四四년 六월부터는 조선 일보사에서 경영하던 잡지 조광사의 축탁으로 취직하여 잡지를 편집하였는바 그 내용은 일제의 조선 략탈을 지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다가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해방후 저는 문학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출세하겠다는 야망에서 림 화 리 태준 등과 같이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의 서기장으로 일하면서 동년 一二월에 공산당에 입당하였습니다。 一九四六년 四월부터 九월까지는 현대 일보 편집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기간에 민전 사업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미군의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을 신문에 썼다 하여 체포령이 내려 一九四七년 초에 입북하여 一九四八년에는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 편집국 차장으로 일하다가 국장이였던 박 승원이 동 인쇄소 부책임자로 승격함에 따라 저도 등용되여 조국 전쟁 개시 당시까지 편집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그후 서울에 가 해방 일보 주필로 있다가 一九五一년 四월 초에 중앙당 선전 선동부 사업을 협조하다가 동년 六월에 선전 선동부 부부장으로 등용되여 사업하였습니다。

재판장 반역 행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리 원조 제가 범한 범죄의 출발점은 저의 사상적 근원이 소부르조아 민족주의적 립장에 선 데 있으며 해방된 후 소부르조아적인 소위 순수 문학을 제창한다는 데 있였습니다。 해방후 저는 문학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영웅주의와 리기주의로부터 출발하여 몇몇 사람이 모여 조직한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의 서기장으로 있을 당시 이 조직을 강화한다는 구실밑

에 리 승만 계통 문화인들과 통일을 가질 것을 획책하였는데 이때 『졸도 一〇명보다 대가 一명을 불들라』라는 구호를 걸고 실지에 있어서 각 부문의 책임적 지위를 반동에게 넘겨 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리유는 철저한 카프 계렬 작가들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저희들의 야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때 진보적인 작가 예술가 무용가들은 저희들의 단체를 반대하고 문학가 동맹을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박 헌영의 소위 八월 테제라는 것에 공명하고 이것이 우익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것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또 一九四五년 말에는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 반대 강연에 참가하였고 미군 환영 데모를 조직한 일도 있으며 一九四六년 四월에는 소위 인민 공화국파 상해 림시 정부 합작 권고문을 작성하여 박 헌영의 비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一九四六년 二월 우리 문학은 계급 문학이 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가진 림 화의 문학 테제를 지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문학 로선과 정치적 립장은 소부르죠아적이였습니다。 해주 제一 인쇄소에서 일할 당시 박 승원 림 화 등과 같이 박 헌영의 출세주의를 찬양하여 공화국 정부와 인민들 간의 리탈을 조장하려는 내용으로 출판물에 보도한 것도 또 나의 반국가적 죄악의 하나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당시 해주에서는 세포 회의를 할 때마다 박 헌영의 초상화를 걸고 박 헌영을 위한 멧세지를 채택하였고 박 헌영 만세를 부르고 전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박 헌영의 출세주의를 정당화하여 대중을 리 승엽 도당에게 집결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교묘한 수단으로 연구 선전하여 왔습니다。 림 화는 一九四八년에 박 헌영에게 드리는 헌시를 지어 김 순남을 시켜 해주 대표자 대회에서 랑독케 하고 반동적 내용인 산 사람이라는 연극까지 꾸미게 하였으며 조 일명은 박 헌영이는 결정적인 우리의 수령이며 『해주 사람들』이 쓴 글이 북반부에서 제일 좋다고 하면서

동무들이 일을 잘하여야만 박 헌영의 위신이 제고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락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밖에 一九四八년에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 로동당이 합당된 이후에도 박 헌영의 출세주의를 계속 선전하였습니다。 박 헌영의 지도가 우수하다는 것과 박 헌영의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기 위하여 북반부에서의 민주 건설의 제반 성과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례로서는 해주 제一 인쇄소의 매개 간부들에게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당 자금에서 매월 三천원을 주었고 박 헌영과 리 승엽 도당을 비판하거나 그를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순진한 당원을 박해 감시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또 저와 박 승원 림 화는 박 헌영 선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제가 그 원고를 검토하고 림 화가 조 일명에게 제출하였는데 조 일명은 최후 교열까지 하였으나 결국 발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박 헌영 리 승엽의 비호에 의하여 중앙당 선전부 부부장으로 등용되자 조 일명 림 화 등과 결탁하여 남반부 출신 작가 예술가들을 무조건 비호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반부 출신 작가들과 쏘련에서 온 문화인들 간에 알륵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세력을 장악할 데 대하여 조 일명과 같이 획책한 일도 있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사 피소자는 리 승엽 림 화 조 일명 등이 반동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리 원조 一九四八년 一○월 제一 인쇄소에 근무할 적부터 알았습니다。

검 사 그 당시 피소자는 그들에게 충실하도록 선전한 것은 사실인가。

리 원조 네、 사실입니다。

검 사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가。

리 원조 출판물과 구두 선전 선동의 방법에 의하였습니다。

검 사 공동 피소자들이 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승인하는가。

리 원조 네 승인합니다。

검 사 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략 행위를 하였는가。

리 원조 당 선전 부부장으로 있을 당시 박 승원이가 남반부 빨찌산 투쟁에서 실지 거둔 성과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조장한다든가 또 문예총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 내부를 남북으로 분렬시키며 불순 분자들을 규합하는 공작을 진행하면서 북반부 출신 작가들을 억압하여 왔습니다。

검 사 피소자는 박 헌영의 출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데 그 출세의 내용은 무엇인가。

리 원조 조선 인민의 수령으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 사 해주 제一 인쇄소에 있을 당시 북조선에서의 제반 성과를 선전함에 있어 축소하여 선전하였다는데 그 리유는 어데 있는가。

리 원조 그것은 박 헌영을 지지하는 기세가 적어질가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국의 위력이 장성됨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김 문평 해주 제一 인쇄소에 있을 당시부터 공동 피소자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리 원조 공동 피소자들 전부는 몰랐습니다。

변호인 박 헌영의 출세를 적극 념원한 목적은 어데 있습니까。

리 원조 박 헌영이 출세한다면 저도 더욱 출세할 수 있다는 데서 앞으로 나의 개인 향락을 위하여서입니다。

변호인 박 헌영의 비준을 받아 문화 테제를 발표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리 원조 우리 문학은 계급적인 문학이 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출판물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一九四七년도에 민족 문학이라는 테제를 직접 쓴 일이 있습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김 남천의 범죄 행위를 피소자의 직위를 리용하여 비호 묵과한 사실을 말하시오。

리 원조 문화 전선사의 경리 사업을 검열한 결과 약 二〇만원이 랑비된 사실이 발로되였는데 이것을 당시 책임자이던 김 남천이가 책임질 것같아서 그를 비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부부장의 직위에 있을 당시 박 헌영이나 리 승엽으로부터 문화 예술을 파괴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쓰라는 것을 지시받은 일은 없는가。

리 원조 지시를 직접 받은 일은 없으나 호상 암시를 하며 저의 반당적 행위를 그들이 격려하여 왔습니다。

재판장 박 헌영의 정체를 말하시오。

리 원조 다른 공동 피소자들의 진술에서 이 사건의 전적 책임이 박 헌영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범행하게 된 첫째 원인은 물론 저의 사상이 락후한 데서 출발했

으나 그러나 제가 해주 제一 인쇄소에 있을 당시부터 저에게 나쁜 사상을 침투시킨 것은 박 헌영입니다。 그 례로서 一九四七년 조 일명을 해주 인쇄소에 보낼 당시에 특별 지시라 하여 『해주 사람들』이 북반부에서 누구보다도 글을 잘 써야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같은 락후한 층에게 남북 대립의 요소를 움트게 하며 범죄적 방향에로 교사한 것입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인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오후 四시 三〇분까지 휴정을 선언합니다。

설 정 식 에 대 한 신 문

재판장 공판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피소자 설 정식! 경력을 말하시오。

설 정식 저는 一九一二년 九월 一八일 함남 단천에 거주하는 전 한국 고관이며 개화 운동자였던 민족주의자인 설 태희의 三남으로 출생하여 一九二九년 三월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四월부터 서울 공립 농업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광주 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퇴학을 당하고 그후 중국 료령성 제三 고급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一九三三년 三월부터 서울 연희 전문 학교 별과에서 공부하다가 一九三五년 일본에 가서 메지로 상업 학교에 편입하여 그곳을 졸업하고 一九三六년 연희 전문 문과에 들어가 一九三七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마운트 유니온 대학 영문과에 들어가 이를 졸업하고 그후 뉴욕 콜롬비야 대학 연구생으로 있다가 一九

四〇년 七월에 귀국하여 광산업 농장 과수원 등을 경영하면서 지내다가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후 서울에 있는 둘째 형의 요청으로 주소지 강릉으로부터 서울에 간즉 그가 동아 일보 재건에 대한 교섭을 미군 당국과 진행하여야 하겠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라는 요구를 듣고 반도 호텔에 있는 미군 해당 기관과 그 교섭을 진행하던 중 동년 一一월 하지의 고문단원의 한 사람인 정 밀실(그전부터 친우였다)의 추천으로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 국장으로 들어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정책을 적극 방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一九四六년 九월 一三일 림 화 김 남천 등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잠입하여 당으로부터 미 군정 상대로 특수 사업을 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치 않았습니다。 一九四七년 一월 미 군정이 조작한 소위 남조선 괴뢰 립법 위원 부비서장으로 들어가 사업하다가 동년 八월경 좌익 문화 일꾼과 접촉하였다는 리유로 권고 사직을 당하고 그 후부터는 문학가 동맹 외국 문학 부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부르죠아적 문학 창작 활동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유·엔 조선 위원단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 반원으로 특수 공작을 하였으며 一九四八년 二월경에는 당 중앙의 지시로 영문 일간 신문 서울 타임스 주필로 들어가 사업하다가 서울 타임스 폐간 명령과 함께 저에게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완전히 부르죠아지들에게 굴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반쏘 선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반쏘 데모의 조직에 참가하였고 반쏘적 시와 작품을 창작하는 것 등으로 변절하고 보도 련맹에 가담하고 있다가 六·二八 해방을 서울에서 맞이하였습니다。

해방후 문학가 동맹에서 사업하던 중 一九五〇년 九월 一〇일부터 조선 인민군 전선 사령부 문화 훈련국 제七부에 들어가 적공 와해 사업을 하다가 一九五一년 七월부터는 개성 정전 담판 조선 인민군 대표단 통역원으로 공작하다가 체포되였습니다。

재판장 피소자의 간첩 활동에 대하여 말하시오。

설 정식 공보처 여론 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는데 우선 이 여론국의 조직 체계와 그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은 여론 조사과 정치 연구과 정치 분석과 번역과 정당 사회단체 등록과 등의 체계로 조직되였는데 그 기본적 임무는 인민들의 사상 동향과 여론 등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좌익 기관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세밀히 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을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여론국은 미국의 악명높은 간첩 기관 지·투、씨·아이·씨 기관에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허울좋은 탐정 기관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내용을 잘 알면서 그에 들어갔고 초대의 여론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기관에 들어간 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숭미 사상에서와 미국인들에게 접근함으로써 나의 장래의 정치적 문화적 야망을 달성하려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여론 국장으로서 사업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국내의 사정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는데 첫째로 여론 수집 사업 즉 다수의 여론 과원들을 시켜 시기적으로 제기된 미 군정 통치에 대한 군중들의 여론과 동향을 매일 三〇〇여건씩 수집하여 이를 공보처장 뉴멘을 통하여 군정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둘째로 번역 사업 즉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체 신문 특히 그 중에서 좌익 신문 七、八종에 대한 좌익적인 기사를 빠짐없이 번역하여 이를 씨·아이·씨、지·투 기관을 위시한 하지 사령부와 미 군정에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좌익 진영에 대한 탄압을

기동성있게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번역은 주로 하부 과원들이 하였으나 저는 붉은 연필로 번역하여야 할 자료에 표식하였고 번역한 자료는 제가 깊은 관심밑에 수정을 가하여 완전성을 기하였던 것입니다。 세째로 로빈손 스미스 등 미군 고등 간첩 분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정형과 그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의 사상 동향、그들의 활동 정형을 날날이 조사하여 군정 장관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미국놈들이 자기들의 주구 선택과 아울러 탄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미국인과 함께 지도하면서 三〇〇여명에 달하는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 자료를 수집 제공하였습니다。 네째로 정당 등록 사업 즉 이는 소위 정당 사회단체 등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내용을 세밀히 조사하는 사업인데 그가 추구하는 목적은 좌익 정당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면에서 미제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당시 문화 단체 총련맹 책임자로 있던 림 화를 미국인 로빈손과 련결시켰고 그후 림 화가 로빈손에게 제출하는 남조선 문화계의 중요 기밀 자료를 四회에 걸쳐 전달하였으며 림 화에게 계통적으로 정보를 수집 제공하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할 것은 림 화가 당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내놓기로 하면서도 그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했으며 전후 四회에 걸쳐 정보를 제출한 사실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를 三차라고 거짓말 많이하는 옳지 않는 행동을 끝끝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림 화는 여론국에 찾아와서 로빈손과 나에게 조선 문화 사업을 미 군정 정책에 순응시키겠다고 약속하였던 일까지 있습니다。 그후 저는 조선 문화는 미국 문화와의 교류에서만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반인민적 내용으로 서울 시공관 기타 공적 좌석에서 수차에 걸쳐 수천의 군중에게 연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립법 위원 부비서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영문 번역을 하였는데 즉 립법 위원과 미 군정 간에 교환되는 일체의 문서를 번역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미국 요인들의 연설을 번역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재판장 보도 련맹에 가입하여 감행한 만행을 말하시오。

설정식 다음 제가 보도 련맹에 가담하게 된 경로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좌익에서 원만한 신임을 받지 못하던 차에 또 우익에서조차 신임하여 주지 않는 데서 립법 위원 부비서장의 직위에서 면직되였습니다。 이 때에 저는 이 기회에 한걸음 더 나서볼가 하는 생각에서 좌익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 즉 장편 소설 『청춘』 『한류』 『난류』 등을 창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괴뢰 경찰의 주목을 받고 나아가 체포령까지 내리게 되였습니다。 저는 이 위험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도 경찰청에 찾아가서 전향 성명서 자수서 등을 썼는바 그 내용에 다섯명의 좌익적 인물을 고발하는 등으로 완전히 변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보도 련맹에 가입하게 되였으며 그후 보도 련맹의 주최로 반쏘 반공 데모의 조직 및 반쏘 반공적인 반동 시들을 만들어 반민주주의적 선전 선동을 하였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붉은 군대는 물러 가라』라는 반동적 시 일편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공관에서 열렸던 문화인 합작 문예 대회 석상에서 一、〇〇〇여명의 청중 앞에서 이를 랑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도 련맹 기관지 『애국자』라는 월간 잡지에까지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여론 국장으로 있은 리유와 그 당시의 사업은 어떤 것이였는가。

설 정식 여론 국장으로 일한 리유는 미국의 침략 정책을 협조하려는 데 있었으며 그곳에서 사업한 내용은 신문 기사 중에서 매일 四、五건 내지 一〇여건의 좌익 기사와 자료를 번역하여 미 군정에 제공하였고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은 정보 수집 사업에 조력하였습니다。

검 사 『붉은 군대는 물러가라』 라는 시의 내용은。

설 정식 그 내용은 가장 악랄한바 즉 三八선을 가로 막은 자는 누구이며 三천만 조선 민족의 분렬을 획책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곧 쏘련 군대이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 피소자인 림 화와 조 일명도 잘 압니다。

검 사 공산당에 가담한 목적은 무엇인가。

설 정식 저는 그렇게 몽매한 자가 아닌 까닭에 세계의 움직임을 즉 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회주의적 숙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 한편 군정청 여론 국장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여 보려는 그러한 데서 당내에 잠입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김 문평 피소자가 완전히 변절한 것은 언제입니까。

설 정식 一九四九년도 보도 련맹에 가엽한 때부터입니다。

변호인 공보처에서 그만둔 것은 언제입니까。

설 정식 一九四六년 一二월입니다。

변호인 당에 잠입한 시기는。

설 정식 一九四六년 九월입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 박 룡숙 림 화와 결탁하여 로빈손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몇번인가。

설 정식 四회입니다。

판 사 로빈손에게 간첩 자료를 제공한 시일과 그 내용은。

설 정식 첫번은 一九四六년 六월 조선 공산당 기관지인 『정로』 수권과 소책자 『북조선 토지 개혁 해설집』 一권을 주었으며 둘째번으로 一九四六년 七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망라된 각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 체계와 활동 내용이였고 세번째로 제공한 것은 一九四六년 八월 중순경에 전국 작가 대회 회의록이였으며 네번째는 날짜는 미상이나 쏘미 공동 위원회에 대하여 쏘련측의 주장과 남조선 三당 합당에 관한 문건과 좌익 문학 서적이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림 화로부터 제공받아 직접 제가 로빈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인들에게) 보충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검 사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一二명에 대한 사실 심리가 기본적으로 끝났는데 보충하여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증인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검사의 의견과 같습니다。

증인 전 영애에 대한 신문

재판장 증인 전 영애를 입정시키시오。

(증인 전 영애 입정하다)

재판장 당신이 전 영애입니까。

전 영애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누구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합니까。

전 영애 저는 리 승엽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합니다。

재판장 말씀하시오。

전 영애 제가 피소자 리 승엽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한다면 저는 八·一五 직후부터 당 사업을 하였는바 미 군정과 리 승만 도당의 학대로 인하여 곤난한 환경속에서 지하당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적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당하였으나 변절함이 없이 당성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六·二五 해방을 맞이하여 이제는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서울에서 당 공작을 하던중 하루는 최 만용이라는 자가 약 三○세가량 되여 보이는 남자 한명을 데리고 저의 집에 찾아 와서 저를 체포하기에 누구의 명령으로 체포하는가고 말한즉 리 승엽의 명령이라고 하면서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자고 하기에 따라가본즉 그전 경성 방직 회사 자리로 가서 최 만용은 나에게 묻기를 김 삼룡 과 리 주하를 네가 밀고하여 잡아 죽이였다지 그 내용을 솔직히 고백하라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천만 이외의 사실에 부닥쳐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기에 모른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가 이것은 자백하라고 강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二三세가량 되는 청년이 와서 저보고 가자기에 자동차를 타고 간즉 거기는 의용군 본부였습니다。 그 三층에 들어간즉 거기에는 또 한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김 삼룡 리 주하를 체포한 데 대한 고백서를 쓰고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를 넓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라체로 한 후 물고문、 소위 비행기 고문、 오도바이 고문 등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문은 어둡기 시작한 때부터 그 이튿날 밝을 때까지 계속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五、六차에 걸쳐 실신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근거한 사실을 말할 수 없기에 끝끝내 거절하였으나 더 악랄한 방법으로 위협과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몸에 무수한 상처를 남기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이 들어 눈을 떠 본즉 창은 휘황하게 밝기 시작했고 나의 전신과 주위에는 물이 질벅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四、五명의 고문자들인 남녀 청년들이 『이 쌍년이 죽은줄 알았더니 또 살아났구나 이제는 날이 밝아 학살할 수 없으니 이따 죽여 버리기 위해서 감방에 가두어 두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넓은 감방으로 저를 끌어갔습니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은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八명이나 있었습니다。 그후 三시경 젊은 남자가 수고했다고 하여 자동차로 저를 우리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리 승엽 도당이 왜 그와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는지를 압니까。

전 영애 아직 모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조 용복, 안 영달이가 리 주하, 김 삼룡을 밀고하여 학살케 하였다는 것이 여론화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그런 만행을 감행한 것이였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에게) 증인 전 영애를 취조한 사건을 보고받았는가.

리 승엽 네 압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인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시오.

검 사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리 승엽! 증인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 없는가.

리 승엽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증인 윤 대현에 대한 신문

재판장 증인 윤 대현을 입정시키시오.

(증인 윤 대현 입정하다)

재판장 증인이 윤 대현입니까.

윤 대현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누구의 범죄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윤 대현 피소자 리 승엽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 리 승엽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진술하시오.

윤 대현 저는 一九五〇년 六월 二九일 상부 지시에 의하여 서울에 도착하여 적선동 전 미군 아빠트에서 미배치로 대기하던 중 약 一〇일후 조 일명이가 와서 가자고 하기에 따라간즉 의용군 본부 三층 三〇호실 특수부 책임자 도 용호를 소개하여 주기에 그 후부터 도 용호 밑에서 사업하게 되였습니다. 그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부에서 최 만용이가 관리하던 약 二〇여명의 구금자와 몰수한 물품들을 인계받았는데 인계받은 二〇명은 변절자라고 하기에 그를 고문의 방법으로 심사하였는데 그중 一一명은 아무런 근거도 없기에 석방하고 九명은 계속 구금하고 취조하였습니다. 약 一〇일이 경과한 후 도 용호가 어디로 가자고 하기에 그를 따라 방직공장에 가서 최 만용을 만났는데 그는 어떤 여자를 가리키며 이 여자를 데리고 본부에 가라고 하기에 이 여자가 누구인가고 도 용호에게 물은즉 도 용호는 말하기를 이 여자는 성명이 전 영애인데 이 자가 김 삼룡과 리 주하를 밀고하여 죽인 변절자라고 하므로 저는 적개심에서 그를 본부에 데리고 돌아와 그날 밤 九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四시까지 물고문, 비행기 고문, 오도바이 고문 등을 해가면서 그에게 변절 행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전 영애는 끝끝내 그러한 범죄를 감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고문 과정에서 전 영애는 五、六차에 걸쳐 실신 상태에 빠졌으나 도 용호와 저를 포함한 일당은 김 삼룡과 리 주하를 살해한 데 대하여 자백하고 서명하라고 계속 강요하였지만 전 영애는 끝끝내 그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이튿날 오후에 내무원이 와서 총을 대고 손을 들라기에 깜짝 놀라 손을 들은즉 무장을 해제시키고 저를 억류하였는데 그 방에는 특수부에서 일하던 자들 五、六명이 이미 억류되여 있었습니다. 몇시간이 경과한 후 아래층에서 리 승엽, 조 일명 등의 말소리

가 들리자 그 일행 중의 한사람이 문을 열어주므로 우리들은 석방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리 승엽、 조 일명들이 있는 방에 찾아간즉 리 승엽은 『이놈들 될대로 되라』 하면서 몹시 흥분되여 있었습니다。 그후 우리들은 조 일명의 지시에 의하여 변절자라고 구금했던 자 전부를 내무부에 넘겼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저는 이 특수부의 악랄한 반당적 정체를 알게 되였습니다。

재판장 검사 신문하시오。

검 사 의용군 본부에 배치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시오。

윤 대현 조 일명의 소개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검 사 전 영애를 고문한 리유는 어데 있습니까。

윤 대현 그가 김 삼룡 리 주하를 죽인 변절자라고 도 용호가 말하면서 二四시간 이내에 자백을 시키라 그런데 그 년은 괴뢰 경찰에 체포되여서도 끝끝내 이겨낸 악독한 년인데 단단히 취급하여 그가 고문시에 죽어도 일없으니 사정없이 고문하라고 강조하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고문하게 되였습니다。

검 사 (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에게)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이의없는가。

리 승엽 조 일명 전부 승인합니다。

검 사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신문하시오。

변호인 신문할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증인 전 구하에 대한 신문

재판장 증인 전 구하를 입정시키시오。

(증인 전 구하 입정하다)

재판장 당신이 전 구하입니까。

전 구하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 증인은 누구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까。

전 구하 피소자 리 승엽의 지도하에 있던 안 영달이가 감행한 행위에 대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재판장 말씀하십시오。

전 구하 저는 당 련락소에서 공작하던 중 안 영달을 알게 되였는데 안 영달은 一九四七년도부터 평양과의 련락을 다니면서 당 루트 사업을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 三월경 안 영달은 나에게 적들에게 백색 테로가 있는 반면 우리에게도 적색 테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三八선을 넘어드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체포하여 처단하라고 지시하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였으나 이것은 리 승엽의 특별 지시니까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기에 저는 一九四八년 五월경부터 八월까지 三八선을 래왕하는 자는 그가 월남자이건 입북자이건간에 무조건 체포하여 처단하였는데 그 총수는 四二명에 달합니다。 더 부언할 것은 안 영달이가 전시한 바 지시들 중에 있어서 五·一○ 망국 단선의 흥분된 상태를 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안 영달을 통하여 리 승엽과 밀접한 련계

를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 지시는 안 영달이가 하였으나 안 영달은 리 승엽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만큼 또 안 영달 자신이 리 승엽의 지시라고 발언한 모든 것들로 보아 이 살해 사건은 리 승엽이가 직접 조직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성있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미 진술한 바 四二명을 죽인 이외에도 계속 학살을 조직하였는데 례하면 장풍군당 위원장、개성시당 위원장 등을 죽이라는 안 영달의 지시를 받고 그를 체포하였다 신문하여 보니 그에게 전혀 변절 행위가 없기에 석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인에게)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시오。

변호인 없습니다。

검 사 피소자 리 승엽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장 피소자 리 승엽!

검 사 三八선을 넘나드는 자들을 무조건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리승엽 직접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체 악당이니까 저의 영향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 증인 착석하십시오。

* * *

재판장 남은 증인들을 전부 신문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하십시오。

검 사 이미 범죄 사실이 충분히 해명되였으니 남은 증인은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인 재판소의 재량에 맡깁니다。

(재판소는 즉석에서 평의한 후)

재판장 남은 증인들의 신문은 략하기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피소자들과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전부 끝났습니다。 소송 관계자들께서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별실에 있는 증인들을 전부 입정시키시오。

(증인들 전부 입정하다)

재판장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이 완전히 해명되였으므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안 하기로 되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증인들 전부 착석하다)

재판장 이상으로써 제三일 공판을 끝마칩니다。 제四일 공판은 명일 오전 一〇시에 개정하겠습니다。(오후 八시)

— 제四일 一九五三년 八월 六일 —

재판장 지금부터 제四일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소자들 중에서 보충 진술을 하거나 또는 호상

질문할 점이 있으면 말하시오。(리 승엽 이하 一一명은 각각 없다고 대답하였다)

백 형복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공판 제二일에 조 용복이가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때 재판장으로부터 저에게 조 용복의 진술이 틀림없는가고 신문한 데 대하여 저는 틀림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조 용복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대답하였어야 정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한 조 용복의 진술이 옳다고 했어야 할 것이였습니다。

재판장 (검사와 변호인들에게) 보충 신문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변호인들 없습니다。

재판장 지금부터 二시간 휴정하겠습니다。

* * *

재판장 공판을 계속하겠습니다。(一二시) 이제부터 소추 검사의 론고가 있겠습니다。(론고가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였다。 오후 二시)

三、국가 검사의 론고

피소자 리 승엽、조 일명、림 화、박 승원、리 강국、배 철、윤 순달、리 원조、백 형복、조 용복、맹 종호、설 정식 등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 선동 행위 사건에 대한 검사 부총장 김 동학의 론고

존경하는 재판장 판사 동무들

이 법정에서 四일간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피소자 리 승엽을 비롯한 기타의 공모자들에 대한 간첩 테로 학살 및 공화국 정권 전복을 비롯한 음흉한 행위 등 일련의 악랄한 죄상들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였습니다。 여러분이 심리한 이 사건 공판의 의의는 중대합니다。

이 법정 심리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본건 피소자들에게 대하여 기소된 사실들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조선 인민의 증오와 격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국제 헌병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령에 의하여 수행되였고 또 그들과 직접 공모하여 수행하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심리에서 나타난 모든 사실들은 이 공판의 의의가 결코 리 승엽을 두목으로 한 국제 간첩이며 반국

가적 음모 도당들인 각 개인의 죄상이나 그의 경중을 결정하는 범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로 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원흉들의 흉계가 실패되고 폭로되였다는 사실들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그 마수를 뻗치게 된 첫날부터 조선 인민에 대한 불구 대천의 원쑤로 나타났습니다. 김 일성 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략탈자들은 세계 제패를 야망하면서 우리 조국 강토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아세아 침략 특히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상 전략 기지로 만들며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바로 지금으로부터 三년전인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에는 자기의 앞잡이인 리 승만 역도들을 사촉하여 조선에서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고 직접 현대 기술로 무장한 자기의 륙、해、공군과 자기의 추종 국가 병력까지 총동원하여 란포하게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가장 단말마적이며 최후 발악적인 야수적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자기들의 음흉한 흉계를 관철시켜 보려고 발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야기된 조선 전쟁은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조선 인민의 三년간에 걸치는 영웅적 투쟁의 결과 미 제국주의자들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이 시기에 리 승엽 도당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사실은 조선 인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 승엽 도당들은 직접 미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지령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가 중요 기관들에 잠입하여 장구한 시일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파괴 테로 학살 행위를 감행하고 우리 당과 정부를 내부로부터 분렬 와해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용이케 함과 동시에 반혁명적 세력을 규합하여 무장 변혁을 일으켜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이것이 조국 해방 전쟁 과정에 일층 발악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가장 간교하고 국제적 련계를 가진 원쑤들에 의하여 수행되였다는 점에 본 공판의 특별한 의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一)

존경하는 판사 동무들

본건 공판 심리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의 배후에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계획을 직접 실천하는 미 국무성 촉탁 소위 대한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이며 로흡 리 승만의 고문인 노불을 그 두목으로 하고 조선 인민에 대한 첫 도살자로 등장하였다가 패망당하여 간 미군 사령관이였던 하지의 고문 빼취 미국 제二四군단 헌병 사령관 미군 대좌 빼트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첩보관 니콜스 악명높은 미 정탐 기관 씨·아이·씨의 정치 고문 죤슨 및 로빈손 얼더우드 등 미국에서 가장 음흉한 탐정 테로배들이 서고 있습니다. 피소자들이 공판 심리에서 각각 자백한 바와 같이 이들은 원래부터 미국을 숭배하였으며 조국을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기를 념원한 가짜 공산주의자들이며 인민과는 인연이 없는 자칭 『혁명 활동가』들이라는 것이 본 공

판 심리에서 판명되였습니다。

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 리 강국 기타 공모자들의 진술들은 이를 명백하게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리 강국은 이미 一九三五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지도자 크로리를 만나 앞으로 그와 범죄적 련결을 가질 것을 밀약하였으며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에게 뿌리깊게 침식되였기 때문에 미군이 상륙한 첫 시기에 자신이 솔선하여 미국 정탐 기관과 협력할 것을 언약하였으며 자기의 애인 김 수임을 미군 제二四군단 헌병 사령관 빼트에게 애첩으로 제공하면서 계통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요 정보 재료들을 수집 제공하였습니다。 피소자 리 강국은 一九五○년 五월경 전쟁 도발이 림박하게 되자 미군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 헌 애리스와 리 월리암을 자기 사택에서 二차에 걸쳐 만나고 그들에게 군사 기밀에 대한 정보 재료의 수집과 전달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리 승엽 도당에 망라된 범죄자들의 간첩 활동이 어떠한 위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계급적 사상적인 필연성에서 출발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一九四六—一九四七년, 쏘미 공동 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에 우리 당 내부의 제반 기밀 특히 남로당 중앙 및 지방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체계와 일체 당에 대한 재료들을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당의 조직 활동을 파괴하였으며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측의 일관된 정책에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리 승엽 도당들의 간첩 활동은 변천되는 국제 국내 정세에 따라 점차 악랄하여졌으며 교묘하게 확대되여 갔습니다。 一九四八년 七월 미국 정치 고문 노불은 리 승엽에게 지시하기를 「당신은 평양에 가게 되면 북조선 사회 정세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우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하였으며 이 지령을 받은 리 승엽 도당들은 입북한 후 당내에서 자기들의 가장을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하여 공화국 정부와 당내 주요한 직책에 잠입하였던 것입니다。

리 승엽은 조선 로동당의 비서 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법상 인민 검열 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지위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조 일명은 문화 선전성 부상의 직위에 잠입하게 되였습니다。

리 승엽 조 일명 도당들은 미제 정탐 기관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간첩망을 체계화하며 확대하기 위하여 불순 분자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는 데 광분하여 왔습니다。

우선 리 승엽과 조 일명은 노불과의 련계를 위한 간첩망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주 제一 인쇄소에 잠입한 박 승원과 림 화를 간첩망에 흡수하고 남조선 본부에 노불과 그의 앞잡이인 안 영달、북반부 지역내에서 리 승엽 조 일명과 평양 해주간 련락을 주로 책임진 림 화、해주에서 남반부 본부에 전달하는 책임을 주로 진 박 승원 그런 련락망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리 승엽 도당들은 수차에 걸쳐 공화국의 국가 기밀에 속하는 주요 정보 재료들인 인민 경제 발전에 관한 제반 통계와 정형 내각 각료 및 당 중앙 본부의 간부 리력 문건、당과 정부의 시책、당 정치 위원회 결정 등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내란 도발 음모가 로골화됨에 따라 리 승엽은 당 중앙 위원회 비서 및 사법상의 직위를 리용하여 一九四九년 九월에 당 지도 사업을 구실로 하여 황해도 옹진으로부터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三八 경계선 및 해안 일대에 배치된 공화국 경비대의 병력 및 주둔 위치 등을 직접 탐지하여 조 일명에게 정리시켜 이미 설정된 련락망을 통하여 노불에게 제공하였으며

一九四九년 여름에는 조 일명 박 승원을 기사 취재의 명목으로 까치산에 파견하여 그 전투 정형을 조사하여 노불에게 제공하였던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 피소자들의 일치한 진술과 그의 두목 리 승엽의 『이 재료들은 그들의 내란 도발에 결정적이며 주요한 의의와 역할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에 의하여 완전히 실증됩니다。

미국 대사관 노불의 총체적인 조종과 지도하에 있는 미국 항공 정보관 니콜스와 결탁된 괴뢰 정부 내무부 사찰과 중앙 분실장 백 형복은 남로당에 잠입한 반역자 안 영달을 통하여 공동 피소자 조 용복과 결탁하여 당시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이며 남로당을 현지에서 지도하던 김 삼룡 동지에게 접근하였으며 이때로부터 이미 리 승엽과 『호상 인연』을 가지고 공화국 정권 전복을 음모하던 노불과의 간첩 파괴 음모의 련계를 재생 확대시키게 되였습니다。

리 승만 괴뢰 경찰의 주요 직위에서 수백 수천명의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 고문 학살하는 데 명성을 높인 사형리 백 형복은 리 승엽 도당과 미국 탐정 기관과의 간첩 련계에 대하여 당 공판정에서 말하기를 『一九四九년 一一월 하순경 서울 리 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 과장의 사무실에서 나는 미군 대좌 니콜스와 대 이북 간첩 활동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게 되였는데 이때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미국에 있어서나 기타 반공산주의 진영에 있어서 령토상 가치의 비중보다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위성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는 초점으로 그 가치가 크다。 특히 조선은 三八선을 계선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두 지역에 다 같은 조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탐 활동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되고 있다。 더우기 남조선 경찰에서 최고의 정보 사업을 진행하는 당신들의 임무는 중대하다……고 하면서 노불 박사는 북조선에 대신으로 있는 리 승엽과 이미 통하고 있으니 그는 정치적 수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피소자 백 형복은 이 말에 고무되였고 감탄하였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소자 조 용복이가 진술한 바와 같이 공모자들은 『일거 량득』의 방법으로 김 삼룡의 정식 당 련락 임무를 맡은 조 용복으로부터 안 영달을 통하여 우선 당의 기밀을 수집하고 그에게 간첩 임무를 주어 리 승엽에게 전달케 하고 김 삼룡에게 전달되여야 할 당 내부 기밀을 접수하였으며 리 승엽이가 수집한 간첩 재료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선물로 받은 형식으로 一九五○년 二월부터 一九五○년 四월까지 三차에 걸쳐 받았으며 이 간첩 련락망을 통하여 민주 진영에 대한 최후적인 단말마적 공세를 추구하게 하였으며 피소자 리 승엽이 희망한대로 남반부 지하 투쟁의 탄압을 혹심하게 함으로써 그의 조직을 파괴하게 하였으며 김 삼룡 동지를 공모자 백 형복의 손에 의하여 체포 학살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적 집단의 원흉들은 김 삼룡 동지의 피검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정체가 발로될 것을 우려하고 그를 음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김 삼룡 피검에 대한 외곡된 보고를 하고 북조선측의 태도를 탐지하기 위하여 피소자 조 용복을 입북시켰습니다。

리 승엽은 조 용복의 보고를 접수하고 『정체가 발로되기 전에 남조선에 속히 돌아가서 당으로부터 신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긴급히 세우라』고 지령을 주고 다시 그를 서울에 파견하였습니다。

간첩 본부인 미 정탐 기관에서는 리 승엽의 이 『대책』이 명안이라고 찬동하여 나서면서 노불、니콜스의 방안에 의하여 악독한 반역자 백 형복을 공산주의 동정자로 가장시키고 안 영달、조 용복과 함께 一九五○년 五월 七일에 드디여 『의거 입북』의 형식으로 북반부에 잠입시켰

으며 리 승엽은 그후 간첩 활동을 위하여 노불의 지령대로 백 형복을 내무 기관에 잠입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안 영달에게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에 필요한 정보와 자기의 의견을 노불에게 전달하라고 다시 남반부에 파견시키고 조 용복을 앞으로의 범죄적 계획 달성에 리용하려고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공동 피소자들은 이러한 범죄적 계획과 그 실천을 위하여 자기들이 감행한 범행을 각각 시인하면서 본 사건에 대한 기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피소자 백 형복은 당 공판정에서 진술하기를 『우리들이 즉 안 영달 조 용복과 나는 리 승엽이가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사촉한 말에 의하여 니콜스로부터 「의거 입북」에 대한 연극을 꾸미도록 지령을 받고 처음에는 월북에 대한 문제를 주저하였으나 안 영달과 같이 반도 호텔에서 노불의 지시를 받고 보니 그는 「머지 않은 시일에 이북을 진공할 것이며 이북에 대한 진격을 개시하면 하루만에는 평양을 점령할 것이며 그때는 리 승만 대통령과 말하여 국장급으로 승격시킬 것이며」라는 등의 말로써 권유하기 때문에 머지 않는 시기에 곧 북벌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또 북조선에 들어가면 노불이 말하는 리 승엽이가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월북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노불은 겸하여 지시하기를 「안 영달은 리 승엽에게 가면 머지 않아 북벌한다는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고 사실상으로는 국방군이 먼저 북벌하지만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북조선 공산 정부측에 전가하기 위하여는 미국측에서 요구되는 자료들이 입수되여야만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 리 승엽으로부터 그러한 정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속히 남조선에 돌아 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월북한 후 리 승엽의 보호밑에 내무 기관에 잠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차 그와의 상봉에서 리 승엽에게 『노불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한 후 앞으로의 활동을 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피소자 백 형복의 이와 같은 진술은 공동 피소자 조 용복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히 확증되며 리 승엽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써 공동 피소자들의 진술을 시인하였습니다。 즉 그는 진술하기를 『나는 노불로부터 전달하여 온 안 영달의 말을 듣고 그 범죄적 계획을 전반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우선 노불이 긴급히 요구하는 국방군의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민 공화국과 그의 무장력인 조선 인민 군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우선 국방군이 침공을 하면서 분초를 다투어 인민 군대가 침공한다고 라디오 방송을 할 것이며 산악 지대의 부분적 지대에서는 국방군이 고의적으로 一키로메터 내지 二키로메터 후퇴하면서 인민 군대의 진공이라고 소란을 일으킨다면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민 군대측에 전가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라고 안 영달에게 과업을 주어 그를 서울에 있는 노불에게 보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소자 리 승엽 자신이 진술한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 승만의 동족 상쟁의 내란 도발 음모와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의 민주 진영에 대한 극악한 탄압과 대중적 학살 정책의 야수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인민의 심판을 받는 리 승엽 도당과 밀접히 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리 승엽 도당들은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경에 안 영달과 같이 상전의 새로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이미 안 영달이가 운영하던 정보망과 자기 영향하에 있던 자들과 간첩 활동에 가담하여 온 공동 피소자 림 화 등을 통하여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 해당되는 정보 재료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一九五一년 三월 인민 군대가 전략상 서울에서 후퇴할 때 노불과 련계를 가지기 위하여 개별

적 인물들을 자기의 간첩 활동에 인입하고 서울에 남겨 두었으며 一九五一년 노불이 북반부에 파견한 간첩 분자들을 통하여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받았던 사실이 확정되였습니다。

한편 리 승엽 도당은 간첩 활동에 망라된 자들 간에 『호상 은폐』와 『상호 비호』로써 교묘히 그 정체를 보존하면서 공화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며 그의 기밀을 수집하여 미국 상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군사상 패배를 희망하고 미군의 전략상 필요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리 승엽 도당들은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일찌기 미 국무성에 본부를 둔 미국 정탐 기관의 국제 고용 간첩으로 등록된 리 강국과 피소자 림 화 등과 같이 一九五二년 一〇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군사 기밀들과 당 및 정부의 주요 기밀들을 수집하여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이상에서 판명된 사건의 모든 자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리 승엽 도당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전복하고 우리 나라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으려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二)

존경하는 판사 동무들

이 저주로운 피소자들은 노불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 계획에 의하여 소위 『후방 숙청』이라는 구호하에 애국자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지하에 들어간 민주 정당 사회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一九四九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방책인 총선거를 제의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호소문이 발표되였을 때 노불의 지시에 의하여 리 승엽 도당들은 인민 군대가 오라지 않아 진공하여 올터이니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서울에서만 하여도 수류탄 六、〇〇〇개 사건을 야기시키여 애국자들을 수다히 체포 감금 학살당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공동 피소자인 백 형복의 진술에서 판명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였던 피소자 백 형복으로 하여금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의 직접 지도 밑에 안 영달과 피소자 조 용복의 협력에 의하여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 동지를 체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리 승엽 도당은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종치 않은 선량한 인민들을 여러가지 『협의』의 구실 또는 『공작상 비밀』이라는 구실로 수다히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피소자 맹 종호는 진술하기를 『一九四九년 여름 련락 소장으로 있을 때 불순 분자 서 득은으로부터 당 공작을 하다가 입북한 현 인초의 二명을 간첩 혐의가 있으니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을 심사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범죄의 혐의 사실도 없으므로 총살을 주저하고 있던 차 리 승엽으로부터 자기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그후 피소자 리 승엽은 양양 련락소 지도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그를 살해케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리 승엽을 괴수로 한 공동 피소자들은 이와 같은 테로 학살 행위를 전쟁 개시 후 해방된 서

울 지구에서 더욱 잔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써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리 승엽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 청사 지하실에 류치장을 설치하고 그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 리 중엽을 두목으로 한 살인 테로 단체를 조직하고 공동 피소자 맹종호에게 지시하여 강금된 로동당원과 기타 『범죄』의 『혐의』자들을 고문으로 취조케 한 후 그중 七명을 자기들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로써 한강 강변에 자동차로 실어내다 총살하였던 것입니다。 피소자 리 승엽은 교묘하게 자기의 범죄적 기밀을 알고 있는 자와 또는 자기들의 정권 전복을 위한 음모 활동에 방해되는 자들을 학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영달을 두목으로 하는 살인 단체인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가 상부에서 이를 해산시키게 되자 그 범죄적 만행을 계속하여 이를 어데까지나 은폐하기 위하여 그 대신 의용군 본부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七〇여명을 감금한 후 인간의 량심이란 한 토막도 찾아 볼 수 없는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여 실신 상태에 처하게 한 사실들이 증인 윤 대현의 증언에서 명백히 판명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은 공화국의 관대 정책에 대치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무조건적으로 대량 체포 감금하고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화국 정부 주위로부터 해방 지구 인민들을 리탈시키는 범죄적 만행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리 승엽 살인 도당들은 자기들의 반국가적 범죄 사실이 폭로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공모자들 중에서도 서슴치 않고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김 삼룡 동지를 피검케 하여 남반부 당 사업을 파괴한 안 영달의 범죄 사실을 어데까지나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의용군 본부 특수부』 책임자였던 리 중업에게 전 영애라는 녀성을 체포하여다 김 삼룡 동지를 밀고하여 피검케 하였다고 날조하는 모략적인 범행까지 감행하다가 안 영달의 정체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자 자기들의 범죄 사실이 발로될 우려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영달을 전선에 동원되는 형식으로 림 종환 부대에 배치하여 그로 하여금 학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오늘 법정에서 전 영애를 취급한 현장에서 목격한 윤 대현의 증언과 피해자 전 영애의 증언에 의하여 판명되였습니다。

리 승엽을 괴수로 한 피소자 배 철、윤 순달、박 승원、맹 종호들은 자기들의 비밀 단체에 의하여 수다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 승엽의 부화한 생활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부녀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획책하였으며 또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三)

존경하는 재판장 판사 동무들

리 승엽 도당들은 우에서 론술한 바와 같은 간첩 행위와 남조선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며 테로와 학살을 감행하는 반혁명적 음모 활동과 함께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음모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 음모 행위의 력사적 경위를 분석할 때 반역 도당들이 감행한 다른 모든 범죄와의 련계성을 상기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피소자 리 강국은 당 공판정에서 진술하기를 『나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해방과 독립이 미국의 세력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미국의 원조를 바라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희망함으로써 박 헌영의 소위 八월 테제가 반쏘적이고 우경 기회주의적이며 국제주의적 원칙을 리탈한 민족주의적 오유들로써 충만되여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급적 리해와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으로부터 전적으로 그의 소위「조선 인민 공화국」조작 음모에 참가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리 승엽 도당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숭배하여 왔으며 그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망상과 야욕을 위하여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신탁 통치라고 반대하여 나섰으며 인공적으로 분렬된 단일한 조선 민족의 호상 불신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분렬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공화국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그의 시책을 비방 반대하는 반동 선전 선동을 하여 왔으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는 행동들을 조직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이 공판에서 너무나 명백히 폭로되였으므로 이를 다시 회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一九五○년 六월 서울에서 패주한 음모 도당들의 상전 노불의 새로운 지령 실천을 위한 단계로부터 주권 전복에 대한 활동은 적극화되였으며 로골화되였다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불은 안 영달을 통하여 『「당신들은 너무 상심할 것이 없다. 앞으로 미국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인천과 원산에 상륙할 것이며 남진한 인민 군대를 포위할 것이며 속한 방법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로 진공할 것이니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미군과 호응하여 인민 봉기를 조직하라」「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군사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령을 나에게 전달하여 왔습니다』라고 리 승엽은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정권 전복을 위한 음모자들의 활동은 점차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과 배합되는 방향에서 격화되였으며 이 악당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그들이 차지한 직권을 리용하여 음모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위 『인민 봉기』의 범죄적 계획을 실천에로 전환시키기에 광분하였습니다. 리 승엽은 공동 피소자 림 화가 지도하는 문화 기관에 지시하여 그로부터 매일 이에 필요한 정보 자료까지 수집하였던 것입니다.

一九五一년 八월말경에는 소위 미국의 추기 공세와 관련하여 이것을 좋은 계기로 피소자 리 승엽을 위시한 배 철 림 화 박 승원 등은 비밀 회담을 가지고 무장 폭동을 조직할 것을 토의 결정하였으며、동년 九월 하순에는 리 승엽의 지도하에 폭동 지도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폭동 총사령관에 리 승엽 참모장에 박 승원 군사 조직 책임자로 배 철 폭동 지휘 책임자로 김 응빈 정치 선전 선동 조직 책임자로 조 일명과 림 화 등의 성원으로 된 무장 폭동 지휘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음모 도당들은 무장 폭동의 실현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들은 금강 학원 및 인민 유격대 제一○ 독립 지대를 범죄적 목적을 위하여 확장 강화하였으며 금강 학원을 구테타에 긴급히 리용할 계획밑에 이를 평양 부근에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구실을 리용하여 금강 학원과 유격대 제一○ 지대 및 제一 지대의 인원과 무장력을 증강하였으며 간부 진영을 자기들에게 맹종하는 불순 분자들로써 교체하고 반동 사상을 주입시키는 교육 선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무장 폭동 실현을 위한 가능성들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 중앙 본부에 련락부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하여 그를 자기들의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며 이를 불순 분자들의 집결지로 만들어 무장 폭동의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케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장 세력의 확장 강화와 동시에 음모 도당들은 폭동 조직에 필요한 일반적 세력과 기관을 획득하려고 하는 방면도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판에서 리 승엽、배 철 등이 진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해방 지구에 경기도 인민 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자기들의 범죄적 집단에 리용하기 위한 지반으로 전환시키며、그 지역내에 망라된 약 二〇만의 인구를 리용하려고 기대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피소자 맹 종호는 말하기를 『리 승엽은 동년 一〇월경에 재차 一〇 지대에 와서 모나꼬 왕국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이곳을 공화국 정권에서 분리시키며 자급 자족 경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소위 「리상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장 폭동의 성공을 미리 예견하고 一九五二년 九월 첫 휴식 일요일、박 헌영의 사택에서 피소자 리 승엽、조 일명、림 화、배 철、박 승원 등이 모여서 자기들이 장차 수립하려는 소위 『새 당』과 『새 정부』의 조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수상』으로 박 헌영、『부수상』에는 주녕하、장 시우、『내무상』박 승원、『외무상』리 강국、『무력상』김 응빈、『선전상』조 일명、『교육상』림 화、『로동상』배 철、『상업상』윤 순달 그리고 『새 당』의 제一 비서로 리 승엽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四)

존경하는 판사 동무들

그러면 인제 나는 본 사건에 인입된 매개 피소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범죄 사실과 법적 책임을 말하겠습니다。

一、피소자 리 승엽에 대하여

조선 인민의 원쑤 리 승엽은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되자 당과 정권 기관내에 잠입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비서 겸 사법상 또는 인민 검열 위원회 위원장、서울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등의 요직에 등장하여 본 범죄 감행에서 두목 역할을 하였습니다。

一九四五년 九월 미군이 남조선에 진주하자 미군 정책을 지지할 것을 성명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二월부터는 직접 미군 정탐 기관에 가담하여 미 국무성 촉탁이며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 노블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 파괴 테로 정권 전복 음모 등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一九四六년 二월 서울에서 조 일명과 같이 당 내부 기밀들과 정치 분야에 걸친 중요 비밀 자료들을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八년 八월부터 박 승원을 흡수하였고 기타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 림 화、안 영달、조 용복 및 백 형복 등을 一九五〇년 五월까지 공동 간첩으로 인입하였으며 一九五一년 七월경에도 역시 미국 정탐 기관의 고용 간첩인 리 강국을 인입하고 그들을 지도하여 오면서 당 및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각 분야의 비밀 자료들을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수집 제공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였습니다。 또한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안 영달、조 용복 등과 결탁하여 남조선 민주 력량을 파괴、약화시키는 활동을 감행케 하였으며 드디여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는 자기의 공모자 안 영달、조 용복으로 하여금 조

선로동당 정치 위원 김 삼룡을 리 승만 괴뢰 경찰에 밀고하여 피검케 하였으며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八년부터 안 영달, 맹 종호 기타 자기의 심복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반국가적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알고 있는 당 간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 학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六·二八후 서울 해방과 함께 민주 력량의 탄압 학살을 목적하고 살인 테로 집단인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 등을 조직 지도하였습니다。

피소자 리 승엽은 피소자 리 강국, 조 일명, 박 승원 등 자기들의 공모자들과 함께 인민들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조성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또한 변절자 및 반역자 기타 불순 분자들을 당과 국가 기관의 주요한 지도적 지위에 등용 배치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확대하여 온갖 정치적 모략 활동을 하도록 조직 지도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안 영달을 통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인민 봉기를 조직할 데 대한 노불의 지령을 받고 一九五一년 八월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피소자 배 철, 박 승원, 조 일명, 림 화, 윤순달 등과 결탁하여 무장 폭동 음모 본부를 조직하고 그의 총사령관으로서 폭동을 감행하기 위한 무장 부대와 력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광분하였으며 一九五二년 九월 소위 『새 당』과 『새 정부』를 조직하는 데 그 두목으로 활동하여 왔다는 사실이 피소자 진술 및 이에 부합되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완전히 판명되였습니다。

二、피소자 조 일명에 대하여

그는 一九三四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고 서울 대화숙 일본어 강사로서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노예화 사상인 소위 『내선 일체』를 제창하여 온 조선 인민의 반역자로 판명되였으며 八·一五 해방후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해방 일보』 편집 국장의 요직에 잠입하여 존손에게 미국 탐정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공모하여 수차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의 간첩 자료를 미국 탐정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八년 八월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선전성 부상의 직위를 리용하여 리 승엽, 림 화, 박 승원 등과 함께 공화국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치는 기밀들을 수집하여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 리 승엽과 같이 서울에서 의용군 본부내에 테로 살인 집단인 『특수부』를 조직하고 민주 력량 탄압 및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 음폐를 위하여 애국자들을 테로 학살하는 범행을 지도하였으며 그는 八·一五 해방후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리 승엽 등의 범죄 활동에 가담하여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였으며 一九五一년 九월부터는 리 승엽 등과 함께 당을 파괴하고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음모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소위 『새 정부』 조직 음모에 있어서 『선전상』의 직위를 차지한 사실이 판명되였습니다。

三、피소자 림 화에 대하여

림화는 범죄 당시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그는 벌써 一九三五년에 일제 경찰과 야합하여 조선의 혁명적 문화 단체인 『카프』를 파괴한 댓가로 친일 단체인 『문인 보국회』의 리사의 직위를 받았고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음폐하기 위

하여 조선 인민에게 소위『내선 일체 사상』독소를 열성적으로 주입하여 왔으며 八·一五 후는 부르죠아적인 순수 문학을 주장하며 무원칙한 대동 단결을 주장한 자로서 조선 공산당내에 잠입하였으며 벌써 一九四五년 一二월에 미국 탐정 기관인 씨·아이·씨의 고문 언더우드 또는 미군 정청 공보처 고문 미군 중위 로빈손 등과 련계를 맺고 개별적으로 또 그 후에 있어서는 리 승엽 등과 결탁하여 간첩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리 승엽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조 일명、박 승원、리 원조 등과 작당하여 반국가적이며 반쏘적인 선전 선동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一九五一년 八월부터 무장 폭동 음모 행위에 가담하여 조 일명과 같이 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을 담당하고 문화 예술 단체내에서 자기들의 기반을 가지기 위하여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소위『새 정부』의『교육상』의 직위를 획득한 자라는 것이 피소자들의 호상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판명되였습니다。

四、피소자 박 승원에 대하여

심리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그는 벌써 一九三五년도에 적색 로조 사건으로 체포되자 동 사건에 관련된 서 병민 외 一명을 일제 경찰에 밀고하여 투옥케 하였으며 一九三七년 八월에는 대구 지방 법원 법정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천황폐하를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자이며 그후 대구 대화숙 위원 또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사 기자로『반도 청년들이여 미제 격멸의 전선에 나아가라』는 등 애국적 조선 청년들을 일제의 대포밥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일제의 주구 노릇을 한 자입니다。

그는 해방후 자기의 반역적 과거를 숨기고 당에 잠입하여 체포될 당시까지는 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부부장의 중요한 위치에까지 잠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리 승엽 및 기타의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간첩、반국가적 선전 선동、무장 폭동 음모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소위『새 정부』조작 회의에서『내무상』의 직위를 획득한 자라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五、피소자 리 강국에 대하여

우선 그는 대 지주의 출신이며 벌써 일제 시대부터 미 제국주의 고용 간첩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였습니다。 즉 그는 一九三五년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할 때에 뉴욕에 들려 미국 탐정 기관 지도자 크로리를 만나 앞으로 범죄적인 련계를 가질 것을 약속함으로써 미국에 등록된 국제 간첩으로 되였으며 八·一五 해방후 그는 즉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겸 내각 부수상 박 헌영에 의하여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게 되였다는 것이 또한 확인되였습니다。

남반부에 미군이 진주하자 그는 자기의 애첩 김 수임을 당시 미국 정탐배 뻬트의 애첩으로 넘겨 주어 미국 간첩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후 三八선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인 뻬트의 자동차로써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그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 국장의 요직에 있으면서 수차에 걸쳐서 주요한 간첩 자료들을 미국 정탐 기관에 넘겨 주었으며 특히 리 승엽의 간첩망에 가담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수

차에 걸쳐 주요한 간첩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반국가적인 선전 선동과 조선 인민의 정치적 통일을 약화시키는 등 모략적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라고 소위 『새 정부』 구성에 있어서 『외무상』의 직위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에서 판명되였습니다。

六、피소자 배 철에 대하여

그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으로서 리 승엽과 작당하여 조선 로동당을 파괴하고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 음모를 하고 그의 군사 조직 지휘를 책임지고 세력 기반의 강화와 무장 부대 강화에 적극 참가하였으며、당과 정부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기 위한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였으며 一九五二년 一一월에는 김 정숙 외 二명을 리 승엽의 위신 보장이란 구실밑에 피소자 맹 종호에게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피소자 윤 순달과 공모하여 무고한 인민 二명을 살해한 사실이 판명되였습니다。

七、피소자 윤 순달에 대하여

그는 당 중앙 본부 련락부 전 부부장으로서 리 승엽 도당들의 공화국 정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 행위에 참가하여 그의 무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반국가적 선전 선동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소위 『새 정부』 구성에 있어서 『상업상』의 직위를 획득하였고 一九五二년 一一월경에는 배 철과 공모하여 무고한 인민 二명을 간첩 『혐의』의 리유로 살해하였습니다。

八、피소자 리 원조에 대하여

그는 八·一五전 조선 일보사 기자 또는 서울 대동 출판사 부주필로 있으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 활약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였으며 해방후 자기의 반역적 정체를 음폐하고 당에 잠입하여 당 중앙 본부 선전 선동부 부부장의 직위에까지 등용되였던 자로서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박 헌영 리 승엽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 선동을 감행하였으며 피소자 조 일명 림 화 등과 문예총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자기들의 반동적인 세력 확장을 위하여 파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九、피소자 백 형복에 대하여

그는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순사 부장 고등계 형사로서 八·一五 해방후 괴뢰 경찰 전라북도 및 강원도 경찰국 사찰 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전라북도 및 강원도당을 파괴함에 이를 조직 지도하였으며 체포한 당 지도 간부 황 의태 외 二〇〇여명을 학살함에 직접 지휘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으며 안 영달과 련계를 맺어 체포된 조 용복을 변절시켜 애국자 김 삼룡 동지를 체포하는데 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탐정으로 리용하면서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미 극동 항공 사령부 항공 정보관 미국 대좌 니콜스와 결탁하여 조 용복을 三차에 걸쳐 공화국 북반부에 입북시켜 리 승엽과 같이 공화국 군사 기밀 및 당과 정부의 주요한 기밀을 탈취하여 내였습니다。

이 추악한 피소자는 노불 및 니콜스、안 영달、조 용복과 모의하고 그들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 활동을 목적하고 『의거 입북』 형식으로 가장하고 월북하여 리 승엽의 비호하에 공화국 내무기관에 잠입하여 간첩 활동을 수행하려던 사실이 확인되였습니다。

一〇、피소자 조 용복에 대하여

그는 一九三六년에 동경에서 공청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된 후 변절하여 일제 신문 기자 또는 개인 기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八·一五 해방후 당에 잠입하여 一九五〇년 一월경에 피소자 백 형복과 야합하여 김 삼룡 동지를 밀고 투옥 학살케 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리 승엽의 간첩망에 가담하여 수차에 걸쳐 리 승엽에게서 접수한 간첩 자료들을 백 형복에게 제공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넘겨 주었으며 一九五〇년 五월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백 형복 안 영달 등 간첩 분자들과 함께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여 간첩 활동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였습니다。

一一、피소자 맹 종호에 대하여

피소자는 일본 제국주의의 밀정일 뿐만 아니라 미제의 밀정이며 살인귀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으며 그는 一九三九년 一월에 함흥 형무소에서 출옥하자 라남 경찰서 고등계 주임 다까하시의 밀정으로서 일제를 반대하는 청진 제철 로동자 사건을 비롯하여 허 헌 선생、정 창섭、김 기남 등 수다한 애국자를 밀고 투옥케 하였으며 충실한 『내선 일체』 『황국신민』화를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八·一五 해방과 함께 그는 남반부에 도주하여 리 승엽 등 공모자들의 조력을 받아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기만하고 당내에 잠입하여 남강원도 도당 부위원장 직위에까지 등용되여 본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될 당시에는 조선 인민 유격대 제一〇 지대 대장으로 있었습니다。

一九四七년 말에 남강원도 도당 부위원장으로 월북함에 있어서 미 군정 경무부장 조 병옥의 비서 고 학래의 신임장을 가지고 월북하여 그후 二차에 걸쳐 인민군 무력 상태 기밀 등 중요한 국가 군사 기밀들을 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였습니다。

피소자는 리 승엽 및 그 공모자들의 범죄 행위 특히 정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에 가담하였으며 반국가적 선전 선동과 정권 전복 음모를 위한 무장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자기들의 범죄를 음폐하기 위하여 一九五〇년 七월경 서울시 인민 위원회 지하실에 류치장을 설치하고 자기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당 간부 및 무고한 인민들을 소위 『변절』 『비밀 보장』 이라는 명목하에 七〇여명 체포하여 구금하고 고문 취조하다가 七명을 한강에 끌고 나가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으며 유격대 一〇 지대장으로서 직접 또는 대원들에게 지시하여 一三명의 대원 또는 인민들을 『변절』 또는 『비밀 보장』 이라는 구실로 총살한 사실 등 살인귀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一二、피소자 설 정식에 대하여

八·一五 해방전에는 미국 마운트 유니온 대학을 다녔고 八·一五 해방후에는 미 군정청 공

보처 여론 국장으로 있다가 북반부에 잠입하여 인민군 총정치국 제七부 부원으로 있다가 체포된 자로서 一九四五년 一一월부터 남로당과 민주 진영을 탄압할 목적으로 一九四六년 五월경에 공보처 소속 미군 장교 로빈손과 결탁밑에 이미 그와 련계를 맺고 당시 남조선 문화 단체 총련맹 부위원장으로 있던 피소자 림 화를 통하여 당 내부의 비밀 자료들을 수집하여 로빈손에게 제공하였으며 九월 림 화의 보증으로 당에 잠입하였고 당과 공화국 정부와 공산수의를 비방하는 반동적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는 등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왔습니다。

이상에서 론술한 각개 피소인들의 범죄 행위는 당 공판 심리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기소장에 렬거된 법조 적용과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一)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제六五조 一항、제七六조 二항、제六八조 및 제七二조

(二)피소자 림 화 박 승원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제六五조 一항、제七六조 二항 및 제六八조

(三)피소자 리 강국의 범죄 사실은 형법 제七八조、제六八조 및 제七六조 二항

(四)피소자 배 철 윤 순달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제六五조 一항 및 제七六조 二항

(五)피소자 리 원조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제六五조 二항、제七六조 二항

(六)피소자 백 형복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九조、제七八조 및 제七一조

(七)피소자 조 용복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 및 제六八조

(八)피소자 맹 종호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八조、제六五조 二항、제七六조 二항、제七二조 및 제六八조

(九)피소자 설 정식의 범죄 사실은 공화국 형법 제七九조에 각각 해당된다는 것이 공판 심리 및 예심 재료로써 충분히 확증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판사 동무들 공판 심리에서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저주로운 저 악한들의 범죄 사실이 특히 피소자들의 고백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해명되였습니다。 리 승엽 도당들은 과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였고 현재 와서는 새로운 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탐 기관의 간첩이며 각종 파괴 테로 도발 음모의 야수들이라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재판에서 판명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는 조선 인민들에게 또다시 미 제국주의자들의 노예의 멍에를 씌우는 동시에 우리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반대하기 위하여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쏘 미 공동 위원회의 사업을 파탄시키며 직접 미제와 결탁하여 공화국의 민주 건설의 파괴 행위와 간첩 테로 학살 행위를 공공연하게 감행하여 왔으며 심지어는 무장 폭동으로 공화국 정권 전복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소위 『새 정부』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미제의 직접적 지도하에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며 조선 인민을 노예화할 뿐만 아니라 쏘련 및 중국을 침공하려고 발광적인 전쟁 준비를 감행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화국의 중요한 군사 정치 경제 각 부문에 걸친 비밀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저들로 하여금 전쟁 도발을 용이케 하는 간첩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미 제국주의의 야수들과 그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여 정의로운 조국 해방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인민 군대의 무장력과 인민 유격대의 무장력을 약화 파괴하는

행위들을 감행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하에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는 무장 변혁을 일으키려는 음흉한 음모를 하였으며 그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이들은 시종 일관하여 자기들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반국가적 반동 선전 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민주 건설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약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추악한 악당들은 자기들의 범죄들을 음폐하기 위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 학살하는 등 살인귀적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하여 왔습니다。

판사 동무들

여러분들이 저 간첩 파괴 음모자들에게 해당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四일간에 걸친 공판에서 판명된 추악하고 간교하고 음흉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위하여 싸우다가 원쑤들의 반역적 행위에 의하여 희생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반드시 상기할 것을 바랍니다。

당신들이 내리는 판결은 반드시 그것이 공화국을 침해하려는 리 승엽 도당들과 같은 분자들에게는 물론 제국주의자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주는 판결로 되리라는 것은 더 의심할 바 없습니다。

나는 국가 소추자로서 피소자 리 승엽、조 일명、림 화、리 강국、박 승원、배 철、백 형복、조 용복、설 정식、맹 종호에 대하여는 각각 사형 피소자 리 원조、윤 순달에 대하여는 각각 一五년 내지 二〇년 한도내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四、변호인들의 변론

재판장 공판을 계속하겠습니다。(二시 一五분)

이제부터 변호인들의 변론이 있겠습니다

피소자 리 승엽에 대한 변호인 지 영대의 변론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판사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피소자 리 승엽을 변호할 책임이 부과되였습니다。

지난 三일간에 걸친 공판 심리를 통하여 피소자 리 승엽을 위시로 한 기타 피소자들의 반역적인 음모 활동이 적라라하게 폭로됨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조선 인민들과 더불어 나 역시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는 극히 엄중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공화국 변호사로서 공화국 헌법 제八六조가 모든 피소자들에게 부여한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공판에 기여하고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재판소 앞에 말씀드리려합니다。

판사 동지 여러분

본건 공판 심리 행정에서 다른 변호사 동무들이나 피소자 리 승엽을 변호하는 나 자신이나 모

두가 다 피소자들에 대하여 적게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은 소추 사실이 재판소의 주도 면밀한 심리에 의하여 당 공판정에서 피소자들의 숨김없는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과 해당한 증거물들로써 날날이 증명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검사의 준렬한 론고에서 피소자들의 범행이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론리적으로 확증된 이상 나는 사실 인정 문제에 있어서나 법조 적용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내가 재판소에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피소자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피소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반역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당적인 범죄를 범하게 한 동인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싶이 제二차 세계 대전은 국제 반동 세력에 의하여 준비되였으며 동방에서는 군국주의 일본과 서방에서는 히틀러 독일에 의하여 도발되였고 그들에 의하여 도발된 전쟁은 국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써 종결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 쏘련은 국제적 위신이 장성되였고 민주주의는 소멸 약화될 대신에 중앙 구라파와 동남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은 일층 예속화를 반대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적 체계의 위기가 첨예화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벌써 인류의 三분지 一이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조선 인민도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통치 제도로부터 해방되였습니다. 실로 전후 시기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일층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제국주의 진영에게는 경제적 난관이 증대되였고 미국 상전과 그의 종복자 간에는 모순이 증대되여 간 데 반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여기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쏘련이 거둔 성과들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직면하여 더욱 더 초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강력한 발전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은 그들을 더욱 불안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민주 진영에 대하여 자기들의 압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수억 딸라를 전쟁 도발과 파괴 행위를 조직하기 위하여 리용하고 있었으며 자기들의 앞잡이인 간첩 파괴 분자들을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파견함으로써 제반 민주 건설 성과들을 파괴하도록 온갖 흉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창건된 제반 민주 건설 성과를 파괴하며 조선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음흉한 상투 수단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즉 본진 심리에서 폭로된 미 주둔군 사령관 죤 알·하지와 그의 정치 고문인 미군 장교 빼취나 미 국무성 촉탁이였고 또는 미 군정청 정치 고문이며 미국 대사관 정치 고문이였던 노불 등과 같은 자들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흉책을 직접 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들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들은 조선에 기여들어 오자 자기들의 졸개로서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반역자 불순분자들을 물색하였으며 자기의 앞잡이로 알맞은 리 승엽을 발견하고 그를 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놈들은 이미 혁명 운동에서 변절하였으며 감옥에 구금된 조건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피소자 리 승엽으로 하여금 자기의 충실한 졸개로서 복무할 것을 응락케 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피소자 리 승엽은 왜 이와 같은 반역적인 행위를 응락하고 그들의 충복으로 복무하였겠습니까。

나는 그의 원인을 사회적 생활 조건에서 찾아 보려고 합니다。

일찌기 칼 맑스 선생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들의 실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실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변호하는 피소자 리 승엽의 의지 사상 및 도덕적 면모 역시 그가 성장한 사회 환경과 조건밑에서 형성되였고 제국주의 지배의 영향 그것이 본건 범죄의 사상적 동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합니다。

당 공판 심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〇五년 二월 八일 경기도 부천군에서 뱃사공의 아들로서 출생하여 청소년 시기를 려인숙을 경영하는 가정 환경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강도 일제가 식민지 노예 정책을 우리 나라에 침투시키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그는 일제 노예 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특히 인천에서 상업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한 때는 독립단에 들어가 보려고도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 보려고도 하고 또한 쏘련에 류학을 기도해 보기도 하였으나 전부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였으며 일제 말기에는 일제가 조선에서 량곡을 수탈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치한 소위 식량령단 리사로서 종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생활 환경속에서 피소자는 진정한 맑스주의자가 될 수 없었으며 과연 그는 예심정에서 진술한 자필 고백서에서 솔직히 고백한 바와 같이 그는 어데까지나 락후한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코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一九四〇년에 인천 감옥에 구금되자 혁명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안일을 좋아하는 리기주의적 사상 근거에서 전향 성명까지 함으로써 완전히 변절자의 진흙탕 속에 전락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소자가 살아온 사회적 생활 환경과 조건은 결국 자칭 공산주의자였지만 소부르죠아 사상의 소유자이며 락후한 반동적인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의 령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八·一五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새 조선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나갈 바 옳은 민주 로선을 걷지 못하고 도리여 탐위주의 영웅주의에서 숭미 사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미 제국주의자에게 팔아 먹으며 미제의 침략을 도우면서까지도 자기의 더러운 정권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엄청난 망상까지 하고 음모 책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피소자가 살아온 환경이 그의 락후한 소부르죠아적 사상을 조성하였으며 그는 이를 시정하지 못한 데로부터 八·一五 해방후 계속하여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고 원쑤의 편에서서 범죄 행위를 감행케 한 중요 동인이 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소에서 피소자의 죄책을 평의함에 있어서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소자 리 승엽은 공판 행정을 통하여 자기의 극악한 범행을 조금도 숨김없이 성실히 재판소 앞에 말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자기의 헛된 모든 범죄적인 견해에 대하여도 진실대로 토로함으로써 사실 진상을 구명하는 데 적극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도 피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시고 정상의 한 부분으로서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변론을 끝마칩니다。

피소자 림화리 원조 설 정식에 대한
변호인 김 문평의 변론

존경하는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판사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내가 변론을 담당한 피소자 림 화, 리 원조, 설 정식에 대한 변론을 하려 합니다。

변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三일간에 걸친 공판 심리에서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공화국의 재판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줌으로써 피소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자유롭게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보장하여 주신 데 대하여 피소자들의 법적 리익을 대표한 변호인 나로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변론에 앞서 우선 나는 본건 공판이 차지하는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판사 여러분이 그렇게도 세밀히 심리한 본건 공판은 단지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내리는 데만 그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건 피소자들을 조종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함으로써 우리들이 미제 침략에 대한 경각성을 더 일층 높일 수 있게 되였다는 데 보다 큰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 공판이 차지하는 정치적 의의는 어찌 이것 뿐이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침략 전쟁이 영웅적 조선 인민들의 강의한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패배로 끝났으며 미제의 간첩 암해 파괴 행위도 적발 폭로되였다는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욕망이 너무나 망상적이였다는 것이 오늘 공판에서 더욱 명확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피소자 리 승엽을 두목으로 하여 수행된 본건 반국가적인 범죄는 그 규모에 있어서나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있어서도 우리 공화국 력사에서 지금까지 그 류례를 볼 수 없었던 엄중한 범죄입니다。 피소자들의 예심 이래 당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호상 부합되는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소자들의 변호를 담당한 나의 견해로서도 피소자들에게 제시된 소추 사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변론을 담당한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반박할 근거가 없으며 국가 검사와 론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소자들에 대한 변론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공화국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판에 있어서 합법성을 고수하며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 평가에 진정한 나의 견해를 제의함으로써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공화국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성심 성의 수행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 고전들은 사회 현상이 그 어떠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물들과 일정한 련관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도 사회 현상의 하나이니만치 피소자들의 본건 반국가적 범죄 행위도 그들의 생활 환경과 일정한 련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건 범죄 행위는 단지 피소자들의 객관적인 행위와 그들의 죄책 형태에만 국한하여 고찰할 것이 아니라 공판 심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본건 피소자들의 범죄는 그것이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의 한 부분이였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조선에 있어서 그 얼마나 악랄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한 첫날부터 남조선 인민들의 창의로써 조직한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그 대신 자기들의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리승만을 두목으로 한 괴뢰 정권을 조작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수많은 애국자와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 학살 구금하고 민주 세력을 탄압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도살자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의 악명높은 포고문에 의하여 실시되였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적 방면에 있어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를 군사 기지화하고 남반부 청년들을 자기의 대포밥으로 몰아 넣은 한편 수많은 정탐 파괴 분자들을 조국 북반부에 잠입시킨 사실들은 다른 많은 공판 재료에 의하여서도 알고 있거니와 그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권 기관내에 간첩 파괴 분자들을 잠입시켜 당과 정부를 전복하고 자본주의 착취 제도를 회복하려고 음모 책동한 사실은 본건 공판에서 더욱 명백하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상 전선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편 세기말적 가장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반부 인민들에게 강요하며 기만과 허위로써 반쏘 반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박 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의 앞잡이들인 반동 작가들을 규합시켜 가지고 남조선에서 반혁명적인 문화단체를 조직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에 있어서의 진정한 근로 계급의 문예 로선을 반대하여 허무하게도 문학의 무당성을 주장하며 소위 순수 문학 자연주의 문학 등으로 부르죠아 반동 사상을 부식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고 정치에 무관심한 인간으로 만들려 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숭미 사상과 아울러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려 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앞잡이로서 반동 작가 시인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시켜 그들의 반동 문예 작품을 통하여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의 독소를 뿌려가면서 공화국의 선진적인 문예 로선을 반동적 문예 로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계급 의식과 애국주의 사상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상 전선에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마수가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본건 공판에서 뚜렷이 폭로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상과 같은 침략 행위의 직접적인 앞잡이로 리용된 것이 바로 본건 피소자들인 것이며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소자들의 행위가 바로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의 한 부분으로 되여 있다는 데서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와의 외부적 련관성을 고찰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리 승엽을 두목으로 하는 본건 피소자들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증오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건 범행을 조종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상기해 볼 때 우리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원쑤로서 증오와 분노의 복수심을 더 한층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피소자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이상과 같은 미제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되였으며 리용되게 된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밑에서 형성되였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여야 하

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화국 재판에 있어서 형벌 량정은 공화국 형법전이 규정한 바 범죄자와 범죄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질、범죄자의 개성、범죄의 동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여기서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그의 개성과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본건 피소자들에 대한 개개의 형벌 량정에 있어서 필수적 요인으로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견지로부터 피소자 림 화 리원조 설 정식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소자 림 화는 소시민 가정에서 출생하여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 환경에서 장성하여 일본 동경까지 류학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급적 성분은 일제 노예 교육 제도의 영향밑에서 그가 학생 시대부터 소유하였던 부르죠아 문학 소질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반동 문학가로서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때문에 피소자는 一九二五년에 창건된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 단체인 카프에 프로레타리아 시인의 가면을 쓰고 일시 가담하였다가 즉시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피소자는 일제 경찰이 지시하는대로 조선 문학의 계급적 전통의 토대로 탄생한 카프를 일제에게 팔아먹고 조선 인민을 일제에 복종시키려는 반역 행위에 자기의 문학 지식을 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앙양된 로동 운동의 영향밑에 공명심에서나마 로동 운동의 우연적 동반자로 되였던 피소자가 강력한 적과 조우하자 곧 혁명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피소자 본래의 소부르죠아 인테리의 계급적 처지를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됩니다。 피소자의 이와 같은 계급적 처지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후 일제 대신에 미제를 위하여 그의 문학 지식을 리용하고 나아가서는 리승엽 간첩망에 인입되여 드디여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피소자 리원조는 반일적 사상을 가진 자기 부친의 가정적 영향과 학생 시대에 일본으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한 때는 민족적 의식을 가졌으나 그 후 그는 맑스 레닌주의 혁명 사상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못하고 한개 소부르죠아적 인테리로서 반동적이고 협소한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으로 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소자가 一九三五년 동경에서 독서회 조직에 가담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진정한 계급적 의식에 기초하여 혁명적 맑스 레닌주의를 연구하겠다는 의욕에서가 아니라 피소자가 공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단지 학생시의 공명심과 호기심으로 참가한 데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소자가 독서회에 가담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자 곧 이 운동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지내온 생활은 일제를 위한 신문 기자 생활이였으며 일제를 위한 문학 생활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피소자의 소부르죠아적 인테리의 계급적 성분은 오늘 피소자가 본건 범죄에 인입되게 된 중요한 사상적 요인의 하나로 되였으며 이와 아울러 피소자 리원조는 오래전부터 이미 조직을 배반한 박 헌영과 피소자 리 승엽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온 사실이 피소자로 하여금 본건 범죄 행위에 인입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피소자 설 정식은 이미 학생 시기에 미국인의 자본과 알선에 의하여 미국에서 두개의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피소자가 미국인의 덕으로 미국에서 안일하고 호화스러운 생활로써 공부하는 과정에 숭미 사상을 가지게 되였으며 소위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배웠습니다。

피소자의 이와 같은 사정은 피소자가 미국으로 가기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학 소질이 선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을 기회없이 필연적으로 미제의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을 흡수하게 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피소자로 하여금 단지 문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모든 면에서 반동적인

부르조아지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소자는 귀국하여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후 남반부에서 미군정 공보처 여론국장으로 등용되였었고 그 후 남조선 로동당에 참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가 변호하는 피소자 三명은 각이한 생활을 거쳐왔지만 이들은 모두 소부르죠아적 생활 환경속에서 반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변호하는 피소자 三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첫째로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별화할 데 대한 문제입니다.

쏘련의 한림 학사 아·야·위신쓰기는 범죄의 개별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징역 형기의 차이는 매개 근로자들을 위하여 매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한 자본으로서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프로레타리아 국가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형벌의 엄격한 개별화를 재판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본건 피소자들의 범죄는 공화국 형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가중적 형태로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변호하는 三명의 피소자들은 그 행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데서 범죄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개별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의합니다.

즉 피소자 림 화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의 대비에서 리 승엽은 본건 범죄의 두목으로서 조직자이며 지시 명령자였다면 피소자 림 화는 이를 집행하였다는 데서 차이가 있으며 피소자 리 원조는 박 헌영을 수상으로 하는 소위 신 정부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 행위에는 一차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데서 역시 차이가 인정되여야 할 것이며 피소자 설 정식은 그 범죄 행위가 미 군정과 리 승만 괴뢰 정권 통치하에 있던 남반부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피소자들과 같이 내가 변호하는 三명의 피소자도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자기의 범행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엄격히 비판하는 립장에서 진술함으로써 정확한 사실 심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소자들이 예심으로부터 공판에 이르는 동안에 심리적 변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 여러분

내가 변론한 이상의 모든 사정들은 평의실에서 반드시 고려되여 피소자들에게 지극히 공정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피소자 배 철 박 승원 조 용복에 대한 변호인 정 영화의 변론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판사 여러분

나는 배 철, 박 승원, 조 용복에 대한 변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三일간에 걸쳐 피소자들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심리하는 재판에 나는 공화국의 변호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본건 피소자들의 범죄 행위가 너무나 엄중한 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 참가한 나에게 맡겨진 임무 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피소자들의 변호권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것은 피소자들은 그의 범죄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재판 제도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소송상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으면서 공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제의 사수 하에 있는 남조선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아무 죄없는 무고한 인민들을 다만 평화를 희망한다는 리유로써 전혀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학살하는 경찰 테로 정책을 잘 알고 있는 피소자들로 하여금 공화국 재판 제도의 인민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더 한층의 감격을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본건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오늘의 정세를 간단히 말하는 것이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세계 반동 세력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 독립을 수호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 환경에서 본건 미제의 고용 간첩들을 재판하는 사실은 그 의의가 실로 거대한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나 영용한 조선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의하여 부득이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드디여 정전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교묘한 술책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 간첩 암해 파괴 분자들을 잠입시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를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며 조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던 흉책은 오늘 드디여 본건으로써 조선 인민 앞에 더욱 명백히 폭로되였습니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이와 같이 『강대』를 자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용감히 싸워 물리치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환경에서 승리의 감격과 환호속에서 들끓고 있으며 영웅 도시 평양을 폐롯한 여러 지방에서는 이 력사적 승리를 경축하는 만세 소리도 드높이 전 세계에 이 승리의 경축을 보내고 있으며 전 세계 인민들도 우리의 승리를 경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곧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식민지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고무 격려하여 주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는 곧 다른 한편으로는 미제의 『딸라 만능』과 『불패의 실력』과 『최강』의 신화가 조선 전선에서 여지없이 부서지고 미제의 대외적 위신은 조선 땅에서 헌 신짝같이 여지없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선 인민의 력사적 승리의 환호속에서 미제의 고용 간첩 리 승엽 도당을 재판하는 사실은 조선 인민의 승리를 굳게 다지는 승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미제는 이미 八·一五 해방 초기부터 리 승만 도배들을 사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달성한 민주 건설의 성과를 파괴하려고 공화국 북반부에 탐정 파괴 암해 분자와 살인 강도배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이 비렬하고도 더러운 암해 공작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였습니다。

즉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공화국의 변동된 정세를 리용하여 더욱 많은 불순분자들을 자기의 고용 간첩으로 공화국 북반부에 파견하여 자기들의 침략 전쟁에 리용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변론할 피소자 배 철、박 승원、조 용복은 미제의 간첩으로서 전락되였다는 사실이

공판 심리 과정에서 폭로되고 확인되였기 때문에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론쟁할 수 없다는 그 기초 우에서 나의 변론이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게 됩니다.

(一) 피소자 배 철은 자기 진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기독교 전도사의 가정에서 장성한 소부르죠아 인테리로서 탐위주의 영웅주의로부터 계급 투쟁의 원칙에서가 아니라 다만 공명과 자기의 개인 리익을 위해서 당에 우연하게 기여들어왔으며 외적 조건 즉 그들의 두목인 리 승엽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더 한층 급격히 범죄의 진흙탕으로 전락하게 되였다는 사정과 그것은 바로 피소자의 진술과 같이 『나는 박 헌영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으나 그러나 이 범죄 행위가 박 헌영의 사상적 영향과 정치적 보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써 박 헌영 리 승엽들에 의하여 피소자의 반국가적 행위가 더욱 조장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바로 이것이 재판소가 참작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二) 다음 피소자 박 승원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피소자가 자기의 진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소자는 봉건 지주의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一三세 당시부터 리 승엽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의 원인의 하나』라고 진술하였는바 피소자의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그로 하여금 탐위주의 영웅주의 사상을 조장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피소자가 자기의 반역 행위는 『리 승엽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박 헌영의 사상적 영향과 정치적 보장을 받으면서 진행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재판소가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三) 피소자 조 용복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 용복은 자기의 진술에서 말하기를 『八·一五 해방까지는 조선 운송 회사 서기로 근무하다가 정미소를 경영한 것이 나로 하여금 소부르죠아 사상을 형성시켰고 이것이 박 헌영의 사상적 영향과 완전히 합치되며 피소자가 본건 범죄를 범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더 말하여야 할 것은 조 용복은 리 승만 경찰에 체포된 시기에 리 승만 테로 경찰의 형사인 피소자 백 형복의 마수에 의하여 변절하였으며 특히 리 승엽의 변절은 피소자로 하여금 더 용이하게 범죄의 구렁에로 전락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상과 같이 피소자 배 철, 박 승원, 조 용복의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사정들과 피소자들이 자기의 죄를 량심적으로 솔직하게 자백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재판소에 제의합니다.

피소자 리 강국 맹 종호에 대한 변호인 길 병옥의 변론

재판장과 판사 동지들

연 三일에 걸친 피소자들에 대한 공판 심리에서, 피소자들의 범죄 사실이 남김없이 심리되였으며 지금은 피소자들에 대한 판결 언도가 남았을 뿐입니다.

공판에 참가한 나는 피소자 리 승엽을 비롯하여 수명의 피소자들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범죄는 그 성격에 있어서나 그 사회적 위험성 정도에 있어서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나는 피소자 리 강국 맹 종호 두 피소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변론한

려 합니다.

첫째로 피소자 리 강국은 당 공판 심리에서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一九三五년에 독일 백림 대학을 마치고 조선에 귀국할 때 벌써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소위 지도자 크로리라는 자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의 간첩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조선이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자 一九四六년 九월 미국 정탐 기관에 간첩으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한 후 미제의 지시를 받고 공화국 북반부에 입북하여 자기를 애국자로 가장하여 중요한 국가 지위를 차지하고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비밀을 자기 상전인 미제에게 계통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一九五〇년 五월경에는 미국에서 직접 파견한 현 애리스와 리 월리암과 결탁하여 간첩 파괴 행위들 감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一九五一년 七월부터는 간첩 두목 박 헌영, 리 승엽 등의 간첩망과 련계를 맺고 이 사실이 적발 폭로될 때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심복으로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는 비렬하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 리 강국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예심 기록과 당 공판정에서 심리된 사실에서 명백히 나타났으며 증인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 문건에 의하여 확증되였습니다. 때문에 소추 사실과 법조 적용에 대하여는 론의할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소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량형상 고려할 몇가지 점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우선 피소자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의 사상적 관점 그의 리지를 형성하게 된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피소자 리 강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침략을 개시한 시기인 一九〇六년에 출생하여 그 후 민족의 고유한 력사와 문화를 폐기하며 배타주의 사상으로 조선 인민을 마취시키려던 소위 일제의 황민화 노예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소자는 지주의 아들로서 자본가의 딸과 결혼하여 그 도움에 의하여 독일 백림 대학에 류학하게 되였는데 당시 독일의 형편은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팟쇼화 정책에 발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소자의 출생 당시의 가정 환경과 그가 장성한 사회적 환경 및 교육 등은 피소자로 하여금 부르죠아하게 리념과 감정에 젖어있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국에 있어서 그는 개인 영웅주의와 탐위주의로 인하여 나중에는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는 길로 전락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소자는 공판에서 진술하기를 『맑스 레닌주의를 연구하느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계급적 의식에서 출발되지 못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상을 개변시키는 데로 지향하지 못하고 다만 지식으로 소유한 데 불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피소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형성된 반동적 본성을 버릴 수 없게 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는 범죄를 량심적 가책이 없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피소자가 이러한 범죄를 감행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상륙한 후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 정책과 련결된다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지주 자본가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 반동 집단을 규합하여 자기들에 충실한 리 승만 통치 기구를 조작하고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팟쇼 테로 통치를 강요하는 한편 해방후 북반부 인민들이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달성한 강력한 민주 건설들의 제반 성과를 파괴하며 나아가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광분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내부로부터 와해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민족 분렬을 책동하며 간첩 파괴 분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파견하여 파괴 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침략 전쟁을 도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국 해방 전쟁은 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부득이 정전 협정에 조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판을 통한 본 피소 사건의 전 면모에서 미제의 침략적 본질은 다시 한번 적라라하게 폭로되였습니다。 공판 심리 과정에서 공동 피소자 백 형복의 진술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지도자 니콜스란 자가 백 형복에게 『조선은 그 령토상 가치의 중요성보다 특히 쏘련 및 중국에 대한 정탐 기지로서 중요하다』 라고 하였다는 사실로써 그들의 파렴치한 야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제의 침략 정책은 피소자들의 개인 리기주의와 탐위적인 사상을 리용하여 피소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졸개로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더욱 조성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소자가 一九三五년에 이미 미제의 정탐 기관에 가담되였었으나 직접적인 반역 행위에로 나선 것은 미제가 피묻은 마수를 조선에 뻗친 후 더욱 로골화된 것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소자는 개인 리기주의、탐위주의로부터 미제의 잔악한 정책에 리용되여 당 공판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엄중한 죄악을 범하게 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피소자 맹 종호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시기인 一九三九년 二월에 이미 변절하여 일제의 밀정으로 종사하면서 많은 혁명가들을 박해 탄압하였으며 八·一五 해방후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박 헌영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 활동에 자진 가담하여 그들의 심복자로 되였으며 또한 미 군정청 소위 경무부장 조 병옥의 비서인 고 학래로부터 간첩 사명을 받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감행하면서 무장 폭동을 획책하고 조국 해방 전쟁 당시 서울이 해방되자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될가봐 두려워 서울시에서 七〇여명의 당 간부와 애국자들을 감금 학살하였으며 전 조선 인민 유격대 독립 제一〇지대장으로 있으면서 공동 피소자 리 승엽 배 철 등의 반국가적 폭동 음모에 적극 참가하는 등의 기소된 범죄 행위가 당 공판에서 피소자의 진술과 증인들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되였습니다。

피소자가 범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할 것인바 이 범행에 대하여 판결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피소자는 해방 이후 자기의 과거 반역적인 죄행으로 인하여 감히 정의로운 인민 앞에 나서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가 남조선에 상륙하여 애국적 력량을 탄압하고 오래전부터 실시하여온 정탐 기관들과 반역 도당들을 규합하게 되자 자기의 운명을 미제와 반동 집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소자는 다시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였으며 자기 상전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서슴치 않고 감행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피소자가 당 공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나는 리 승엽、배 철 등에 충실한 자로서 그들의 지시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은 또한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소자가 전 조선 인민 유격대 제一〇지대장으로 있으면서 공동 피소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것은 직접 지시에 복종하였다는 사실이라든가 一九五〇년 七월 서울시에서 당 간부 및 인민들을 학살함에 있어서 『당시 나를 직접 지도하던 리 승엽이가 학살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나의 부하에게 학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라는 진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피소자들은 민족 반역 및 무장 폭동 테로 행위 등 천추에 씻지 못할 엄중한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소자들은 오늘 공판정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망상적이였다는 것을 솔직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소자들의 고백은 인민 앞에 자기의 죄행을 가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한 나의 변론이 피소자들의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면서 변론을 그치는 바입니다。

피소자 조 일명 윤 순달 백 형복에 대한 변호인 리 규홍의 변론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판사 여러분

리 승엽 도당의 본 사건이 범죄의 성격에 있어서나 그의 사회적 위험성에 있어서 볼 때 극히 엄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피소자 조 일명、윤 순달、백 형복을 위하여 공화국 헌법에서 보장된 피소자들의 변호권을 실현하고저 이 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벅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 앞에 리 승엽 도당의 엄중한 범죄 사실이 폭로되였다는 사실은 전체 조선 인민의 단결된 력량과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의 통일과 위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어떠한 세력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뵈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 공판정에서 날날이 폭로된 바와 같이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 조국 남반부에 자기 군대를 상륙시키고 해방된 조선을 재 식민지화하며 쏘련과 중국을 반대하는 극동 침략의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 정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시킬 데 대한 국제 공약을 파렴치하게 유린하고 나서 드디여 一九五〇년 六월 二五일 조선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조선 인민 군대가 먼저 침공한 것 같이 허구 날조 선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북조선으로 쳐들어 가겠는데 북조선에서 먼저 침공한 것처럼 날조한 선전 자료를 제공하라는 미제의 지령을 받았다고 피소자 리 승엽이가 진술한 데서도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놈들의 기도는 군사 정치적으로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판사 여러분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앞잡이로 전락된 피소자들은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의 지령에 충직하며 공화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과 반국가적 간첩 테로 학살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피소자들의 반국가적 반당적 반인민적 범죄에 대하여는 예심에서 수집된 해당한 문건들、증인들의 진술들、피소자들 자신의 상세한 진술에서 한결같이 기소의 사실적 방면이 증명되였는바 가장 공평하고 민주주의적인 공화국 재판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하여 공판 심리에서 확인된 본건 매개 피소자들의 죄행 및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공정한 판결이 있으리

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피소자 조 일명、윤 순달 및 백 형복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 본 사건이 많은 피소자들에 의하여 수행된만큼 여기에서 우선 범죄에 대한 피소자 각자의 역할과 그 가담 정도와 피소자 각자의 개별적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소자 조 일명에 대한 기소 사실은 그는 一九三四년에 벌써 혁명 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하여 일제의 사상 전향 기관인 서울 대화숙에서 일본어 강사로 소위 내선 일체의 사상을 제창하여 오던 반역자로서 八·一五 해방후 一九四六년 二월부터 미국 정탐 기관에 종사하여 오면서 리 승엽과 련계밑에 一九四七년 一二월까지 연 五차에 걸쳐 당의 중요 비밀 재료를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고 一九四八년 七월부터는 리 승엽과 같이 박 승원、림 화 등을 자기들의 간첩망에 흡수 인입한 후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각 분야의 비밀 재료들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七월에는 서울에서 리 승엽과 공모하여 소위 토지 조사위원회의 조직 또는 의용군 본부내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자기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간부들과 자기들의 범죄적 정체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에 참가하였으며 공화국 정권 전복을 목적한 반국가적 음모 활동에 참가하여 그의 려량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 확장과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리 승엽 도당의 무장 폭동 음모에 참가하여 그의 본부를 조직하고 폭동시에 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을 담당하는 동시에 그의 려량 확대를 위하여 문화 선전성에 잠입한 불순한 자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 리 원조로 하여금 문예총 내에서 불순 분자들을 집결하도록 사촉하여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 사실에 대하여는 예심 자료、증인들의 진술 및 피소자 자신의 솔직한 고백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인 나는 이에 대하여는 론쟁할 수 없음은 물론 의률법조에 대하여도 론쟁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소자 조 일명은 一九三四년에 벌써 변절하였으며 八·一五 해방후 미국 정탐 기관에 종사하여 오면서 수행한 그의 범죄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범죄의 괴수는 바로 미제의 간첩 두목인 박 헌영 및 리 승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 승엽과 간첩 활동에 대한 련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소자 조 일명이가 『一九四六년 二월 하순경 나를 미국 정탐 기관에 인입시킨 헌병 대위 존손은 해방 일보사에 찾아와서 자기의 약속한 간첩 활동 임무를 앞으로 리 승엽과 련계밑에 그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한 비밀 재료들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데서도 명백하며 또한 소위 박 헌영의 범죄적인 『一〇월 테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인바 그는 자기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공명하였고 이를 행동 강령으로 함으로써 그의 극악한 반역 행위에 더 한층의 역할을 놀았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한 것입니다。

판사 여러분

피소자 조 일명은 이 공판정에서 자기 범죄 사실을 속이려고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가책하였습니다。 피소자 조 일명은 『나의 죄를 십분 자백합니다。 전체 인민의 저주를 받을 나의 활동이 범죄적 성질을 띠였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본건 범죄의 참가자인 나는 지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은 그가 자기 죄를 조국과 인민 앞에 뉘우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피소자 윤 순달에 대한 범죄 사실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리 승엽、박 헌영의 심복으로

그들의 불순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一九五二년 六월부터는 중앙당 련락부 부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리 승엽 도당의 공화국 정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에 리용하고 무장 부대 조직 강화 및 력량 확대를 위한 활동과 반국가적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는 일방 동년 九월에는 박 헌영을 중심한 범죄적 반혁명 정부 구성을 위한 음모 토의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一一월경에는 무고한 인민 二명을 피소자 배 철과 토의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살해하였다는 데 있는바 피소자 윤 순달 역시 자기의 엄중한 범죄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는 리 승엽 도당을 지지하고 의식적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근원은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하여 소위『박 헌영 로선』이 전체 조선 인민이 용허할 수 없는 범죄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이를 비판 폭로하려 하지 않고 지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서 범한 그의 범죄도 역시 극히 엄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소자 윤 순달의 범죄에 대하여 변호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전반적인 범죄적 행위에는 우선 피소자 조 일명과도 달리 좀 더 그의 가담 정도, 실행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바 그의 사상적 공명 시기는 八·一五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건 범죄에 있어서의 그의 가담 실지 행동은 一九五二년 六월부터로서 그는 리 승엽의 지시에 추종한 것은 물론 동년 一一월의 무고한 인민 二명을 학살함에 있어서는 피소자 배 철의 지시에 의하였던 것입니다.

피소자 배 철은『윤 순달은 정치적으로 아직 어리여 六개월을 더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는 리 승엽 등의 범죄적 의지의 실행자이였으며 그 범죄의 창발자가 아니며 주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소자 윤 순달은 오늘 자기 범죄 행위가 엄중함을 자각하고 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판사 여러분

피소자 윤 순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그가 인민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의 여생을 인민을 위한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는 판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피소자 백 형복에 대한 범죄 내용은…… 일제 시대에 벌써 순사부장, 고등계 형사 등의 직위에서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탄압하여 온 자로서 八·一五 해방후 계속하여 리 승만 괴뢰 정부 전라북도 및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조선 로동당 전라북도당 전 위원장을 비롯한 기타 간부들과 애국 인사 二○○여명을 체포 학살함에 그를 직접 조직 지휘하였으며 一九五○년 三월에는 변절자 조 용복 안 영달 등의 방조밑에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하였으며 一九五○년 二월부터는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와 결탁하여 피소자 조 용복을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시켜 리 승엽과 련계밑에 공화국의 군사적 국가적 기밀을 수집하여 미국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一九五○년 五월에는 미국 정탐 기관의 직접 지령에 의하여 리 승엽과 련계밑에 간첩 활동을 목적하고 변절자 안 영달, 조 용복과 같이 의거 입북하는 형식으로 가장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피소자 백 형복은 자기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솔직히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백 형복의 이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 같애서는 그의 사회 성분이 의심없이 그의 행위에 계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피소자 백 형복은 그가 말하는 바와

갈이 집에서 농사를 도웁다가 농사군이 월급쟁이가 된다고 나선 것이 바로 일제의 주구 그나마 악독한 형사로 된 것이 그의 출발점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개인 영웅주의、출세주의 사상의 소유자로서 계속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로 전락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피소자 백 형복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보충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김 삼룡 선생을 체포함에 있어서 조 용복이가 주동적 역할을 놓았다는데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동적 역할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 승만 매국 도당들의 그 야수적 탄압 학살 정책을 폭로하면서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고문 학살함에 있어서 재판에 의할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테로 학살로써 그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범죄의 내용을 솔직히 말하면서 자기의 죄과를 자백하고 있는바 그것은 그가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매국 도당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판사 여러분

피소자 조 일명 윤 순달 및 백 형복 등의 행위는 형용하기 어려울만치 크나큰 범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모두 자기의 범죄 사실을 폭로함에 있어 그 어느 것이나 숨기려고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했다는 데 대하여 심심한 고려를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형벌을 량정함에 있어서 이상 내가 말씀드린 제반 정상들이 반드시 참작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이상으로써 변호인들의 변론이 전부 끝났습니다。 검사는 변호인들의 변론에 대하여 항변할 것이 없습니까。

검 사 없습니다。

五、피소자들의 최후 진술

재판장 판결을 표결하기 전에 최후로 진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조 일 명의 최후 진술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조선 인민의 추악한 원쑤로 적으로 조선 인민의 천추 만대의 저주할 죄악이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저지른 범죄는 극악 무도하고 간악 무쌍한 죄악이므로 국가에서 주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배 철의 최후 진술

제가 저지른 범행은 인류 범죄 력사에서 가장 악질적이며 악독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선 인민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하여 당과 국가에서 어떠한 엄벌을 내린다 하여도 그것은 제가 범한 죄에 비하여 아직 처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반성한 기분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저의 범죄를 인민앞에 폭로하고 사과하는 자유를 보장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리 승 엽의 최후 진술

씻지 못할 엄중한 죄악을 범한 나이지만 침묵을 지킬 수 없어 끝으로 몇마디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당들이 인민 공화국 사법 기관에 체포된 후 극악한 범죄 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심 과정에 사소한 인권 유린도 없이 합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문하여 주었으며 인간으로서의 극진한 대우를 하여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四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판 과정에서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민 앞에 자기의 죄행을 자백 폭로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벼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었고 특히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범죄 사실은 검사께서 정확히 론증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어떠한 엄중한 판결이 내린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생명이 둘 있다면 그것을 모두 바치드라도 아직 제가 범한 죄악을 씻기에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범죄 행위를 교사 조종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전 세계 인민 앞에서 마땅히 처단받아야 할 것이며 또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 원 조의 최후 진술

저는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중에서 제일 엄중한 조국 반역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인민의 처단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한 동기에 기인되거나 또는 일시적인 잘못이거나 외부적 추동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저의 사상이 반혁명적이고 반동적인 데서 범한 필연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중앙당 선전부 부부장으로 있을 당시 범죄로부터 빠져 나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건을 배반하고 도리여 적극적으로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에 나섰던 것입니다. 검사의 론고에서 제가 간첩 행위나 무장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론고하였으나 저는 범죄의 동기 목적 본질에 있어서 무장 폭동이나 간첩 행위에 가담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검사의 론고는 제가 범한 죄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관대합니다. 예심 과정과 공판에서 제가 마지막 일편의 량심이나마 돌이켜 비판해 볼 때 이 신성한 법정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서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단을 받음으로써 이미 범한 죄행은 청산될 수도 있다고 보나 제가 범죄에 이르게 된 사상적 근원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음을 자인합니다. 국가 검사의 관대한 론고를 저는 과거의 사상 근원을 개변하는 교훈적 계기로 하고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개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번 공판을 계기로 자기 사상을 개조하고 반드시 조국과 인민 앞에 재생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리 강 국의 최후 진술

저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과 조국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예심과 공판 심리를 통한 자기 비판의 기회를 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과 인민이 주는 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죽기전에 자기의 죄과를 인민 앞에 자비함으로써 옳은 사람이 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백 형 복의 최후 진술

저는 일제 시대와 또 미제의 조종밑에 一〇년간 경찰에 복무하면서 조선 인민의 고혈로 된 월급을 받아 부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선 인민을 학살하고 조선을 일제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드는 데 협력하였으며 또 미제가 조선 침략을 개시한 후에는 허다한 애국자들을 학대 탄압 검거 투옥 학살하면서 미제의 조선에 대한 영구 침략을 기대하였습니다. 이 장구한 기간에 형성된 나의 사상은 철저한 매국적 철저한 반국가적 리기적인 것이였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였습니다. 미제가 특히 선발하여 북반부에 보낸 것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였던가 하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제의 간첩으로 공화국에 파견된 후 반역자로서의 저의 운이 맥혔는지 공화국 내무 기관에 체포되였습니다。 체포된 당초에는 솔직히 범죄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 제가 종전에 쓰던 방법 즉 고문하고 중세기적 인간 증오와 복수주의적 방법으로 취급할 줄 알았는데 공화국 내무 기관은 시종 일관 인내성있게 고상하고 선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저를 취급하여 주는 데 감동되여 저의 최초의 결심을 변경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범죄를 고백하게 되였고 제가 범한 범죄중 주되는 것은 전부 천하에 명백히 내놓았습니다。 국가 검사의 론고를 열번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일편의 불평도 추호의 반박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할 것은 우선 저는 공화국의 예심과 공판에서 악랄한 원쑤인 저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준 민주주의적이고 선진적인 고상한 법률 제도에 의하여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친척도 없고 적막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변호사까지 부쳐 변호를 받고 보니 통절하게 느낍니다。 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인민과 우리 조국의 우월성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느낍니다。 또 한가지 말씀할 것은 공동 피소자들이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저같은 악랄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여 고문당한 데서 변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저는 二중으로 범죄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피소자석에 있는 조용복과 같은 사람도 일제에 굴하지 않고 싸운 투사였지만 저에게 체포되여 제가 가하는 위협 공갈이 극심하였던 데로부터 변절하게 되였고 드디여는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였습니다。 저는 과거 력사에서 보지 못하던 반역적 교형리로서 수많은 우수한 애국자들을 적발 처단한 자이므로 전 조선 인민의 치솟는 적개심과 주목이 저에게 집중되여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살자 그의 안해 자식 그의 친척들이 아니 전체 조선 인민들이 저를 얼마나 증오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미 희생된 강원도당 간부와 그의 가족들 그의 처자는 저를 죽을 때까지 증오할 것입니다。 또 저는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인 김 삼룡을 검거하여 고문 구타하는 등으로 악형을 받게 한 후 증인 차 약도의 진술과 같이 수정을 채우고 나무에 결박하고 가슴에 집중 사격을 함으로써 살해하여 매장한 결과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가족 또는 전 조선 인민의 원한과 저주를 받는 것을 잘 압니다。 검사의 론고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였다고 보며 더 많은 형을 받을 수가 있다면 받겠는데 저에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명을 바쳐 그분들의 원한의 만분지 일이라도 풀어 주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사죄하겠습니다。 재판장을 통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사죄합니다。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은 공화국 기치하에 조선 인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찬란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철저하게 대한 민국을 반대하며 미국을 반대합니다。 또 대한 민국과 미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합니다。 저를 처단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 과오를 깨끗이 깨닫지 못하는 저와 같은 락후한 사람들에게 경각성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최후 진술할 기회를 주어 감사합니다。

설 정식의 최후 진술

아무 유한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하직하면서 다만 깨끗이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고맙습니다。 제 뇌수의 썩은 살을 도려 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예심에서 나의 몇째 동생이나 될만한 어린 예심원 배 동무는 『당신이 미쳤소 미국놈 국장이 뭐요』 하고 가르쳐 주는 데 탄복하여 저는 머리를 못들었습니다。 이 동무는 해방후 자란 일꾼으로서 해방전에는 철도에서 로동하던 동무인데 자기 비판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우수한 동무였습니다。 저는 자기 비판조차 할 줄 모르고 그 동무와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예심 최초 과정에서는 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변호사 변론에서 이 무시무시한 도당의 한 사람인 저를 경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발표할 것은 제가 입당시 시를 썼는데 『내 이제 무엇을 근심하리요』 중에서 오늘 원쑤로 된 박 헌영을 념두에 두고 형상화하였는데 그를 수령으로 추대하고 쓴 시였습니다。 저는 三、四일동안 괴로웠으나 오늘은 좋습니다。 소금에 절인 것 같은 썩은 더러운 제 자신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경력에 있어서나 출신에 있어서나 아주 나쁘며 범죄까지 한 저를 누가 나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一九四二년 일본 사람 『가와가미』의 저서 『다이니 빔보 모노가다리』를 읽어 보았을 뿐이고 그 후는 전혀 좌익 서적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책은 많았으나 六·二八 서울 해방후 그것은 모두가 고물상으로 가져가야만 할 것이였습니다。 저의 조카가 남북 련석 회의 때 북조선에 왔다 간 것을 보고 물은즉 우리가 들던 대로 민주주의의 위력은 무섭다고 하며 북반부를 찬양했을 때 우리는 북반부를 따라가자고 맹세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멀지않아 죽지만 아이들이 잘 살만한 사회 우리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나의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올 것을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저의 범죄는 미국놈의 앞잡이였으며 그의 십부름꾼이였기에 마땅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박 승원의 최후 진술

증오속에서 리 승엽과 저의 도당들이 미제의 사수로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범죄는 천인 공노할 범죄로 폭로되였습니다。

제 자신이 이 공판정에서 폭로된 우리 도당들의 범죄를 뼈아프게 뉘우치게 되였으며 저는 비록 늦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 것은 당과 정부의 옳은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만일 당과 정부의 옳은 지도가 없었다면 나의 극악한 범죄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였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 선생의 저에게 대한 론고는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구형은 응당 백번받아도 마땅합니다。 저와 같은 추악한 원쑤들을 검사 선생의 말씀과 같이 인민의 원쑤로서 인민 앞에 철저히 처단함으로써 인민의 원한을 풀며 인민의 적개심을 제고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쑤들에게 우리가 없어진 것이 타격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저에 대한 범죄 동기를 변론한 것은 제 자신의 의사와는 상이합니다。 아무리 반동이라도 아무리 인민의 원쑤라도 그 누구나 자기가 사모하는 조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죽는 오늘 불러볼 조국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역자라 하여도 리 승만 정권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또 공화국에 반역한 제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조국이라고 부를 면목도 없습니다. (피소자 흐느껴 통곡하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죄과를 심판 받는 이 마당에서 나의 량심의 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죄인이지만 허용된다면 미제를 철저히 증오하며 영영 공화국을 나의 조국이라고 불러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체 피소자들 흐느껴 울다)

맹 종호의 최후 진술

미제의 밀정이며 조선 인민의 원쑤인 리 승엽 도당들이 무장 폭동 음모에 가담한 죄행은 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폭로되였습니다. 저는 조국 앞에 범한 죄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써 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론고를 달게 접수합니다. 저희들의 범죄 사실이 널리 공포됨으로써 다시는 우리 국가에 이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심에서나 공판에서 제가 약간이라도 자기의 행위가 나쁜 일인 줄 알게 하여 준 검사 변호사 재판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 순달의 최후 진술

조국과 인민을 반대한 반역자로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사께서는 지나치게 저를 관대하게 론고하였습니다.

제가 범한 죄행이 다른 피소자들에 비하여 다소 적은 것은 범죄에 가담한 시일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간이 오랬다면는 더 많은 범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심 기간과 이번 재판 기간을 통하여 저에게 반성의 길을 열어 준데 대하여 또 여러 선생님들이 옳은 것을 깨닫게 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최후 죽음에 림하여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공고화를 념원합니다. 끝으로 조국과 인민과 경애하는 수상께 저의 범행을 사과하며 어떤 형벌이라도 감수할 것이고 엄벌을 받음으로써 조국과 인민에게 범한 죄를 씻게 되며 우리 도당들의 나쁜 영향을 받은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조 용복의 최후 진술

저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로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심과 공판정에서 느낀바 당과 공화국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저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먼저 떠난 동지들의 명복을 빌며 김 삼룡 리 주하 선생의 령혼 앞에 사죄합니다. 만일 재판장께서 이 더러운 저이지마는 원을 들어주신다면 저의 자식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저 합니다。

너희들은 이 애비를 조국의 간악한 원쑤로 만든 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워라。

림 화의 최후 진술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썼다면 사람으로 태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진술할 기회에 림하여 참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소리를 남길 기회를 준 데 대하여 사람의 욕심에서 이 기회를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당들이 여러가지 말하고 또 제 자신도 여러가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일 깊은 감명을 준 것은 국가 검사가 론고의 마지막에서 한『이 도당들을 평가할 때 조국 해방 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선렬들을 상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미제로 하여금 내 친구 내 부모 자식 친척을 죽이게 하고 내가 살던 곳 내가 걷던 길 산천을 폭격케 한 이 흉악한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저는 두렵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는 형용 못하겠습니다。 내 가족도 미제의 폭격에 죽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것은 미제보다도 우선 제 자신입니다。 나는 염치없이 미국놈이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나 자신이 육친 가족을 죽인 범인입니다。 이 이상 더 두려운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조서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

시 복무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나 저는 육친을 죽인자이므로 허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육친을 죽인 범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제 나라 제 조국 제 육친을 죽인 나를 설사 어느 누가 용허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에 애착은 크다 하더라도 죄있는 제 생명은 다른 것 가지고는 속죄 못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만 죄악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은 예심 과정에서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추악한 행동입니다。 제가 죽으려고 한 것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용감하다면 다른 방법 다른 기회에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민의 심판이 두려워 죽으려고 한 것이므로 저의 행동은 더욱 간악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명심과 허영심에서부터였습니다。 즉 자기는 형을 받거나 죄인이 된다는 것이 싫다는 것이며 이 더러운 사상 근원은 자주 동지들을 죽이고 조국을 배반한 근원이 되였으며 이것이 제 팔을 끊고 피를 흘리게 한 근원이였습니다。 저의 공명심 허영심 온갖 추악한 죄악을 인민 대중 앞에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예심을 곤난하게 하였고 공판에서는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추악한 저에게까지 인간답게 취급하여 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른 피소자들과 같이 허용된다면 마지막까지 이 인민의 심판정에서 낯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조국과 인민에게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여러분 엄중한 범죄를 범한 저에게 모든 것에 만족하고 조국에 대하여 영광을 축원할 수 있으며 만족하게 죽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장 이상으로써 피소자들의 최후 진술이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판결을 표결하기 위하여 휴정하겠습니다。(오후 五시)

(재판소 구성원들 평의실로 들어감)

*　　*

재판장 박 룡숙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랑독하겠습니다

(박 룡숙 판사 판결문을 랑독하다)。

재판장 사형 판결을 받은 피소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 특사를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고합니다。

이상으로써 피소자 리 승엽 조 일명 림 화 박 승원 리 강국 배 철 윤 순달 리 원조 백 형복 조 용복 맹 종호 설 정식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 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 공판을 폐정합니다。(오후 八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재판장 소장 김 익 선
립회 서기 김 영 주

六、판 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이름으로써

一九五三년 八월 三일부터 동월 六일까지에 걸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는 최고 재판소장 김 익선을 재판장으로, 판사 박 룡숙과 박 경호를 성원으로 하고 서기 김 영주가 립회한 공개 공판에서 검사 부총장 김 동학, 검사 리 창호, 검사 김 윤식, 변호인 지 영대, 길 병욱, 김 문평, 리 규홍, 정 영화의 관여 밑에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一항,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六八조, 동 제七二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과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一항,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六八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림 화, 동 박 승원과 형법 제六八조, 동 七六조 二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 강국과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一항,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一一二조 四호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배 철, 동 윤 순달과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二항, 동 제七六조 二항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리 원조와 형법 제七九조, 동 제七一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백 형복과 형법 제六八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조 용복과 형법 제七八조, 동 제六五조 二항, 동 제七六조 二항, 동 제七二조, 동 제六八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맹 종호와 형법 제七九조에 해당한 범죄로 기소된 피소자 설 정식 등 一二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一、리 승엽 一九○五년 二월 八일생、 남자、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 외리에 본적을 두고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 청계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비서 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

二、조 일명(별명 조 두원) 一九○三년 一二월 一일생、 남자、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 본적을 두고 평양시 기림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문화 선전성 전 부상

三、림 화 一九○八년 一○월 一三일생、 남자、 서울시 가회동에 본적을 두고 평안남도 대동군 내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 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四、박 승원(별명 박 일철) 一九一三년 二월 二八일생、 남자、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 하당리에 본적을 두고 평양시 대성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五、리 강국 一九○六년 二월 七일생、 남자、 서울시 사직동에 본적을 두고 평양시 기림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무역성 조선 일반 제품 수입상사 전 사장

六、배 철 一九一二년 一월 六일생、 남자、 서울시 아현동에 본적을 두고 평양시 로성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

七、윤 순달 一九一四년 一월 一六일생、 남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본적을 두고 평안남도 대동군 기암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八、리 원조 一九○九년 六월 二일생、 남자、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부동에 본적을 두고 평양시 대타령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전 부부장

九、백 형복 一九一七년 一○월 二四일생、 남자、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에 본적을 두고 서울시 회현동에 거주하며 직업은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

一○、조 용복(별명 박 상옥) 一九○九년 五월 二一일생、 남자、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읍 내일동에 본적을 두고 평안남도 대동군 림원면 청계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상급 검열원

一一、맹 종호(별명 허 종일) 一九一一년 八월 一○일생、 남자、 함경북도 경성군 주북면 두남동에 본적을 두고 황해도 평산군 로동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인민 유격대 제一○지대 전 지대장

一二、설 정식 一九一二년 九월 一八일생、 남자、 서울시 효자동에 본적을 두고 평안남도 대동군 기암리에 거주하며 직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총정치국 제七부 전 부원

당 재판소는 예심 및 공판 심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남반부에 상륙한 첫날부터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조선을 다시금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환시키며 나아가서는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극동 침략의 군사 기지로 만들기 위한 략탈적 전쟁 계획 실천을 위하여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 계획을 기어이 달성하려는 야망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국제 공약들을 란포하게 파괴 유린하면서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팟쑈적 반동 통치 기구를 조직하고 민주 진영을 탄압하며 수많은 애국 인민들을 학살하는 한편、 이미 오래 동안 준비 계획하여온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에 의하여 一九五○년 六월 드디여 무력 간섭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용 가첩 분자들이며 반역자들인 리 승엽 매국 도당은 미제의 비렬하고도 추악한 침략 계획을 실현시

키기 위하여 조선 로동당 및 공화국 정권 기관의 요직에 잠입하여 지도적 직위를 리용하여 미제 탐정 기관에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제 분야에 걸쳐 중요 기밀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조선 인민의 통일된 투쟁 력량을 분렬 파괴하며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들의 실현을 방해하며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간의 리탈을 조성시키며 미제의 군사 작전에 호응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켜 조선 인민의 총의로 창건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권을 전복하고 미 제국주의 지배밑에 식민지적 지주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려는 반인민적 범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온갖 흉악한 음모 책동을 계속 감행하여 왔다。 본건 예심 과정에서와 공판 심리 과정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피소자 리 승엽과 조 일명은 一九四六년 二월에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 정치 연구과 책임자인 미 륙군 소위 빼취의 간첩으로 된 후 리 승엽의 지도 밑에 간첩 활동을 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하여 미제의 간첩으로 전락된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은 一九四六년 三월경부터 남조선 공산당 중앙 및 지방의 조직 체계와 그의 지도부의 소재 및 당내의 일체 기밀 자료들과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 자료들을 미국 정보 기관에 제공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七년 五월부터 미 국무성 촉탁이였으며 당시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쭌알·하지의 최고 정치 고문이였던 노불과 직접 련계를 맺고 그 후부터 그의 지시밑에서 간첩 활동을 계속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八년 七월 입북하기 전 노불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북조선의 제반 정세를 탐지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소자 리 승엽은 이 지령을 충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이미 먼저 一九四七년 一二월에 입북한 공동 피소자 조 일명과 더불어 앞으로의 간첩 활동의 『성과적』 보장에 대한 밀의를 하고 간첩망 조직의 확장 강화를 위하여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一九四八년 八월에는 당시 해주 제一 인쇄소 부책임자인 공동 피소자 박 승원을 흡수하였고 동년 一一월에는 이미 一九四五년 一二월부터 서울에 주둔한 미군 장교 로빈손 또는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이던 공동 피소자 설 정식과 련계 밑에 간첩 행위를 감행하여오던 당시의 해주 제一 인쇄소 편집 위원인 공동 피소자 림 화를 인입함으로써 앞으로 수집할 간첩 자료를 노불에게 전달할 련락선을 완성하게 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八년 九월 노불이 파견한 안 영달로부터 금후 월남할 수 없으면 종전과 같이 이북에서 사업하라는 지령을 받고 전시 안 영달을 통하여 노불에게 앞으로의 간첩 자료 전달에 대한 련락선을 보고하는 동시에 공화국 정부 구성에 대한 것을 비롯하여 수종의 기밀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간첩 분자 포치와 미국 정탐 기관과의 련락선 확립 등 간첩 활동의 토대를 완전히 닦아놓은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미국 정탐 기관의 직접적 지령에 의하여 그들의 소위 북벌 계획을 목적한 군사 정보를 탐지하기에 더욱 열중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九년 九월 서해안 황해도 옹진 지구로부터 동해안 강원도 양양 계선에 이르는 三八선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三八선에 배치된 공화국 경비대의 병력수、 무장 상태 및 그의 배치 정형과 부대의 주둔 위치 등 군사 기밀을 일일이 답사하고 략도까지 첨부한 면밀한 자료를 노불에게 제공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동년 여름에는 〃까치산〃 전투 정형에 대한 군사 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공동 피소자 조 일명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조 일명은 다시 공동 피소자 박 승원에게 그 과업을 주어 입수한 〃까치산〃 전투 정형 및 병력 배치 정형 등 군사 기밀을 노불에게 제공하였다。 미제 략탈자들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주권을 전복하기 위한 발광적인 군사적 침략 준비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 동 박 승원 도당들의 간첩 활동도 가일층 악랄하여졌다。 一九五○년 二월부터 피소자 리 승엽은 노불의 지시를 받은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에 의하여 지도되는 공동 피소자 백 형복 및 소외 안 영달과 공동 피소자 조 용복의 일당과도 련계를 맺었다。 피소자 리 승엽은 그 후 동년 四월까지의 사이에 전후 三차에 걸쳐 군사 기밀과 조선 로동당 내부 실정에 관한 기밀들을 미군 간첩 기관에 제공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〇년 五월 노불의 지시에 의하여 입북한 안 영달、 조 용복、 백 형복 등에게서 노불로부터 불원 미군이 공화국을 침공하는 전쟁을 개시할 터이니 인민 군대가 먼저 도발한 것처럼 할 정치적 모략 자료를 날조하여 제공하라는 새로운 지령을 받고 피소자 리 승엽은 라디오를 통하여 인민 군대가 침공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광범히 선전하는 한편 동부 산악 지대에서는 인민 군대로 가장한 국방군을 남진시키면서 인민들에게 만행을 함으로써 인민 대중 사이에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취하라는 내용의 흉악한 간계를 안 영달을 통하여 노불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또 안 영달에게는 당 서울 지도부에 잠입하여 당 내부 실정과 당내 기밀을 계통적으로 내탐하여 노불에게 제공할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노불로부터의 긴급한 정보 자료 요구에 대한 련락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전기와 변신 암호를 휴대시켜 서울로 돌려보내였다。 그리고 공동 피소자 백 형복을 공화국 내무 기관에 잠입시키고 미국 및 리 승만 도당들이 파견한 간첩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피소자 리 승엽과의 직접 련계밑에 기밀을 탐지하는 책임을 지게 하였고 피소자 조 용복에게는 간첩 자료 전달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이 개시되자 一九五〇년 七월부터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집행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밑에 미제의 고용 간첩인 림 화에 지시하여 그의 영향하에 있는 남조선 문화 단체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당과 정부 및 인민 군대와 내무 기관에 대한 인민들의 동태를 조사시켜 이를 정보 자료로서 미 정탐 기관에 제공하려고 활동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인민 군대의 진격으로 인하여 패주한 관계로 절단된 노불과의 간첩 련락선을 다시 회복할 목적에서 소외 최 모와 박 모 등을 활동케 한 결과 박 모는 一九五一년 七월 피소자 리 승엽에게 전달할 노불의 새로운 지령을 받아가지고 입북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一년 七월에는 당시 조선 인민군 제七二호 병원장이던 미군 고용 간첩인 공동 피소자 리 강국을 자기 간첩 활동에 인입함으로써 자기의 간첩망을 더욱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피소자 리 강국은 벌써 一九三五년에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부의 주구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였다。

피소자 리 강국은 八·一五 해방 후 미국 간첩 기관의 련계를 맺기 위하여 一九四六년 六월 자기의 첩인 김 수임으로 하여금 미군 二四사단 헌병 사령관 미군 대좌 뻬트의 첩 생활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뻬트와 련계를 맺고 미군 간첩으로 된 후 一九四六년 九월 미 군정청이 조작한 체포령에 의하여 애국자의 가면을 쓰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피소자 리 강국은 입북 직전 뻬트로부터 인민 정권 기관내의 주요 직위에 잠입하여 국가 기관의 정상적 활동을 파괴 문란시키며 북조선의 군사、 정치、 경제에 관한 중요 기밀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한편、 미 정탐 기관에서 파견하는 간첩들을 지도 보호하여 줄 데 대한 지령을 받고 그 실천을 맹약하였다。 그리하여 피소자 리 강국은 一九四七년 一월부터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의 요직에 잠입하여 있으면서 계속 공화국 인민 정권을 파괴 약화시키기 위한 갖은 모략 행위와 병행하여 군사、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 걸친 중요 기밀을 탐지하여 제공하였다。

피소자 리 강국은 조국 해방 전쟁 발발 후인 一九五〇년 七월 미국 정탐 기관에서 파견된 군

사 간첩 현 애리스와 리 월리암을 전후 二차에 걸쳐 평양 자기 집에서 상면하고 군사 간첩 활동 실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리 승엽, 조 일명, 박 승원, 림 화 도당들의 간첩 활동에 가담한 피소자 리 강국은 그후 一九五二년 一○월까지의 기간 군사 기밀을 비롯하여 전후 四차에 걸쳐 당과 정부의 중요 기밀을 림 화를 통하여 피소자 리 승엽에게 제공하였다。

본건 예심 및 공판 심리 과정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리 승엽을 비롯한 매국 도당들은 미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는 일방 미제의 소위 전시 『후방 숙청』이라는 흉책에 발맞추어 남로당을 파괴하려는 데 협력하는 동시에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반당적 반인민적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많은 당 간부들과 민주 인사들을 살해함으로써 공화국의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죄행을 범하였다。

피소자 리승엽의 지도밑에서 활동하던 소외 안 영달은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의 직접 지도밑에 당시 리승만 괴뢰 정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이였던 공동 피소자 백 형복과 결탁하고 공동 피소자 조 용복을 자기들의 간첩 활동에 인입시킨 다음 그의 협력하에 一九五○년 三월 二七일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 리 주하 동지들을 드디여 백 형복에게 체포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리 승엽 도당들은 당 지도 간부들을 체포 학살케 하였으며 또 간교한 정치적·모략으로써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반당적 반인민적 죄행을 거듭 범하여 오는 일방, 자기들의 이렇듯 악독한 범죄 사실을 계속 은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四九년 여름 현 인초 외 二명을 간첩 혐의자라는 명목으로 양양 련락소 지도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총살시켰고 피소자 리 승엽의 직계 부하로 있는 소외 안 영달의 지시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五월부터 동년 八월까지의 사이에 전후 一三차에 걸쳐 변절자 또는 간첩 혐의자의 명목을 붙여 四二명의 애국자들을 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一九四八년 八월 초순경 역시 소외 안 영달의 지시에 의하여 개성 시당 위원장이였던 김 재찬과 동년 一○월 경에는 장풍군당 위원장이였던 서 구돈을 변절자라 하여 학살할 목적으로 체포 감금하였다가 三八 경비대에 발각되여 소기한 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의 테로 학살 행위는 조국해방 전쟁 개시 후 해방된 서울 지구에서 더욱 잔악하고 교활한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一九五○년 六월 二八일 서울 해방 직후 피소자 리 승엽은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인 리 중업을 두목으로 한 테로 학살 단체를 형성하고 동 청사 지하실에 감금하였던 로동당원과 그 밖에 인원 七명을 비밀 보장이라는 구실을 붙여 총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년 七월 초순 자기들의 매국적 범행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과 또 자기들에게 방해되는 자들을 학살할 목적으로 안 영달을 두목으로 하는 살인 단체인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곧 상부로부터 이 단체의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테로 학살 음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도밑에 있는 의용군 본부 내에 소위 특수부를 설치하고 이 단체를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이 두개의 살인 단체에 의하여 로동당원과 민주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였다。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공모자 중에서라도 범죄 비밀이 로출될 위험성이 있기만 하면서슴치 않고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一九五○년 七월 하순경 피소자 리 승엽은 소외 안 영달이가 김 삼룡을 체포하게 하였다는

말이 류포되자 박 헌영과 협의한 후 자기들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안 영달을 전선에 동원되는 림 종환 대렬에 배속시키고 그에게 안 영달을 처단할 과업을 주었다。

리 승엽 도당들은 어와 같이 아무 꺼리낌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피소자 매 철은 一九五二년 一一월경 자기들의 반국가적 활동의 조직자이며 그의 두목인 공동 피소자 리 승엽의 음탕한 생활면이 폭로될 우려가 있다하여 소위 위신 보전이라는 리유로 공동 피소자 맹 종호에게 지시하여 무고한 부녀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획책하였다。

본건 예심과 공판 심리 과정에서 판명된 바와 같이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간첩 행위、민주 력량의 파괴 약화 및 테로 학살 등 반국가적 범죄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오랜 시일을 두고 공화국 주권 전복 음모를 계속하여 왔다。

리 승엽 도당들이 감행한 공화국 주권 전복 음모 활동은 자기 정권 장악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 로동당 부위원장 및 공화국 내각 부수상의 직위에까지 잠입하여 각종 모략을 획책하던 박 헌영에 의하여 비호 보장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박 헌영의 정권 장악의 범죄적 모략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조선에 미제의 괴뢰 정권、즉 지주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려는 범죄적 음모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一九四五년 一二월에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 선전에 호응하여 피소자 조 일명、동 박 승원은 공산당 기관지 해방 일보에 『신탁 통치』 반대의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피소자 림 화、동 리 원조는 三상 회의 결정은 『신탁 통치』 이니 반대하라는 내용의 강연을 조직 출연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쏘 미 공동 위원회가 진행되던 기간인 一九四六년부터 一九四七년 五월까지에 걸쳐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민족 분렬 정책과 밀접한 련계밑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三八선을 계선으로 그를 량단하려는 민족 분렬의 흉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소자 리 강국、동 박 승원、동 리 원조 등은 호상 결탁하고 一九四六년 九월부터 해주 제一 인쇄소를 민족 분렬의 사상을 배양 고취시키는 범죄적 모략의 소굴로 전환시키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미제의 직접 지령밑에 공화국 수립을 계기로 하여 애국자의 탈을 쓰고 당과 정부의 요직에 잠입한 다음 자기들의 정치적 모략 활동의 력량 확장을 위하여 변절자、민족 반역자、간첩 분자 등 반혁명적 분자들 중 자기들에게 가장 충실한 자들을 그들의 불순한 정체를 은폐하여주면서 당과 국가 기관의 높은 직위에 등용하려고 광분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의 정치적 모략 행동은 六·二八후 리 승엽이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됨을 계기로 더욱 로골화되였다。

노불은 一九五〇년 六월 二六일 서울에서 패주하면서 소외 안 영달을 통하여 피소자 리 승엽에게 간첩 활동과 아울러 앞으로 미군이 상륙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미군의 군사작전과 호응하여 인민 봉기를 조직할 것과 인민군 해방 지역에서 관대 정책이라는 구실을 붙여 중간 및 우익 분자들을 보호하였다가 미군이 전공하여 오면 다시 나서도록 봉장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 지시를 접수한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〇년 七월부터 반동 진영의 괴수들과 그의 영향하에 있는 중간 및 우익 분자들을 비호하는 동시에 자기의 주위에 규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한편、서울시와 경기도 내에 자기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앞으로 이곳을 강력한 활동 근거지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당 및 정권 기관의 지도적 직위에 자기의 심복자인 변절자 또는 민족 반역자들을 등용 집결시켰다。 이는 동시에 노불의 지시에 의한 인민 봉기를 조직할 목적에서 감행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一년 八월말 이후 三차에 걸쳐 미군의 추기 공세에 의하여 군사 정세의 돌변과 관련하여 혼란 상태가 조성될 것을 망상하고 이 기회를 리용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켜 공화국 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공동 피소자 배 철、박 승원、림 화 등과 더불어 무장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폭동 부대로서 자기들의 관하에 있던 무장 부대들을 동원시킬 데 대한 결정을 하였다。 수차에 걸친 비밀 회의에서 미군이 진공하여 오면 그의 군사 작전에 호응하여 무장 폭동을 단행할 것과 그를 준비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리 승엽을 총사령으로、피소자 조 일명、동 림 화는 정치 및 선전 선동 조직 책임자로、 피소자 박 승원은 참모장으로、피소자 배 철은 군사 조직 책임자로、 소외 김 응빈은 무장 폭동 지휘 책임자로 각각 선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무장 폭동시에 동원할 력량 집결을 위한 당면 과업을 토의하고 무장 폭동 력량을 예정한 부대들을 폭동시에 기민하게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를 평양 근처에 이동하기로 하고 그의 인원을 확충하여 무장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장 부대의 지도부들을 자기들이 신임할 수 있는 자들로써 교체 편성할 것과 련락부 산하 각 련락소를 강화할 데 대한 책임을 피소자 배 철과 박 승원에게 부과하였다。 그밖에 문예총을 위시한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의 영향하에 있는 불순분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영향을 확대할 것을 피소자 조 일명과 림 화에게 책임지웠다。 그리하여 피소자 리 승엽、동 배 철、동 박 승원들은 무장 부대의 책임적 간부들로 자기들에게 가장 충실한 김 응빈、 맹 종호를 배치하는 동시에 당 중앙 련락부를 무장 부대의 참모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불순한 과거를 가진 자들을 집중시키는 등 무장 부대 조직 강화에 광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一년 一一월 정부로 하여금 해방된 옹진、남연백、개풍、장단 등 지역을 통합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인민 위원회를 창설케 하고 그것이 실현되면 경기도 관내를 자기들의 범죄 음모의 기지로 만들려고 백방으로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피소자 리 승엽은 공동 피소자 배 철、동 박 승원에게 현지 실정 조사 및 간부 선발 준비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동년 一一월 하순에는 피소자 배 철、동 박 승원、동 림 화 등을 꾀여 놓고 어떠한 방법으로써든지 경기도를 자기들이 틀어쥐고 이곳을 반혁명적 범죄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간부 양성 및 력량 배양의 기지로 삼을 것과 자기들의 활동 근거지로 만들 것을 강조하여 그 실현을 촉진시켰다。

피소자 리 승엽은 이와 같은 반당적 반인민적 목적에서 새로 조직할 경기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피소자 박 승원、부위원장으로는 자기 장부 안 기성、서기장에는 정 용구 등을 비롯한 자기의 심복자들을 배치하려고까지 획책하였다。 그후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二년 二월 남연백에 주둔하고 있는 유격대를 이미 파탄된 경기도 인민 위원회 창설 음모에서 예견하였던 범죄적 력량 확보의 지점으로 만들려고 기도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은 공동 피소자 배 철、동 박 승원 등과 같이 무장 부대의 급속한 강화를 위하여 활동한 결과 一九五二년 一一월까지에는 유격대에 총 三、九〇〇여명을 집결시켰다。 피소자 리 승엽은 자기 음모 활동의『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자기의 심복인 공동 피소자 맹 종호를 유격대 제一〇지대장으로 임명하고 유 원식을 동 정치부 지대장으로 파견하고 대원들에게 언제든지 자기의 범죄적 명령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며 당과 정부를 배반하는 사상으로써 교양할 것을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소자 리 승엽은 一九五二년 三월부터 一九五三년 一월까지 전후 四차에 걸쳐 유격대 一〇지대를 직접 검열하고 자

기들의 범죄적 음모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대장인 맹 종호를 고무 격려하는 한편 대원들에게 소위 『애향 사상』에서 발휘한 용감성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들을 고무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동 배 철, 동 박 승원은 유격대 제一〇지대의 조직과 관련하여 一九五二년 三월에는 홍 철기 부대를 역시 자기들의 무장 폭동 음모에 동원시킬 목적으로 평양 부근 중화 지방에 이전시키고 그의 무장력 확충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공화국 주권을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무장 폭동 음모에 광분한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一九五二년 三월경부터 공작상 필요를 구실로 각 련락소들의 무장 성원을 증강하고 그 기구를 확장 또는 신설하였다. 피소자 리 승엽 매국 도당들은 무장 폭동으로 공화국 주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장력을 조직 정비하는 동시에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 내에서 자기들의 영향하에 들 수 있는 자들을 흡수하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략 활동을 피소자 조 일명, 동 림 화, 동 리 원조 등에 의하여 문화 선전성, 문예총, 조쏘 문화 협회, 직업 총동맹 내에서도 진행시켰다.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은 이렇게 무장 폭동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모략 활동을 적극 추진시키는 일방 一九五二년 九월 초순 경에는 박 헌영의 집 응접실에서 피소자 리 승엽을 위시하여 배 철, 조 일명, 림 화, 박 승원, 윤 순달 등이 모여 자기들이 앞으로 수립하려는 소위 『새 당』과 『신 정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회합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신 정부의 『수상』으로 박 헌영, 『부수상』으로 주 녕하, 장 시우, 『내무상』으로 박 승원, 『외무상』으로 리 강국, 『무력상』으로 김 응빈, 『선전상』으로 조 일명, 『교육상』으로 림 화, 『로동상』으로 배 철, 『상업상』으로 윤순달 그리고 『새 당』의 제一비서로 리 승엽이 각각 결정되였다. 이상에서 판명된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이 감행한 일련의 반인민적, 반당적, 반국가적 매국 범죄 활동은 그것이 곧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를 협조할 것이고 특히 본건 반역 도당들의 극악한 범죄 활동은 조선 인민이 미제 무력 침공자를 반대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여 싸우고 있을 때 원쑤들을 도와서 감행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극악한 범죄임을 확인하면서 당 재판소는 피소자 각 개인에 대한 죄상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一、피소자 리 승엽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 비서 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위원장

그는 一九三四년 부산 형무소에서 공산주의 실천 활동을 포기할 것을 서약하였고 一九四〇년 일제 경찰에게 사상 전향을 한 자로서 八·一五 해방 후 자기의 불순한 과거를 은폐하고 당 및 정부의 요직에 잠입하여 반국가적 범죄를 감행하였다.

ㄱ、一九四六년 二월 서울에서 미군 정탐 기관에 가담한 후 공동 피소자 조 일명과 같이 간첩 행위를 하였으며 입북 후에는 역시 공동 피소자 조 일명과 같이 一九四八년 八월에 공동 피소자 박 승원을, 그후 一九五一년 七월경에 이르기까지 미군 정탐 기관의 간첩 분자인 공동 피소자 림 화, 조 용복, 백 형복, 리 강국과 소외 안 영달 등을 자기의 간첩 활동에 각각 련결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당 및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 걸친 중요 비밀 재료들을 전후 一八차에 절쳐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소외 안 영달, 공동 피소자 조 용복 등과 결탁하여 남조선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시키는 모략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으며 또 一九五〇년 三월 二七일에는 이들로 하여금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을 리승만 괴뢰 경찰이였던 공동 피소자 백 형복에게 밀고하여 체포케 하였다.

ㄴ、공화국에 대한 간첩 행위 및 민주 력량을 파괴 약화하는 음모 책동과 관련하여 자기들의

반국가적 활동에 방해되는 일꾼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범한 반국가적 죄상을 알고 있는 자들을 테로, 학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一九四八년부터 소외 안 영달, 공동 피소자 맹 종호 그 밖에 자기들의 심복들에게 지시하여 당 간부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테로, 학살하였고 六·二八 이후 서울에 가서는 보다 더 대중적 학살을 목적하고 살인 단체인 소위 토지 조사 위원회 등을 조직 지도하였다.

ㄷ、八·一五 해방 직후부터 미국 정탐 기관의 직접 조종하에 공동 피소자 리 강국, 동 조 일명, 동 박 승원 등과 같이 인민들을 당과 정부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을 분렬시킬 데 대한 획책을 하였으며 또한 변절자, 반역자 등 불순 분자들을 당과 국가 기관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여 자기들의 영향을 확장하여 가지고 갖은 정치적 모략 활동을 조직 지도하였다. 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소외 안 영달을 통하여 인민군 후방에서 인민 봉기를 조직할 데 대한 노불의 지령을 받고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공동 피소자 배 철, 동 박 승원, 동 조 일명, 동 림 화 등과 결탁하여 무장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무장 부대와 력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괴수로서 활동하여 왔다.

二、 피소자 조 일명 문화 선전성 전 부상、 그는 一九三四년 혁명 운동을 포기하고 변절한 후 서울 『대화숙』에서 일본어 강사로 소위 내선 일체의 사상을 제창하여 오던 조선 인면의 반역자로서

ㄱ、八·一五 해방 후 一九四六년 二월부터 미군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가담하여 一九四六년 三월부터 一九四七년 九월까지의 사이에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같이 당 내부 정형을 비롯한 비밀 정보를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 一九四八년 八월부터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같이 공동 피소자 박 승원, 동 림 화 등을 자기들의 간첩망에 인입하였으며 그들과 같이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의 각 분야에 걸친 비밀 재료들을 수집하여 계통적으로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

ㄴ、一九五〇년 七월에는 서울에서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공모하고 자기들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방해되는 일꾼들과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살해를 목적하고 의용군 본부 내에 『특수부』를 조직하였으며 거기서의 범행을 지도하였다.

ㄷ、리 승엽 도당들의 정치적 모략 활동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력량 확장과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여 왔으며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부터는 리 승엽 도당들의 무장 폭동 음모 활동에 가담하여 그의 무장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폭동시 정치 및 선전 선동 조직 책임을 담당하는 한편 그의 력량 확대를 위하여 문화 선전성 내에 불순 분자들을 인입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또 공동 피소자 리 원조로 하여금 문예총 내에서 불순 분자들을 집결하도록 사수하였다.

三、 피소자 림 화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전 부위원장

그는 一九三五년 일제 경찰과 야합하여 『카프』를 해체하였으며 친일 『문인 보국회』 리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소위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등 민족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왔으며 八·一五 해방 후는 미국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가담하여 리 승엽 도당들과의 련계 밑에 간첩 행위를 감행하였는바

ㄱ、一九四五년 一二월부터 미군 정탐 기관 또는 남조선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이였던 공동 피소자 설 정식 등과 련계를 맺고 당 및 문화 단체의 중요 비밀을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八년 一一월부터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간첩 활동에 대한 련계를 맺고 공동 피소자 조 일명, 동 박

승원, 동 리 강국 등과 결탁하여 전후 一〇차에 걸쳐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의 각 분야의 정보 재료를 미군 정탐 기관에 련락 제공하였고 六·二八 이후에는 서울에서 공동 피소자 리 승엽의 지시에 의하여 정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ㄴ, 리 승엽의 정치적 모략 활동에 가담하여 공동 피소자 조 일명, 동 박 승원, 동 리 원조 등과 같이 변절자 기타 불순 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일방 당과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였으며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에는 리 승엽 등의 무장 폭동 음모 활동에 참가하여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공동 피소자 조 일명과 같이 정치 및 선전 선동 책임을 담당하고 그의 력량 집결을 위하여 문화 예술 단체를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려고 활동하였다。

四, 피소자 박 승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

그는 一九三五년 변절하고 일제의 밀정으로서 혁명 활동가들을 밀고하여 오는 한편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 신보』 기자로 종사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한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오던 자로서

ㄱ, 一九四八년 八월부터 리 승엽의 간첩망에 가담하고 그의 지도밑에 一九四九년 一〇월까지 림 화, 조 일명 등과 결탁하여 계속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의 각 분야에 대한 비밀 재료들을 소위의 안 영달을 통하여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다。

ㄴ, 리 승엽 도당들과 같이 결탁하여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조성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자기들의 반국가적 력량 강화를 위하여 민족 반역자 및 불순 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모략을 감행하여 왔으며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부터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 도당들과 같이 공화국 주권의 전복을 목적하는 무장 폭동 지휘부를 조직하고 그의 참모장의 책임을 담당한 후 공동 피소자 배 철과 같이 력량 확대와 무장 부대 강화 등 폭동 준비 활동을 감행하였다。

五, 피소자 리 강국 전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 무역성 조선 일반 제품 수입 상사 사장, 그는 一九三五년 백림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도중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정탐 기관과 간첩 련계를 가질 것을 약속한 자로서

ㄱ, 一九四六년 九월 서울에서 미군 정탐 기관의 간첩으로 가담한 후 一九四七년 二월부터 북조선 인민 위원회 외무국장의 직위에 잠입하여 一九四八년 八월까지 전후 五차에 걸쳐 북조선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의 각 분야에 관한 중요 비밀을 수집하여 미군 정탐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 발발 후인 一九五〇년 七월에는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 분자 현 앨리스와 리 월리암에게 공화국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여 제공할 데 대한 토의를 하였다。 一九五一년 七월부터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의 통솔하에 있는 간첩망과 련계를 맺고 一九五二년 一〇월까지 전후 四차에 걸쳐 공화국의 군사 정치적 비밀을 수집 제공하였다。

ㄴ, 조선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행하려는 목적에서 미국 정탐 기관의 지령하에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 결탁하고 조선 인민의 통일을 방해하며 민족 분렬을 기도한 정치적 모략 활동을 계속 감행하여 왔다。

六、피소자 배 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장、그는 一九五一년 八월 하순부터 공동 피소자 리 승엽、동 박 승원、동 조 일명、동 림 화 등과 같이 공화국 주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지휘부를 형성하고 그의 군사 조직 책임을 담당한 후 공동 피소자 박 승원과 같이 그를 실현하기 위한 무장 부대의 강화를 실행하였고 一九五二년 九월 소위『신 정부』를 구성하는 회합에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며 조국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온갖 정치적 모략 행위를 감행하였다。 一九五二년 一一월에는 리 승엽의 정체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공동 피소자 맹 종호에게 무고한 부녀자들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같은 달 공동 피소자 윤 순달에게 무고한 인민 三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七、피소자 윤 순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련락부 전 부부장、그는 一九五二년 六월부터 피소자 리 승엽 등의 공화국 주권 전복을 목적한 무장 폭동 음모 활동에 참가하여 그의 무장 부대의 조직 강화 및 력량 확대를 위한 활동과 반국가적 정치적 모략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一九五二년 九월 박 헌영을 중심한 소위『신 정부』를 구성하는 회합에 참가하였다。 一九五二년 一一월에는 공동 피소자 배 철과의 토의밑에 무고한 인민 三명을 살해케 하였다。

八、피소자 리 원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전 부부장、그는 一九三五년부터 八・一五 해방 직전까지 일제의 어용 신문인『조선 일보』기자 또는 서울『대동 출판사』부주필로 있으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八・一五 해방 후는 당에 잠입하여 一九四五년 一二월부터 공동 피소자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에 참가하여 공동 피소자 림 화、동 조 일명、동 박 승원 등과 같이 민족 분렬을 조성키 위한 모략 활동을 하는 한편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치적 모략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一九五一년 六월부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공동 피소자 림 화、동 조 일명 등과 결탁하여 당과 공화국 주권을 파괴 전복하려는 목적에서 문예층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범죄적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

九、피소자 백 형복 리 승만 괴뢰 정부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중앙 분실장、그는 八・一五 해방 전부터 일제 경찰의 순사부장 또는 고등계 형사로 있으면서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을 박해 탄압하여 온 자로서 八・一五 해방후 리 승만 괴뢰 경찰에 가담하여 전라북도 및 강원도 경찰국 사찰과장으로 있으면서 조선 로동당 전라북도 당 위원장 황 의태를 비롯하여 당 지도 간부들과 애국자 二〇〇여명을 체포 학살하는 데 있어서 이를 직접 조직 지도하여 전라북도 및 강원도 당부를 파괴하였다。 一九五〇년 一월부터 미군 고용 간첩 안 영달과의 련계밑에 공동 피소자 조 용복을 반역적 간첩 행위에 인입하고 동년 三월 二七일에는 그들의 방조밑에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 및 리 주하 동지들을 체포하였다。 미 극동 사령부 항공 정보관 니콜스와 결탁하여 一九五〇년 二월부터 동년 四월까지의 사이에 전후 三차에 걸쳐 공동 피소자 조 용복을 공화국 북반부에 침입시켜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의 련계밑에 공화국의 군사 및 당내 기밀을 제공받아 미국 정탐 기관에 주었고 一九五〇년 五월 八일에는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의 련계 밑에 간첩 활동을 할 데 대한 미군 정탐 기관의 지령을 직접 받고 안 영달、조 용복 등과 같이 의거 입북으로 가장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一〇、피소자 조 용복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검열 위원회 전 상급 검열원、그는 一九三二년 六월 일본에서 공청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여 투항하고 조선에 귀국하여 일제의 신문 기자 또는 개인 기업을 경영하여 오던 자로서 一九五〇년 一월 변절하고 리 승만 괴뢰 경찰인 공동 피소자 백 형복의 밀정으로 가담한 다음 그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 로동당 정치 위원인 김 삼룡 동지와 리 주하 동지들을 체포함에 방조하였다。

그후 一九五〇년 四월까지의 사이에 전후 三차에 걸쳐 전시 백 형복으로부터 간첩 임무를 받고 입북하여 공동 피소자 리 승엽에게서 당 활동 및 군사 정보와 함께 자기와 안 영달이 김 삼룡、리 주하 체포에 관계한 범행을 음페하는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과업을 받아 가지고 공동 피소자 백 형복에게 전달하였으며 一九五〇년 五월 초순에는 미군 정탐 거관의 지령에 의하여 공동 피소자 리 승엽과의 련계밑에 간첩 활동을 감행할 목적으로 소외 안 영달 및 공동 피소자 백 형복 등과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하였다。

一一、피소자 맹 종호 전 조선 인민유격대 독립 제一〇지대 지대장、그는 一九三四년 혁명적 단체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감옥에서 출옥한 후 변절하고

ㄱ、一九三九년 二월부터 일제 경찰 고등계 형사와 결탁하여 일제의 직업적 밀정으로 종사하면서 허 헌 및 정 창섭 등을 비롯한 많은 혁명 투사들을 밀고하여 박해를 당하게 하였고

ㄴ、一九四七년 말 미 군정청 경무부장 조 병옥의 비서 고 학래로부터 간첩 지령을 받고 입북 잠입하여 있으면서 一九四八년 여름까지의 사이에 전후 二차에 걸쳐 정치、군사、경제에 관한 정보와 一九四八년 四월에 개최되였던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에 참가한 남반부 대표자들의 명단을 전시 고 학래에게 제공하였다。

ㄷ、一九四七년 五월부터 피소자 리 승엽 등의 반국가적 음모 활동에 가담하여 온갖 불순분자들을 자기들의 주위에 집결시키며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리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모략 행위를 계속 감행하여 왔으며 一九五二년 二월부터는 유격 제一〇지대장으로 잠입하여 있으면서 공동 피소자 리 승엽 등의 공화국 주권 전복 음모에 가담하여 무장 부대를 조직 강화하는 반국가적 범죄 활동을 감행하여 왔다。

ㄹ、一九五〇년 七월 초순 경에는 서울에서 소외 리 중업 등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음페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들에게 대치되는 세력과 자기들의 범죄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서울시 림시 인민 위원회 지하실에 七〇여명의 당 일꾼과 인민들을 감금하고 잔악한 고문을 가하던 중 내무 기관의 단속에 의하여 소기한바 학살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중 七명만을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하여 학살하였다。

一二、피소자 설 정식 전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 그리고 체포 전에는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부 정치 총국 제七부 부원、그는 八·一五 해방 전 미국인의 장학금에 의하여 미국 마운트 유니온 대학과 콜럼비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八·一五 해방 후에는 一九四五년 一一월부터 미 군정청 공보처 여론국장으로 있으면서 남로당과 민주 진영을 파괴 탄압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였으며 동년 一二월에는 미 군정청 공보처 소속 미군 장교 로빈손과 결탁하고 당시 남조선 문화 단체와 당 내부의 비밀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에게 제공하였으며 一九四六년 九월 공동 피소자 림 화의 보증으로 자기의 정체를 음페하고 당에 잠입하였으나 一九四九년 一二월에 변절하여 사상 전향 기관인『보도 련맹』에 가담하고 괴뢰 경찰과 결탁하여 당과 공화국 정부와 민주 진영을 반대

비방하는 반동적 문학 작품을 창작 발표하는 등 반역 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이상 사실은 증인 전 영애、 윤 대현、 차 야도의 증언과 피소자들의 호상 부합되는 진술에 의하여 확증된다。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 동 림 화、 동 박 승원、 동 리 원조、 동 맹 종호 등이 공화국의 주권을 파괴 전복할 목적으로 지도부를 조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활동한 행위는 각각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 동 림 화、 동 박 승원、 동 리 강국、 동 조 용복、 동 맹 종호 등이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 걸친 비밀 재료를 원쑤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각각 형법 제六八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 동 림 화、 동 박 승원、 동 리 강국、 동 배 철、 동 윤 순달、 동 리 원조、 동 맹 종호 등이 정치적 모략으로써 반국가적 선전 선동을 감행하여 당과 정부의 주위로부터 인민들을 리탈시키며 민족 분렬을 기도한 행위는 각각 형법 제七六조의 범죄를 구성하며 피소자 리 승엽、 동 조 일명、 동 맹 종호 등이 자기들의 범죄적 활동을 음폐하기 위하여 테로 행위를 감행한 행위는 각각 형법 제七二조에 해당한 범죄를 구성하며 피소자 백 형복、 동 설 정식 등이 미군정청의 책임적 지위 또는 리 승만 괴뢰 경찰의 요직에 있으면서 인민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한 반역적 행위는 각각 형법 제七九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피소자 백 형복이 미군 정탐 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안 영달、 조 용복 등과 련계밀에 공화국의 군사、 정치、 경제에 관한 비밀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형법 제七一조에 해당한 범죄를 구성하며 피소자 배 철、 동 윤 순달 등이 자기들의 범죄를 음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각각 형법 제一一二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당 재판소는 형사 소송법 제二二三조、 동 제二二八조 一호、 동 제二三七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소자 리 승엽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二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한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조 일명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二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림 화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박 승원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리 강국에 대하여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배 철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一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一항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윤 순달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二항에 의하여 징역 一五년, 형법 제七六조 一항에 의하여 징역 一五년, 형법 제一一二조에 의하여 징역 一五년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七六조 一항의 징역 一五년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리 원조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형법 제六五조 二항에 의하여 징역 一二년, 형법 제七六조 一항에 의하여 징역 一二년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七六조 一항의 징역 一二년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백 형복에 대하여 형법 제七九조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一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七九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조 용복에 대하여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맹 종호에 대하여 형법 제七八조 및 제六五조 二항에 의하여 징역 二〇년, 형법 제七六조 二항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七二조에 의하여 사형, 형법 제六八조에 의하여 사형을 각각 량정하고 형법 제五〇조 一항에 의하여 형법 제六八조의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설 정식에 대하여 형법 제七九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한다。 그에게 속하는 전부의 재산을 몰수한다。

피소자 윤 순달의 징역형은 그를 구류한 一九五三년 三월 一六일부터, 피소자 리 원조의 징역형은 그를 구류한 一九五三년 四월 一二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본건에 첨부된 증거물증 제一호는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군사 재판부
재판장 소장 김 익 선
판사 박 룡 숙
판사 박 경 호

一九五六년 四월 八일 인쇄회부
一九五六년 六월 一〇일 발행

〔값 九二 원〕

편 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평양시

발행소 국립 출판사

인쇄소 문화선전성 중앙 인쇄 공장

7—10156 10,000부 발행